

분단 70년 북한 고고학의 현주소

일시

2019.09.19.(목)

장소

국립고궁박물관 별관 강당

공동주최

국립문화재연구소·한국고고학회



국립문화재연구소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The Korean Archaeological Society
한국고고학회

분단 70년
북한 고고학의 현주소

일 러 두 기

1. 이 책자는 국립문화재연구소와 한국고고학회가 2018년에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실시된 "분단 70년 북한 고고학의 현주소" 학술대회 발표자료집입니다.
2. 원고에는 원문의 표기를 그대로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책의 객관성과 서술의 통일성을 위해 일부 용어를 수정하거나 첨삭 혹은 가필한 부분이 있습니다.
3. 이 책자에 수록된 원고 일체는 학술연구자의 입장에서 작성한 것으로 국립문화재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표지사진: 앞면(개성 고려궁성/©국립문화재연구소), 뒷면(평양 전(傳)동명왕릉/©최종택)

목 차

- 01 ... 북한 구석기 연구의 안과 밖 1**
발표 : 이 형 우 (전북대학교)
- 02 ... 신석기시대 농경과 문명의 기원 29**
발표 : 소 상 영 (충청문화재연구원)
- 03 ... 북한 청동기시대 고고학 연구 경향의 변화와 쟁점 41**
발표 : 이 기 성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04 ... 북한 학계의 고조선 및 낙랑 고고학 연구동향 63**
발표 : 박 장 호 (영남대학교)
- 05 ... 북한의 고구려, 발해 고고학 연구 성과와 과제 83**
발표 : 강 현 숙 (동국대학교)
- 06 ... 북한 학계의 백제 역사인식 111**
발표 : 이 성 준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 07 ... 북한의 신라·가야, 통일신라 고고학 연구현황 129**
발표 : 윤 상 덕 (국립중앙박물관)
- 08 ... 북한의 중세 고고학 발굴 현황과 연구 성과 153**
발표 : 홍 영 의 (국민대학교)

“분단 70년 북한 고고학의 현주소” 학술대회를 개최하며

국립문화재연구소와 한국고고학회는 분단으로 단절된 이후 진행되어 온 북한 고고학의 연구현황을 시대별 그리고 주제별로 검토하고, 남북한 공동연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분단 70년 북한 고고학의 현주소』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연구소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개성 고려 궁성(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접근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북한의 고고학적 연구동향 등을 국민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도서를 꾸준히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구석기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북한에서 이루어진 고고학적 연구 성과를 한자리에서 검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1990년대 “대동강문화론”이 등장하면서 제기된 북한의 시대구분 문제, 그리고 2007년부터 추진되어온 개성 만월대 발굴조사 현황 등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도 북한의 고고학적 연구방법과 연구경향 등을 폭넓게 살펴볼 수 있도록 관련 조사와 연구를 계속 수행할 것이며, 이와 관련한 성과 등은 국내의 유관기관과의 협업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2019년 9월

국립문화재연구소장 최종덕

한국 고고학은 고대 한민족의 공간적 범위인 한반도는 물론 중국동북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럼에도 남북한간에 교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들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고고학의 틀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고고학의 기본 틀과 관점이 남한이라는 공간을 벗어나지 못하는 분위기가 우리 고고학계에 확인됩니다. 북한 고고학계 또한 수십년 동안 엄청나게 늘어난 남한의 조사성과를 수용하지 못한 연구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한국고고학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남북한 고고학계의 상호 교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터에 북한고고학의 조사연구성과를 총체적으로 살펴보는 금번 학술발표회는 큰 학사적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북한측에 남북한간의 교류에 적극 나서기를 고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남북한 도로와 철도 연결 공사구간의 매장문화재에 대한 학술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북 관계당국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9월

한국고고학회 회장 이청규

북한 구석기 연구의 안과 밖

이 형 우

(전북대학교)

- I. 서론: 우리가 보는 북한 구석기
- II. 인용으로 본 구석기시대 저술의 제약성
- III. 북한의 구석기 인식: 구석기 없는 시기의 구석기 인식
- IV. 구석기시대 개념들: 시도와 초안 그리고 사용
- V. '피줄'로서 구석기시대
- VI. 결론

북한 구석기 연구의 안과 밖

이 형 우 (전북대학교)

I. 서론: 우리가 보는 북한 구석기

북한 구석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한두 번쯤 북한의 유적 지명을 교과서나 미디어를 통해 접한다. 동·서 간, 미·소 간, 남·북간의 엄중한 냉전 시절에도 북한 유적지는 남한에 꾸준히 소개되었다. 겉으로 본다면 북한의 구석기는 부분적으로 익숙한 존재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안으로 들어가면 전혀 다르다. 북한 구석기 연구의 문을 여는 순간 그 다름의 정도와 접근의 한계에 바로 부딪친다.

북한의 유적은 남한 구석기 연구자들에게 1970년대부터 소개된다. 북한의 구석기 연구의 결과는 짝막하나마 항상 한국의 구석기를 소개할 때마다 서두를 장식 한다. 개인적 연구 결과로서만이 아니고(손보기 1972) 어쩌면 국가의 공식적인 연구결과라고 할 수 있는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국사편찬위원회 1981) 『한국사론』(국사편찬위원회 1983)에서도 다루어진다. 1980년 말 그리고 1990년대에 와서 달라진 정치·사회적 토양에서 북한 구석기 자료를 적극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북한의 선사고고학』(한창균 1992)이라는 주제로 그간 북한 구석기 자료가 출간될 수 있었던 것도 남한의 '87체제' 이후 달라진 정치·사회 지평에 의해서 이다. 북한 측 자료 인용이 보다 유연해지면서 관련 연구가 본격화 되어졌다. 대표적으로 고고학사로서 구석기 부분(이선복 1992), 구석기 시대사 연구(한창균 1999a, 1999b)가 있었다. 또한 구석기는 아니지만 구석기 연구에 중요 인물 중심의 연구(이광린 1990), 그리고 고환경 연구(한창균 1990)와 유적 검토(한창균 1997) 등을 들 수 있다.

1990년대 북한 구석기의 호기심은 2000년대 와서 활성화로 연결된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러나 일부 연구자를 중심으로 꾸준한 연구 성과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다. 구석기 연구만이 아니고 연접된 시기와의 연구(한창균 2000), 남한과 차별화되어 많이 출토되는 고인류 화석 수치 검토(박선주 2005)가 있었다. 특정 시기 특정 인물들의 미시적 연구를 통해서 당시 구석기 연구의 면모를 볼 수 있는 연구(한창균 2013; Lee 2013)가 이루어졌다. 또한 구석기를 포함한 시간적으로 북한의 선사 시대사의 조망이 있었다(이기성 2015). 남한에 기반을 두지 않지만 직·간접적인 연관성을 가진 학자들의 연구로서 구석기 시대 화석의 소개와 분석(Norton 2000; Bae and Guyomarc'h 2015) 사례가 있었다.

2000년대 이후 남한에서 북한의 구석기 연구는 일정한 연구 집단이 형성되고 동일한 관심을 가지고 꾸준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공감대를 형성한 연구라기보다는 개개인의 관심에 의한 연구가

단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 구석기의 관심이 적은 이유는 아마도 북한에서 발간되는 구석기 자료를 포함한 고고 자료의 질과 양의 문제와도 연관이 있다고 본다. 현재 남한에서 북한 구석기의 연구는 북한의 1차 연구(구석기 유적과 유물의 발굴과 보고 그리고 해석)를 가공하는 위치에 있다. 따라서 1차 연구의 한계는 당연히 2차 연구의 부재나 희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거의 모든 북한의 유적지와 유물에 대한 이해는 북한에서 생산되고 공개된 학술지와 저서를 통해서 접하고 있다. 즉, 어떠한 토론이나 의견교환을 통한 연구로서 남한에서 소화된 것은 아니다. 이 글을 쓰는 필자 역시 북한 구석기 고고학 자료는 북한 학자가 생산한 1차 연구에 의존한다. 2000년대 이후 구석기 연구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 원인은 여러 방향에서 생각할 수 있지만 그중 하나는 북한 자료의 한계성에서 찾을 수 있다.

북한 자료를 살펴보면, 연구결과를 어느 정도의 선에서 사실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해당 연구결과의 충분한 보충적인 자료가 있는지, 갑자기 변경된(또는 다른 주장)이 왜 대두되는지 등의 의문점을 가지게 될 것이다. 즉, 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을 가지게 된다. 자료의 절대 양의 부족에 더해서 자료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은 북한의 구석기를 연구를 남한에서 담보상태로 만든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자료의 희박함과 신뢰성의 문제를 고려함에 있어서 우리가 사실 간과하는 있는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의 구석기와 북한이 생각하는 북한의 구석기의 차이이다. 어쩌면 우리의 학문기준으로 즉, 우리의 학문생산양식을 기준으로 북한의 구석기를 바라보는 것이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북한의 구석기는 우리와 다르다’를 보다 의미 있게 들여다 보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본다. 다름의 확인도 중요하지만 다름의 이유를 아는 작업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구석기 연구 그 자체 보다는 구석기 연구를 둘러싼 이면의 조망이 요구된다.

우리 기준의 학술지의 성격은 어쩌면 북한의 현재가 아니고 1950-60년대에서 느낄 수 있다. 논쟁과 다양성의 존재 그리고 완성 보다는 모색의 시도등이 당시에는 느껴진다. 초기 학술지가 우리의 기준의 학문의 장이었다면 현재의 학술지는 공보(公報)의 성격을 띄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현재의 북한의 학술지와 남한의 학술지를 일대 일로 비교함은 당연히 무리가 있다. 만약 대등한 비교를 한다면 우리의 학술지와 북한 학자의 서랍에 있는 자신의 생각을 담은 논문과의 비교를 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비교의 무리가 있으니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지 않다. 다만 지난 70여 년간의 단절의 결과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었는지를 조감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북한의 고고학 자료만큼이나 정치적 상황에 따른 구석기 연구의 변화과정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남과 북의 차이성의 인식은 북한 자료를 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여 줄 수 있다. 후술 할 구석기 시대 각각의 연구 단위인 사회진화, 석기유물조합, 인류진화, 지질환경이 어떠한 내용으로 이루어 졌고 이들의 조합이 어떠한 형태로서 구성되는지는 그 차이성의 인식에서 좀더 명확해 진다고 본다.

II. 인용으로 본 구석기시대 저술의 제약성

북한의 구석기 연구가 북한의 정치적 일정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지는 사실 판단이 어렵다. 남한이 연구자 읽는 북한의 구석기 관련 인쇄물은 기본적으로 관련 기관으로서 검증을 받은 공보이자 동시에 집체적 연구의 결과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정치와 구석기 고고학이 연관성을 쉽게 짐작하기 어렵다. 다만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개찬(改竄)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이다.

북한 정부 공식문서의 개찬 사례는 상당히 많다. 당대회, 중앙위원회 등의 공식문서는 현실을 정당화하려는 목적으로(서동만 2005: 31) 텍스트의 새로 쓰기가 흔히 이루어진다.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개찬의 정도가 심한 문건일 수록 정치와의 밀접도를 가늠케 하는데 도움을 준다. 개찬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특정 인물이 변경되는 경우다. 북한 정권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도서인 『항일 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은 1932년부터 1945년 기간 동안의 항일운동을 다룬 글이다. 북한에서 이 회상기는 매우 넓은 독자층을 가진다. 1959년 발간된 이래로 주민들의 주요 교양교육자료로 활용되고 있다(조은희 2012: 118). 1959-67년까지 발간된 ‘회상기’는 1968년 다시 재판이 되는데 재판된 책에서는 1960년대 숙청된 인물들은 초판과는 달리 삭제가 되었다(이종석 2000: 53).

여기서 1968년의 의미를 한번 살필 필요가 있다. 고고학 학술지로만 보아도 1968년의 북한 사회의 변화상을 단적으로 살펴진다. 주지하는 바, 북한의 주요 고고학 학술지는 1950년대부터 발간되었다. 대표적으로 『력사학제문제』, 『문화유산』, 『문화유물』, 『고고민속』, 『조선고고연구』이고 또한 『력사과학』을 통해서도 많은 고고학 관련 논문이 발간된다. 시기별로 본다면 한국전쟁이전까지 『역사학제문제』(1948-50), 『문화유물』(1949-50)이 발간되었고 한국전쟁 이후 『문화유산』(1957-1962), 『고고민속』이 1963년부터 1967년까지 발간을 하게 된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19). 그러나 1968년 이후 『고고민속』은 종간을 하게 된다. 1986년 『조선고고연구』의 창간까지 1968년에서 1985년까지 학술지를 대신한 것은 부정기적으로 발행된 『유적발굴보고』와 『고고민속 논문집』이다.

학술지 대정간은 비단 고고학 학술지뿐 아니라 북한 학계 전반에 걸친 대변혁이었다. 『철학연구』도 『고고민속』과 마찬가지로 정확히 1967년을 끝으로 1968부터는 정간된다. 이후 『조선고고연구』의 창간 동일 년도인 1986년 복간된다(전미영 2008). 『력사과학』도 동년 1968년 정간되어 1976년까지 유지된다.

고고학 학술지의 정간은 좀 더 크게는 북한 학계 전체의 문제이고 더 크게는 북한의 지식인 전체 사상 검열의 일환이었다, 이른바 ‘도서정리사업’으로 알려진 지식인 사상 검열 사업은 일시적인 사안이 아니고 1970년대 중반까지 지속이 되었다(오경숙 2004), 그리고 학술지의 정리는 당연히 포함되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이토록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북한에서 법률만큼 아니 그 이상의 규범력을 가진 교시와 관련되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이는 5.25 교시와 관련이 있다. 1967년 ‘당면한 당선전사업방향에 대하여’라는 김일성의 교시가 5.25 교시로 파악된다(전미영 2011). 이 교시 이후 낡은 지식인 제거 라는 측면에서 전국의 기관은 물론이고 개인 가정의 도서 역시 검열의 대상이 되었다. 검열 대상은 내용의 문제뿐 아니라 어투 및 불순한 인물의 인명도 대상이 되었다(오경숙 2004: 335).

1967년 이후 이러한 변화에 따른 과거의 문헌에 대한 조사와 수정 및 조치와 관련해서 다양한 행위가 있었을 것이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 모든 부분을 알 수는 없다. 그러나 학술지 정간이라는 표면적 모습 이외에 관찰 가능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작업이 요구된다. 관련해서 개찬의 가능성도 살필 필요가 있다.

우선 개찬이 북한의 구석기 관련 논문에 과연 존재하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개찬이 심한 경우는 당연히 북한의 단일 또는 유일지도체제의 정당성 유지와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해당 텍스트는 이에 체제 정당성에 영향을 받는 독자가 많을수록 더 심할 것이다. 그런데 북한의 구석기 관련 학술지는 이러한 개찬이 어느 정도 일까? 우선 이를 알기 위해선 학술지의 재발행 여부와 이와 함께 원발행과 재발행 사이의 개찬된 여부를 찾아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고고민속』 『문화유산』과 같은 경우, 입수의 경위가 명확치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에서 현재 유통되는 많은 영인본의 경우는 개인 소장 또는 일본을 통한 논문이나 저서의 영인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필자의 조사가 부족할 수 있지만 남한에서 유통되는 상당수의 영인본에서는 개찬의 흔적은 관찰되지 않는다. 가령 한홍수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를 들 수 있다. 조선의 구석기시대의 존재와 관련된 논쟁의 시작을 알린 학자들 중의 한명인 한홍수는 도유호와 비교한다면 마르크스-레닌주의적 고고학을 북한에 이식하는데 노력을 한 학자라고 볼 수 있다. 현재의 기준으로 본다면 마르크스-레닌주의적 고고학이라고 보기보다는 소비에트 고고학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역사발전의 법칙을 찾으려 하고 문화권보다는 사회구조 그리고 단선적 사회경제의 변화를 고고학적 자료에 대응(브루스·성춘택역 2010)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아서 그러한 면이 강하다.

오히려 경쟁 학자인 도유호 보다 더 부르주아 고고학과 멀리 있으려 하였던 그는 1952년 3월을 마지막으로(한창균 2013) 공식적인 행보는 관찰되지 않는다. 그러다가 1959년 『문화유산』 4호에 립화, 리태준 그리고 김남천과 함께 숙청을 암시하는 공개적인 비판 내용이 실리게 된다(편집부 1959: 4)¹⁾. 그러나 그의 이전 글이 최소한 북한에서 출판된 학술지에서 삭제되었다는 증거는 찾기가 힘들다. 현재 남한에서 접근 가능한 북한의 출판물을 보면 한홍수의 글(한홍수 1948, 1949, 1950b, 1950a)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남한에서 유통되는 북한의 고고학 관련 자료와 북한에서 북한의 학자가 접하는 고고학 자료가 과연 동일한지 아닌지를 사실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개찬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남한에서 유통되는 자료만 보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럼 개찬의 증거가 없으니 북한의 구석기 고고학을 비롯한 고고학의 정치적인 영향을 덜 받는다고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한 의구심을 가진다. 우선 1950년 그리고 1960

1) 한홍수의 숙청 시점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가 없다. 그러나 한홍수와 연관된 인물들의 정황자료로서 파악이 가능하다. 문화유산에 실린 자료로 본다면 ‘부르조아 반동 문학 체계를 수립하려고 시도한’(편집부 1959: 4) 문구와 함께 한홍수 이름이 거명된다. 추정컨대 당시 박헌영을 비롯한 남로당계 숙청과 관련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홍수와 같이 숙청된 인물은 립화, 김남천, 이태준이다, 이들은 모두 남로당계 문학인으로서 1956년 이전에 이미 숙청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서동만 2005: 528). 따라서 시점은 1952년에서 1956년 이전으로 보인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러한 숙청의 내용이 공식으로 문건에 나타난 시점이 언제인가에 있다. 여타의 모든 매체를 살피지 않아서 확인하기 어렵지만 최소한 고고학 학술지인 『문화유산』에는 1959년 도에 알려진다.

년대 도유호, 한홍수를 비롯한 수많은 연구자들의 논문이 최근 북한 학계에서 얼마나 인용되는지를 살펴보면 개찬 까지는 아닐지라고 정치성과 매우 큰 관련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구석기 고고학과 관련해서 2002년 발간된 『조선민족의 역사적 뿌리』(장우진 2002b)의 참고 문헌의 인용 횟수로 보면 78회이다. 동일한 도서나 학술지의 인용까지 포함되었기에 실제 인쇄물의 수는 이보다 작다. 이중 시기적으로 학술지 대정간이 있었던 1968년 이전의 학술지나 저서의 인용 횟수는 총 5건뿐이다. 3건의 러시아어 학술 자료와 2건의 영문 자료가 해당된다. 반면에 북한의 학술 자료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문맥상 1950-60년대 자료의 인용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인용이 발견되지 않는다.

해당 도서보다 구석기 고고학과 관련된 학술적인 성격이 강한 저서로 『인류학(2판)』(장우진 1988), 『조선동부지역의 동굴유적』(인류진화발전사연구실 1995)을 들 수 있다. 『인류학(2판)』의 경우 저서와 논문 11편(인용 횟수가 아니고 인용 논문과 저서 수)이 인용되었는데 그중 1968년 이전 자료는 러시아어 자료 1편이고 북한 자료는 찾을 수 없다.

『조선동부지역의 동굴유적』은 총 58편의 논문과 저서 수를 보여주고 있다. 러시아어 자료 4편 영어 자료는 11편이다 그리고 일어 자료가 4편이다. 영어 자료 중 영미 서구권 자료는 5편 일본 자료 2편 그리고 중국 자료 4편이다. 그중 1968년 이전 자료는 중국어 자료 3편 러시아어 자료 2편 그리고 영어 자료(중국) 3편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 자료로서 1968년 이전 자료는 세편이 보고된다. 『공산 원시 유적 발굴 보고』(1957), 『지탑리 원시 유적 발굴 보고』(1961), 『금탄리 원시 유적 발굴 보고』(1964)이다. 이중 『금탄리 원시 유적 발굴 보고』를 빼면 나머지는 실명이 없는 집체적 연구 결과이다.

정확적으로 본다면 북한 구석기 연구자들에게 1968년 이전 자료의 인용은 무언가 불편함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학술 인용에서 영어 특히 서구권 자료도 인용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비교적 다양한 국가의 자료가 특정 시간대와 상관없이 인용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1968년 이전의 북한 자료의 인용을 꺼리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비록 새로운 버전의 인쇄물 생산을 통한 개찬이 없었어도, 특정시기의 업적에 대한 경계나 주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서 1968년 이전 고고학 자료인 『역사학계문제』, 『문화유산』, 『문화유물』, 『고고민속』을 북한의 연구자들은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접근이 얼마나 자유로운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된다.

위의 사례는 출판 시기로 본다면 1988, 1995 그리고 2002년 자료이다, 만약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어떠한 인용 패턴을 보이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77년 발간된 『조선의 구석기시대』(사회과학원 1977)에서는 어떠한 인용이 발견되지 않는다. 단행본뿐 아니라 『고고민속논문집』에서도 인용의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정리하자면 정간 시기 동안은 인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가 그 이후부터 인용이 관찰된다. 관찰된다고 해도 1950-60년대의 업적에 대한 인용은 극히 제한적이다. 인용의 패턴 그리고 그 사례는 비록 일부만 제시하였기에 어떠한 확정의 도구로 사용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고고학과 정치적 영향력과의 상관성은 어느 정도 인식이 가능하다.

모든 내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1968 이전의 인용이 왜 그렇게 제한적인지에 대한 설명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북한의 연구자들 입장에서 과거에 ‘수정주의’ ‘사대주의’, ‘종파

주의'의 글로 규정된 도서에 대한 접근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설사 해당 글을 읽었다고 할지라도 이를 인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III. 북한의 구석기 인식: 구석기 없는 시기의 구석기 인식

북한 고고학에서 구석기시대 시기 구분은 구석기 유적 발굴 이전부터 구체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북한지역에서 공식적으로 구석기 유적의 발굴의 결과는 1963년이다. 그리고 실제 발굴 조사는 한해 앞선 1962년으로 알려져 있다(편집부 1963). 그러나 북한에서 구석기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논쟁은 사실상 이전부터 공고히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관심의 원인제공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른바 ‘만몽학술조사’로 인한 동북아시아권의 구석기 유적의 존재와 관심이라고 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북한의 초기 구석기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한 두 인물 즉 도요호와 한홍수의 학문적인 배경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

전자와 관련해서 일제 시대 조사된 동관진(강안리) 조사 결과를 생각해볼 수 있다. 이른바 15년 전쟁 시기²⁾ (정규영 1999) 동북아시아에서 일본군 또는 일본의 학술단체를 통해 많은 연구조사가 실시되었다³⁾. 동관진의 결과는 일차적으로는 동물 화석의 발견이었으나, 이후 연구 결과는 나오라 노부오(直良信夫)에 의해서 구석기 존재가 소개(배기동 1990; 성춘택 2017)되기에 이른다. 동관진의 조사는 조선반도 조사의 일환이라기보다는 큰 틀에서는 일본의 만주국 설립 이후 당시 만몽학술 조사의 일환으로 이루어 졌다. 따라서 동관진이라는 한반도 내의 유적의 의미보다는 동북아시아 조사의 하나로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성춘택 2017). 이와 관련해서 북한의 초기 연구에서 살펴보면 동북아시아의 유적과 관련된 언급이 자주 눈에 띈다. 즉, 구석기와 연해주(김용간 1958) 구석기와 흑룡강(도마셰브쓰끼 1957) 또는 안가라 강과 구석기(김용남 1960)의 조합이 상당히 눈에 띈다.

일제시대 연구된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북한 문헌에서 관찰이 쉽지 않다. 다만 어용학자라는 용어로서 뭉뚱그려 표현된다. 유적 자체에 대한 언급과 구석기 유적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자체 하는 분위기다. 대표적으로 1958년 구석기 용어 해설부분에서 언급된 동관진의 경우 화석 발견만 사실로 받아들이지 구석기 유물에 대해선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편집부 1958).

2) 1931년 만주사변부터 1945년 일본의 패전에 이르는 일본에 의해서 일어난 아시아에서 벌어진 전쟁을 지칭한다. 굳이 15년 전쟁이라는 표기를 하는 이유는 언급한 ‘만몽(滿蒙)’이라는 단어와 연관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만주와 몽고를 묶은 이상한 조합은 일본의 아시아 전쟁 중에 만들어진 개념이고 15년 전쟁 과정의 파생물이다.

3) 참고로 동관진을 조사한 만몽학술조사단(滿蒙學術調査研究團)과 유사한 기관들이 당시에 많이 조직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 내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 있는 단체로서 경성대를 추축으로 만들어진 만몽문화연구회(滿蒙文化研究會)가 있다(정준영 2015). 당시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동관진 조사를 한 만몽학술조사단이 구성원 중 일부는 유사 단체인 만몽문화연구회에도 적을 두고 있다. 대표적으로 모리 다케오(森爲三) 교수를 들 수 있는데 1935년 실제 제1차 만몽학술조사와 그 결과물에 중심적인 위치에 있던 학자인데, 동시에 만몽문화연구회 평의원이었다(정준영 2015).

구석기의 인식은 도유호와 한홍수의 학문적 이력 과도 관련이 깊다. 두 연구자 모두 북한 고고학의 초석을 다진 학자이지만 동시에 유럽의 구석기시대에 유사한 인식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도유호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과 오스트리아 비엔나 대학에서 수학하였고 한홍수는 스위스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수학하였다. 그들에게 직·간접적 영향을 준 학자들인 멩힌(Oswald Menghin), 오버마이어(Hugo Obermaier)등이고 이들을 통해서(한창균 2013) 구석기에 관련된 생각을 만들어 갔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들의 구석기에 대한 생각은 당시의‘만몽조사’와 반드시 연관 지워 생각할 필요가 없다. 대표적으로 한홍수의 언급, 조선 주변에서 발견된 구석기로 보이는 유물을 가지고 과연 조선에 구석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과 비판(한홍수 1936)을 들 수 있다. 해당 글은 만몽조사를 통해서 동물화석이 아닌 구석기 유물이 정식 보고된 시점(나오라 노부오(直良信夫) 1940년) 전에 발간된 글이다. 따라서 구석기에 대한 시각은 반드시 만몽조사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⁴⁾.

1961년 북한의 고고학계에서 구석기에 대한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 있다. 제4차 조선노동당 당대회 이후 당의 지도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구석기 유적의 조사를 독려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편집부 1961: 2). 1962년 굴포리의 발굴과 1963년 보고가 있기 전에도 일종의 가능성에 대한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굴포리 발굴 직전 상당수의 구석기 관련 논문이 발표된다. 1962년에 집중해서 상당수의 논문이 발표되는데 도유호 또는 집체적으로 연구된 논문에서 찾아진다.

「고고학이란 어떠한 과학이며, 력사연구에는 왜 고고학이 필요한가?」라는 긴 제목의 글에서 도유호는 지질학적으로 제4기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조선에서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나’라는 여운을 남기며 설명을 이어가고 있다(도유호 1962a). 두 번째로 「빙하기란 무엇인가」라는 논문(도유호 1962b)이 도유호에 의해서 발표된다. 해당 논문에서는 1980년부터 2000년대까지 남한의 글에서도 친숙하게 등장하는 알파인 빙하기의 소개와 시기 분류를 제시하고 있다. 도유호 본인 스스로 빙하기를 연구함은 구석기시대를 논하고자 함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서 구석기 연구의 방안으로서 즉 지질학적인 빙하기가 아니라 지질고고(Geo-Archaeology)적 빙하기 연구를 위해서 제시하였다고 본다. 다음으로는 「인류의 기원」제하의 논문(도유호 1962c)을 들 수 있다. 논문에서 소련고고학적 사고와 지질고고학적 생각 그리고 인류진화의 종의 변화를 모두 담아내려는 노력이 보인다. 마지막으로 동년 1962년 「구석기란 무엇인가?」제하의 논문(편집부 1962)이 실리게 된다. 비록 도유호의 이름은 없지만 상당히 관련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이유는 내용에서 보이는 유럽 중심의 문화적 변화 그리고 구체적으로 유럽의 문화기의 인용에서 추론이 가능하다. 일련의 구석기 관련 논문은 결국 굴포리의 조사와 같은 해에 출간되었고 이는 굴포리를 북한 학계에 빠르게 안착시키는데 기여를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전혀 다루지 않는 새로운 학문 장르의 등장은 항상 기존의 도전을 받기 마련이다. 1970년대 이후 한국의 구석기 또는 한국의 선사시대의 개괄서나 소개의 글에는 항상 빠짐없이 나오는 유적이 동관진과 굴포리이다. 이는 부지불식 간에 남한 구석기의 정당성의 부여와도 상관성이 있다고

4) 한홍수의 생각은 조선의 구석기에 대해서 비교적 비판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해방 이후 그의 글에서 공통된 시각이 개진되었다(한홍수 1950b).

판단된다. 갑자기 발견된 새로운 석기 그리고 구석기시대의 등장은 당연히 학계의 저항감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남한은 위의 두 유적의 인용을 통해서 구석기의 존재의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하였다고 본다. 반면 북한은 이와는 다른 과정의 정당화 또는 검증 작업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 위의 설명과 같이 만몽 조사와 한반도 주변의 구석기 발견 사례, 두 학자의 학문적 경험이 구석기를 별 무리 없이 안착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1960년 초반까지 북한은 학문적인 자유도가 이후 시기보다 상대적으로 보장되는 시기이고 글을 통한 학문적 논쟁이 벌어지던 시기이다. 고조선이 위치에 대한 논쟁 (이경섭 2015) 그리고 도유호와 한홍수의 공개적인 비판과 대응(한창균 2013) 등을 보면 구석기 유적 하나가 발견되었다고 자동적으로 학계에서 인정을 받은 시기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 이견없이 안착을 하게 된 데에는 이러한 이유가 숨어 있었다고 본다.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볼 문제는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동관진에 대해서 어떠한 의미부여를 하는가에 있다. 북한의 내부적인 학계의 인식으로 구석기의 존재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러나 적어도 북한의 초기 구석기 연구에서는 동관진은 포유동물 화석 유적으로 공식적으로 설명되지, 구석기 유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편집부 1958).

이러한 동관진에 대한 인식은 학술지 정간을 거친 이후 1980년대 말에 와서는 변화됨을 알 수 있다. 1950-60년대 분위기와는 달리 동관진의 구석기 유적은 해방 전 일제 어용학자들에 의해서 유물이 있는데도 구석기유물을 부정하였다고 주장된다. 또한 초기 해방 후 적지 않은 고고학자들도 동관진의 구석기 가능성을 부정하였다고 주장한다(장우진 1992a: 8). 그 ‘적지않은 고고학자’들이 과연 누구인지가 궁금한데, 북한의 1950년대의 동관진의 부정적 기류를 생각한다면 짐작이 된다. 2000년대 이후에도 동일한 기조가 보인다. 동관진의 구석기의 가능성을 북한의 고고학자 스스로 부정하였음을 질타하고 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고고학자들’의 행위에 대한 설명이 있다(리주현·한은숙 2009: 54).

1950-60년대 북한 스스로의 구석기 발굴이 있기 전 북한은 스스로 구석기에 대한 관심을 키운 것은 확실하다. 동관진에 긍정 또는 부정의 의미를 부여하던 간에 이는 구석기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는 실제 구석기 관련 연구로 이어지게 된다. 구석기의 확신이 시절의 구석기 관련 연구는 그래서 의미가 크다고 본다. 후술 하겠지만 당시의 논의된 내용은 북한의 구석기시대 연구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게 된다.

IV. 구석기시대 개념들: 시도와 초안 그리고 사용

1. 1950-60년대: 도입의 시기

어느 학문에서나 마찬가지로이지만 학문의 진행에 따른 개념의 증가와 변화 그리고 이에 따르는 용어의 변경과 폐기가 있기 마련이다. 북한 구석기의 어제와 오늘을 이해하는데 용어 변화를 따라

감은 해당 학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된다. 북한은 구석기 발굴 이전에 이미 구석기, 구석기 문화, 구석기시대에 대한 개념 이해를 시도하였다. 당시 존재하지 않은 조선의 구석기를 어떠한 개념으로 보려 하였는지를 용어 사용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이 구석기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용한 용어를 살펴보면 시기 구분과 직·간접적으로 닿아있는 부분이 많다. 구석기의 개념의 이해를 위해서 사용한 연구 단위는 시기 구분과 상당한 관련성을 가진다. 북한에서 초기 구석기시대의 시기 구분을 포함한 개념에 관한 생각이 담겨 있는 글은 「용어해설(고고학, 구석기시대, 중석기시대)」(편집부 1958)에서 관찰된다. 시기 구분을 하려는 연구 단위의 방향은 매우 다층적이다. 그 방향은 크게 사회진화, 석기유물 조합, 인류진화, 지질 환경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이 서로 교차하면서 사용된다. 인용 문헌은 없지만 러시아어를 사용하여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다분히 당시 서구 유럽적 구석기 시각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다.

우선 북한 정치 지형에 부합되는 사회진화적 설명이 간헐적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설명은 제한적이다. 구석기시대 후기를 ‘모가장적 씨족제도’(편집부 1958: 75)로 단편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아울러 석기유물조합을 통해 진화고고학 입장에서 구석기시대를 삼분법으로 나눈다. 전기(하기)구석기-중기구석기-후기(상기)구석기로 설명하고 아울러 구석기시대와 신석기시대 사이로 중석기시대의 개념을 소개하고 있다. 전기구석기를 하기구석기 그리고 후기구석기를 상기구석기라고 부르는 이유는 영어의 Lower 와 Upper Paleolithic 번역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1950년대 서구 유럽에서 흔히 사용되었던 석기유물조합으로 문화 단계를 인식 하고자 하였다. 문화 이행을 ‘셸’(Chellean)이전- ‘셸’(Chellean)- ‘아셸’(Acheulian)로 설명하고 있다. 석기유물조합 용어는 기본적으로 서구 유럽의 그것을 사용하였다. 러시아어 표기가 병기되지만 용어는 프랑스식 용어를 사용함이 눈길에 간다. ‘무스썸에’(Mousterian), ‘오리낙’(Aurignacian), ‘솔루트레’(Solutean), ‘마들렌’(Magdalenian)등의 용어 사용이 보인다. 석기유물조합 용어는 당시 영국을 중심으로 영어권에도 프랑스식 표현을 사용하였기에(Burkitt 1925; Leakey 1934) 굳이 프랑스식이라고 보기 보다는 서구 유럽적 용어 사용을 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음은 지질환경적 입장에서의 분류를 들 수 있다. 빙하기 역시 서구 유럽 알파인 빙기를 사용하여 시기 구분을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환경에 의한 인간의 행위 적응을 설명하기 위해서 ‘귄츠’(Günz)-‘민델’(Mindel)-‘리쓰’(Riss)-‘위름(뵐름)’(Würm) 빙하 시기를 설명하고 있다(한창균 1992: 14). 또한 빙하와 특정 석기시대의 대응을 제시하는데, 후기구석기시대는 ‘리쓰’ 빙하기와 마지막 빙하기인 ‘위름(뵐름)’ 빙하기 시기로 설명하고 있다(편집부 1958). 알파인 빙하기 사용도 당시 서구 유럽에서 이미 구석기 연구의 개괄서에 등장하는 바(Burkitt 1925), 이 또한 석기유물조합 용어와 마찬가지로 서구 유럽적 구석기 연구 입장에서 바라보았다고 볼 수 있다.

길지 않은 논문이 주는 시사점은 크다고 할 수 있다. 해당 저자는 이후의 논문들과 비교해서 도유호로 짐작되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석기유물조합을 바라보는 시각이 도유호가 수학한 서구 유럽적 시각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가 이후에 발표한 논문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1962년 「빙하기란 무엇인가」(도유호 1962b)에서 빙하기와 관련해서 제4기 지질 시대를 시간적으로 제시한다. 그리고 1958년도의 글에서 나오는 빙하기 명칭이 유럽의 알파인 빙하기

임을 밝히고 있다. 나아가서 한반도에서도 해당 빙기 사용의 당위성을 염두한 주장을 하고 있다. 아시아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의 빙하 역시 대체로 유럽 빙하와 대응함을 밝히고 있다.

도유호의 글로 생각되는(한창균 1992) 또 다른 논문 「구석기란 무엇인가?」 (편집부 1962)에서 사회주의 고고학에 보이는 사회진화적 시기 구분을 거의 제외시키고 있다. 반면에 석기유물조합 용어에서 1958년과 마찬가지로 서구 유럽적 시각을 담고 있다. 당시 기준으로 보다 업데이트된 자료의 인용을 보여주고 있는데, 1958년에 ‘셸 문화’ (Chellean industry)를 당시 새로이 규정된 ‘압빌문화’(Abbevillian industry)으로 고쳐 부르고 있다(한창균 1992: 328). 단순히 용어에서 서구 유럽적 시각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당시 서구 유럽 유행 사조인 문화사 고고학 시각을 다분히 보이고 있다. 동일한 시기라도 지역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서로 다른 문화가 생산되고 사용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소비에트식 사회진화론에 주장하는 역사의 합법칙성 즉, 일반화된 발전에 따른 양태와 거리를 두고 있다.

이글에서 구석기 시기를 1958년 논문에서 제안된 삼분법보다는 이분법으로 나누고 있다. 즉, 중기 구석기를 전기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북한 최초의 공식 유적인 굴포리 유적에서도 적용된다. 초기의 굴포리의 편년은 구석기시대 하단(전기)에 굴포문화 I과 II가 해당 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고려하고 있다(도유호 1964: 7). 그러나 여전히 삼분법도 동시에 사용되고(로영대 1962) 있음을 볼 수 있다.

1960년대 말 그리고 1960년대 초반의 시도들은 이후 북한 구석기 연구에서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북한은 당시의 연구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리주현·한은숙 2009: 48). 그러나 삼분법에 의한 시기 분류, 중석기시대의 개념, 알파인 빙기 사용 등 기본적인 골격은 현재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2. 1970년대 이후: 형성의 시기

1950-60년 초반 북한에서는 정교하지는 않지만 사회진화, 석기유물조합, 인류진화, 지질환경을 통한 개념 이해와 시기 구분을 모색하였다. 문제는 이러한 기준이 과연 유적과 유물이 발견된 이후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에 있다. 1970년대 이후 고고학적 정보가 축적이 되면서 조금씩 다듬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듬어짐의 시작점에 놓인 유적은 굴포리이다, 굴포리 문화층은 하단의 굴포문화 I기층 그리고 상단의 굴포문화 II기층으로 나누어진다. 1970년대 초반 굴포문화 I기층은 구석기시대 중기로서 10만 년 전 그리고 굴포문화 II기층은 구석기시대 후기로서 3-4만 년 전으로 가늠하고 있다(한창균 1992: 351-52). 첫째, 삼시기 분류를 쓰면서 거기에 일정한 편년을 제공하기에 이른다. 주요한 북한의 중기와 후기의 유물포함층을 가진 유적으로 굴포리는 자리매김된다.

1960년대 말 1970년대 들어서 북한에서는 많은 구석기 조사가 이루어진다. 학술지 대정간 그리고 지식인의 교체시기에도 학술적 발굴이 꾸준히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1968-1980년 사이에 조사된 유적만 하더라도 공식적인 보고자료를 통해서 본다면 9개소에 이른다(김혜정 1986; 국립문화재연구소 2017a); 검은모루 유적(평양시 상원군 흑우리, 1966~1970), 청청암동굴 유적(평양시 상원군 상원읍 1969~1970), 해상동굴 유적(황해북도 평산군 1967~1970), 덕천 승리산 유적(평안남도 덕천군

덕천읍 1972~1973), 화천동 유적(화석산지)(평양시 승호구역 화천동 1977), 대현동 유적(평양시 력포구역 대현동 1977), 만달리 동굴 유적(평양시 승호구역 만달리 1979~1980), 매리 동굴 발굴(평양시 승호구역 매리 1980), 룡곡리 동굴 유적(화석)(평양시 상원군 룡곡리 1980).

1970년대 중요한 성과는 유적의 조사뿐 아니라 누적된 구석기 고고학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된 결과물을 제시하기 이른다. 대표적으로 1958년 발간되어 1962년, 1977년 걸쳐서 수정되어 집필된 『조선통사』(사회과학원 1988)에서 구석기시대 시기 구분에 대한 논의를 시도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개정판이 나오고 있으나 구석기시대 기본적인 골격은 1977년에 일단락되어 정리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동년 1977년 『조선고고학 개요』(고고학연구소 1977) 역시 구석기시대에 대한 설명을 개괄적으로 담아내고 있다. 1979년에는 『조선전사』(력사연구소 1979)가 발간되었다. 3종의 도서에서 구석기시대는 비록 개괄적이지만 그간의 고고학적 성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는 의미를 가진다. 구석기시대 연구에서 가장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한다면 북한지역을 중심으로 한 구석기 단행본이 출간되었다는 사실이다. 1977년 『조선의 구석기시대』(사회과학원 1977)가 그것이다.

이들 출판물 중 『조선의 구석기시대』는 단행본이기에 상대적으로 자세한 자료를 담아내고 있다. 1950-60년대에 보인 구석기시대의 개념 이해와 아울러 시기 분류에서 시도하고자 하였던 사회진화, 석기유물조합, 인류진화, 지질환경이 어느 정도 수용이 되어 나타나고 있을까?

1970년대 자료 정리에서 북한은 사회진화적 시기 구분의 일단의 골격을 완성한 듯하다. 1970년대 『조선통사』의 내용을 기초로 본다면 원시부터 고대사까지 크게는 원시사회-노예소유자사회-봉건사회로 보고 있다(사회과학원 1988). 이러한 시간의 틀은 『조선고고학개요』에서도 동일하다. 원시사회는 세분화한다면 원시무리사회-모계씨족사회-부계씨족사회로 구분하고 있고 이후 노예소유자 사회로 전환된다. 이러한 틀은 1970년대 이후부터 최근까지도 큰 변화없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1970년대 중·후반에 발간된 개설서인 관계로 당시 발굴중인 자료를 충분히 담아내기 못했지만 우선 원시무리사회의 유적으로는 검은모루 그리고 모계씨족사회의 경우는 굴포문화 II기층을 대응시키는 작업을 하였다(고고학연구소 1977). 사회진화의 틀은 거의 변화없이 지속적으로 현재에도 사용되고 있다.

구석기 유적의 삼시기 분류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용어 통일과 그 사용에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1960년대 중·후반까지 구석기 시기 분류 명칭은 다양하게 불린다. 전기구석기만 하더라도 1958년의 자료에서는 전기(하기)구석기, 1962년 자료에서는 구석기시대 하단(전기) 또는 하부구석기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편집부 1962; 로영대 1962). 용어는 1970년대 와서는 통일된다. 전기구석기는 구석기시대 전기 그리고 그 이후를 구석기시대 중기, 구석기 시대 후기로 명명하고 있다. 이후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용어 사용에서 통일적인 인상을 받는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가 몇 가지 눈에 띄는데 그 예로서 ‘후기구석기시대사람’(백기하 1990: 11), 이나 ‘사실상 후기 구석기시대에 많이 선택되어’(어해남 1994: 35)와 같은 예를 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중국 자료와의 비교 중에 사용되었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는 ‘구석기시대후기’라는 용어와 병행해서 사용되고 있다(어해남 1994: 35). 이러한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하고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시기별 문화 양상에 대한 설명에서 북한은 1950-60년대 초반과는 사뭇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석기유물조합에서 과거 서유럽의 문화사적, 역사특수주의적 단계를 연상하는 용어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아셀’, ‘무스쥬에’, ‘오리낙’, ‘썰류트레’(편집부 1958) 와 같은 서구 유럽식 석기유물조합 용어는 1970년대 와서 사용의 제한이 보인다. 해외 유적의 소개 등에는 사용되지만 북한의 유물 설명에는 극히 예외적으로 사용한다. 석기 기술의 설명 즉, 르발르와 기술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용이 된다. 대신 표지석기를 통한 시기별 문화 이해는 보이고 있다. 1970년대 이후 구석기시대 시기별 표지석기에 대한 일종의 정리가 북한에서 이루어진 듯하다. 2000년대 이후의 기준으로 본다면 전기는 주먹도끼, 찌개, 중기는 작은 주먹도끼, 찌르개, 굽개, 홈날, 톱니날 그리고 후기는 밀개, 새기개, 썰개, 뚫으개가 출토된다고 보고 있다(리홍철 2016). 그리고 남한에서 부르는 좀돌날 석기인 잔돌날 석기는 구석기시대 후기의 늦은 시기에 전개되어 중석기시대까지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장우진 2012). 전기의 석기가 중기까지 전개될 수 있지만, 특정한 형식의 석기가 특정한 시기를 알려준다는 기본 생각은 가지고 있다.

1970년대 남한에서 전기구석기의 아이콘으로서 인정받기 시작한 주먹도끼 또는 주먹도끼형 석기는 검은모루에서 발견되었다. 남한에서 모비우스 선 서쪽의 전형적인 아슬리안 주먹도끼와의 비교와 이를 통한 문화전통의 이동을 설명하는데 주먹도끼는 주요 고고학적 설명자료이다. 그러나 북한에서 발견 초기부터 주먹도끼에 대한 이러한 설명을 찾아보기 힘들다. ‘주먹도끼는 대략 40만 년전부터 10여만년전까지의 유적들에 특징적인 석기로서...’(고고학연구소 1977: 5)라는 표현들로 보아서 외부 문헌을 참고한것으로 짐작은 된다. 그러나 해당 문헌이 제시되어 있지않아 사실관계 파악은 어렵다. 그러나 문화권설과 관련된 입장 특히 외부로부터의 전파와 관련된 설명은 극도로 피하고자 하는 인상을 가진다. 그러나 최근 조사된 청파대 유적에서 주먹도끼가 발견되면서 모비우스 이론을 연상하는 설명은 보인다(한금식 2014). 그러나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고 다만 주먹도끼가 한반도와 아시아 주변국에서 출토됨에 따라서 해당 이론의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이 있다. 현재 검은모루 주먹도끼의 경우, 고졸한 형태 보아서 전형적인 주먹도끼보다 이른 시기의 석기로 보고 있다(장우진 2009: 17). 그리고 이른바 제형석기 역시 전기구석기의 표지석기인 찌개의 시초형(리홍철 2016)으로 보고 있다.

1950-60년대 석기를 문화적 특성으로 보았다면 1970년대부터 ‘로동도구’ 측면을 부각하는 노력을 한다(사회과학원 1977; 김용간 1984). 그러나 실제 사회주의적 가치관이 구체적 담겨 있다고 보기 보다는 석기제작기술을 통한 시기 구분을 시도하였다. 전기의 석기제작기술은 내리쳐깨기와 때려내기가 사용되었다고 보고 있다. 내리쳐깨기는 주먹도끼류 석기를 제작하는데 적용한 기술로 보고 찌개석기의 시초형인 제형석기는 때려내기 수업으로 제작되었다. 중기에 와서는 때려내기가 발전하여 속돌은 사용하지 않고 여러 개의 격지를 만드는 기법으로 발달하였다. 그리고 후기에 와서는 대고때리기 눌러뜯기등의 새로운 석기제작 기술을 보여준다고 보고 있다(사회과학원 1977).

지질환경의 이해와 시간의 선후관계 이해에 도움을 주는 알파인 빙하기 용어는 처음 사용된(도유호 1962b)이래 꾸준히 사용을 하고 있다. 1970년대 과거 빙하라는 표기 대신 ‘얼음강’이라는 용어의 사용, 그리고 알파인 빙기의 사용 자체가 눈에 띈다. ‘위름’ 빙기라는 표현 대신에 ‘마지막 얼음강 시기’(사회과학원 1977: 54)를 사용한다. 그러나 이후 알파인 빙기 용어를 다시 사용하고 있다.

1980년대 구체적인 알파인 빙하기의 사용은 보이지 않으나 빙하기의 용어는 다시 사용됨을 볼 수 있다(편집부 1987).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빙하기 용어의 사용은 2000년대 이후 확인이 된다(장우진 2002a). 정밀하고 구체적인 기후 변동을 지시하는 해양천공자료를 통한 OIS 또는 MIS사용은 관찰되지 않는다. 그러나 빙하기 안의 세분화된 기후 변동에 대해서는 인식 변화가 보인다. 따라서 소빙하기 개념을 사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리스 빙하기를 3개의 소빙하기로 나누기도 한다(장우진 2009: 9).

북한에서 인류 진화 부분은 유적 발굴 사례로 본다면 가장 진전을 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진화’라는 단어를 강조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아마도 상대적으로 창조론에 대한 반감에서 시작하는 듯 하다. ‘사람은 처음부터 완성된 형태로 생겨나지 않았다. 사람은 각종 종교류파들이...류인원의 한 갈래에서 진화발전하였다’ (사회과학원 1977: 17). 인류 진화와 관련된 부분은 김정일의 일종의 ‘교시’ 형태로도 살펴진다. ‘<사람이 장구한 진화발전의 산물이라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과학에 의하여 확증된 사실입니다.>’(장우진 1988: 69). 따라서 북한에서 인류의 진화라는 부분은 결코 비판되거나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는다.

북한 석회암 지역을 중심으로 발견된 상당수의 고인류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진화 양상을 그리는 시도를 하고 있다. 기본적인 생각은 립인-원인-고인-신인으로의 이행을 발견된 화석에 대입하는 시도를 하였다. 북한의 글에서 학명을 정확히 명기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정확치 않지만 2000년대 이전까지 능인은 호모 에렉투스 이전의 호미닌 그리고 원인은 호모 에렉투스로 보고 있다. 북한은 검은모루 유적을 원인의 증거로 보고 있다. 그 원인과 동종의 화석인류를 인도네시아 호모 에렉투스인 자바인 그리고 중국의 주구점인등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고인은 네안델탈인이라고 규정하고 신인은 현생인류로 보고 있다(장우진 1988).

이러한 분류 방법은 기존 전 세계적으로 인류화석이 적고 분류가 상대적으로 단순하였을 경우에 가능할 수 도 있다. 따라서 립인-원인-고인-신인과 같은 일반명칭은 그간은 학명과 대응이 어느 정도 가능하였다고 본다. 그러나 최근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종의 발견과 함께 분류체계의 변화에 따라서 북한에서 제시하는 일반명칭과 학명과의 대응이 쉽지 않게 되었다.

북한도 이 부분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후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많은 인류화석들이 발굴되고 그에 대한 연구가 심화됨에 따라 새로운 학명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따라서 종전에 써오던 관습명만 가지고서는...(김성일 2012: 37). 이에 따라서 새로운 정리가 이루어지는데 능인을 호모 하빌리스(Homo habilis), 원인을 호모 에렉투스(Homo erects), 고인은 고형 호모 사피엔스(archaic(early) Homo sapiens) 그리고 신인은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⁵⁾ (Homo sapiens sapiens)로 부르고 있다(김성일 2012; 고광렬 2015).

북한에서 화석 인류의 발견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신인의 발견이 눈에 띄게 관찰

5) Homo sapiens sapiens와 Homo sapiens의 차이는 우리 현생인류를 좁게 아니면 넓게 분류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Homo sapiens sapiens로 부르는 경우는 현생인류가 여러 Homo sapiens중의 아종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이선복 2018). 즉, Homo sapiens를 넓게 생각하는 것이다. Homo sapiens 로 부르는 경우는 현생 인류가 다른 종과 너무나도 다른 측면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북한에서 생각하는 Homo sapiens sapiens는 과연 이러한 의미에서 사용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숙고할 필요가 있다.

된다. 1970년대 자료에서 소개된 고인으로서 덕천이 그리고 신인으로서 승리산인에 불과하였다면(사회과학원 1977) 2000년대 자료를 본다면 신인을 중심으로 많은 수의 보고가 눈에 띈다. 2009년 기준으로 본다면 신인으로 동정된 호모닌 화석은 기존의 승리산사람 외에, 만달사람, 중리사람, 풍곡사람, 금천사람, 대흥사람, 금평사람, 랭정사람이 있다(장우진 2009).

3. 2000년대 이후: 통합된 편년 제시

통합된 편년 그리고 해당 지역에 부합된 편년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유물과 인류 그리고 환경을 모두 통합하는 종합적인 편년과 그 편년이 해당 지역에 부합되는지에 대한 연구도 쉽게 완성되는 것도 아니다. 아니, 완성이 불가능할 수 도 있다. 완성 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자료로서 꾸준히 보완한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1970년 대부터 삼시기 분류와 함께 사회진화, 석기유물조합, 인류진화, 지질환경 의 각 연구 단위에 부합한 시기 구분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각각의 연구 단위에 서로 대응시키는 작업을 하였다. 발굴이 아닌 문헌적인 입장에서 규정화된 시간의 범례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유적과 유물을 만나면서 종합적인 편년 구축을 하게 된다. 과거는 문헌을 통한 편년의 구축이었다면 현재는 실제 고고학적 자료를 통해서 수정 및 정리를 시도한다고 볼 수 있다.

시기 구분에서 북한은 연구 초기부터 각 연구 단위 별 1:1 대응을 원칙으로 하였고 그 경향성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구석기시대 전기는 인류로는 원인, 표지석기는 주먹도끼 및 찌개 이고 제작기술은 때려깨기, 내리쳐깨기이다. 그리고 사회진화적으로 본다면 원시무리사회 단계로 규정이 된다. 시기는 당연히 다른 구석기시대의 시기보다 가장 앞선 시기이다. 각각의 연구 단위를 이처럼 1:1 대응을 시키는 작업은 1970년대 이래로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퍼즐에 비유할 수 있다. 각각의 연구 단위는 퍼즐을 구성하는 하나의 조각이라면 삼시기 분류, 사회진화, 석기유물조합, 인류진화, 지질환경 그리고 연대값까지 감안한다면 6개의 조각⁶⁾으로 이루어진 퍼즐 이라고 할 수 있다. 일부는 주된 연구가 이루어지지만 일부는 상대적으로 미흡할 수는 있어도 대체적으로 각각의 조각들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북한이 전 세계적 입장에서 인류 최초를 어떻게 이해하는지는 확실치 않지만⁷⁾ 다만 2009년 기준으로 본다면 호모 속(genus Homo)의 초기 호미닌인 호모 에렉투스(능인)를 그 시작으로 본다. 그리고 이를 북한에서 인류의 시작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그리고 편년은 2(300)만년으로 보고 있다 (김춘중 2009). 그러나 200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능인의 시작은 200만년 미만으로 보았다 (장우진 1986).

한편 북한 최초 인류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원인은 북한에서 출토가 되지 않으나 검은모루를 통해 편년을 제시하고 있다. 1970년대 40-60만 년 전을 원인의 증거로 주장하였으나(김용간 1990), 최근에 와서는 100만 년 또는 그 이상으로 보고 있다. 전자의 편년은 공반된 동물상으로 주장된

6) 물론 '6개의 조각'은 절대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그 조각은 북한 구석기 연구사를 보는 시각에 따라서 더 늘어날 수도 아니면 줄어들 수 도 있다.

7) 시기에 따른 규정이 달라지므로 일반명사와 학명의 대응은 시기별로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연구자가 항상 학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서 구체적 대응이 불확실 할 때가 있다.

반면에 후자의 연대는 현무암의 절대 연대 값을 근거로 들고 있다(장우진 2009: 29). 검은모루는 원인의 등장을 알리는 유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북한에서 최초의 원시무리사회를 지시하는 대표적인 구석기시대 전기의 유적이다. 즉, 첫 번째 퍼즐로서 구석기시대 전기를 보여준다. 해당 퍼즐에서 부족한(?) 부분은 유물의 고졸성과 절대연대값의 부재였다. 이를 보완해주는 대표적인 유적으로 동암동을 들 수 있다. 다양한 절대연대 측정을 실시하였는데 열형광연대측정법, 전자공명연대측정법, 고지자기연대측정법을 통해서 88만년 가까운 연대값을 보여주고 있다; 1 문화층(88만±7.4만), 2 문화층(74만±5.2만) (김춘중·한금식 2016; 국립문화재연구소 2017b: 1095). 발견된 석기는 1과 2 문화층 모두 주먹도끼와 찍개 그리고 망치가 보고된다.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검은모루에서 출토된 주먹도끼형이 아니고 주먹도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검은모루와 같이 동암동의 석기 역시 내리쳐깨기와 때려깨기 수법으로 제작되었다(김춘중·한금식 2016). 검은모루의 제4기 편년으로 전기 갱신세로 주장하고 있다(장우진 2009). 최근의 지질학적 기준(Gibbard and Cohen 2008)을 따른다면 전기 갱신세의 끝은 약 80만년전이므로 북한의 전기 구석기는 최소 80만 년 전이 된다. 구체적으로 앞서 제기한 공반된 동물화석으로 연대는 100만 년 이전이 된다.

두 번째 퍼즐로서 구석기시대 중기의 편년은 1970년대 약 10-5, 4만 년으로, 그리고 후기는 약 4-1.4만 년을 제시하였다(사회과학원 1977). 당시는 유적 연대 값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문헌 인용으로 설정된 연대값으로 보인다. 중기의 인류로 제시한 고인은 초기 연구에서는 고인을 네안데르탈인으로 보고 고인의 예시로 해외 사례를 들고 있다; ‘브로켄-힐’(Broken Hill), ‘라-끼나’(La Quina), ‘따분’(Tabun), ‘쓰홀’(Skhul)등의 인류 화석 설명을 하고 있다⁸⁾(장우진 1988).

1980년대 이후 현재까지도 주장되는 내용중 고인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는데 전형적인 고인 비전형적 고인으로 나눈다. 전형적인 고인은 ‘...인류의 진화발전과정에서 사멸한 류형...’(장우진 1988: 41), ‘...전형적인 고인은 신인으로 이행하지 못하고...(고광렬 2015: 26)로 표현하고 있다. 반면 력포사람, 덕천사람은 이와는 다르게 비전형적 고인으로 보고 있다.

구석기시대 중기의 특징적인 석기 제작 기법으로 르발르와 기술의 존재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타격 기법도 때려깨기를 강조하고 있는데 석기는 찌르개, 긁개를 표지 유물로 삼는다. 그러나 최근 주먹도끼도 중기의 유물로 삼고 있다(리홍철 2016). 이는 2000년대 초반부터 보고된 청파대 유적의 구석기시대 중기 문화층에서 출토된 주먹도끼(김찬범 2005)에 연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새로운 고고학적 자료의 보완으로 중기의 퍼즐을 다듬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연구 초기와는 달리 중기의 경우 새로운 절대 연대 값의 제시로 과거 10만 년 전에서 30만 년 전을 그 시작으로 삼고 있다. 화대유적의 화대사람은 력포사람, 덕천사람과 함께 구석기시대 중기의 고인이라는 의미를 넘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고인으로 주장되고 있다(고광렬 2015). 열형광측정법

8) 호미닌의 동정과 재동정에 따른 명명과 재명명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다. 북한에서 당시 언급한 인류 화석의 경우 과거와 현재가 다르게 명명되는 경우가 많다. (문헌에서 ‘쓰홀’이 Skhul 5인지 불분명하긴 하지만) Skhul 5의 경우, 과거에는 발견된 네안데르탈인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현재는 현생인류로 알려져 있다. ‘브로켄-힐’의 경우, Homo rhodesiensis 또는 Homo heidelbergensis로 알려져 있어서 현재 경향은 네안데르탈인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2000년대 오면서 북한이 고인을 현생인류 이전의 광의적인 개념인 Archaic(early) Homo sapiens로 수정한 이유가 이러한 문제를 감안한 것으로 판단된다.

(TL dating method)을 통해 약 30만 년 전의 연대값(318,000-365,000)을 제시하고 있다(장우진의 2004: 101). 또한 연구 단위의 1:1대응을 원칙으로 삼는 북한에서는 고인은 구석기시대 중기의 인류이므로, 최초의 고인은 최초의 구석기시대 중기가 된다. 따라서 북한에서 중기의 시작은 10만 년 전에서 30만 년 전으로 바뀌게 된다.

지질환경적으로 화대 유적은 리스 빙하기 초반이면서 중기 홍적세의 시기를 보여주기(장우진의 2004), 발견된 화석을 원인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불식하기 위해서 다양한 해외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스페인의 아타프에르카(Atapuerca) 유적의 호모닌과 비교를 제시하고 화대사람과 함께 가장 이른 시기의 고인으로 보고 있다(어해남 2010).

두 번째 퍼즐에서 거의 모든 연구단위에서 변화가 보인다. 새로운 단계에 맞추어 모든 변화가 일정한 비율로 변화되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그러나 한 가지 예외는 사회진화에 있다. 원인과 마찬가지로 고인의 경우에도 원시무리사회로 규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세부적인 부분에서의 발전 예를 들면 ‘로동생산능력’, ‘사회적 분업’에서 발전된 양상을 주장하고 있다(김용간 1990: 53).

세 번째 퍼즐로서 구석기시대 후기는 가장 풍부한 자료를 보여주는 시기이다. 신인은 현생인류인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의 시기이다. 현생인류이기에 사회진화적 측면에서 특별한 가치를 부여한다. 이전 인류가 원시무리사회에 머물렀다면 신인은 이를 넘어 씨족사회의 첫 시작을 한 인류로 규정한다. 구석기시대 후기의 시작을 종전에는 4만 년 또는 미만으로 보았다. 인류 단계 기준으로 신인을 3.5 -1.4만 년으로 보고 있고, 만달사람과 승리산사람을 산정동사람과 크로마농인과 동일선상에서 제시하였다(장우진 1988). 최근의 고고학적 자료의 증가로 문헌이 아닌 유적에 근거한 편년의 변화가 있었다. 구석기 표지 유물에 의한 편년의 수정이 아니고 신인의 화석 편년에 편년 수정이 관찰된다. 비교적 최근에 발굴된 룡곡동굴과 랭정동굴에서 발견된 인류 화석에서 4만 년 이상의 연대 값을 보여주고 있다. 룡곡유적은 우라늄시리즈법(Uranium series dating)으로 약49,000년, 랭정유적은 열형광측정법(Thermoluminescence dating)로 약 46,000년의 연대 값 제시(고광렬 2015: 27)하고 있다. 랭정 유적에서 공반된 동물화석은 후기 갱신세 중기부터 보고되는데 이는 4만 년 이상을 주장하는 추가적인 자료로 제시된다(장우진 2009: 68).

구석기시대 후기의 석기 및 화석인골이 나온 유적으로는 굴포, 청파대(후기층), 부시바위산, 룡곡, 랭정 외에도, 중리, 승리산, 풍곡, 금천, 대흥, 금평유적등을 들 수 있다. 북한에서 신인은 시기적으로 두 집단으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른 시기의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룡곡유적을 들 수 있다. 후기구석기 전형적 석기로 생각하는 밀개, 새기개 이외에도 찌개와 주먹도끼도 출토되었다(국립문화재연구소 et al. 2013: 256). 그러나 늦은 시기의 구석기시대 후기에는 잔돌날(좁돌날) 그리고 잔돌날 속돌(좁돌날 몸돌)의 발견이 보인다. 대표적으로 만달사람이 나온 만달유적에서는 후요석으로 제작된 잔돌날 속돌이 관찰된다. 북한에서는 잔돌날 속돌은 외부의 문화적 전파 없이 내적 발전에 의한 전개로 파악하고 있다(서국태 2012). 즉, 4만 년 전 룡곡 문화가 4만 년 이후의 만달 문화로 독립적 진행을 주장한다.

석기 제작은 기존의 때려깨기 또는 내리쳐깨기도 사용되지만 대고때리기, 눌러뜯기(눌러떼기) 기법이 사용된다. 즉 간접 타법에 의한 가공과 가압법에 의한 제작 방식을 해당 시기 대표적 특징으로 보고 있다. 북한에서 석기 형식과 제작 기술의 설명에서 전기의 형식과 기술이 누적적으로

중기와 후기에 이어짐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후기의 표지석기인 밀개, 새기개, 켜개, 뚝으개가 이전의 표지석기와 이전의 제작 기술과 겹치는 경우가 많이 발견된다.

석기의 형식과 기술을 기본적으로 타 문화에서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단계로 진행된다는 생각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 기술복합도가 높은 잔돌날석기 역시 보편적으로 어느 집단에서나 일정한 시기가 되면 독립적으로 제작할 수 있다고 본다(장우진 2009: 96).

전술한 바와 같이 사회진화적으로 씨족사회의 등장은 구석기시대 후기부터이다. 씨족사회중 모계씨족사회는 신석기시대에 공고해지나 그 최초의 등장은 구석기시대 후기로 보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북한에서 수십 년간 그대로 이어온다고 볼 수 있다. 1950년대 이른바 모가장씨족제도(편집부 1958)가 주장된 이래로 이의 다른 표현인 모계씨족사회는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1970년대(사회과학원 1977), 80년대(김용간 1984) 그리고 최근에도(차달만 2013) 발견된다.

V. ‘피줄’로서 구석기시대

북한의 구석기시대는 마치 각각의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세 종의 피줄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그 피줄 각각의 특질들은 고유의 중요한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언뜻 보기에 그 피줄들은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세 개의 서로 다른 피줄은 사실 굳건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을 연결시켜 주는 건 ‘피줄’이라는 담론이다.

구석기에 적용된 핏줄이라는 개념은 북한의 민족, 민족주의의 표현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에서 부정적 의미에서 반대로 긍정적 의미를 가진 단어를 찾으려 한다면 단언 민족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민족의 개념을 부르주아를 착취적 지배 담론의 하나로 보는데서 180 선회하여 민족의 가치를 대변하는 진보적인 사상으로 탈바꿈시켰다(전미영 2018). 이러한 의미 변화는 단지 어휘 사용에 따른 어감 변화를 넘어서 북한의 공식적인 담론인 동시에 궁극적으로 지배 수단이 되었다. 헌법을 넘는 규범력이 강한 ‘교시’에서도 이러한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민족의 주장은 1960년대부터 김일성, 김정일의 지도, 연설, 담화를 통해서도 발견된다(최선경·이우영 2017).

그러나 공식적인 담론에서 민족주의 완전한 탈바꿈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의미적 대전환에서 중간의 이른바 완충제 역할을 해주는 담론이 바로 조선민족 체일주의이다(전미영 2018: 229). 사회주의 국가로서 사회주의의 보편적 개념을 버리고 가기에 완충적인 개념이 필요하였다.

민족의 공식적인 새로운 개념 규정의 등장은 1980년대라고 할 수 있다. 1950-60년대 당시 민족의 개념인 언어, 지역, 경제, 문화의 공동체라는 스탈린식 민족의 개념에서 새로운 민족에 대한 개념을 제시한다. 경제와 문화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핏줄이 들어가게 된다. 민족의 의미에서 가장 높은 가치는 핏줄 그리고 언어가 된다. ‘조선민족’에서 민족은 그러면 고고학적으로 어떻게 구현이 되는 것인가? 특히 구석기시대와 같은 경우는 이를 어떻게 소화하는가?

북한에서 민족은 국가와 연관성을 주요하게 생각한다. 이른바 ‘종족과 국가’가 결합된 상태(최선경·이우영 2017: 9)라고 할 수 있다.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조선민족은 한반도 최초의 국가 단계라고

주장하는 고조선부터 보고 있다(장우진 2002b). 국가 단계로만 본다면 민족과 구석기시대는 아무런 상관성이 없다고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종족 즉, 같은 핏줄의 공동체라는 의미에서 본다면 구석기 시대도 민족의 의미망에 포획이 된다고 본다.

이러한 의미의 포획성에서 핏줄을 다시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의 구석기 연구 논문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 중 ‘혈통’, ‘유전적 계승’, ‘단일기원’, ‘연속성 문화집단’, ‘본토기원’, ‘직접적 선조’, ‘직계선조’ ‘원류’ ‘시원’을 흔하게 찾을 수 있다. 조선민족의 핵심적 요소인 핏줄은 근본적으로 이어짐을 의미하고 그 이어짐의 시작은 조선민족이 된다. 문제는 그 조선민족은 이전의 그 무언가와 핏줄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조선민족은 시·공간적으로 조선 그것도 대동강을 중심으로 혈연적 유대감을 가지고 이어짐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는 이른바 신석기, 청동기 시대에 존재하였던 조선옛류형사람들과 이어진다⁹⁾. 그리고 그들 역시 그 기원은 공간적으로는 조선반도를 중심으로 하고 시간적으로는 구석기시대 후기를 지칭한다. 그 집단은 북한의 인류학적 분류로 신인이 된다. 만달사람으로 불리는 잔돌날 속들을 만들던 신인들은 같은 구석기시대 후기 그리고 같은 신인이지만 이전에 살던 룡곡사람의 후예인 것이다. 신인 이전 구석기시대 중기의 사람인 화대사람, 덕천사람 력포사람과 같은 고인들은 신인과 끈끈한 혈연적 관계성을 가진다¹⁰⁾. 르발르와 기술로 격지 석기를 만들던 이들은 멀리서 온 인류가 아니고 조선반도에 면면이 살던 원인의 후예인 것이다¹¹⁾.

민족성이 시간적으로 확장된 형태로 구석기시대 집단이 설정이 된다. 현재 조선의 시·공간의 운명 공동체의 정의가 멀리 구석기시대까지 올라간다고 본다. 그러면 북한에서 이러한 이론을 위한 개념적 장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핏줄의 연속성을 위해서 사용되는 개념을 살필 필요가 있다. 특히 민족 이전 즉, 현대조선사람 그리고 조선옛류형사람 이전의 집단을 규정하는 개념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에서 민족보다 시간적으로 선행하는 집단에 부르는 명칭에는 인종, 인류, 어족, 씨족, 종족, 족(겨레), 족속 다양한 단어가 사용됨을 볼 수 있다. 이들 단어들에 시간적인 선후 관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살피기 위해서 이 중에서 인종에 대한 개념을 살필 필요가 있다. 북한에서도 ‘인종주의’ 그리고 ‘인종주의자’는 부정적인 단어이다. 히틀러 또는 제국주의자의 악행 중의 하나로서 인종 차별과 이에 따른 폭력을 열거하기도 한다. 즉, 반동적인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장우진 1988).

그러나 북한에서 인종학은 매우 독특한 학술적 의미 부여를 한다. 북한에서 인종학은 현대 생물학에서 밝히는 이른바 종내집단의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황인종 흑인종과 같이 지역 환경에

9) 북한 문헌 참조: ‘조선민족은 혈연적으로 조선옛류형사람들의 피줄을 그대로 이어 온 그의 직접적인 후예이다.’ (장우진 2002b: 138).

10) 북한 문헌 참조: ‘우리나라에서 알려진 고인들이 이른시기의 고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된 특징을 많이 가지고있는 것은 그들이 신인으로 이행하지 못하고 사멸한 인류진화발전의 결과지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신인으로 된 고인이었기때문이다.’(장우진 1988: 79).

‘신인의 선조는 고인인데 우리 나라의 신인들은 우리 강토의 고인에서 기원하였다고 할수 있다.’(장우진의 2004: 68).

11) ‘우리 나라의 고인들은 신인으로 이행한 그의 직계선조였으며 인류의 진화과정에서 기본줄기에 속하는 류형의 고인이었다고 할수 있다.’(장우진 2009: 38)

따른 형질적 특성(이선복 2018)을 대인종, 인종 이라고 부르고 있다. 한편 인류는 종 분화를 통해서 구현된 계보에 따른 종들을 지칭한다. 인종은 인류 진화 이후에 나온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진화는 구석기시대 후기의 신인 즉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를 끝으로 더 이상의 생물학적 진화는 없다고 보고 있다¹²⁾.

인종은 크게 삼분류를 하는데 아시아 대인종, 아프리카 대양주 대인종, 구라파 대인종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그 아시아 대인종 중에서 동북(부) 아세아 인종이 있고 이에 조선사람이 포함된다(장우진 1988). 시간적 순서로 본다면 민족이 형성되기 전에 인종이 형성되고 그 인종은 이전에 대인종의 형태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조선에 적용시키면 조선민족-조선옛류형사람-동북(부) 아세아 인종-아시아 대인종이 된다.

그러나 인종의 개념은 1990년대 오면서 일부 수정된다. 아시아 대인종, 동북(부) 아세아 인종의 의미에는 일반화된 의미를 그리고 조선옛류형사람에는 좀더 특별한 의미를 준다. 사회적 의미도 주지만 또한 ‘우리 강토의 선주민인 조선옛류형사람 들은 동부아세아의 옛주민들과 뚜렷이 구별되는…’ (장우진 1992b: 11)과 같은 특별함의 가치를 부여한다 구체적으로는 인종의 형성에 순수한 자연적 요인 뿐 아니라 이른바 ‘사회적 요인’도 포함이 된다. 구체적으로 대인종이 형성될 때는 자연적 요소가 그리고 인종이 형성될때 자연과 사회적 요소가 필요하다고 본다(고광렬 1992).

구석기시대 후기의 퍼즐은 이후 신석기와 이전의 구석기시대 중기를 이어주는 교량의 역할을 한다. 구석기시대 중기와 전기 역시 중요한 교량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각각의 퍼즐은 독자성과 우수성이 담겨있다. 따라서 외부로부터의 유입이 들어갈 자리는 사실상 극히 적다.

북한도 신인은 현생인류인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를 지칭하기에 현생인류와 관련해서는 그 기원에 대한 세계적 경향을 인식하고 있다. 현생인류 기원에 대한 논의에서 다양한 이론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아프리카기원설과 다지역진화설 그리고 동화이론을 들 수 있다. 북한도 아프리카 기원설과 다지역 진화설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다. 그런데 아프리카 기원설에 대해서는 당연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프리카 기원설은 가장 영향력이 큰 만큼 부르는 이름도 많은데(예: recent African origin of modern humans, Out of Africa model (OoA), Mitochondrial Eve hypothesis, replacement hypothesis, Garden of Eden hypothesis, Noah's Ark hypothesis) 북한에서는 ‘노아의 방주모형’(김춘중 2009: 119) 또는 ‘단일지역 기원설’(국립문화재연구소 2017b: 463) 등으로 소개하고 있다¹³⁾. 그러나 이 이론을 따를 경우, 조선사람의 핏줄의 연원이 아프리카가 된다. 따라서 다지역기원설에 더 강한 입장으로 제시하고 있다. 조선의 신인은 외부에서 유입된 신인이

12) 북한의 많은 자료에서 진화에 대한 생각을 엿볼 수 있는데 최소한 북한의 인류학적 입장에서 진화는 지속되고 방향이 없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듯 하다. 가령 ‘우리 강토의 신인들이 인류의 진화과정을 마감짓고 현대사람의 모습을 갖추게 되자마자 인종적으로 분화하여…’(장우진 2009: 52), 신인의 출현으로 지구상에서 인류의 진화발전과정은 기본적으로 끝나게 되었으며…….’(김춘중 2009: 128), ‘많은 고생물학적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이 법칙에 의하면 생물계의진화는 정향적인 진화라고 할수 있다. 어떤 생물체든지 진화과정에 주어진 일정한 방향으로만 변화한다.’(장우진 2002b: 27).

13) 해당 이론에서 현재의 입장이라면 현생인류는 약 20만 년 전을 넘어서 30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처음 등장을 하게 된다(Hublin et al. 2017). 북한은 2009년 현재를 기준으로 본다면 20만 년 전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이론에 대해서는 최근 경향에 귀를 기울이는 것으로 보인다.

아니고 기존의 인류에서 진화한 것으로 본다.

다지역 진화설을 따른다고 해도 그 신인이 바로 아시아의 작은 지역인 북한에서 출발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은 북한 구석기 연구자의 답은 다음과 같다; ‘우리 강토에서 신인단계의 화석인류가 동부아시아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출현하였다는데...’(장우진 2009: 63-64). 신인이 지역 내 기존의 인류에서 진화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기존의 인류의 가능성을 아시아 중 북한에서 찾으려 한다.

기본적으로 다지역진화설에서는 지역권에 따라서 진화가 발생하더라도 같은 종으로 향함을 설명하는데 있어 서로 간의 유전자교류를 제시한다.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등의 각 지역의 인류가 서로 간의 재생산이 가능한 종이라는 사실은 독자적 발생이라도 일정한 수준의 유전자 교류를 담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언급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종교배’, ‘혼혈’ 등에 대해선 본질적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거부감은 유물상으로도 나타난다. 만달 유적 등에서 발견되는 잔돌날, 잔돌날 속돌의 존재는 외부에서 전파된 기술로서 정의하지 않는다. 인류와 문화가 모두 본토기원과 단일 기원 그리고 그 연속성을 주장한다.

신인의 기원이 되는 고인은 구석기시대 중기의 사람들이고 이는 화석증거로 본다면 덕천사람 력포사람과 함께 화대사람을 들 수 있다. 특히 고인중에서 늦은 시기의 고인인 력포사람은 발전된 고인으로 생각되며 이른 시기의 신인인 통곡사람으로 계승된다고 보고 있다. 전체적으로 력포사람뿐 아니라 통곡사람, 화대사람 모두 신인의 직계 선조가 되는 고인으로 보고 있다(고광렬 2015). 화대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른 고인으로 불리고 있다. 편년은 약 30만 년 전으로 보고 있는데(장우진 2009: 39) 이전의 원인과 이후의 신인을 이어지는 화석 증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북한에서 주장하는 전형적 고인과 비전형적 고인의 분류(장우진 1988)는 사실 인류 진화 입장에서 매우 생소한 의견이다. 다음 세대로 유전자를 전달하는데 성공한 집단을 비전형적 고인으로 보는 것으로 파악된다. 여타의 지역과는 달리 구석기시대 중기를 성공적으로 살고 후기로 이어주는 사례가 북한에 존재함을 알리고자 한다.

원인 단계는 북한에서 화석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인류학적으로 ‘피줄의 이어감’을 설명하기 힘들다. 그러나 석기유물로는 가능하다. 100만 년 그 이상을 보여주는 검은모루에서 발견된 대표적인 석기는 주먹도끼형 석기이다. 그리고 최근 조사되어 약 88만 년을 지시하는 동암동 유적 대표 석기는 주먹도끼형이 아닌 주먹도끼 이다. 북한은 인류의 진화도 마찬가지로 석기 기술의 변화 과정도 단선적 방향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어떤 생명체든지 진화과정에 주어진 일정한 방향으로만 변화한다’(장우진 2002b: 27)와 ‘모든 지역의 석기는 구석기시대 전기로부터 중기, 후기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하나의 방향으로 변천되었다고 말할수 있다.’(어해남 2016: 3)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검은모루에서 발견된 주먹도끼 연구자들의 꾸준한 주장은 전형성이 떨어진 주먹도끼형의 석기로 발표되고 있다. ‘주먹도끼모양의 석기’(김용간 1984: 16; 1990: 18), ‘주먹도끼형 석기’(장우진 2002b: 9)로 불리고 있는데, 전형적인 주먹도끼와의 비교를 통한 선후 관계인데 전형적 주먹도끼의 프로토타입으로 보고 있다. 즉, 주먹도끼보다 더 오래된 주먹도끼 이른바 ‘시초형’으로 보고 있다(장우진 2009: 22). 반면 동암동 주먹도끼는 주먹도끼형으로 부르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전형적인 것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 북한의 주먹도끼는 시초형에 따라서 하나의 방향으로 진보되었다고 생각할 수 도 있다.

VI. 결론

만약 북한 구석기 연구를 학사적 의미에서 키워드로 정리한다면 어떻게 생각해 본다. 1950년대 문헌 연구, 1960년대 최초 발굴, 1970년대 개설서 발간, 1980년대 재탄생 한 학술지, 1990년대 인류과 인종, 2000년대 편년의 수정, 그리고 2010년대의 지속적 조사라는 키워드로 정리가 가능할 수 도 있다. 1950년대 구석기 존재의 가능성을 단지 논의로 그쳤다고 보기엔 당시 기준으로 논문 내용은 간과할 수준은 아니다. 1960년대 굴포리의 발견과 그리고 검은모루의 조사는 현재까지도 학사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나름의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 1970년대 『조선 고고학 개요』, 『조선의 구석기시대』, 『조선전사: 원시편』의 출간은 당시 북한 구석기 연구가 이론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같은 시기 남한 구석기 연구 정도를 생각한다면 상대적으로 높은 연구 성취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1980년대 『조선고고연구』의 탄생은 조사뿐 아니라 연구도 일정 부분 정상화됨을 알려주었다. 1990년대 인류, 인종의 키워드가 연구에 자주 등장하며 2000년대 기존의 연구와 새로이 절대연대측정으로 획득된 연대값의 적용으로 구석기시대 편년 수정이 이루어진 시기로 볼 수 있다. 2000년대 말 정리된 『조선고고학총서, 총론』를 통해 북한 자신의 연구사적 입장의 이해와 이의 적용이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북한의 구석기 연구를 이런 방향으로만 정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북한 구석기 연구에서 1950년대 종파투쟁 이후에 실각한 학자들이 과연 얼마나 되고 구석기 연구의 초기 방향성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아직 정확히 모른다. 과연 현재 고고학 자료가 얼마나 알려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1960년대 초까지 왕성하게 활동하다 사대주의 사고를 가진 낡은 시대 인텔리로 규정된 많은 연구자들과 1967년의 5.25 교시는 어떠한 관련성을 가졌는지 극히 일부분만 알려졌을 따름이다. 1970년대 김일성주의는 이미 막스-레닌주의 사상을 대치하는 사상이 되었고 교시는 당연히 학문에도 크나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1976년 11월 28일 교시에서 밝힌 ‘인류발상지에 대한 독창적 사상’(장우진 1988: 78)을 우리는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 자문할 수밖에 없다. 1980년대 이후 어쩔 수 없이 고립화의 길을 가게 된 북한의 남은 선택지인 민족이란 담론과 조선민족제일주의가 구석기 연구에 어떠한 방향성을 부여하였는지 겨우 어렵풋하게 알게 된 듯하다. 1990년대 중반의 김일성의 사망과 유훈 통치가 구석기 고고학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이제 비로소 그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까지는 저서와 학술지의 텍스트 이면을 충분히 바라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하는데 머물고 있다. 1980년 이래로 1990년대 그리고 그 이후에도 꾸준히 제시되는 가족국가적 사고와 고고학 그리고 구석기 고고학이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논의는 이제 의문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2000년대 북한은 1960년대 이래로 냉전과 고립화와 식량위기를 겪고도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 모든 면에서 동일한 방향성을 가진다. 이는 학술지를 보아도 알 수 있게 하여 준다. 2010년대는 채 끝나지 않았지만 북한이 만들어 가는 구석기시대 연구는 새로운 유적과 유물로 보완은 있을지언정 결코 혁명적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확신 아닌 확신을 하게 된다.

■ 참고문헌 ■

- 고고학연구소·사회과학원, 1977, 『조선 고고학 개요』,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고광렬, 1992, 「인종의 분화와 그 형성요인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3): 37-39.
- , 2015, 「우리 강토에서 이루어진 화석인류진화의 특성」, 『조선고고연구』, (1): 25-28.
- 국립문화재연구소, 2017a, 『조선고고연구 해제집 1』,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 , 2017b, 『조선고고연구 해제집 2』,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 , 2019, 『력사학제문제 문화유산 문화유물 고고민속 해제집』,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 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한국고고학전문사전(구석기시대편)』,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 국사편찬위원회, 1981, 『한국의 선사문화』, 서울: 탐구당.
- , 1983, 『한국사론』,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 김성일, 2012, 「화석인류의 학명을 리해하는대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조선고고연구』, (1): 37-39.
- 김용간, 1958, 「쏘련 연해주 지방 유적 탐사기」, 『문화유산』, (6): 37-45.
- , 1984, 『조선의 구석기시대』, 사회과학출판사.
- , 1990, 『조선고고학전서: 원시편(석기시대)』,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 김용남, 1960, 「안가라강 수력 발전소 구역에서의 고고학적 조사 발굴 사업」, 『문화유산』, (2): 99-108.
- 김찬범, 2005, 「청파대동굴유적의 제14지층에서 나온 석기에 대하여」, 『김일성종합대학학보(력사 법학)』, 51: 28-33.
- 김춘중, 2009, 『사람의 발생과 인류사회의 형성』,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사회과학원 사회과학정보센터.
- 김춘중·한금식, 2016, 「평안남도 순천시 동암동유적 발굴보고」, 『조선고고연구』 (1): 15-17, 34.
- 김혜정, 1986, 「발굴 및 답사소식 (1)」, 『조선고고연구』, (1): 45-48.
- 도마셰브스끼, 웨, 웨, 1957, 「1953~1956년 기간에 원동 지방에서의 고고학 연구」, 『문화유산』, (5): 38-49.
- 도유호, 1962a, 「고고학이란 어떠한 과학이며, 력사연구에는 왜 고고학이 필요한가?」, 『문화유산』, (3): 61-65.
- , 1962b, 「빙하기란 무엇인가」, 『문화유산』, (4): 62-65.
- , 1962c, 「인류의 기원」, 『문화유산』, (5): 49-54.
- , 1964, 「조선의 구석기시대 문화인 굴포문화에 관하여」, 『고고민속』, (2): 3-7.
- 력사연구소·사회과학원, 1979, 『조선전사 1: 원시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로영대, 1962, 「함북 화대군 털코끼리 발굴지에 발달한 니탄층의 포자 화분 조합」, 『문화유산』, (4): 49-54.
- 리주현·한은숙, 2009, 『총론』,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사회과학원 사회과학정보센터.
- 리홍철, 2016, 「구석기시대석기의 변천 과정」, 『조선고고연구』, (2): 43-45.
- 박선주, 2005, 「한반도 출토 고인류화석과 동북아시아 고인류화석」, 『한국구석기학보』 11: 1-12.
- 배기동, 1990, 「구석기시대 연구사」, 『국사관논총』, 19: 1-52.

- 백기하, 1990, 「사람머리뼈의 남녀차이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 7-12.
- 브루스, 트리거 (성춘택역), 2010, 『고고학사: 사상과 이론』, 서울: 사회평론.
- 사회과학원·고고학연구소, 1977, 『조선의 구석기시대』, 사회과학출판사.
- 사회과학원·역사연구소, 1988, 『조선통사』, 서울: 오월.
- 서국태, 2012,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고고학의 대전성기를 펼쳐주신 불멸의 업적」, 『조선고고연구』, (4): 2-4.
- 서동만, 2005, 『북조선사회주의 체제성립사』, 서울: 선인.
- 성춘택, 2017, 「한국 구석기고고학사 시론」, 『한국상고사학보』, 98: 5-41.
- 손보기, 1972, 「한국의 구석기 문화」, 『백제연구』, 3: 55-72.
- 어해남, 1994, 「우리 나라 구석기시대 석기재료의 특성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3): 31-65.
- , 2016, 「아시아동부지역 구석기시대석기의 특징에 대한 견해」, 『조선고고연구』, (2): 2-4.
- 오경숙, 2004, 「5·25 교시와 유일사상체계 확립」, 『한국동북아논총』, 32: 325-44.
- 이경섭, 2015, 「특집 -북한 고조선 연구의 기원과 성립: 북한 초기 역사학계의 단군신화 인식과 특징 -리상호와 리지린의 연구를 중심으로」, 『先史와 古代』, 45: 59-82.
- 이광린, 1990, 「북한의 고고학」, 『동아 연구』, 20: 105-36.
- 이기성, 2015, 「북한선사고고학의 패러다임」, 『고고학』, 14: 5-32.
- 이선복, 1992, 「북한 고고학사 시론」, 『동방학지』, 74: 1-74.
- , 2018, 『인류의 기원과 진화 (제2판)』,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서울,
- 이종석, 2000, 『새로 쓴 현대 북한의 이해』, 서울: 역사비평사.
- 인류진화발전사연구실, 1995, 『조선 서부 지역의 동굴 유적』,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 장우진, 1986, 「최근 인류의 발생시기에 대한 학계의 논쟁점」, 『조선고고연구』, (3): 46-47.
- , 1988, 『인류학 (2판)』,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 , 1992a, 「우리나라 역사의 유구성과 조선사람의 시원문제에서 달성한 성과」, 『조선고고연구』, (1): 7-11.
- , 1992b,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사람의 인종문제연구에서 이룩한 성과」, 『조선고고연구』, (2): 9-14.
- , 2002a, 「우리 나라의 산악빙하와 그것이 화석인류의 생활에 미친 영향」, 『조선고고연구』, (2): 6-10.
- , 2002b, 『조선민족의 역사적 뿌리』,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 , 2009, 『조선사람의 기원과 형성』,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사회과학원 사회과학정보센터.
- , 2012, 「우리 나라에서 잔돌날숙들의 시원문제」, 『조선고고연구』, (2): 2-4.
- 장우진 외, 2004, 『화산용암속에묻힌인류화석』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 전미영, 2008, 「김정일 시대 북한의 지식인 정책」, 『사회과학연구』, 16: 170-99.
- , 2011, 「사회변혁기 북한지식인의 역할과 정치의식-북한 학술지 분석을 중심으로(1998~2008)」, 『통일과 평화』, 3: 301-44.
- , 2018, 「김정은시대 북한 민족주의: 담론·문화·정책」, 『북한학』, 43: 218-49.

- 정규영, 1999, 「콜로니얼리즘과 학문의 정치학」, 『교육사학연구』, 9: 21-36.
- 정준영, 2015, 「군기(軍旗)와 과학 - 만주사변 이후 경성제국대학의 방향전환」, 『만주연구』, 20: 75-117.
- 조은희, 2012, 「연구논문: 역사적 기억의 정치적 활용; 북한의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분석을 중심으로」, 『통일과 평화』, 4: 111-55.
- 차달만, 2013, 「유적유물을 통하여 본 대동강류역 청동기시대의 사회관계」, 『조선고고연구』, (2): 2-5.
- 최선경·이우영, 2017, 「조선민족' 개념의 형성과 변화」, 『북한연구학회보』, 21: 1-24.
- 편집부, 1958, 「용어해설(고고학, 구석기시대, 중석기시대)」, 『문화유산』, (5): 73-75.
- , 1959, 「민족 문화 유산 계승 발전을 위한 우리 당 정책의 빛나는 승리」, 『문화유산』, (4): 1-12.
- , 1961, 「제4차 당 대회에서 우리 앞에 제시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유산』, (5): 1-5.
- , 1962, 「구석기란 무엇인가?」, 『문화유산』, (6): 48-55.
- , 1963, 「함경북도 웅기군 굴포리 서포항동에서 구석기시대 유적 발견」, 『고고민속』, (2) 54.
- , 1987, 「쏘련 원동지방의 구석기시대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 36-43.
- 한금식, 2014, 「청파대동굴유적발굴이 가지는 문화사적의의」, 『조선고고연구』, (4): 40-41.
- 한창균, 1990, 「북한 고고학계의 구석기시대 연구동향-제 4 기의 연구와 구석기시대의 시대구분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65: 267-93.
- , 1992, 『북한의 선사고고학』, 서울: 백산문화.
- , 1997, 「북한의 구석기 유적 연구」, 『백산학보』, 48: 5-31.
- , 1999a, 「1950년대의 북한 고고학 연구」, 『백산학보』, 53: 179-218.
- , 1999b, 「1960년대의 북한 고고학 연구」, 『백산학보』, 55: 5-56.
- , 2000, 「북한의 선사시대 펜석기 연구」, 『백산학보』, 57: 5-57.
- , 2013, 「도유호와 한홍수: 그들의 행적과 학술 논쟁(1948~1950)」, 『한국고고학보』, 87: 76-118.
- 한홍수, 1936, 「朝鮮石器文化概說」, 『진단학보』, 4: 127-55.
- , 1948, 「原始社會史研究에 關한 覺書」, 『력사제문제』, (2): 117-32.
- , 1949, 「民族文化遺産의 保存과 繼承에 關한 諸問題」, 『문화유물』, (1): 9-39.
- , 1950a, 「朝鮮民俗學의 樹立을 爲하여」, 『문화유물』, (2): 1-18.
- , 1950b, 「朝鮮原始史研究에 關한 考古學上諸問題」, 『력사학제문제』, (1): 4-55.
- Bae, Christopher J., and P. Guyomarc'h, 2015, 'Potential contributions of Korean Pleistocene hominin fossils to paleoanthropology: A view from Ryonggok Cave', Asian Perspectives, 54.
- Burkitt, Miles, 1925, Prehistory, Cambridge: The University Press: Cambridge.
- Gibbard, Philip, and Kim M Cohen. 2008. 'Global chronostratigraphical correlation table for the

last 2.7 million years', *Episodes*, 31: 243

Hublin, Jean-Jacques, Abdelouahed Ben-Ncer, Shara E Bailey, Sarah E Freidline, Simon Neubauer, Matthew M Skinner, Inga Bergmann, Adeline Le Cabec, Stefano Benazzi, and Katerina Harvati, 2017, 'New fossils from Jebel Irhoud, Morocco and the pan-African origin of *Homo sapiens*', *Nature*, 546: 289.

Leakey, L, S, B, 1934, *Adam's Ancestors*, New York: Harper & Brothers.

Lee, Hyeong Woo, 2013, 'The Politics of Archaeology in North Korea: Construction and Deterioration of Toh's Knowledge', *International Journal of Historical Archaeology*, 17: 401-21.

Norton, Christopher J, 2000, 'The current state of Korean paleoanthropology', *Journal of Human Evolution*, 38: 803-25.

분단 70년 북한 고고학의 현주소

신석기시대 농경과 문명의 기원

소 상 영

(충청문화재연구원)

-
- I. 머리말
 - II. 북한의 신석기시대 연구사
 - III. 남북한의 신석기시대 농경연구
 - 1. 남한
 - 2. 북한
 - IV. 농경과 대동강문화론
 - V. 맺음말

신석기시대 농경과 문명의 기원

소 상 영 (충청문화재연구원)

I. 머리말

우리나라의 고고학은 1990년 후반 이후 폭발적인 자료의 증가에 힘입어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다. 신석기문화 연구도 편년 중심에서 벗어나 다양한 주제로 옮겨가고 있으며 주변지역과의 비교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북한지방의 고고학 자료에 대한 문제이다. 특히 중서부지방의 상대 편년은 공산문화의 시기구분에 기초하고 있지만 남한 학계에서는 실제 자료에 대해 접근할 수 없는 실정이다. 2009년 북한 사회고고학연구소에서 발간한 조선고고학전서가 정식 발간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61권의 분량으로 출판된 조선고고학전서에서 신석기 분야는 총론 성격의 1권과 각 지역별 유적을 소개한 6권 등 총 7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기존에 알려진 자료를 일부 보충하고 도면 등이 개선된 것 외에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지는 못하다. 총론 성격의 ‘조선신석기시대 문화 연구’도 철저하게 대동강 문화론에 기초하여 신석기시대 문화의 고유성과 단일성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을 뿐이다.

이미 지적된 바와 같이 1990년대 이후 북한의 고고학은 철저하게 최고지도부의 방침에 철저히 순응하는 형태로 발굴조사가 추진되고 서술되었다(한창균 2013). 이런 현실속에서 북한 학계의 주장을 소개하고 남한 학계와 비교하는 일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회의가 드는 것도 사실이다. 이미 북한 신석기연구사는 여러차례 정리된 바 있기도 하다(신숙정 1990, 임상택 2015·2017).

이에 이 글에서는 북한의 신석기시대 연구사를 간략히 정리하고 대동강문화론의 당위성을 뒷받침 하는 근거로 강조되는 신석기시대 농경에 대한 북한 학계의 주장을 소개하고 남한 학계의 연구 성과와 비교하고자 한다.

II. 북한의 신석기시대 연구사

북한 고고학 연구사의 정리는 1980년대부터 이미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 2009년 조선고고학총서¹⁾

1) 조선고고학총서는 출판사 진인진이 정식 저작권 계약을 맺고 2009년 조선고고학 전서라는 이름으로 출간

1권인 총론이 출판된 이후에는 한창균(2013)과 이기성(2015)의 시기구분과 연구사 정리가 대표적이다.

한창균은 북한의 정치사적 변화를 기준으로 ‘총론’에 제시된 7기의 시기구분을 고고학 연구경향에 중점을 두어 초기-형성기-확립기-변혁기의 4개의 시기로 구분하였다. 이기성은 성격정립기-과학으로서의 고고학 정립기-학문에서 도구로의 변화기-계몽고고학기-선전고고학기-총서발간기의 6기로 구분하였다(표 1).

표 1 . 북한 고고학의 시기 구분

총론	한창균(2013)	이기성(2015)
I 기 : 1945.8~1953.7	초기 : 맑스-레닌주의적 방법론 적용의 모색(1945~1953)	성격 정립기: 해방이후~1952
II 기 : 1953.8~1961.8	형성기 : 주체적 방법론으로의 전환(1954~1970)	과학으로서의 고고학 정립기 : ~1960년대 초
III 기 : 1961.9~1970.10		도구로의 변환기 : ~1970년대 초
IV 기 : 1970.11~1980.9	확립기 : 주체적 방법론에 의한 고고학 체계 확립(1971~1992)	계몽 고고학기 : ~1990년대 초
V 기 : 1980.10~1989.12		
VI 기 : 1990.1~1994.12		
VII 기 : 1995 1월이후	변혁기 : 단군릉 발굴과 개건(1993년 이후)	선전 고고학기 : ~2000년대 후
		총서 발간기 : ~현재

신석기시대를 대상으로 북한의 고고학사를 정리한 글은 임상택이 대표적이다. 임상택(2015)은 공산문화의 편년과정의 변천을 5기로 구분하여 정리한 바 있으며, 다시 토기편년을 중심으로 성립기(해방후-1960년대 중반)-조정기(1960년대 중반-1972년)-확립기(1973년-1999년)-정체기(2000년-현재)의 4기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2017). 그의 북한 신석기 고고학사 정리는 토기편년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데도 큰 무리는 없다. 이글에서는 임상택의 시기구분을 통해 북한의 신석기 연구사를 간단히 요약하고자 한다.

1. 성립기 : 해방이후 1960년대 중반까지 북한 신석기학계의 가장 큰 성과는 신석기와 청동기 시대 토기의 명확한 구분과 공산문화의 설정이라고 할 수 있다. 1950년 후반이 되면서 문양 없는 토기도 시대별 구분이 명확해 지고 빗살무늬토기라는 명칭이 신석기시대 토기를 지칭하는 용어로 자리 잡게 된다(도유호 1960).

공산문화는 공산유적 보고서를 통해 설정되며 금탄리, 지탐리 등의 발굴을 거쳐 중서부지방의 신석기문화를 대표하는 명칭으로 자리잡게 된다. 서북과 동북지역도 토성리, 신암리 서포항 유적 등의 발굴조사를 통해 한반도 신석기문화에 대한 이해가 시작된다. 공산문화의 빗살무늬 토기는 도유호의 주장에 따라 북구로부터 기원한 캄케라믹 문화전통에서 기원되었다는 계통론과 전파론의 입장으로 이해 되었으며, 1960년대 후반 도유호의 주장에 대한 비판이 본격화 되기 이전까지 북한학계에서 신석기문화를 설명하는 유일한 틀로 작용한다.

하였다. 다만 1권에 해당하는 총론은 제외되었다.

2. 조정기 : 1960년대 중반 이후 1972년 까지의 시기는 북한의 주체사상이 강조되는 정치적인 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이전의 맑스-레닌주의적 해석에서 주체사상에 따른 문화의 단일성과 고유성이 강조로 전환되는 시기이다(한창균 2013). 이제 도유호의 전파론과 계통론은 강하게 부정되고(김용남 1967), 1971년에는 ‘조선원시고고학개요’가 집필된다. 이 책에서는 우리나라의 신석기문화가 중국의 황하유역이나 시베리아지역과는 다른 독특함과 고유성을 강조하기 시작한다. 이와같은 고유성 단일성의 강조는 현재까지도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임상택(2017)의 설명과 같이 관점의 변화를 제외하면 이전시기의 연구성과와 별다른 차이점을 보이지 않는다. 공산과 서포항의 발굴 성과를 중심으로 신석기문화를 전기(기원전 5천년기 ~ 4천년기)와 후기(기원전 3천년기~2천년기 초)로 구분한 것과 빗살무늬토기라는 명칭이 여전히 사용되는 것은 이전시기의 연구 성과를 충실히 따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이전시기와 신석기문화의 시작과 전개를 설명하는 관점만이 변화 했을 뿐 이전시기의 유적 조사 및 편년관 등은 그대로 계승되고 있다.
3. 확립기 : 1973년~1999년 까지의 시기는 북한 사회가 주체사상이라는 유일사상으로 경직화되면서 신석기문화에 대한 설명도 획일적인 모습을 띠게 된다. 학자 개인의 의견이나 연구성과 보다는 당이 내린 지침에 의해서 작성된 논문과 개설서 등이 출판되는 시기이다. 빗살무늬토기가 새김무늬그릇이라는 용어로 대체되는 것도 이 시기부터이다.
이 시기에는 금탄리 2문화층이 공산문화로 편입되고(김용남 외 1975) 공산문화의 4기 편년이 확립된다(김용남 1976). 4기체제로 확립된 공산문화는 이후 동근 밑 빗살무늬토기가 출토되는 지역을 모두 포괄하여 운하문화로 확장되고 공산문화는 그 하위유형으로 재설정되었다(서국태 1999). 또한 서북지역을 미송문화, 동북지역을 서포항 문화라고 명명하고 우리나라의 신석기 시대의 범위를 중국 요녕과 길림, 러시아 연해주 지역으로 확장하게 된다.
운하문화는 5기, 미송문화는 4기 서포항 문화를 5기로 편년하고 있다. 또한 1993년 단군릉 발굴과 개건을 계기로 제기된 대동강 문화론에 의거 운하문화가 서포항 문화보다 빠른 것으로 설명되고 신석기문화 전기를 기원전 6,000년 전반기 이전 중기를 기원전 6,000년 후반기부터 5,000년기 전반기, 후기를 기원전 5,000년기 후반기부터 4,000년 기 전반기로 대폭 상향 하였다(서국태 1999·2009). 주지하다시피 이러한 연대관은 대동강문화론에 따른 정치적 논리에 의한 것으로 별다른 근거는 제시되고 있지 않다.
4. 정체기 : 2000년~현재에 이르는 시기에는 조선고고학 전서의 발간에 따라 7권의 신석기시대 관련 서적이 발간된다. 이중 ‘조선신석기시대 문화 연구(서국태 2009)’를 제외한 6권은 각지역의 신석기시대 유적의 발굴 성과를 집약한 발굴조사보고서 모음집의 성격을 띠고 있다. 조선고고학전서는 남한의 출판사(진인진)에 의해 정식계약으로 출간되어 이전에 발간된 보고서류들 보다 향상된 도면을 제공하고 있지만 특별히 새로운 자료가 포함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조선신석기시대 문화 연구’의 경우에도 ‘조선시대 신석기문화의 단일성과 고유성(서국태1999)’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고 있다.
이 시기에는 리주현, 한은숙 등 새로운 연구자가 출현하며 해외유적의 소개 신석기시대 문화 분포범위의 확장에 관한 글들이 출간되고 있다. 특히 ‘조선과 동북동북아시아지역 신석기시대

문화(리주현 2013)’는 동북아시아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신석기문화를 이해 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 할 만하다. 이는 최근 남한학계의 연구경향과 부합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 책의 머리말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나라 신석기문화의 고유성과 단일성에 대한 지나친 해석 등은 여전히 서국태의 관점과 큰 차이를 발견 하기는 어렵다. 결론적으로 이 시기는 새로운 연구자의 출현과 연구범위의 확장에도 불구하고 이전시기와 마찬가지로 대동강문화론의 틀에 맞추어 모든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다.

Ⅲ. 남북한의 신석기시대 농경연구

1. 남한

우리나라 신석기시대에 주로 재배된 작물은 조와 기장이다. 조는 강아지풀, 기장은 야생 기장을 순화하여 재배종으로 만든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전환 과정의 증거가 없기 때문에 기원지나 재배 시기에 대한 약간의 이견은 있지만 외부에서 전래되었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안승모 2012).

남한에서 신석기시대 농경연구가 활발해진 것은 부유선별법과 토기 압흔분석법의 도입에 힘입은 바 크다. 특히 2000년 후반 이후 도입된 압흔 분석법을 통해 많은 유적에서 조, 기장 재배의 증거가 확인되면서 적어도 신석기 시대 중기 초기 농경이 보편화되었다는 것에 연구자들의 견해는 대체로 일치한다. 최근 동삼동, 범방 패총 출토 용기문토기와 무문양토기의 압흔 분석을 통해 조기말 잠곡 재배가 시작되었다는 견해(小畑弘己 2013, 小畑弘己·眞邊彩 2014)는 아직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 된다. 아직 발견예가 많지 않고 동삼동 패총에서 기장의 압흔이 발견된 토기는 용기문 토기가 아니라 남해안 후기의 첩부문(貼付文) 토기로 파악하고 조기 농경론에 회의적인 견해도 있기 때문이다.(金恩瑩 2016). 하지만 신석기시대 전기에 중서부지역을 중심으로 잠곡재배가 도입되고 중기에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신석기시대를 농경사회라고 생각하는 연구자는 거의 볼 수 없다. 농경사회는 단순히 식물의 재배뿐만 아니라 동식물을 아우르면서 순화중에 생계경제의 상당부분 또는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김민구 2013). 남한 연구자들은 신석기시대 잠곡재배를 초기 농경, 원경 등으로 표현하며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의 성격이 기본적으로 수렵채집사회라는데 대부분견해가 일치한다. 하지만 조, 기장 등의 잠곡재배가 생계경제에 일정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데에도 큰 이견은 없다.

조 기장 외에도 콩, 팥 등의 두류와 들깨도 일부 재배된 것으로 보인다. 옥천 대천리 유적에서 출토된 벼도 탄소연대측정결과 신석기시대 종자로 판명되었으나 본격적인 재배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축적이 필요하다. 이제 늦어도 신석기시대 전기부터 초기농경이 시작된 것은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이다.

신석기시대 초기농경의 존재가 확실해지면서 농경의 도입배경과 경작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

되었다. 농경의 도입과 확산 배경은 중기이후 기후의 한랭화 경향에 따른 자원간의 평형상태가 무너지면서 식물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는 현상을 들고 있다. 물론 농경의 도입 배경을 불확실한 환경변화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우며 인구증가, 사회복합도의 변화 등 다양한 원인이 고려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아직은 원론적인 차원에 머물고 있다. 경작방식에 대한 논의는 화전과 범람원 경작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구체적인 경작유구가 발견되지 않아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경작방식에 대한 획기적인 자료는 고성 문암리 유적에서 조사되었다. 문암리 유적의 2012년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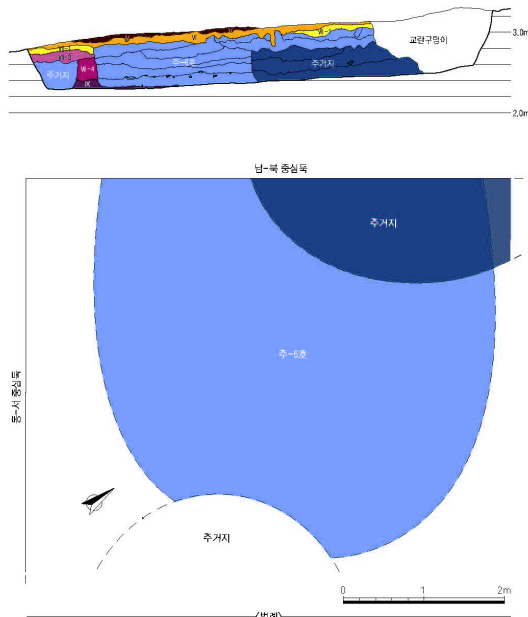


그림 5. 6호주거지 평면도 및 토층도
(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p46)

조사에서 2개층의 발이 조사되었는데 이중 하층 발이 주거지와 선후관계, 탄소연대측정 등을 통해 신석기시대 중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하층발은 이랑과 고랑을 갖춘 형태로 동아시아에서 처음 조사된 신석기시대 경작유구로 학계와 언론에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으며, 2014년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까지 수록되었다(정재정 외 2014, 한철호 외 2014).

그러나 발굴당시부터 발의 실체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어왔으며, 발굴조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신석기시대 경작유구일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발굴조사보고서의 도면을 살펴보면 하층발과 신석기 시대 중기 주거지의 선후관계가 역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방사성탄소연대, 상층발과 하층발의 관계, 식물유체와 구조체 분석결과로 볼 때 역사시대 이후의 경작유구일 가능성이 높다(소상영 2019).

2. 북한

남한의 신석기시대 농경 연구는 탄화작물, 토기압흔 등과 자연과학 분석을 적극 활용하는 실증의

표 2. 남북한 재배작물 출토 주요유적

유적	출토작물	연대
지탑리	조(또는 피)	중기
마산리	조	중기
남경	조	중기
운서동 I	조, 기장, 들깨속(압흔)	전기
능곡동	조, 기장, 팥 두류	중기
대천리	벼, 보리, 밀, 조, 기장	중기
중산동	조, 기장	후기

단계로 옮겨 갔지만 북한은 여전히 도구의 형태를 이용한 추론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북한 지역에서는 지탑리, 남경 유적 등에서 탄화작물이 출토되었지만 이를 활용한 연구는 찾아 볼 수 없다.

북한학계에서는 우리나라의 신석기시대는 이른 시기부터 농경을 주 생계 기반으로 한 정착생활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논지를 전개한다. 물론 수렵과 어로 채집이 생계경제에

차지 하는 중요성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의 신석기시대의 성격을 농경사회로 규정하고 있다.

1986년 발행된 ‘조선의 신석기시대(서국태 1986)’에서는 우리나라 신석기시대 문화의 첫 번째 특징으로 조선 옛류형사람들은 일찍부터 항구적인 정착생활을 하면서 팥이 농사를 비롯한 다양한 생업에 종사한 것으로 설명하며 농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책의 3장 신석기시대 생산의 발전에서도 비록 원시농업으로 표현하기는 하지만 전기에는 팥이 농사 중 후기에는 보습 농사로 발전 했으며, 농경이 다른 지역의 신석기문화와 구별되는 본질적 특성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 학계의 신석기 시대의 농경에 대한 시각은 주체사상이 강조되는 1960년대 중반 이후의 저작물들에서 대부분 유사한 표현으로 반복된다. 이 당시 북한학계에서 원시농업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남한학계에서 사용하는 초기 농경, 원경 등과 유사한 개념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본격적인 목축의 시작은 청동기시대부터 행해졌다는 것으로 볼 때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대동강문화론이 대두된 이후에 발간된 저작물(서국태 1999·2009)에서는 ‘원시 농업’이라는 용어는 사라지고 ‘농업’으로 대체된다. 또한 평양지역을 보습농사의 발상지로 주장하고 그 근거로 서포항 유적과 검은개봉 유적 등 다른 문화권에서 돌보습이 발견되는 시기가 운하문화의 3기에 해당 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하지만 궁산유적이 서포항 유적 보다 빠르게 편년되는 것은 객관적인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대동강 문화론의 등장 이후에 뒤바뀐 점을 감안하면 이 역시 선언적인 주장에 불과 할 뿐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한 학계에서는 도구의 형태를 통한 추론적인 단계를 벗어나 탄화곡물 압흔 분석 등을 활용한 실증적인 단계로 이행 하였다. 또한 토양분석과 다양한 자연과학적 방법을 통해 우리나라 신석기시대 초기 농경의 전개를 규명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학계에서는 여전히 추론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출토된 탄화곡물 등의 자연과학적인 분석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벼의 기원지나 전파의 문제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대동강 문화론의 등장 이후 평양일대를 발전된 보습농사의 기원지로 지목하고 있을 뿐이다.

농경이 신석기시대의 이른 시기부터 도입된다는 주장에는 양측의 견해에서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남한 학계에서는 중기 이후 조, 기장 등의 잡곡재배가 확산되지만 신석기사회의 생계 경제는 수렵채집이 중심이며 초기농경은 보조적인 성격일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주류인데 비해 북한학계에서는 중기에 평양 일대를 중심으로 발전된 보습농사가 발생하여 신석기 사회의 생계 경제는 농경이 중심이며 수렵채집은 보조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농경의 기원에 대해서도 남한 학계에서는 외부에서 전파된 것으로 설명하지만 북한에서는 자체발생을 주장하고 있다.

IV. 농경과 대동강문화론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 축적된 신석기시대의 유적과 유물자료에 기초하여 우리 나라 신석기시대 문화의 단일성과 고유성을 밝힘과 동시에 문화의 발전 양상을 가장 뚜렷이 반영하며 문화의 단일

성과 고유성을 이루는데서 중핵적 역할을 한 대동강류역 신석기시대문화의 지위에 대하여 고찰 하려고 한다(서국태 2009)’

위글은 ‘조선시대 신석기 문화연구’의 머리말 맨 마지막 문단이다. 조선 고고학 전서의 편찬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신석기문화를 어떻게 서술하겠다는 선언적인 주장이 잘 나타나 있다.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대동강 문화는 단군릉의 발굴과 개건을 계기로 시작된 것으로 평양을 중심으로 한 대동강 일대에서 우리나라의 고유하고 독특한 문명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 핵심이다. 또한 대동강유역을 세계 5대문명의 발상지의 하나로 까지 주장하고 있다(서국태·지화산 2009). 대동강문화론의 등장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는 기존의 논고에 잘 설명되어 있으므로(권오영 2003, 하문식 2006, 한창균 2013) 이 글에서는 대동강 문화론의 전제로서 신석기문화가 어떤 방식으로 서술하고 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대동강문화(서국태·지화산 2009)’에서는 1장 2절에 ‘대동강류역은 신석기문화의 발원지 중심지’라는 제목으로 서술되어 있다. 전체적인 내용은 ‘조선신석기시대 문화 연구’를 요약한 수준이지만 발전된 농업의 발상지라는 내용에 더 중점을 두고 서술하고 있다.

공산문화의 전형과 특색이 대동강 일대에서 가장 잘 나타나며 신석기시대 전시기에 속하는 5기의 문화기가 모두 나타나는 점을 들어 어느 지역의 문화보다 가장 이르고 선진적인 원시문화를 발전 시켜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토기의 형태도 어느지역보다 다양하며 표대유적에서 출토된 대형 토기도 대동강 유역 신석기문화의 우수성과 선진성을 보여주는 자료로 열거된다. 또한 표대유적에서 발굴조사된 밀폐식 평지가마와 마제석기의 출토양이 많다는 점 등도 대동강 류역의 선진성을 보여주는 증거로 강조된다²⁾.

무엇보다 강조되는 것은 정착과 농경이다. 앞서 살펴 본바와 같이 1960년 중반 이후부터 북한 학계에서는 신석기시대의 주 생계경제를 농경으로 파악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농업과 정착은 문명의 발생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른바 세계 4대문명의 발상지로 알려진 지역에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결국 대동강문화를 세계 5대문명의 하나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신석기시대 농경이 발생하고 발전된 보습농경이 독자적으로 발전 했다고 설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수순일 것이다.

이 책에서는 약 20페이지에 걸친 대동강 유역의 신석기문화에 대한 설명 중 약 8페이지에 걸쳐 농경과 관련도구에 대한 설명에 할애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자세히 읽어 보아도 대동강 유역에서 농경이 자체 발생 하여 다른 지역보다 발전 했다는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도구의 형태를 이용한 추론적인 설명에 연속일 뿐이다. 보습농사가 중기 이후 대동강 유역에서 일반화되고 이에 따라 작물의 생산량이 증대되어 이에 필요한 돌낫 반달칼 등이 다른 지역보다 일찍 등장 하는 것을 중요한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신석기시대 유적의 발굴조사가 매우 제한 적이며

2) 표대유적에서 발견된 가마는 아궁이와 연소실을 갖춘 신석기시대 후기의 밀폐식 가마로 보고되어 있다. 하지만 약식보고서에 제시된 도면이나 사진으로는 신석기시대 문화층과의 관계 등을 잘 알 수 없어 신석기시대 가마인지 검증이 곤란하다(박철 2005). 불에 직접 닿은 소성흔이 나타나는 표대유적의 토기가 이러한 밀폐식 가마에서 구워졌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있다.

대동강 유역의 발굴조사에 집중되었음을 감안 하면 이와같은 추론에 타당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대동강 유역에서 신석기시대 후기 벼의 재배를 기정사실화 하는 것과 함께 탄화 작물에 대한 연대측정이나 순화종 여부의 연구가 전혀 제시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당혹스럽기조차 하다. 대동강 문화론에서 신석기시대 농경이 강조되는 것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최초의 청동기문화가 이 지역에서 먼저 시작되었다는 것과 고대문명의 발상지임을 주장하는 전제이며 선언적 주장 이외의 의미를 찾기 어렵다.

남한학계에서 본격적인 농경의 시작을 청동기시대, 도작농경의 본격화된 시기를 청동기시대 중기 이후로 보는 시각과는 너무나도 큰 차이를 보인다. 고대국가의 기원도 고조선의 실체와 고대국가의 성립이 남쪽 지방보다 빨랐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해도 인식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점만이 확인될 뿐이다. 신석기문화와 청동기문화의 관계에 대해서도 단절론과 계승론이 양립하는 남한학계의 입장에서 대동강 문화론의 전제로 신석기시대 농경을 강조하고 청동기시대로의 계승을 당연히 하는 북한 학계의 주장과 접점을 찾기는 힘든 일이다.

V. 맺음말

이상으로 북한의 신석기시대 연구사를 간단히 살펴보고 농경에 대한 남·북한 학계의 연구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남한학계에서 중서부지방 상대편년의 수립에는 여러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궁산문화의 시기구분에 힘입은 바 크다는 점을 부인 할 수 없다. 하지만 주체사상이 강조된 시기 특히 대동강문화론이 본격화된 시기 이후부터는 북한 학계의 연구결과를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지 고민스러울 뿐이다. 물론 이는 자유로운 견해를 발표할 수 없는 북한체제의 문제이지 학자들에게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하지만 당장 북한과의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해야 한다면 어떤 주제를 잡아야 할지, 토론조차 가능할지 의문이다. 그나마 접점을 찾을 수 있었던 편년문제조차도 대동강문화론이 대두된 이후에는 천년이상 소급되어 버렸고, 마땅한 근거없이 대동강 유역이 가장 빠르다고 바뀌어 버린 상황이다.

어쩌면 이와같은 문제는 당장에는 전혀 해결책이 없는 문제이지만 한편으로 북한체제가 민주적으로 변화하거나 통일이 된다면 생각보다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일 지도 모른다. 발표자의 생각에 더욱 심각한 문제는 북한 자료의 접근성에 대한 것들이다. 2009년 조선고고학전서가 남한의 출판사에서 발간된다는 소식이 알려졌을 때 획기적인 자료의 증가를 기대했지만 결과는 조금 나아진 몇 장의 도면이 전부이다. 여전히 유적이거나 유구의 도면을 통해서 파악 할 수 있는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며 유물과 기타 자료들이 어떻게 보관되고 관리 되는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학술적 교류의 시작은 북한의 자료현황에 남한학자가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고성문암리유적Ⅱ-발굴조사보고서』.
- 권오영, 2003, 「단군릉 사건과 대동강 문화론의 전개」, 『북한의 역사만들기』, 푸른역사
- 김민구, 2013, 「농업연구와 식물자료:몇가지 이론적 과제」, 『농업의 고고학』, 한국고고학회.
- 김용간, 1976, 「우리나라 신석기시대 문화에 대하여」, 『고고민속』 62-3.
- 김용남, 1967, 「우리나라의 신석기시대」, 『고고민속』 67-3, 사회과학원출판사.
- 김용남 외, 1975, 『우리나라 원시집자리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출판사.
- 金恩瑩, 2016, 「水佳里文化の貼付文土器」, 『SEEDS CONTACT』 3, 設樂科研事務局.
- 김일성종합대학, 1971, 『조선원시고고학개요』, 김일성종합대학 출판사.
- 도유호, 1960, 『조선 원시고고학』, 과학원출판사.
- 박철, 2005, 「표대유적에서 또다시 발굴된 신석기시대 질그릇 가마터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2005-2.
- 서국태, 1999, 『조선 신석기시대 문화의 단일성과 고유성』, 사회과학출판사.
- 서국태, 2009, 『조선신석기시대 문화 연구』, 조선고고학전서9, 사회과학원고고학연구소.
- 서국태·지화산, 『대동강 문화』, 조선고고학전서23, 사회과학원고고학연구소.
- 소상영, 2019, 「중부지역 신석기 고고학의 쟁점」, 『쟁점 중부고고학 무엇이 중요한가?』, 중부고고학회 2019년 정기학술대회 자료집.
- 신숙정, 1990, 「북한고고학계의 신석기문화 연구동향」, 『박물관기요』 6.
- 안승모, 2012, 「동아시아 조·기장 기원 연구의 최근 동향」 『한국 신석기문화의 양상과 전개』, 서경문화사.
- 임상택, 2015, 「북한의 공산문화 편년과정과 연구논리」, 『고고학』 14-3.
- 임상택, 2017, 「북한의 신석기시대 연구사-토기편년을 중심으로」, 『한국 신석기시대 고고학사』, 진인진.
- 하문식, 2006, 「대동강 문화론에서 본 북한학계의 연구 경향」, 『단군학 연구』 14.
- 한창균, 2013, 「북한 고고학사의 시기 구분 체계에 대하여」, 『한국상고사학보』 79.
- 小畑弘己, 2013, 「동삼동패총·비봉리유적 출토 기장·조 압흔의 동정과 그 기준」, 『한국신석기연구』 25.
- 小畑弘己·眞邊彩, 2014, 「韓國櫛文土器文化の土器壓痕と初期農耕」, 『國立歷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187.

분단 70년 북한 고고학의 현주소

북한 청동기시대 고고학 연구 경향의 변화와 쟁점

이 기 성

(한국전통문화대학교)

I. 들어가며

II. 북한 고고학의 학사적 시기 구분

III. 시기별 연구 경향의 변화

IV. 북한과 남한 청동기시대 고고학의 인식 차이

V. 맺음말

북한 청동기시대 고고학 연구 경향의 변화와 쟁점

이 기 성 (한국전통문화대학교)

I. 들어가며

해방 이후 북한과 남한의 고고학은 전혀 다른 길을 걸어오게 된다. 특히 1970년대 이후 급격히 정치성을 띠기 시작한 북한 고고학과 대규모 유적 발굴로 학문적 성장이 가속화된 남한 고고학은 큰 차이를 보이기 시작하며, 이러한 양상은 1990년대 대동강문화의 천명 이후 더 이상 공유되는 부분이 없을 정도의 괴리가 생겨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괴리는 ‘고조선’을 전후 한 청동기시대와 철기시대에 더욱 두드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의 선사고고학은 지속적으로 북한 고고학에 시선을 둘 수밖에 없다. 아직도 중요한 연구 주제 중인 ‘문화의 기원과 계통’을 찾는데 있어 북한의 자료가 주된 연구 대상이지만 그 신뢰성에 의문을 표하는 ‘이중적인 시선(이기성 2015)’이 우리가 북한 고고학을 바라보는 시선인 것이다.

북한 청동기시대 고고학과 남한 청동기시대 고고학에서 보이는 ‘괴리’의 많은 부분은 조사 사례의 증가, 학술적인 토론 등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정치적 차이’에 의한 것이다. 그럼에도 북한의 청동기시대 고고학을 살펴보는 것은 그 정치성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통일 이후 한반도의 선사문화를 구명하는데 있어 어떠한 문제점이 예상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본 발표에서는 지금까지 북한 청동기시대 고고학의 연구 흐름을 살펴보고 동시기 남한 청동기시대 고고학과 비교하여 어떠한 쟁점들이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한다.

II. 북한 고고학의 학사적 시기 구분

남한 고고학이 북한 고고학 자료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1989년 5월, 북한 학술 자료가 일반에 공개되면서부터이다. 그 이전에는 극소수의 연구자가 일본어로 번역된 북한 고고학 자료를 간접적으로 인용(김원룡 1973 등)하는 정도였을 뿐이나, 일반 공개 이후 고고학계와 역사학계는 적극적으로 1980년대 후반까지의 북한 고고학 자료에 대한 집성, 정리를 시도한다. 당시는 북한 고고학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거나(이광린 1990; 이선복 1992; 장호수, 1995; 한창균

1992 등), 주로 선사시대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는데 집중되어 있어(신숙정 1990, 1994, 임세권 1994; 장호수 1992a, b, 한창균 1990a, b, c, 1994 등), 역사고고학에 대한 정리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후 간헐적으로 북한의 자료가 공개 또는 영인되어 소개되기는 하였지만, 새로운 자료가 많지 않았기에 다시금 북한 고고학에 대한 자료의 정리 및 평가가 시작된 것은 2000년을 전후해서이다(박양진 1998; 서일범 1999; 하문식 2002; 한창균 1999a, b, 2002 등). 그리고 얼마간의 정체기 후 2010년대에 북한 고고학에 대한 신자료가 다수 소개되면서 새롭게 북한 고고학에 대한 정리 등이 이루어지게 되고(강인욱 2009, 2011; 백종오 2008; 임상택 2008; 이기성 2011, 2015, 2018; 장기재 2012; 하문식 2007; 한창균 2013a, b, 2014) 최근에는 북한 고고학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학술대회까지 개최되었다(중부고고학회 2015; 한국고고학회 2016, 2018 등)

이와 같은 기존의 연구 중에서 해방 이후 북한 고고학의 흐름을 학사적으로 검토한 것들로는 이선복(1988), 강인욱(2009), 한창균(2013), 이기성(2015, 2016) 등의 논고가 있다. 최초의 학사적 시기 구분은 이선복(1988)으로, ① 1기 : 해방 후에서 1960년 도유호의 조선원시고고학이 발간되기까지, ② 2기 : 1960년대에서 1972년까지, ③ 3기 : 신헌법의 발표와 더불어 주체사상이 공식적인 통치이데올로기로 확립된 1972년부터로 구분하였다.

북한 고고학의 학사적 흐름을 살펴볼 때 큰 참고가 되는 것이 2009년 발간된 『조선고고학총서 1 총론(리주현·한은숙 2009)(이하 총론)』이다. 북한 고고학 스스로가 과거의 학문적 흐름을 시기 구분한 것으로, ① 1기 : 해방에서 1953년 7월 정전협정까지의 시기, ② 2기 : 1953년 8월에서 1961년 8월까지, ③ 3기 : 1961년 9월 조선노동당 제4차대회부터 1970년 10월까지, ④ 4기 : 1970년 11월 조선노동당 제5차대회에서 1980년 9월까지, ⑤ 5기 : 1980년 10월 조선노동당 제6차대회에서 1989년 12월까지, ⑥ 6기 : 1990년 1월부터 1994년 12월까지의 90년대 전반기, ⑦ 7기 : 1995년부터 현재까지의 7기로 구분하고 있다. 특정 유적의 발굴이나 간행물 또는 조사 주체의 변화 등이 아닌 정치적 사건을 기준으로 시기를 구분하고 있는 것은 북한 고고학의 정치성을 보여주는 방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후의 북한 고고학 시기 구분은 이 『총론』을 바탕으로 하는데, 한창균(2013)은 ① 1기 : 북한 고고학의 초기(맑스-레닌주의적 방법론 적용의 모색), ② 2기와 3기를 묶어 북한고고학의 형성기(맑스-레닌주의적 방법론에서 주체적 방법론으로의 전환기), ③ 4기, 5기, 6기의 일부(1992년까지)를 북한고고학의 확립기(주체적 방법론에 의한 북한고고학 체계의 확립기), ④ 1993년 단군릉 발굴 이후부터 7기를 포함하여 현재까지를 변혁기(단군릉 발굴과 개건으로 상징되는 변혁기)로 구분하였다. 이기성(2015)은 총 6기로 설정하였는데, ① 북한고고학의 성격 정립-도유호와 한홍수(해방 이후 1952년까지), ② ‘과학’으로서의 고고학 - 과학원의 설립과 도유호의 고고학(1952년~1960년대 초반까지), ③ 고고학의 변화 - ‘학문’에서 ‘도구’로(1960년대 초반에서 1970년대 초반까지), ④ 고고학과 주체사관 - ‘계몽’의 고고학(1970년대 초반에서 1990년대 초반까지), ⑤ 단군릉과 대동강문화 - ‘선전’의 고고학(1993년 단군릉 발굴에서 2000년대 후반까지), ⑥ 총서의 발간(2009년부터 현재까지)으로 흐름을 검토하였다.

북한 고고학의 전체적 흐름을 살펴본 위의 연구와는 달리 북한의 청동기시대 고고학의 연구 경향을 구분한 사례(강인욱 2009)도 있는데, ① 청동기시대 연구의 정립 : 1947년~1960년까지, ②

거점별 편년체계의 수립 : 1961년~1967년까지, ③ 청동기시대와 고조선 : 1967년~1984년까지, ④ 비파형 동검과 고조선 : 1985년~1993년까지, ⑤ 대동강문화의 대두 : 1993년~현재까지의 5기로 나누고 있다.

이상의 연구들은 특정 연구 결과물의 발간, 정치적 사건, 연구 경향의 변화 등 시기를 구분하는 기준에 있어서는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실제 그 내용 자체는 유사하다. 1960년 발간된 도유호의 『조선원시고고학』과 1970년대 주체사상의 확립을 획기로 하는 구분은 지금까지도 유효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2000년대 이후의 논고에서는 1998년에 제시된 ‘대동강문화’를 또 다른 하나의 획기로 하고 있는 점 역시 공통된다. 정치성이 강조되는 고고학에서 변화된 정책이 실제 연구 결과물로 반영되는데 일정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그 구분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이기성 2015).

본 발표에서는 북한과 남한, 양 지역의 청동기시대 고고학의 연구 흐름을 비교하고자 한다. 남한의 경우 북한처럼 정치적 사건에 의해 고고학의 획기가 나누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북한의 고고학과 획기 구분에서 조금의 차이만 보일 뿐이다. 남한의 고고학, 특히 청동기시대 고고학에서 중요한 분기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대학박물관협회 발족과 서울대 고고인류학과 개설(1961년), 『한국고고학개설』 발간(1973년), 송국리유적의 발굴(1975년), 신고고학의 수용(1980년대), 발굴 법인의 설립(1994년), 청동기시대 조기의 설정(2000년), 한국청동기학회 발족(2007) 등을 들 수 있을 것인데, 발표자는 이전 남한의 청동기시대와 초기철기시대의 고고학사를 정리하면서 ① 해방 이후 1950년대의 고고학, ② 연구의 여명기 - 1960년대의 고고학, ③ 정리의 시대 - 1970년대의 고고학, ④ 연구의 활성화 - 1980년대의 고고학, ⑤ 청동기에서 토기로 - 1990년대의 고고학, ⑥ 양적인 성장에서 질적인 성장으로 - 2000년대의 고고학 등 6단계로 구분하였다(이기성 2018).

본 발표에서는 발표자가 기존에 제시했던 북한 고고학 시기 구분과는 좀 달리, ① 해방 이후 ~ 1950년대, ② 1960년대, ③ 1970~80년대, ④ 1990년대 이후의 4 단계로 구분하였다. 이전의 글에서는 과학원의 설립을 기준으로 1950년대를 두 시기로 구분하고, 2009년 총서의 발간을 하나의 획기로 보았으나, 청동기시대 연구 내용 자체에는 큰 변화가 없기에 해방 이후 1950년대를 한 시기로, 그리고 1990년대~현재까지를 한 시기로 보았다.

Ⅲ. 시기별 연구 경향의 변화

다음에서는 각 시기별로 북한 청동기시대 고고학의 연구 경향을 살펴보고, 동시기 남한 고고학 청동기시대의 연구 흐름과 비교해보도록 한다. 세부적인 연구 성과보다는 전체적인 청동기시대의 편년, 시기 구분, 사회 성격 등과 관련한 내용을 확인한다.

1. 해방이후에서 1950년대

청동기시대 고고학 뿐 아니라 고고학 전반에 걸쳐 북한과 남한이 가장 큰 학문적 수준의 격차를 보여주는 것이 아마도 해방 이후의 시기일 것이다.

해방 이후 북한은 곧 고고학 조사의 제도 정비가 시작된다. 1945년 12월 1일 ‘조선중앙력사박물관’ 개관, 1946년 4월 29일 ‘보물 고적 명승 천연 기념물 보존에 관한 법령’ 제정, 1947년 ‘북조선중앙 고적보존위원회’ 창설, 평양, 신의주, 청진, 함흥, 묘향산에 력사 박물관 설치, 이후 1948년 11월 1일 ‘조선물질문화유물조사보존위원회’, 1949년 ‘조선력사연구소’, 설치, 1952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과학원’이 만들어지며 정비된 제도의 바탕아래 활발한 고고학 조사 활동이 실시된다(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 1960a).

해방 이후 1950년대에는 오동유적, 금탄리유적, 공귀리유적, 심귀리유적, 신흥동유적, 미송리유적, 석교리유적, 호곡유적, 침촌리유적 등 지금까지 중요 자료로 인용되고 있는 많은 수의 유적들이 발굴되었으며, 그 유적들은 북한 전역에 걸쳐 있다. 1990년대 이후 청동기시대 유적의 발굴조사가 평양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 시기에 가장 특기할 것은 1957년 지탑리유적의 발굴 조사로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의 구분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한국 전쟁 이전에 조사되고 1955년에 발굴 보고서가 간행된 초도유적이 신석기시대 말기로 보고되거나(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 1955), 궁산유적(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 1957)의 빗살무늬토기를 북방요소, 오동유적, 초도유적에서 확인되는 무문토기와 방형주거지를 남방요소로 파악하는 등 계통차이로 이해하였던 것을 이제는 시대 차이로 파악하게 된 것이다. 또한 1950년대 후반에는 시대 구분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금속문화’의 기원과 계통에 관한 논의가 시작(정백운 1957, 김용간 외 1958, 김재효 1958 등)된다.

이와 같은 1950년대 북한의 활발한 고고학 성과는 『조선원시고고학(도유호 1960a)』으로 집성된다. 도유호는 주변 지역과의 교차편년을 통해 청동기시대의 상한을 기원전 1천년기 초엽, 하한은 기원전 4세기 초로 추정하고 있다. 당시까지만 해도 사회 구조의 해석에 대해 매우 유보적으로 ‘조선의 청동기시대가 대체로 아직 원시시대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였다(도유호 1960a, 271쪽)’는 정도만 이야기한다.

초기 북한 선사고고학의 가장 큰 과제는 일제강점기 고고학의 ‘극복’이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한반도에 청동기시대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금석병용기’에 대한 반론이었으며, 지탑리유적의 발굴 조사로 금석병용기의 존재가 부정된 후 더 이상 금석병용기는 언급되지 않는다. 이렇듯 일제강점기 고고학의 극복을 주장하였지만 문화 발전의 요인을 외래요소에서 찾는 인식은 실상 일제강점기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신석기시대 말엽에 벌써 대륙 쪽에서 내려미는 청동기 문화의 영향이 적지 않게 미쳤던 것(도유호 1960a, 267쪽)’이라고 하거나, 청동기시대에서 철기시대로의 이행을 ‘청동기시대 말엽에 쇠붙이를 사용하는 어떤 종족이 래주하였음을 암시하는 유물 출토 정형도 보이나 더 많은 경우는 재래의 주민이 그냥 철기시대로 넘어 갔음을 이야기한다(도유호 1960a, 278쪽)’고 말하는 등 도유호는 문화전파론의 입장에서 외부 문화 요소의 유입을 긍정하고 있다. 이러한 학문적 입장이 결국 그를 북한 고고학에서 축출되게 하지만, 이것은 그가 ‘과학적인 학문으로서의 고고학’을 추구한 결과였던 것이다(이기성 2015).

이에 비해 남한의 고고학은 당시까지 일제강점기의 고고학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다. 1962년 1월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 일제강점기 1933년에 제정된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이 그대로 사용되었으며, 국립박물관에 의해 실시된 적은 수의 발굴조사 역시 대부분 고분에 집중되었다.

청동기시대, 초기철기시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1950년대 초반까지 석기시대 및 금석병용기의 개념은 그대로 사용되었다. 새롭게 발견된 유물을 해석하기 위한 참고자료는 모두 일본인 연구자의 논문뿐으로(김정학 1950, 김원룡 1952), 해방 후 한국의 선사시대를 개괄적으로 다룬 최초의 글인 『韓國史 古代篇』에 수록된 「第1編 史前時代(김재원 1959)」에서도 당연히 구석기시대는 없으며, 선사시대를 통틀어 신석기시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점, 금석병용기에 대한 설명 등은 일제강점기의 인식과 완전히 동일하다.

도유호를 중심으로 북한의 선사고고학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었던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이러한 북한과 남한의 격차는 1960년대까지 이어진다.

2. 1960년대

1964년 2월 사회과학원이 창설되고, 1968년 기존의 ‘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는 ‘고고학연구소’로 개편된다. 이 시기의 북한 선사고고학은 1970년대의 주체사관의 고고학으로 가는 갈등의 과정이었다(이기성 2015).

1960년대 청동기시대 고고학의 특징은 신석기시대로부터의 ‘계승성’ 확인과 고조선이 고고학의 한 분야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1960년대 중반 발굴 조사된 신암리유적과 서포항유적에서는 빗살무늬토기와 무문토기가 한 유적에서 층을 달리해 확인되면서 신석기시대에서 청동기시대로의 이행 과정이 파악되고, ‘계승성’이 고고학적으로 확인된다.

또한 이 시기 본격적으로 고조선이 고고학의 영역에 들어온다. 『조선원시고고학』에서는 철기의 사용을 노예소유자적 국가의 출현으로 보고 있기도 하며 고조선을 완전히 도외시한 것은 아니었으나(도유호 1956, 1960b, 1961), 도유호는 어디까지나 고고학적인 시대 구분에 천착할 뿐이었다. 그러나 1960년대 초반 고조선과 관련된 다양한 토론회(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 1960b, 1961a, b)와 1960년대 조중 공동 고고학 발굴대에 의해 중국 동북 지방의 유적들이 발굴 조사되면서 비파형동검문화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고(조중 공동 고고학 발굴대 1966), 이를 통해 결국 고조선이 고고학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된다. 그와 함께 도유호로 대표되는 기존의 청동기시대관에 대한 강한 비판이 시작된다(김유방 1963). 김용간(1964)은 요령지방의 비파형동검 관계 유적을 ‘우리 선조의 한 집단’의 것으로 보고, 청동기시대의 개시를 서기전 2000년기 말까지 올려보며 기존의 도유호의 편년관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며, 또한 황기덕(1964) 역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도 청동기시대에 형성된 노예소유자 국이었음을 추측케 한다’고 하면서 기존의 논리에 반대 의견을 펼친다. 결국 이러한 과정을 거쳐 고고학적 시대 구분에만 일관했던 도유호는 비판받게 되고, 청동기시대, 철기시대의 논의에 고조선이 포함되게 된다.

1970년대 주체사관의 확립을 앞두고 그 이전의 고고학 연구에 대한 비판이 본격화되며 1960년대

중반 이후 학술적 활동은 중단된다. 이 시기에는 토성리유적, 룡당포유적, 와산동유적, 세죽리유적, 립석리유적, 강로리유적, 석탄리유적, 중리유적, 신암리유적 등과 함께 다수의 고인돌 유적이 조사되지만 대부분 『고고학자료집』, 『문화유산』, 『고고민속』 등에 간략하게 소개될 뿐이며, 1967년 역사학의 대표적인 잡지인 『력사과학』과 고고학의 『고고민속』 모두 정간된다. 유일사상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로 1968년 ‘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는 ‘고고학연구소’로 개편되고, 같은 해 ‘반동적인 <문화이동론>의 후과를 가시기 위한 전국사회과학토론회가 진행(리주현·한은숙 2009, 50쪽)되며 도유호로 대표되는 이전의 고고학은 강한 비판과 함께 부정된다. 그리고 주체사관에 기반을 둔 고고학의 연구 결과물은 1970년대에 등장하기 시작한다.

1950년대 발굴 조사의 성과가 1960년대 중반까지 이어지는 북한과 달리, 남한의 고고학은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청동기시대와 초기철기시대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는데, 당시의 연구 초점은 당연히 청동기문화의 기원을 확인하는 것과 시대 구분에 관한 것이었다. 석기나 토기 등에 대한 단편적인 연구도 있으나 주된 연구 대상은 청동유물(윤무병 1966, 김양선 1964, 한병삼 1968 등)이었으며, 대학박물관에 의해 수석리유적, 명일리유적, 가락리유적, 역삼동유적 등의 주거유적이 발굴되기 시작했다는 점도 특기할 수 있다.

이 시기에 본격적으로 청동기시대에 대한 편년이 제시된다. 김원룡(1961)은 한반도의 청동기문화의 기원을 요녕지방에 존재하던 석관묘를 동반하는 비중국제청동기문화가 파급된 것으로 보고, 연대는 기원전 6~5세기로 설정하였는데, 이 주장은 이후 가장 기본적인 인식이 된다. 단행본은 아니지만 최초의 한국고고학에 대한 개설인 「한국문화의 고고학적 연구(김원룡 1964)」에서는 최초로 종합적인 시대 구분을 시도하고 있는데, ‘구석기시대 및 중석기문화 → 신석기시대 → 청동기문화 → 초기철기문화 → 김해문화 → 삼국고분문화’로 시대를 구분하였다. 각 시대의 명확한 연대 폭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대략적으로 청동기문화는 기원전 6~5세기에서 기원전 4~3세기, 초기철기문화는 기원전 4~3세기에서 서력 전후까지로 파악하고 있다. 당시까지 편년에 중점을 두고 있을 뿐 사회적 성격을 규정짓는 시도는 없었다.

중요한 것은 당시 단순 청동기시대는 북한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김원룡은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시기에 청동기시대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무방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남한지역에도 존재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북한지역에서만 철기 성기(盛期)에 앞서 일시 존재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김원룡 1964, 255쪽)’고 하며 ‘시대’가 아닌 ‘문화’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이다.

당시 남한은 시대 구분 등에 있어 북한의 자료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남한에서 새롭게 발견되는 자료는 무문토기와 관련된 자료였으며, 일본을 거쳐서 알려진 북한의 새로운 연구 자료 등에 대해서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또는 그것을 무시할 수도 없었다. 남한 선사시대 문화의 기원지로 지목되는 북방지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북한의 고고학적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아마도 이 시기까지가 남한과 북한의 고고학이 유사한 궤적을 걸어오는 마지막 때일 것이다. 1970년대 들어와서 남한과 북한의 고고학은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된다.

3. 1970년대 ~ 1980년대

1970년대 북한의 고고학은 그 이전과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된다. 1960년대 후반의 ‘문화이동론’을 비판한 성과가 가장 드러나기 시작하는 『조선원시고고학개요(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71)』가 1971년 발간되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김일성 어록이 고고학 논문에 직접적으로 인용되기 시작한다.

구석기시대,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의 3장으로 구성된 『조선원시고고학개요(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71)』에서는 청동기시대를 기원전 2천년기의 전기 문화와 기원전 1천년기의 후기 문화로 구분하고 있다. 청동기시대 후기 문화 단계인 기원전 8~7세기경에 노예소유자 국가인 고조선이 등장한다고 하며, 기원전 1000년기 전반기에 이미 철기의 사용이 시작되었다고 말하지만 철기시대를 따로 구분하고 있지는 않다. 고조선이 청동기시대 후기 문화에 포함되어 서술되기 시작하며, 철기시대라는 고고학적 시대 구분은 회박해진다.

이렇듯 고조선이 청동기시대에 포함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당시까지 고조선의 중심지로 여겨졌던 서북한 및 요동지역과 그 외 지역들 간의 차이에 대한 설명이었다.

기원전 2000년기 전반기에 청동기시대가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하지만, 당연히 북한의 전 지역에서 동시에 청동기시대가 시작된 것은 아니었다. 기원전 2000년기 전반기의 청동기시대 유적으로 들고 있는 것은 평안북도 정주군 당산유적, 용천군 쌍학리유적, 요동반도의 쌍타자유적 제2기층, 벽류하 유역의 단타자유적의 무덤, 요동반도 남단의 장군산무덤류형, 심양시 조공가유적 아래문화층, 서강자 유적을 비롯한 송화강 유역의 유적들로 모두 서북한 지역과 요동반도 지역의 것들 뿐이다.

다른 지역에서도 청동기시대 유적이 등장하는 때는, 청동기시대 전기 문화로 구분하는 기원전 2000년기 후반기로, ‘서북조선 및 료하유역’, ‘대동강 및 재령강유역’, ‘압록강중상류 및 송화강유역’, ‘동해안 일대 및 두만강유역’의 4 지역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각 지역의 연대 차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다.

청동기시대 후기 문화에서는 고조선을 ‘고대고고학에서 론하여야 할 것(김일성종합대학교출판사 1971, 145쪽)’이기에 서북 조선 및 료하유역이 제외되고 ‘대동강 및 재령강유역’, ‘압록강중상류 및 송화강유역’, ‘동해안 일대 및 두만강유역’, ‘룡흥강 및 남대천류역’, ‘남조선 일대’의 5 지역으로 구분하여 유적 등을 설명하고 있다. 주로 고인들의 부장품인 마제석검과 홍도만을 설명하고 있기는 하지만 남한의 청동기시대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사회 성격에 관한 주장도 제기된다. 청동기시대는 기원전 2천년기 전반기에 신석기시대의 문화를 계승한 토대위에서 발전, 농업의 발전으로 인해 사회적 생산은 늘어나고 생산에서 남성의 역할이 급속히 커지고 수공업 생산 등의 사회적 분업이 확대, 결과적으로 교역이 발전, 잉여생산물의 축적 등으로 ‘재산’ 및 ‘상속’이 등장, 일부일처제, 부계씨족제도가 확립된다고 보고 있다(김일성종합대학교출판사 1971).

이러한 시각은 『조선고고학개요(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1977)』로 이어지는데, 그 내용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조금의 차이가 있다. 우선 목차를 고고학적 시대 구분이 아니라 원시사회, 노예사회로 대분류하고, 원시사회 아래에 구석기시대,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 노예사회 아래에 고조선을 배치하고 있다. 북한의 ‘청동기시대는 기원전 2000년기와 기원전 1000년기 전반기를 포함하며, 청동기문화가 높이 발전한 기원전 1000년기 전반기에 서북조선과 료동지방에서는

우리나라의 첫 노예소유자 국가인 고조선 국가가 나타났다(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1977, 63쪽)’고 하는 편년은 그 이전과 다르지 않으며, 청동기시대 장에서 기원전 2000년기의 유적만을 다루고 있으며, ‘평양지방’, ‘서북조선과 료동지방’, ‘압록강 및 송화강 중상류’, ‘두만강유역’의 4 지역을 나누어 설명하는 것은 『조선원시고고학개요』와 유사하다. 그러나 ‘기원전 2000년기 전반기에 전반적인 지역에서 거의 동시에 청동기시대에 넘어섰(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1977, 65쪽)’다고 하지만, 평양지방의 가장 이른 금탄리유적 제3문화층을 기원전 2000년기 후반기, 압록강 및 송화강 중상류의 공귀리유적 아래문화층을 기원전 2000년기 후반기, 두만강유역의 서포항유적 제1기층, 오동유적 제1기층을 기원전 2000년기 전반기로 편년하는 등, 각 지역별로 청동기시대 시작의 시점을 조금씩 다르게 보며 연대를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각 지역별로 구체적인 편년을 제시하고, 청동기시대의 일부로 다루어졌던 고조선이 별개의 장으로 분리되면서 기원전 1000년기 전반기의 다른 지역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는 점이 『조선원시고고학개요』와 다른 부분이다. 이전에 비해 점차 청동기시대의 설명에 고조선이 차지하는 비중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에 편찬된 『조선전사(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1979)』 역시 유사한 내용이다. 목차 자체는 고고학적인 시대 구분이 아닌, 원시무리시기, 초기모계 씨족사회, 부계 씨족사회, 고조선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부계씨족사회 항목에서 청동기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다. 기원전 2000년기에서 기원전 1000년기 전반기까지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고조선 영역 이외의 지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눈에 띈다. 특이한 것은 고조선의 영역이 아닌 두만강유역과 송화강유역은 기원전 7세기 부터 철기시대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과 남한의 삼거리유적, 역삼동유적, 가락동유적 등의 주거유적을 설명하면서 기원전 2000년기 말부터 기원전 1000년기 전반기로 편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청동기시대에 대한 인식은 이후 『조선의 청동기시대(사회과학출판사 1984)』에 집성된다. 여기에서도 연대관 자체는 유사하다. ‘기원전 2000년기에 이르러 조선반도를 중심으로 한 송화강 이남의 넓은 지역에는 서부 벌방지대를 비롯하여 압록강하류 및 료동지방과 압록강중상류 및 송화강류역, 두만강류역과 동해연안지방, 남부 조선지역 등으로 구분되는 문화유형들이 이루어져 있었는데 기원전 2000년기 전반기에 전반적으로 거의 동시에 청동기시대에 들어섰던 것이다(사회과학출판사 1984, 7쪽)’고 하며 ‘기원전 2000년기 후반기에 들어 각 지역별 문화유형들 사이의 발전 속도에 불균형이 생기게 되는데, 여러 지역들 중에서 농업이 일찍부터 발전한 서북조선과 요동지방은 다른 지역들보다 빨리 발전하였으며 기원전 1000년기 전반기에 이르러 이 지역에서 개화한 고조선의 청동기문화가 다른 지역들의 청동기문화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하였다(7쪽)’고 말하고 있다. 역시 각 지역별로 나누어 청동기시대의 시작 연대를 제시하고 있는데, 대동강유역의 금탄리유적 제3문화층을 기원전 2000년기 후반기, 압록강하류 및 요동반도 남단의 쌍타자유적 제2문화층은 기원전 2000년기 전반기, 압록강 중상류의 공귀리유적 아래문화층은 기원전 2000년기 후반기, 두만강유역의 서포항 청동기시대 제1기층을 기원전 2000년기 전반기, 동해안 지역 강상유형의 유적들을 기원전 2000년기 후반기, 남한은 강화군 시도유적, 수석리, 옥석리, 가락동 등을 기원전 1000년기 전반기로 편년하고 있다. 이전에 비해 보다 더 넓은 지역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그러나 ‘조선의 청동기시대를 취급하는 이 글에서는 기원전 1000년기 전반기에 고대사회가 전개되는 고조선령역과 대략 같은 시기에 철기생산이 시작되는 일부지역의 청동기시대 문화의 서술은 기원전 2000년기말 1000년기 초까지로 한정하고, 그밖의 지역의 것은 기원전 1000년기 전반기까지 취급한다(3쪽)’고 하며 결국 청동기시대에서 고조선은 완전히 제외된다.

1970~80년대를 거치며 청동기시대, 철기시대 연구는 조금씩의 변화를 거치게 된다. 고조선이 본격적으로 고고학의 연구대상이 되면서 당초 청동기시대에 포함되어 서술되던 고조선은 점차 ‘고대’의 영역이 되어 청동기시대와 분리되어 설명하게 되며, 당연히 고고학에서 철기시대를 단독으로 파악하는 사례도 없어진다. 그리고 청동기시대는 고조선이 등장하기 이전의 기원전 2000년기와 고조선 영역이 아닌 지역의 기원전 1000년기 전반기에만 해당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원시사회에 대한 큰 틀과 편년, 사회 성격이 규정된 이후 고조선에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청동기시대의 연구 영역 자체는 축소되는 것이 이 시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부터 남한의 고고학과 북한의 고고학은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북한에 비해 한참 늦게 다양한 종류의 고고학 개설서가 발간되면서, 북한과는 또 다른 의미로 지금의 청동기시대 편년 체계의 바탕이 만들어지게 된다.

1973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발간된 『한국사 1 고대 한국의 선사문화(국사편찬위원회 1973)』, 한국고고학에 대한 최초의 개설서인 『한국고고학개설(김원룡 1973)』, 『한국고고학개설 개정신판(1977)』, 『한국고고학개설 3판(1986)』 등이 이 시기에 발간되는데, 각각 시대 명칭이나 편년에는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한국고고학개설(김원룡 1973)』에서는 청동기문화의 연대에 대해서는 기원전 700~600년경 시작되어 한국식동검이 출현하는 기원전 300년경까지를 청동기시대 1기, 기원전 300년경에서 서력 기원전후까지를 청동기시대 2기, 초기철기문화로 파악하고 있어 1964년의 「한국 문화의 고고학적 연구」보다 청동기문화 상한을 조금 올려보고 있다.

같은해 발간된 『한국사 1 고대 한국의 선사문화』에서는 「청동기문화」에서 청동기시대와 초기철기시대를 다루고 있다. ‘편년’ 부분에서는 ‘무문토기시대’를 청동기 I기(B.C. 600~300)와 청동기 II기(B.C. 300~0)로 구분하였으며, 다시 청동기 I기를 전기(B.C. 7, 6세기), 후기(B.C. 5, 4세기)로 나누고 있다. 그러나 청동기 1기(지금의 청동기시대)를 전후로 나누는 시기 구분의 내용은 지금의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 1기의 전기는 압록강유역과 함경북도의 유적들로 북방계 청동기가 한반도에 유입되는 단계를 말하는 것으로 이 시기 남한은 신석기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후 유적이 점차 남쪽으로 확산되면서 1기의 후기로 넘어간다고 이해하고 있어, 아직까지 청동기와 무문토기가 특정한 하나의 시대적 문화요소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80년대 들어와 청동기시대 편년에 있어 가장 중요한 특징은 청동기시대의 3 시기 구분이 처음으로 시도되었다는 점이다. 물론 그 이전에도 청동기 혹은 토기 등을 기준으로 단계를 나누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전기, 후기의 두 시기 구분이 일반적이었으나, 1980년대 중반 송국리식토기가 중기로 설정(藤口健二 1986)된 후, 각 시기의 문화적 내용은 조금씩 변하지만 전-중-후기의 3기 구분은 지속된다. 『고고학개설 3판』은 1977년의 『고고학개설 개정신판』과 달리 청동기문화와 초기철기문화를 각각 별도의 시대로 구분하고 있어 아직까지 시대 구분이 명확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연대는 혼암리유적, 내평리유적의 방사성탄소연대치 등을

포함하여 개시기를 기원전 1000년경까지 올려보지만, 하한은 기원전 300년경, 초기철기시대를 기원전 300년경에서 기원 전후까지 보는 견해는 동일하다.

1970, 80년대 부터 본격적으로 북한과 남한의 청동기시대에 대한 편년관 등에 큰 격차를 보이게 된다. 북한의 경우 청동기시대의 늦은 시기에 고조선이 들어오게 되면서, 고고학적 시대구분으로서의 청동기시대와 고대로서의 고조선을 제외한 청동기시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연대 역시 역시 기원전 2000년기부터 기원전 1000년기 전반기까지가 청동기시대로 이해된다. 또한 철기시대라는 고고학적 시대 명칭은 사라진다.

남한의 경우 1980년대 들어와 청동기시대, 초기철기시대란 명칭이 자리잡게 되며 청동기시대의 상한을 기원전 1000년경, 하한은 기원전 300년경, 초기철기시대를 기원전 300년경에서 기원 전후까지로 보게 된다.

이 시기까지 북한의 청동기시대 늦은 단계와 철기시대가 고조선으로 인식되면서 청동기시대와 초기철기시대로 구분하는 시대 구분은 차이를 보이게 되지만, 편년관에서 있어서는 북한 또는 남한이라는 연구 대상 지역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1990년대 북한 고고학에서 대동강문화가 주창되면서 남한과 북한의 고고학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된다.

4. 1990년대에서 현재까지

1993년 단군릉의 발굴, 1994년 단군릉의 개진, 1998년 대동강문화의 주장으로 이어지는, 1990년대 북한의 고고학은 그 이전의 고고학과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다. 특히 1990년대 초까지의 선사 고고학 편년체계는 단군릉의 발굴 조사로 인해 모두 어긋나게 된다. 1980년대까지 고조선의 중심지를 요동지방에서 찾으며 연대를 기원전 10세기경까지 올려놓았던 것과는 달리, 단군릉의 발굴로 인해 고조선의 중심지는 평양, 연대는 기원전 3천년기 초까지 소급된다. 그에 따라 고조선 이전 시대의 모든 연대가 조정되고, 이때부터 청동기시대의 명칭은 거의 사라지며 ‘신석기시대’ → ‘고대’로 시대구분이 바뀌게 된다. 단군릉의 발굴 이후 『조선고고연구』에 게재되는 선사시대의 논문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고조선과 관련되거나 평양지역의 유적 유물을 다루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경향은 대동강문화의 천명 이후 극심해져서 고조선 뿐만이 아니라 한반도의 역사를 새롭게 규정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대동강문화’의 천명 이후 북한 고고학의 가장 큰 문제는, 당시 까지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던 단군 및 고조선 연구의 이전과 이후의 시대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였다. 즉 당시 발견된 많은 유적, 유물들을 하나의 편년체계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선후관계와 병존과계를 밝히는 작업으로, 결과적으로 ‘우리 강토에서 인류는 100만년전 이전에 출현하여 구석기시대를 거쳐 B.C. 9000년기에 벌써 신석기시대에 들어섰으며, B.C. 4000년기 후반기에는 평양 부근에서 청동기시대 문화를 창조하였고, B.C. 3000년기초에는 단군을 원시조로 하는 고조선국가를 먼저 평양일대에 세웠다는 것이 확증되었다’고 하며, ‘고조선 문화는 좁은 뜻단검이 출현하고 철기가 쓰이기 시작한 기원전 2000년기말을 계선으로 하여 전자는 고조선 전기문화, 후자는 고조선 후기 문화(리주현·한은숙 2009, 149쪽)’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평양 주변 지역이 본격적으로 발굴되고, 이 시기에 조사된 표대유적, 남양유

적, 대동강유역의 고인돌 등이 대동강문화의 주된 고고 자료로 인용되게 된다.

북한고고학에서 ‘청동기시대’와 ‘고대’의 구분은 매우 애매하다. 물론 기본적인 인식은, ‘청동기시대’가 시작되고 사회가 발전하여 최초의 고대국가인 고조선이 등장한 이후를 ‘고대’로 파악하기 때문에 ‘고대’의 개념에는 청동기시대 일부가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남한고고학에서 보는 청동기시대를 북한은 (대동강유역 중심의 경우) 팽이그릇시기로 칭하고, 이를 1기에서 4기까지로 나누고 있는데, 이 중 팽이그릇 1기는 청동기시대, 팽이그릇 2~4기는 고조선 전기로 보고 있다. 그렇기에 청동기시대에 속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팽이그릇 집자리 중 어느 것이 청동기시대에 속하고 어느 것이 고대시기에 속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 중요한 작업으로 인식되고 있다(김길룡 2010, 5쪽).

이렇게 팽이그릇시기의 집자리는 주로 주거지의 중복 관계와 집자리의 구조 등을 기준으로 하여 4시기로 구분하고 있으며, 최근의 연구 역시 모두 이 시기 구분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아래는 평안북도 지역의 팽이그릇시기 집자리를 4시기로 구분한 최근의 연구이다(그림 1, 2).

팽이그릇시기 1문화기		팽이그릇시기 2문화기		팽이그릇시기 3문화기	팽이그릇시기 4문화기
B.C. 4 000년기 후반기		B.C. 3 000년기 전반기		B.C. 3 000년기 후반기	B.C. 2 000년기 전반기
1부류	2부류	1부류	2부류	화동자리가 2개인 집자리	우추돌이 있는 집자리
거동구루, 거동구루의 흔적없음	벽기집자리에서 거동구루흔적	벽기화 동판벽기동구루흔적	3층벽기동구루		
석장리유적 (1호, 2호)	석장리유적 (3호, 4호, 9호, 14호, 30호, 33호, 36호)	고연리유적 (3호, 9호)	석장리유적 (1호, 4호, 5호, 7호, 9호, 11호, 12호, 14호)	당산리유적 (1호)	고연리유적 (10호)
철촌유적 (1호, 2호, 3호, 4호)		석탄리유적 (38호)	석탄리유적 (23호, 26호, 27호, 31호, 32호)	석탄리유적 (23호, 26호, 27호, 31호, 32호)	석탄리유적 (25호, 41호)
석탄리유적 (7호, 13호, 15호, 17호, 20호)			석탄리유적 (2호, 8호, 35호, 39호, 40호)	고연리유적 (19호)	
			마산리유적 (30호, 11호, 12호, 13호, 14호, 16호, 17호)	마산리유적 (4호)	

그림 5. 송림, 황주 일대 팽이그릇시기 집자리 (리경철 2010, 146쪽)

표 2 팽이그릇시기집자리의 편년체계표			
1 기 (B.C. 4000년기 후반기)	2 기 (B.C. 3000년기 전반기)	3 기 (B.C. 3000년기 후반기)	4 기 (B.C. 2000년기 전반기)
남양리유적 2, 6, 10, 15, 19호 대평리유적 102호 보대유적 8, 12, 18, 22, 32, 47호 석탄리유적 3, 13, 5, 6, 7, 9, 13, 14, 15, 17, 18, 19, 20, 30, 33, 36, 42호 남강유적 6, 7, 9, 30, 33, 34, 35호 신촌유적 1, 2, 4~7호 철촌유적 1~4호 석교리유적 1~4호 금탄리유적 1, 2호 림석리유적 1호 석장리유적 1, 2호 대상동유적 현암리유적 장포리유적	남양리유적 1, 5, 14, 23호 대평리유적 101호 보대유적 3, 5, 7, 17, 20, 21호 철촌유적 4, 10, 24, 30, 41호 석탄리유적 2, 8, 35, 38호 남강유적 1, 2, 3, 4, 5, 10, 11, 15, 16, 19, 35호 고연리유적 1, 3, 4, 5호 마산리유적 10, 11, 12, 13, 14, 16, 17호 금탄리유적 3, 8호 소정리유적 5, 12, 14호 홍천리유적 홍산리유적 주암리유적	남양리유적 8, 13, 16, 18, 20, 21호 대평리유적 3, 5, 103호 보대유적 4, 10, 24, 30, 41호 철촌유적 45, 46, 53호 석탄리유적 23, 26, 27, 31, 32, 37호 남강유적 14, 15호 고연리유적 6호 마산리유적 4호 림석리유적 2호 당산리유적 2호 비밀밭바위유적 소정리유적 13호	남양리유적 3, 4, 9, 11, 22, 25호 대평리유적 2, 7, 9, 30호 보대유적 6, 9, 13, 16, 19, 23, 37, 43, 54호 철촌유적 25, 41호 고연리유적 10호

그림 6. 팽이그릇시기 집자리 (림룡국 2010, 214쪽, 표2)

두 연구 모두 시기 구분 및 편년은 동일한데, 1기는 B.C. 4000년기 후반기, 2기는 B.C. 3000년기 전반기, 3기는 B.C. 3000년기 후반기, 4기는 B.C. 2000년기 전반기로 편년하고 있다. 이러한 청동기시대의 편년은 이미 ‘대동강문화’에서 이야기된 것이다.

‘그런데 팽이그릇시기 1기의 집자리들은 고조선 전기의 특징적인 유물로 널리 알려져 있는 1류형 조롱박형단지(미송리형단지)가 나온 팽이그릇 시기 2기의 집자리밑에 놓여있었다. 이것은 대동강류역의 청동기시대문화가 단군조선국가 성립 이전 시기에 존재하였던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표대유적에서 발굴된 팽이그릇시기 1기의 집자리인 8호 집자리의 측정년대는 지금으로부터 5283±777년전이고 12호 집자리의 측정년대는 지금으로부터 5206±696년전(핵분열흔적법)이다. 따라서 대동강류역의 청동기시대문화는 기원전 4000년기 후반기에 해당되는 문화라고 말할 수 있다(서국태·지화산 2009, 56쪽).’

기본적으로 북한의 청동기시대에 대한 인식은 ‘평양일대에서 B.C. 4000년기 후반기에 신석기시대 문화를 계승발전시킨 팽이그릇문화 즉 청동기시대문화가 창조되고 B.C. 3000년기초에 이르러서는

단군조선문화가 창조되어 그 후 오랜 기간에 걸쳐 그것이 높이 개화발전하면서 단군조선시기의 특징적인 유물들인 비파형단검이나 비파형창끝, 미송리형단지와 같은 것들이 생겨나 널리 쓰인 사실이 뚜렷이 입증된다(리경철 2010, 181쪽).’는 것이다.

즉 신석기시대문화를 계승하여 청동기시대가 시작되고 청동기문화가 발전하면서 고조선이 건국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기에 북한의 청동기시대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팽이그릇 2기~4기의 유적, 유물 등에 대해서는 ‘고대’ 또는 ‘고조선’으로 파악해 이야기하고 있어, 실제 ‘청동기시대’로 말해지는 유적, 유물의 수는 매우 적을 뿐이다.

이렇게 대동강문화가 강조되면서 대동강 유역 이외 지역의 유적 조사 사례는 잘 확인되지 않는다. 대동강유역에서 표대유적(강영철 2012; 김종혁 2003; 김종혁·전일권 2010; 김종혁·전영수 2003; 박철 2010a, b, 2012, 2015, 서국태 외 2003), 리천리유적(고적발굴대 2015;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2012; 지화산·차달만 2009, 2010, 2011, 2012, 2015a, b; 차달만 2009, 2010, 2014) 등 대규모의 취락 유적이 조사되어 청동기시대에서 고조선까지의 물질적 증거로 반복되어 이야기되는 반면, 그 이외 지역의 조사 사례는 함경북도의 하삼봉리유적(김동일·김광철 2010), 함경남도 요덕읍유적(김성국 2010), 량강도의 신명리유적(김동일·로철수 2013), 라선시 선봉지구 우암동 집자리(장철만·리명철 2018) 등 극소수에 불과하며 그 내용 역시 단순 자료소개로 연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북한에서 대동강문명이 천명된 후 청동기시대 고고학에 큰 변화가 없는 것에 비해 남한에서는 1990년대 이후 청동기시대 고고학은 비약적으로 발전한다.

이러한 경향은 청동기시대 시기 구분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기존에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던 3기 구분에 대해, 돌대문토기를 표지로 하는 조기가 설정되면서(안재호 2000) 4분기설이 등장하고, 이후 점토대토기를 청동기시대에서 제외한 조기-전기-후기의 3분기 구분안도 등장한다(안재호 2006). 기존의 3분기 분류와 차이가 나는 점은 송국리문화 단계를 후기로 보는 것으로, 결국은 점토대토기를 청동기시대의 한 시기로 포함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에 대해 아직까지 뚜렷한 결론이 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발간되는 청동기시대 총서에서는 일반적으로 조기-전기-중기-후기의 4분기안을 채택하고 있으며, 그 연대는 기원전 1500~1300, 1200년까지를 조기, 기원전 900년까지를 전기, 기원전 500년까지를 중기, 기원전 300년까지를 후기로 보고 있다(안재호·이형원 편 2016).

초기철기시대의 경우 안성 반제리유적, 완주 갈동, 신평지구 등 대규모 초기철기시대 유적이 조사되면서 자료의 양이 급속하게 증가되어 초기철기시대의 사회상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다. 그러나 시대 명칭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어 원삼국시대를 포함하여 철기시대로 부르자는 제안(최성락 2004), 삼한시대로 부르자는 주장에 대한 반론(이희준 2004), 초기철기시대의 용어를 고수하는 입장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지금은 초기철기시대의 명칭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한국고고학회 2010). 시대명칭 논쟁과 더불어 처음 초기철기시대 명칭이 제시된 후 암묵적으로 받아들여지던 상한과 하한연대도 변하게 된다. 점토대토기와 세형동검의 동시 출현이 부정되면서 초기철기시대를 점토대토기와 세형동검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의 문제가 대두되고, 현재는 세형동검의 출현을 기준으로 하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하한 역시 기원전 100년경으로 조정되는데, 한사군(漢四郡)

설치 이후로 영남지방에서 본격적으로 철기가 생산되었기 때문에, 이때부터를 본격적인 철기시대, 즉 원삼국시대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이희준 2004쪽).

1990년대 이후 북한 고고학과 남한 고고학은 공유되는 부분이 없을 정도로 그 차이가 심해진다. 대동강문화의 천명 이후 북한의 청동기시대 개시연대와 남한의 청동기시대 개시연대는 거의 1500년 이상의 차이가 난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청동기시대와 초기철기시대의 고고학적 시대 구분으로 선사 문화를 설명하고 있는 남한과 달리 북한의 청동기시대는 매우 짧은 기간만 해당되고 그 이후는 고대, 즉 고조선에 포함되면서 당연히 철기시대에 관한 논의는 없다.

IV. 북한과 남한 청동기시대 고고학의 인식 차이

해방 이후 북한과 남한의 청동기시대 고고학은 전혀 다른 길을 걸어 왔다. 1960년대 초반까지 도유호에 의해 주도된 북한의 청동기시대 고고학은 일제강점기의 금석병용기설을 강력히 비판하며, 지탑리 유적의 발굴 조사로 청동기시대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950년대 후반부터는 금속문화의 기원과 계통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며(정백운 1957 등), 청동기시대의 상한을 기원전 1천년기 초엽, 하한은 기원전 4세기 초로 추정하였다. 1960년대 들어와 조중 공동 고고학 발굴대에 의해 중국 동북 지방의 유적들이 발굴 조사되면서 비파형동검문화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고(조중 공동 고고학 발굴대 1966), 이를 계기로 고조선이 고고학의 연구 영역으로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와 더불어 청동기시대의 개시를 서기전 2000년기 말까지 올려보고(김용간 1964), 고조선은 노예제 국가이며 요녕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주장이 정착된다. 이후 1960년대 후반에는 북한의 사상 체계에 대한 정비가 강화되며, 1970년대 들어와 본격적으로 고조선이 청동기시대 연구에 포함되고 청동기시대-고대라는 시대구분을 바탕으로 철기시대 자체는 거의 논의되지 않게 된다.

1990년대 들어 북한의 선사고고학은 큰 변화를 겪게 된다. 1993년 단군릉 발굴, 1994년 단군릉 개건, 1988년 대동강문화의 주장으로 이어지는, 1990년대 이후 북한의 고고학은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1980년대까지 고조선의 중심지를 요동지방에서 찾으며, 연대를 기원전 10세기 경으로 보았던 것과는 달리, 단군릉의 발굴로 인해 고조선의 중심지는 평양, 연대는 기원전 3천년기 초까지 소급된다. 그리고 당연한 결과로 고조선 이전 시대의 모든 연대가 조정된다. 청동기시대는 기원전 4000년기 후반기에 시작되고 고조선의 연대가 기원전 3000년기 초가 되며, 실제 청동기시대는 매우 짧은 기간에 불과하게 되어 대부분의 기간의 청동기시대와 철기시대는 모두 ‘고대’로 통일된다.

이러한 북한 선사고고학의 흐름을 살펴보는 것은 북한 고고학의 정치성을 비판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북한에서 현재 청동기시대를 바라보는 인식과 남한의 인식에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이후 북한의 자료를 포함하여 ‘한반도의 선사문화’, 더 나아가 동북아시아의 선사 문화를 설명하는데 있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해 두고자 하는 것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북한의 청동기시대 고고학은 시대관과 편년에 있어 큰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연구 결과의 지속적인 누적에 의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아니라는 점이다(이기성 2015). 1970년대 주체사관이 고고학의 배경이 된 후에는 ‘당성, 로동계급성의 원칙, 력사주의 원칙’에 따른 ‘교시’에 따른 발굴과 연구가 이루어질 뿐이며, 대동강문화의 천명 이후 시대관과 편년은 모두 수천 년씩 상향된다. 그리고 그 변화는 모두 ‘교시’에 의한 것으로 이해되기에 대동강문화 천명 이전의 편년관과 지금의 북한 고고학의 편년관을 비교하며 어떠한 고고학적 근거에 의한 것인지 그리고 남한의 편년관과 어떠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작업은 무의미하다.

우선은 지금 현 상황에서 북한과 남한의 청동기시대 고고학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논점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논의될 수 있는지를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아마도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시대 구분과 편년의 문제일 것이다.

남한의 편년과 수천 년간의 격차를 보이는 청동기시대 상한 연대의 경우, 북한은 나름의 과학성을 담보하고자 한다. 연대의 극단적인 상향으로 주변 지역과의 교차편년이 더 이상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북한의 고고학계는 절대연대 측정치를 연대 결정의 근거로 들고 있다. 대동강유역의 대표적인 대규모 취락유적인 표대유적의 ‘핵분열흔적법’과 ‘열형광법’의 의한 절대연대(김종혁·전일권 2010, 그림 3)를 북한 청동기시대의 절대 연대의 기준으로 삼고, 그 이외의 유적들은 표대유적과의 상대 편년으로 그 연대가 결정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표대유적과 더불어 대동강유역의 주요한 유적인 리천리유적의 경우, 주거지의 중복관계, 주거지의 기둥 및 주춧돌의 배치상태, 노지 수 등에 따라 4기층으로 나눈 후, 절대연대 측정치가 있는 표대유적의 주거지와 유사한 주거지를 찾아 절대연대를 부여하는 것이다.

물론 이 연대치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지금 이러한 연대치를 부정하고 새로운 편년 체계를 주장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표대유적을 제외하면 절대연대 측정치를 찾기 어려우며, 각 시기를 500년 단위로 구분하는 북한의 편년 체계는 그리 정교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 유물 실견 또는 분석이 가능한 시점이 오면 연대 문제는 상대적으로 쉽게 해결될 수도 있을 것이다.

표 59 표대유적팽이그릇집자리들의 절대연대

집자리번호	연대측정값	측정방법
8호	5283±777년	핵분열
12호	5206±696년	핵분열
3호	4668±649년	핵분열
11호	4415±718년	핵분열
4호	4140±390년	열형광
59호	3774±592년	핵분열
59호	3150±240년	열형광

- 228 -

그림 7. 표대유적 절대연대 측정치
(김종혁·전일권, 2010, 228쪽, 표 59).

더 중요한 문제는 청동기시대와 철기시대를 어떻게 파악하는가이다. 청동기시대와 초기철기시대로 구분하는 남한의 시대 구분과 달리 북한 고고학에서는 짧은 기간의 청동기시대와 ‘고대’로 시대가 구분된다. 남한 고고학의 청동기시대에 해당되는 문화단계를 북한은 팽이그릇시기로 칭하고 이를 1기에서 4기까지로 나누는데, 이 중 팽이그릇 1기만이 청동기시대, 그 이후는 고조선에 해당된다. 즉 문화적 연속성은 존재하지만 고고학적 시대구분으로서의 청동기시대는 약 500여년 정도의 기간 뿐이며, 이후는 고조선, 시대구분으로는 고대에 해당되는 것이다.

여기에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고조선의 중심지로 지목되는 평양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이다. 1980년대 고조선의 위치를 서북조선과 요녕지역으로 볼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이외의 지역 역시 연구의 대상이었다. 『조선원시고고학개요』, 『조선고고학 개요』, 『조선의 청동기시대』 등에서도 고조선을 고대로 분류하였지만, 고조선 영역 이외의 지역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로 보았다. 한반도 내에서도 지역적 문화 발전의 속도 차이를 인정하며 각 지역에 따른 문화 유형을 구분한 것이다.

그러나 대동강문화론 이후, 고조선의 위치로 지목된 대동강 유역의 유적만이 소개될 뿐, 그 이전까지 주요하게 다루어졌던 압록강 중상류, 두만강유역, 동해안지역의 유적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간혹 단발적으로 조사된 새로운 유적도 단순 자료의 소개에 불과하며 시대 구분, 연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다. 오히려 그 이전까지 청동기시대의 대표 유적으로 이야기되었던 공귀리 유적, 범의구석유적, 오동유적, 서포항유적 등 역시 모두 ‘고대’로 분류되고 있다(사회과학원 2009). 그렇기에 점차 대동강유역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더욱 더 고고학 양상을 알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연구의 지역적 편중은 남한 청동기시대 연구에도 영향을 미친다. 2000년대 이후 남한의 무문토기 문화 성립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북한의 고고학 자료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배진성 2003; 천선행 2018 등), 남한 무문토기 문화에 크게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대동강유역을 제외한 그 이외의 지역이 중요시되지만, 새로운 자료가 없기에 대부분 1980년대 이전의 자료가 인용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북한의 고고학을 청동기시대, 초기철기시대라는 남한 고고학의 틀 속에 넣기는 불가능하다. 이전까지 암묵적으로 남한 고고학에서 도외시되었던 고조선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지금(한국고고학회 2007), 고고학적 시대 구분을 우선시할 것인지 또는 고조선을 따로 구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남한에서만 사용되는 초기철기시대의 시대구분을 어떻게 북한 고고학에 적용시킬지의 문제도 남아있다.

그러나 청동기시대와 고대, 청동기시대와 초기철기시대라는 시대 명칭과 고조선의 성격, 어느 시대로 포함시킬 것인지는 학술적 논의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특히 상당 부분 정치적 입장의 차이에 근거한 것이라면(그것이 연구자 개인의 생각이든 이미 학문적 전제로 설정되어 있든) 그것을 ‘토론’으로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한과 남한의 청동기시대 고고학의 괴리는 조사 사례의 증가, 학술적 논의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수십 년간 전혀 다른 길을 걸어온 북한과 남한의 고고학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쟁점인 고조선이 포함된 청동기시대, 철기시대의 여러 논쟁점들이 자료의 정리만으로 간단히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북한에서의 유적 조사, 자료의 실견이 불가

능한 현 상황에서 부족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검토는 명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지금 당장은 쟁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어느 지역 또는 어느 유적의 어떠한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지의 계획이 필요할 것이다.

V. 맺음말

북한 선사고고학의 흐름을 살펴보는 것은 북한 고고학의 정치성을 비판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북한에서 현재 청동기시대를 바라보는 인식과 남한의 인식에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이후 북한의 자료를 포함하여 ‘한반도의 선사문화’, 더 나아가 동북아시아의 선사 문화를 설명하는데 있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해 두고자 하는 것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북한과 남한의 청동기시대 고고학이 가지고 있는 차이점들은 학술적 토론 또는 조사 사례의 증가 등 이후 유적·유물의 실견 및 분석이 가능해지면 쉽게 해결 될 수 있는 것들도 있다. 물론 ‘정치적 입장’의 차이에 의해 학술적 ‘토론’으로 합의될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

지금 중요한 것은 어떠한 장애가 예상되는지, 그리고 한반도 전체의 청동기시대, 철기시대를 구명하는데 있어 어떠한 쟁점들이 중요한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명확히 하는데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남한]

- 강인욱, 2009, 「동북아시아 청동기시대 속의 북한 -연구사와 무문토기문화권의 설정을 중심으로-」, 『동북아시아 관점에서 본 북한의 청동기시대』 제2회 한국청동기학회 학사분과 발표회
- 강인욱, 2011, 「동북아시아적 관점에서 본 북한 청동기시대의 형성과 전개」 『동북아역사논총』 32
- 국사편찬위원회, 1973, 『한국사 1 고대 한국의 선사문화』
- 김원룡, 1952, 「경주 구정리 출토 금석병용기 유물에 대하여」 『역사학보』 Vol.1
- 김원룡, 1961, 「십이대영자의 청동단검묘-한국 청동기문화의 기원 문제」 『역사학보』 16
- 김원룡, 1964, 「한국문화의 고고학적 연구」 『한국문화사대계 I』
- 김원룡, 1973, 『한국고고학개설』
- 김원룡, 1977, 『한국고고학개설 개정신판』
- 김원룡, 1986, 『한국고고학개설 3판』
- 김재원, 1959, 「第一編 史前時代」 『韓國史』
- 김정학, 1950, 「선사유적 탐사의 의의 - 웅천패총을 중심으로」 『민족문화 신춘호』
- 박양진, 1998, 「북한고고학의 몇 가지 특징」 『인문학연구』 25-2,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배진성, 2003, 「무문토기의 성립과 계통」 『영남고고학』 32
- 백종오, 2008, 「북한의 고구려 유적 연구 현황 및 성과」 『정신문화연구』 31-1, 한국학중앙연구원
- 서일범, 1999, 「북한 고고학의 최근 동향과 《대동강문화론》」 『白山學報』 53, 백산학회
- 신숙정, 1990, 「북한 고고학계의 신석기문화 연구동향」 『博物館紀要』 6,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 신숙정, 1994, 「북한의 신석기문화 연구 40년」 『북한의 고대사 연구와 성과』
- 안재호, 2000, 「한국농경사회의 성립」 『한국고고학보』 43
- 안재호, 2006, 「청동기시대 취락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재호·이형원 편, 2016, 『청동기시대의 고고학 2 편년』
- 이광린, 1990, 「北韓의 考古學」 『東亞研究』 20,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 이기성, 2011, 「초기 북한 고고학의 신석기,청동기시대 구분」 『호서고고학』 25
- 이기성, 2015, 「북한선사고고학의 패러다임」 『고고학』 14-3
- 이기성, 2016, 「북한학계 선사고고학의 최근 연구 동향」 『통일고고학을 위한 연구현황과 과제 진단』
- 이기성, 2018, 「한국 청동기·초기철기시대 고고학사 시론」 『한국상고사학보』 99
- 이선복, 1988, 『고고학개론』 이론과 실천
- 이선복, 1992, 「북한 고고학사 시론」 『동방학지』 74,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 이희준, 2004, 「초기철기시대 원삼국시대 재론」 『한국고고학보』 52
- 임세권, 1994, 「북한의 청동기시대 연구」 『북한의 고대사 연구와 성과』
- 장호수, 1992a, 「북한고고학의 시기 구분론」, 『백산학보』 40.
- 장호수, 1992b, 「북한 청동기시대 이해를 위한 길잡이」 『북한의 선사고고학 3. 청동기시대와 문화』.

- 장호수, 1995, 「북한고고학이 걸어온 길 : 1945-1991년 주요사건 해적이」, 『북한선사 문화연구』 .
- 중부고고학회, 2015, 『북한고고학의 패러다임과 논리: 서북한 선사시대 연구』 중부고고학회 2015년 정기학술대회
- 천선행, 2018, 「한국무문토기문화의 공간적 범위에 대하여」 『한국청동기학보』 22
- 최성락, 2004, 「초기철기시대 원삼국시대 재론에 대한 반론」 『한국고고학보』 54
- 하문식, 2002, 「북한의 유적답사와 고고학계 연구동향」 『白山學報』 64, 백산학회
- 한국고고학회, 2010, 『한국고고학강의 개정신판』
- 한국고고학회, 2016, 『통일고고학을 위한 연구현황과 과제 진단』
- 한국고고학회, 2017, 『고고학으로 본 고조선』 제41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 한국고고학회, 2018, 『북한 문화유산 공동조사 방안』 한국고고학회 통일고고학특별위원회 학술회의
- 한창균, 1990a, 「북한 고고학계의 구석기시대 연구동향」 『동방학지』 65,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 한창균, 1990b, 「북한의 1950년대 선사유적 발굴과 그 연구동향」 『한민족』 2
- 한창균, 1990c, 『북한의 선사고고학 1. 구석기시대와 문화』
- 한창균, 1992, 「초기(1945-1950년)의 북한 고고학」 『中齋 張忠植博士 華甲記念論叢 1』
中齋 張忠植博士 華甲記念論叢刊行委員會
- 한창균, 1994, 「북한의 구석기문화 연구 30년」 『북한의 고대사 연구와 성과』
- 한창균, 1999a, 「1950년대의 북한 고고학 연구」 『白山學報』 53, 백산학회
- 한창균, 1999b, 「최근 북한의 청동기시대 연구 동향」 『한국상고사학보』 30
- 한창균, 2000, 「1960년대의 북한 고고학 연구」 『白山學報』 55, 백산학회
- 한창균, 2002, 「한국의 선사시대에 대한 북한 고고학계의 동향과 시각」 『韓國古代史研究』 25,
한국고대사학회
- 한창균, 2013a, 「도유호와 한흥수:그들의 행적과 학술논쟁(1948~1950)」 『한국고고학보』 87,
한국고고학회
- 한창균, 2013b, 「북한고고학사의 시기 구분 체계에 대하여」 『한국상고사학보』 79
- 한창균, 2014, 「해방 이후~1950년대에 있어 한국 구석기시대의 인식」 『고고학』 13-2, 중부고고학회

[북한]

- 강영철, 2012, 「표대유적 고대집자리에서 나온 돌순가락」 『조선고고연구』 2012년 3호,
- 고고학 및 민속학 연구소, 1957, 『유적발굴보고 제2집 궁산 원시유적 발굴 보고』
- 고고학 및 민속학 연구소, 1955, 『유적발굴보고 제1집 라진 초도 원시유적 발굴보고서』
- 고고학 및 민속학 연구소, 1960a, 「해방 후 조선고고학이 걸어 온 길」 『문화유산』 1960-4
- 고고학 및 민속학 연구소, 1960b, 「<고고학상으로 본 고조선>에 대한 과학토론회」 『문화유산』 1960-3
- 고고학 및 민속학 연구소, 1961a, 「학술토론회 <고조선 연구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
『문화유산』 1961-4
- 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 1961b, 「학계소식 고조선에 관한 과학토론회」 『문화유산』 1961-5
- 고적발굴대, 2015, 「리천리유적 50호, 51호 집자리발굴보고」 『조선고고연구』 2015년 4호.

- 김길룡, 2010, 「대동강류역 청동기시대 집자리와 유물에 관한 연구」 『조선사회과학학술집275 고고학편 고고학연구논문집 15』 사회과학출판사
- 김동일·김광철, 2010, 「하삼봉리유적 발굴보고」 『조선고고연구』 2010년 2호
- 김동일·로철수, 2013, 「신명리 고대집자리발굴보고」 『조선고고연구』 2013년 4호
- 김성국, 2010, 「요덕읍유적 발굴보고」 『조선고고연구』 2010년 2호
- 김종혁, 2003, 「표대유적 제1지점 팽이그릇 집자리 발굴보고」 『마산리, 반궁리, 표대유적 발굴보고』 사회과학출판사, 백산자료원.
- 김종혁·전영수, 2003, 「표대유적 팽이그릇 집자리들의 편년」 『조선고고연구』 2003년 2호
- 김종혁·전일권, 2010, 「표대유적에 대한 연구」 『조선사회과학학술집 290 고고학편 고고학연구논문집 22』 사회과학출판사
- 김용간, 1958, 「금석병용기와 관련하여」 『문화유산』 58-2
- 김용간, 1964, 「우리나라 청동기시대의 년대론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 『고고민속』 1964-2
- 김용간·석광준, 1984, 『남경유적에 관한 연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김용간·황기덕·김재효, 1958, 「조선에서의 금속문화기원에 대한 토론」 『문화유산』 58-2,
- 김용남·김용간·황기덕, 1975, 『우리나라 원시집자리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출판사
- 김유방, 1963, 「도유호 저 <조선원시고고학>에 대한 몇가지 의견」 『력사과학』 1963-2
-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71, 『조선원시고고학개요』
- 도유호, 1956, 「조선력사상에는 과연 노예제 사회가 없었는가」 『력사과학』 1956-3
- 김재효, 1958, 「우리나라 초기금속문화의 원류에 대한 몇가지 문제」 『문화유산』 58-2
- 도유호, 1960a, 『조선원시고고학』
- 도유호, 1960b, 「고조선에 관한 약간의 고찰」 『문화유산』 1960-4, 19,
- 도유호, 1961, 「고조선문화에 대하여」 『력사과학』 1961-1호
- 리경철, 2010, 「송림, 황주일대의 팽이그릇관계 집자리유적에 관한 연구」 『조선사회과학학술집 275 고고학편 고고학연구논문집 15』 사회과학출판사.
- 리주현·한은숙, 2009, 『조선고고학총서 1 총론』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 림룡국, 2010, 「팽이그릇시기 집자리에 관한 연구」 『조선사회과학학술집 289 고고학편 고고학연구논문집 21』 사회과학출판사
- 박진욱, 1988, 『조선고고학전서 (고대 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 박철, 2003, 「표대유적 제2지점에서 발굴된 집자리와 유물」 『조선고고연구』 2003년 1호.
- 박철, 2010a, 「표대유적에서 발굴된 고인돌무덤」 『조선고고연구』 2010년 1호.
- 박철, 2010b, 「표대유적 제8지점에서 드러난 팽이그릇시기 집자리들의 층서관계와 1기층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2010년 4호.
- 박철, 2011, 「표대유적 제8지점에서 발굴된 팽이그릇시기 2기층의 집자리와 유물」 『조선고고연구』 2011년 1호.
- 박철, 2012, 「표대유적 제8지점에서 드러난 팽이그릇시기 3 기층, 4기층의 집자리와 유물」 『조선고고연구』 2012년 3호.

- 박철, 2015, 「포대유적에서 새로 조사된 도로시설」 『조선고고연구』 2015년 3호.
-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1977, 『조선 고고학개요』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2009, 『동북조선 일대의 고대집자리 조선고고학 전서 14 고대 편 5』
-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2012, 「리천리유적에서 발견된 팽이그릇기기의 대형집자리」 『조선고고연구』 2012년 4호.
-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1979, 『조선전사 I - V』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사회과학출판사, 1984, 『조선의 청동기시대』 사회과학출판사
- 서국태·지화산, 2002, 『남양리유적 발굴 보고』 사회과학출판사 (백산자료원)
- 서국태 외, 2003, 『마산리, 반궁리, 포대유적 발굴보고』 사회과학출판사(백산자료원)
- 서국태·지화산, 2009, 『대동강문화 조선고고학 전서 23』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 장철만·리병철, 2018, 「라선시 선봉지구 우암동집자리 발굴보고」 『조선고고연구』 2018-2
- 정백운, 1957, 『조선 금속문화기원에 대한 고고학적 자료』 과학원출판사
- 조중공동고고학발굴대, 1966, 『중국동북지방의 유적 발굴보고 1963-1965』
- 지화산·차달만, 2009, 「리천리유적 팽이그릇시기 1기층에 대하여(1)」 『조선고고연구』 2009년 4호.
- 지화산·차달만, 2010, 「리천리유적 팽이그릇시기 2기층에 대하여(1)」 『조선고고연구』 2010년 3호.
- 지화산·차달만, 2011, 「리천리유적 팽이그릇시기 2기층에 대하여(2)」 『조선고고연구』 2011년 1호.
- 지화산·차달만, 2012, 「리천리유적 팽이그릇시기 3기층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2012년 2호.
- 지화산·차달만, 2015a, 「리천리유적 팽이그릇 시기 4기층에 대하여(1)」 『조선고고연구』 2015년 2호.
- 지화산·차달만, 2015b, 「리천리유적 팽이그릇시기 4기층에 대하여(2)」 『조선고고연구』 2015년 3호.
- 차달만, 2009, 「리천리유적에서 새로 알려진 팽이그릇시기의 로동도구제작장」 『조선고고연구』 2009년 2호.
- 차달만, 2010, 「리천리유적 팽이그릇시기 1기층에 대하여(2)」 『조선고고연구』 2010년 1호.
- 차달만, 2014, 『리천리유적에 대한 연구 조선사회과학학술집 478』 사회과학출판사.
- 황기덕, 1964, 「철기시대」 『고고민속』 1964-4
- 황기덕, 1984, 『조선 원시 및 고대 사회의 기술발전』
- 황기덕·강인숙·박진옥, 1987, 『비파형 단검문화에 관한 연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분단 70년 북한 고고학의 현주소

북한 학계의 고조선 및 낙랑 고고학 연구 동향

박 장 호

(영남대학교)

I. 머리말

II. 고조선 관련 연구동향

III. 낙랑 관련 연구동향

IV. 맺음말

북한 학계의 고조선 및 낙랑 고고학 연구동향

박 장 호 (영남대학교)

I. 머리말

북한의 고고학연구는 해방직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꾸준히 이어져오고 있다. 이러한 북한 고고학연구사는 2009년 북한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에서 간행한 조선고고학총서에 정리되었다. 이를 한창균이 분석하여 4단계로 나누고 단계별 특징을 정리하였는데, 초기-형성기-확립기-변혁기 4단계로 구분하였다(한창균 2013: 198).

『총론』		필자	
구분	성격(기간)	구분	성격(기간)
I기	해방직후 새 조국건설시기 조국의 역사를 주체적 입장에서 새롭게 정리체계화하고 고고학 연구의 기초를 축성하기 위한 사업(1945.8~1953.7)	초기	맑스-레닌주의적 방법론 적용의 모색기(1945~1953)
II기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 기초건설시기 전국적 범위에서 역사유적유물들을 발굴정리하기 위한 사업(1953.8~1961.8)	형성기	맑스-레닌주의적 방법론에서 주체적 방법론으로의 전환기(1954~1970)
III기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의 방법론을 철저히 구현하며 우리나라 역사의 유구성을 과학적으로 해명하기 위한 사업(1961.9~1970.10)		
IV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역사적 사실들과 유적유물자료들을 정확히 고증평가하며 고고학 연구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사업(1970.11~1980.9)	확립기	주체적 방법론에 의한 북한 고고학 체계의 확립기(1971~1992)
V기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우리 인민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과학적으로 체계화하기 위한 사업(1980.10~1989.12)		
VI기	단군릉의 발굴과 5000년의 민족사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사업(1990.1~1994.12)		
VII기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를 종합체계화하며 더욱 빛내이기 위한 사업(1995년 1월 이후)	변혁기	단군릉 발굴과 개건으로 상징되는 변혁기(1993년 이후)

표 1. 조선고고학전서 총론과 한창균의 북한고고학 시기구분(한창균 2013: 198)

북한에서의 고조선연구는 1959년대 중반 삼국시대의 사회성격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촉발되었으며, 1960년대 가장 높은 수준에 다다르게 된다(權五營 1991). 고조선과 낙랑군을 둘러싼 북한의 고고학연구는 1993년 단군릉의 발굴을 기점으로 큰 인식의 변화가 확인된다. 이는 ‘대동강문화론’(조법중 2015: 50)을 기초로 하여 세계 4대문명과 비견되는 위대한 고조선이 초기단계부터 그 중심지가 평양에 있었다는 내용이다. 기존의 북한학계의 인식은 요동설과 평양설, 이동설로 나누어져 있었으나 대동강문화론 주장이후에는 평양설로 인식의 변화가 관찰된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비단 고조선만의 변화는 아니었다. 낙랑군에 대한 인식도 기존에 일제강점기의 낙랑군 관련 고고학적 연구성과를 날조라고 하며 고조선의 수도가 요동에 있으니 낙랑군도 요동에 있다고 정리하였으나 대동강문화론 이후 평양에 고조선의 수도가 있지만 낙랑군은 요동에 있고, 고조선에 이어 낙랑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들어선다고 정리하고 있다.

이렇듯 북한학계의 고조선, 낙랑연구는 남한학계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1993년 단군릉 발굴 이후 많은 연구성과들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었으며, 남한학계와의 인식차도 더욱 크게 발생하게 되었다.

그렇기에 북한학계의 연구성과를 시대별로 정리하여 살펴보아야 남한학계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기초적인 연구동향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남한학계의 연구성과를 접목한다면 북한학계와 교류 등의 성과가 있었을 때 서로간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전체적인 시대별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북한학계의 고조선, 낙랑 고고학연구에 주요논점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도면 1. 북한의 ‘대동강문화’ 관련 지도(조법중 2015: 50)

II. 고조선 관련 연구동향

1. 시대별 연구동향

1) 해방직후

해방직후 북한학계는 고조선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성과는 확인되지 않으며, 일제강점기 일본 연구자의 연구성과에 대한 검토를 통한 문제제기 정도만 확인된다.

연번	제목	필자	참고문헌
1	조선의 고고학에 대한 일제어용학설의 검토(상)	洪起文	력사제문제 1949 13호
2	조선의 고고학에 대한 일제어용학설의 검토(하)	洪起文	력사제문제 1949 14호
3	고조선의 위치에 대한 일고찰	鄭世鎬	력사제문제 1950 2호

표 2. 해방직후의 고조선관련 연구성과

2) 1950년대

1950년대의 북한고고학계는 자료축척의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한국전쟁이후 복구사업에서 야기되는 구제발굴을 통하여 여러 가지 중요한 자료가 축척되고 있었다. 이러한 양상은 연구논문에서 확인 할 수 있는데 고조선에 대한 내용보다는 청동기시대와 초기철기시대에 해당하는 유적에 대한 조사성과와 그와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1950년대는 고조선사회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드물었지만 삼국시대 사회성격에 대한 논쟁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고조선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연번	제목	필자	참고문헌
1	자강도 전천 출토 명도전에 대하여	유정준	문화유산 1957년 1호
2	조선에서의 초기 금속 사용에 관한 토론회		문화유산 1957년 1호
3	조선 고대 무덤에 관한 연구(1)	정백운	문화유산 1957년 2호
4	태성리 저수지 건설장에서 발견된 유적 정리에 대한 개보(1)	전주농	문화유산 1958년 2호
5	조선에서의 금속문화 기원에 대한 토론	김용간, 황기덕, 김재효	문화유산 1958년 2호
6	조선 원시문화의 년대 추정을 위한 시도	도유호	문화유산 1958년 3호
7	우리나라에서 철기 사용의 개시에 관하여	정백운	문화유산 1958년 3호
8	태성리 저수지 건설장에서 발견된 유적 정리에 대한 개보(2)	전주농	문화유산 1958년 3호
9	자강도 내 원시유적 및 옛날 돈이 발견된 유적	유정준	문화유산 1958년 5호
10	1958년 춘하기 어지돈 지구 관개공사구역 유적 정리 간략보고	황기덕	문화유산 1959년 1호

표 3. 1950년대 고조선관련 연구성과

3) 1960년대

1960년대의 고조선연구는 1950년대의 고고학적 조사성과와 문헌적연구가 결합되어 고조선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는 시기였다. 특히 1960년부터 1962년까지 거의 20회에 달하는 학술토론회가 개최되는 등 고조선연구의 정점을 이루었다 할 수 있다. 이러한 토론의 연구 성과는 1963년 『고조선에 관한 토론논문집』으로 간행되었다.

이시기 고조선연구의 핵심은 리지린의 <고조선 연구>라 할 수 있다(강인옥 2015: 47)¹⁾. 도유호는 고조선의 위치를 평양을 중심으로 한 대동강유역으로 주장하였고, 정찬영은 이동론적 입장을 보였으나 리지린 등의 요동중심설이 인정을 받게 됨에 따라 고조선의 위치문제는 요동중심설로 통일되는 경향이 보인다.

요동중심설이 대두됨에 따라 도유호는 학문적으로 쇠락한 것으로 보이며 고고학계에서는 고대사와 체계적으로 연계하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

고고학적인 고조선연구는 1963년에서 1965년에 걸친 조중공동고고학발굴대의 중국동북지방 유적 발굴조사를 통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된다. 강상과 루상무덤의 조사를 통하여 고조선문화의 범주가 한반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 시간적 상한이 기원전 1,000년기 전반기까지 소급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기 때문이다(조중공동고고학발굴대 1966).

이렇듯 60년대 고조선연구는 평양중심설에서 요동중심설로 정리되는 과정을 거쳤으며 고고학 자료를 통해서도 이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나간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번	제목	필자	참고문헌
1	우리나라 고대 종족과 국가 발생에 관한 과학토론회		문화유산 1960년 1호
2	고조선문화에 관하여- 토광무덤년대의 고찰을 중심으로	전주농	문화유산 1960년 2호
3	고조선의 위치와 그 성격에 관한 몇가지 문제	정찬영	문화유산 1960년 3호
4	<<고고학상으로 본 고조선>>에 대한 과학토론회		문화유산 1960년 3호
5	고조선에 관한 약간의 고찰	도유호	문화유산 1960년 4호
6	함경남도 지역에서 발견된 세형동검 유적과 유물	한석정	문화유산 1961년 1호
7	고조선 연구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	도유호, 김용간	문화유산 1961년 4호
8	고조선에 관한 과학토론회		문화유산 1961년 5호
9	재령군 부덕리 수역동의 토광무덤	리순진	문화유산 1961년 6호
10	진번과 옥저성의 위치- 고조선 영역문제와 관련하여	도유호	문화유산 1962년 3호
11	좁은돛단검의 형태와 그 변천	정찬영	문화유산 1962년 3호
12	신천 명사리에서 드러난 고조선 독널에 관하여	도유호	문화유산 1962년 3호
13	고조선의 공예미술	전주농	문화유산 1962년 3호
14	룡산리고분 정리보고	백련행	문화유산 1962년 4호
15	고조선의 공예	전주농	문화유산 1962년 4호
16	왕검성의 위치	도유호	문화유산 1962년 5호

1) 강인옥은 리지린의 연구가 리지린 자신의 연구성과라기보다는 북한역사학계의 연구성과를 대표로 정리한 것으로 주장하였다.

17	평북도 박천군 녕변군의 조사보고	안병찬	문화유산 1962년 5호
18	예맥조선에 관하여	도유호	문화유산 1962년 6호
19	녕변군 세죽리 유적 발굴		문화유산 1962년 6호
20	고조선의 종족에 대하여	황철산	고고민속 1963년 1호
21	신창군 하세동리에서 드러난 고조선 유물에 관하여	전주농	고고민속 1963년 1호
22	예맥족에 대하여(1)	황철산	고고민속 1963년 2호
23	예맥족에 대하여(2)	황철산	고고민속 1963년 3호
24	회령 오동 원시유적의 포유동물상	김신규	고고민속 1963년 3호
25	두만강 류역 철기시대의 개시에 대하여	황기덕	고고민속 1963년 4호
26	세죽리유적 발굴 중간보고(1)	김정문	고고민속 1964년 2호
27	세죽리유적 발굴 중간 보고(2)	김영우	고고민속 1964년 4호
28	철기시대	황기덕	고고민속 1964년 4호
29	1964년 유적 발굴정형	고고학연구실	고고민속 1965년 1호
30	영흥읍 유적에 관한 보고	서국태	고고민속 1965년 2호
31	신암리 유적 발굴중간보고	리순진	고고민속 1965년 3호
32	검정 간그릇		고고민속 1965년 4호
33	석암리에서 나온 고조선 유물	백련행	고고민속 1965년 4호
34	천곡리 돌상자무덤	백련행	고고민속 1966년 1호
35	좁은숫단검		고고민속 1966년 2호
36	우리나라 원시시대 및 고대의 쇠붙이 유물 분석	최상준	고고민속 1966년 3호
37	독무덤		고고민속 1966년 4호
38	함경남도에서 새로 알려진 좁은숫단검 관계 유적과 유물	안영준	고고민속 1966년 4호
39	움무덤		고고민속 1966년 4호
40	김해 조개무지의 무덤에 대하여	김용간	고고민속 1967년 1호
41	압록강 류역에서 철기시대의 시작	리병선	고고민속 1967년 1호
42	우리나라 활촉의 형태와 그 변천	박진욱	고고민속 1967년 1호
43	락랑구역 정백동에서 나온 고조선 유물	조선력사박물관	고고민속 1967년 2호
44	고조선의 무기	자료실	고고민속 1967년 4호
45	수래의 명에꼭지와 자리손잡이끝		고고민속 1967년 4호

표 4. 1960년대 고조선관련 연구성과

4) 1970년대~1992년

1970년대부터 단군릉 발굴 이전까지의 연구는 1960년대 후반의 연구기조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1973년도에 발표된 고조선문제연구에서 고조선 후기문화를 세죽리-연화보유형 문화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1970년대 중반부터는 주체사상이 고조선연구에 관철되어 주체사상의 사회역사이론에 입각한 글이 발표되기 시작하였으며, 1976년도에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에서 편찬한 고조선문제연구논문집이 대표적이다.

1980년대에 들어서도 연구기조는 크게 변화가 관찰되지 않으며, 새로운 연구성과보다는 기존의 연구성과를 정리하는 형태로 반복된다.

연번	제목	필자	참고문헌
1	초기좁은덧단검문화의 내용과 발전과정에 대하여	박진옥	조선고고연구 1987년 1호
2	일본에서 새로 알려진 좁은덧단검관계유적에 대하여	송순탁	조선고고연구 1987년 1호
3	길림, 장춘지방의 좁은덧단검관계유적유물의 성격(1)	박진옥	조선고고연구 1987년 3호
4	길림, 장춘지방의 좁은덧단검관계유적유물의 성격(2)	박진옥	조선고고연구 1988년 1호
5	개성부근에서 나온 고조선관계 유물	왕성수	조선고고연구 1988년 1호
6	고조선에서의 제철 및 철제가공기술의 발전	박영초	조선고고연구 1989년 1호
7	최근년간 황해남도에서 드러난 좁은덧단검 관계유물	리규태	조선고고연구 1990년 2호
8	우리나라 고대 청동가공기술에 관한 연구	강승남	조선고고연구 1990년 3호
9	기원전 1000년기 후반기 우리나라 청동야금기술의 특징에 대하여	강승남	조선고고연구 1990년 4호
10	조선과 일본의 청동무기류변천에 대하여(1)	송순탁	조선고고연구 1990년 4호
11	진국의 좁은덧단검관계 무기류 및 청동거울의 형태변천	김재용	조선고고연구 1991년 2호
12	조선과 일본의 청동무기류변천에 대하여(2)	송순탁	조선고고연구 1991년 2호
13	진국에서의 좁은덧단검문화의 형성과 고조선문화와의 관계	김재용	조선고고연구 1991년 3호
14	진국에서의 중기좁은덧단검문화의 발전과 고조선좁은덧단검문화와의 관계	김재용	조선고고연구 1991년 4호
15	조선과 일본의 청동무기류변천에 대하여(3)	송순탁	조선고고연구 1991년 4호
16	고대조선의 잔줄무늬거울의 무늬주제에 대하여	리일남	조선고고연구 1992년 3호

표 5. 1970년~단군릉발굴이전 고조선관련 연구성과

5) 1993년~현재

1993년 단군릉 발굴을 기점으로 북한학계는 기존의 연구와는 다른 시각에서 고조선문제를 접근한다고 할 수 있다. 고조선의 위치가 요동중심설에서 평양중심설로 변화하였으며, 건국시기도 2,000년 이상 올라가게 되었다.

대동강문화론이 주장됨에 따라 고조선의 위치나 연대적인 부분에서 많은 변화가 보인다. 그렇지만 연구자체에 대한 심도있는 변화는 관찰되지 않는 것 같다. 대동강문화론에 입각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기존의 연구성과에 연대적인 부분만 수정하여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관찰된다.

또한 대동강문화론의 핵심인 평양일대의 유적과 유물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대동강문화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이 많이 확인되는 편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단군릉 발굴이후 북한학계의 연구는 대동강문화론에 입각하여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기조 때문에 다양한 연구경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적이라 하겠다.

연번	제목	필자	참고문헌
1	진국에서 후기좁은덧단검문화의 발전과 고조선문화와의 관계	김재용	조선고고연구 1993년 1호
2	우리나라에서 좁은덧단검의 형성과정에 대하여(1)	송순탁	조선고고연구 1993년 2호
3	토성동 486호나무곽무덤 발굴보고	윤광수	조선고고연구 1994년 4호
4	평양일대에서 발굴된 고조선의 도기	김영진	조선고고연구 1995년 2호
5	고조선시기의 청동 및 철 가공기술	강승남	조선고고연구 1995년 2호
6	고조선의 좁은덧단검문화에 대한 재고찰	박진옥	조선고고연구 1996년 2호
7	고조선의 도기에 대하여	김영진	조선고고연구 1996년 2호
8	새로 알려진 고대시기유물	송순탁	조선고고연구 1997년 3호
9	새로 알려진 비파형단검과 좁은덧단검관계 유적유물에 대하여	김지철	조선고고연구 1998년 1호
10	룡포리돌곽무덤에 대하여	김재용	조선고고연구 1998년 2호
11	대동강류역은 좁은덧단검문화의 발상지	리정남	조선고고연구 1999년 1호
12	대동강류역에서의 금속가공기술에 대하여	로철수	조선고고연구 1999년 1호
13	고조선 나무곽무덤의 금속기갖춤새의 변천	로철수	조선고고연구 2000년 4호
14	일본동탁의 조선적성격	윤송학	조선고고연구 2001년 3호
15	길림성 동료현에서 드러난 후부여유적에 대하여	손은철	조선고고연구 2003년 4호
16	우리나라 나무곽무덤의 발상지에 대하여	성철	조선고고연구 2004년 1호
17	우리나라에서 알려진 동탁에 대한 고찰	윤송학	조선고고연구 2004년 1호
18	고조선시기 구슬의 종류와 변천	한은숙	조선고고연구 2006년 1호
19	평양일대에서 좁은덧단검형성과정	성철	조선고고연구 2007년 1호
20	고대 우리나라 청동단검의 특징에 대하여	성철	조선고고연구 2009년 2호
21	우리나라 남부지역의 고대돌곽무덤에 대하여	심철	조선고고연구 2009년 3호
22	중국동북지방 좁은덧단검에 대한 고찰	김재용	조선고고연구 2011년 1호
23	백두산일대의 고대유적에서 나온 철기에 대하여	김동일	조선고고연구 2011년 2호
24	후산리나무곽무덤 발굴보고	리영	조선고고연구 2012년 1호
25	남연해주의 초기철기문화에서 주목되는 문제	서국태	조선고고연구 2013년 3호
26	일본에서 알려진 잔줄무늬청동거울의 조선적성격	김정철	조선고고연구 2013년 3호
27	고대 우리나라 청동거울의 유형과 변천	김정철	조선고고연구 2014년 2호
28	황해북도 승호군 광정리에서 새로 알려진 좁은덧단검		조선고고연구 2016년 2호

표 6. 단군릉발굴이후 2016년까지 고조선관련 연구성과

2. 고조선에 대한 주요논점

1) 고조선의 위치문제²⁾

고조선의 위치에 대한 견해는 크게 평양설과 요령설, 이동설로 구분할 수 있다. 평양설은 도유호가 대표적인 학자이며, 요령설은 리지린, 이동설은 정찬영이 대표적이다.

2) 權五榮, 1991, 「古朝鮮史研究의 動向과 그 內容」, 『北韓의 古代史研究』 歷史學會編, 일조각.

오대양, 2018, 「북한학계의 최근 고조선 연구」, 『2000년 이후 국가별 쟁점과 전망 고조선사 연구동향』, 동북아역사재단.

도유호의 평양설은 고조선의 위치를 대동강유역으로 비정하고 낙랑군도 지금의 평양지역에 있었다고 보았다. 고조선의 문화는 세형동검, 화분형토기, 세문경 등이 출토되는 토광묘 문화로 보았으며, 명도전, 도씨검 등이 출토되는 유적은 중국유적으로 판단하였다.

정찬영 등의 이동설은 연나라 장수 진개의 침공에 의해 고조선의 서쪽경계에 변동이 있었음으로 중심지자체가 변화한다고 판단하였다.

리지린의 요령설은 고고학적인 검토보다는 문헌적인 검토를 통하여 고조선의 왕검성이 요동의 개평(蓋平) 부근에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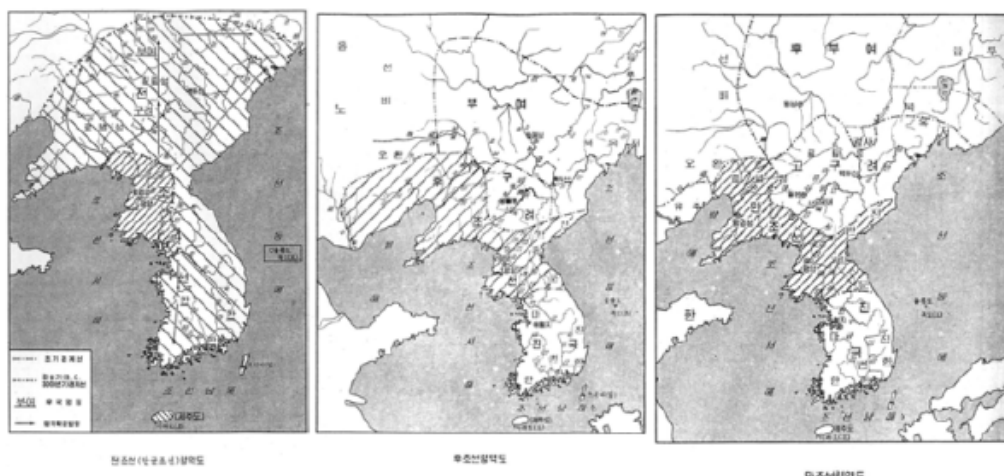
1960년대 고조선에 대한 논쟁과정에서 도유호의 평양설과 정찬영의 이동설은 리지린의 요령설로 통합되었으며 1993년 단군릉 발굴이전까지 대표적인 이론으로 지속되어 왔다. 그렇지만 단군릉 발굴 이후 대동강문화론이 주장되면서 요동설은 폐기되고 다시 평양중심설이 대두된다.

북한에서는 고조선 평양설을 입증하기위하여 평양일대에 대한 발굴조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성천군 룡산리의 석관묘가 요동반도의 강상묘에 비견되며 평양일대의 고인들은 고조선의 노예소유자 및 왕들의 집중거주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토성에 대한 재조사를 진행하면서 기존에 조사된 지탑리토성과 성현리 토성이 고조선시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렇듯 고조선의 중심지 위치에 대하여 북한학계는 기존에 취해왔던 요동중심설을 폐기하고 평양중심설로 변화하였으며, 그에 따라 고고학적인 조사와 연구는 이에 발맞추어 정리가 되고 있다.

시기구분	중심지	상한연대	주민	국가성격
1963년 이전	요동설, 평양설, 이동설이 모두 제시됨	기원전 18세기, 기원전 8세기, 기원전 4~3세기 등 다양하게 제시됨	예맥족, 예족, 조선계·맥계·한계 등 다양하게 제시됨	노예제국가라는 전제 아래 토론
1963년~1992년	요동중심설	기원전 10세기 전후	예족 중심	노예제국가
1993년 이후	평양중심설	기원전 30세기	평양일대의 박달족 중심	노예제국가

표 7. 북한학계의 고조선연구 흐름(오대양, 조원진 2017: 72)



도면 2. 북한의 최근 고조선 영역도(조법중 2015: 58)

2) 고조선의 물질문화와 연대

고조선의 시작에 대하여 1960년대 도유호는 좁은놋단검 등이 출토되는 토광묘문화를 기준으로 고조선의 문화를 판단하였으며, 기원전 3세기 이전에 국가단계 고조선의 출현은 애매하다고 생각하였다(도유호 1960). 정찬영도 고조선의 물질문화는 좁은놋단검, 좁은놋창 등의 검모문화이며 기원전 3세기~1세기대로 판단하였다(정찬영 1960).

그러나 리지린에 의해 고조선의 시작은 기원전 8세기경으로 올라간다. 이는 <관자>의 기록을 바탕으로 고조선의 시기를 관자가 쓰여진 시기로 올려보고 있는 것이다.

리지린에 의해 주장된 기원전 8세기의 연대가 정설로 채택됨에 따라 물질문화도 좁은놋단검 문화가 아니라 비파형동검과 미송리형토기로 대표되는 문화로 조정되었으며 이 시기를 고조선 전기로 설정하였다(기원전 8~4세기). 고조선 후기 문화는 세죽리-연화보 유형문화로 설정하였다(기원전 3~2세기경)(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1976).

60~70년대 설정된 연대관은 1987년 박진옥에 의해 수정이 확인된다(박진옥 1987). 박진옥은 비파형단검의 출현시기를 중전의 기원전 1,000년기 전반기에서 기원전 2,000년기 말로 상향조정하였으며, 비파형단검은 고조선의 국가형성 이전에 이미 발생하였으며, 비파형단검문화와 고조선 문화가 시간적으로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수정하였다. 고조선의 시작은 중기형의 비파형 단검 시기로 조정된 것이다.

분 기	유 형	세 기	공 반 토 기	분 포
전 기	쌍 방 형	B.C. 2000년기말	견형적 미송리형토기	실금현 쌍방 영결현 쌍성초
	이 도 학 자 형	B.C. 1000년기초		요양현 이도학자 청원현 문점
중 기	강 상 형	B.C. 8세기전후	퇴화형 미송리형 토기, 목긴단지	여대시 강상 영성현 함산군
	실이대영자형	B.C. 8~7세기		조양현 실이대영자 금서현 오금당
후 기	정가외자형	B.C. 7~6세기	목긴단지	실양시 정가외자 금서현 사아보
	루 산 형	B.C. 6~5세기		여대시 루산 파성현 대둔

표 8. 박진옥의 비파형단검 형식분류와 편년안(권오영 1991: 51)

	시기	유적				유물		
		성곽	제단	집자리	무덤	청동기	석기	토기
청동기 시대 문화기	B.C. 4000년기 후반기				침촌형고인돌 1,2형식		조립식 돌단검	
고조선 전기문 화 1기 (단군 조선 초기)	B.C. 3000년기 초~중엽	황대성 성현리하층 지탑리하층 청암동하층	평양용성 구역 화성동 2호제단	표대 남경 남양리 석탄리 금탄리	침촌형고인돌3, 4형식, 오덕형고인돌 1형식 (청동장식품) 목방형고인돌/ 돌관무덤	· 선암리석관요 조립식 비파형동검/대아리 석관요 비파형단검/ · 표대10호 비파형창끝 · 2인교예청동장식(장 리1호고인돌) · 청동방울(장리1호)	농공구류 석기, 가락바퀴, 그물추, 별도끼	팽이그릇+ 조롱박단지 (1유형: 마송리형)
고조선 전기문 화 2기	B.C. 3000년기 말~ B.C. 2000년기 초엽	평양 덕산토성 지탑리 (중간)	평양용성 구역 화성동 1호제단 황해북도 오덕지구 3개제단	표대, 남경, 립석리, 남양리, 석탄리, 고연리, 신흥동	목방형고인돌 2형식/ 오덕형고인돌 2형식 돌관무덤	· 평양 형제산구역 서포 동 비파형단검 · 비파형창끝(남양리) · 단추모양 청동기 5점 (남양리)		팽이그릇+ 조롱박단지 (2유형: 목방리형)
고조선 전기문 화 3기	B.C. 2000년기 중엽~ 말엽	평양성하층		표대, 남경, 남양리, 석탄리, 고연리	목방형고인돌 3형식/ 오덕형고인돌 3형식 돌관무덤(신성 동-비파형단검, 거울 등)	· 후기비파형단검		팽이그릇+ 조롱박단지 (3유형: 남양형)
고조선 후기문 화 1기 (좁은 놋단검 문화)	B.C. 2000년기 말~ B.C. 1000년기 전반기	황주군 고연리토성/ 지탑리상층/ 성현리상층			목방형고인돌/ 오덕형고인돌 돌관무덤 돌돌림무덤 옹무덤 독무덤	좁은놋단검, 좁은놋창끝, 청동도끼, 청동비수, 청 동팔찌, 청동가락지/ 잔줄무늬놋거울/ 쇠도끼		
고조선 후기문 화 2기 (좁은 놋단검 문화)	B.C.1000 년기 후반기~ B.C.1000 년기말(B. C.108년)	락랑토성, 운성리토성, 청산리토성			돌관무덤, 나무관무덤, 독무덤, 옹무덤	· 청동기류:좁은놋단검, 놋창끝 놋쇠, 청동거울 · 철기류:쇠단검,쇠장검, 쇠창끝,쇠뇌,쇠낚,쇠도 끼,쇠괘(무기,농기구) · 마구,수레부속		

표 9. 대동강문화에서 주장하는 편년표(조법종 2015: 55)

단군릉의 발굴조사 이후 대동강문화론이 주장됨에 따라 고조선의 시기도 상향조정된다. 기원전 1,000년기 전반기에 성립되었다고 하는 주장에서 기원전 3,000년 이전에 평양에서 건국되었다는 논리가 세워졌다. 고조선의 시기가 상향됨에 따라 청동기시대의 출현시점도 상향되게 되었으며, 삼국의 건국연대도 상향되었다. 그러나 연대가 조정된 것일 뿐이지 유적과 유물의 형식변화는 대동강문화론 주장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은 확인 할 수 있다.

Ⅲ. 낙랑 관련 연구동향

1. 시대별 연구동향

1) 해방직후~1950년대

해방직후 낙랑의 고고학적 연구성과는 일제강점기 일본인연구자들의 연구성과에 대한 검토를 통한 문제제기 정도였다. 1947년 6월 평양 낙랑구역 정백동의 나무곽무덤을 발굴하여 ‘거섭3년명’ 칠반을 비롯하여 각종 청동기와 마구 및 장식품 등을 발굴하였으나, 일제강점기부터 조사된 평양 정백동일대의 고분조사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연번	제목	필자	참고문헌
1	조선의 고고학에 대한 일제어용학설의 검토(상)	洪起文	력사제문제 1949 13호
2	조선의 고고학에 대한 일제어용학설의 검토(하)	洪起文	력사제문제 1949 14호
3	거섭 3년명 칠반	황옥	문화유산 1957 6호

표 10. 해방직후의 낙랑관련 연구성과

2) 1960년대~1992년

1960년대 낙랑에 대한 연구는 부조예군 무덤에 대한 조사로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 평양시 정백동에서 <부조예군> 도장이 출토됨에 따라 공반출토된 유물을 통하여 나무곽무덤을 낙랑군 시기이지만 고조선과 관련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며, 그 결과 나무곽무덤이 고조선 후기의 늦은 시기까지 사용된 고조선의 문화라고 판단하였다. 특히 평양일대에서 보이는 기원전 1세기~기원 3세기까지의 유적과 유물을 고조선 유민을 중심으로 한 독자적 정치세력이 자기의 고유한 문화를 발전시켜왔다고 보았다(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1977). 이러한 연구기조는 단군릉 발굴 이후까지도 계속 이어져오고 있다.

연번	제목	필자	참고문헌
1	평안북도 박천군 덕성리 전곽무덤 발굴 간략보고	신의주박물관	문화유산 1961년 5호
2	신천에서 대방군 장잠장 왕경의 무덤 발견	전주농	문화유산 1962년 3호
3	<부조예군> 도장에 대하여	백련행	문화유산 1962년 4호
4	<부조예군> 무덤에 대하여	리순진	고고민속 1964년 4호
5	은륜군 운성리 움무덤 발굴 중간보고	방성홍	고고민속 1967년 1호
6	은파군 금대리 유적 정리보고	박승률	고고민속 1967년 4호
7	룡추동 움무덤	리기령	고고민속 1967년 4호
8	귀틀무덤에 문헌자들의 신분에 대하여	리창언	조선고고연구 1986년 2호
9	평양일대 벽돌무덤의 구조형식과 그 변천	한인덕	조선고고연구 1986년 2호

10	평양일대 벽돌칸무덤의 년대에 대하여	한인덕	조선고고연구 1988년 4호
11	평양일대 벽돌칸무덤은 키티무덤의 계승	한인덕	조선고고연구 1989년 1호
12	새로 드러나 추릉리 벽돌무덤	안병찬, 홍원표	조선고고연구 1990년 1호
13	락랑구역일대의 고구려돌칸흙무덤에 대하여	리순진	조선고고연구 1990년 4호
14	기원 2~3세기 평양부근의 벽돌무덤에서 나온 청동거울에 대한 고찰	강승남	조선고고연구 1991년 1호
15	우리나라 서북지방에서의 나무곽무덤의 기원과 발생시기에 대하여	리순진	조선고고연구 1992년 1호

표 11. 1993년 이전의 낙랑관련 연구성과

3) 1993년~현재

1993년 단군릉 발굴이래로 평양일대의 무덤과 토성 등에 대하여 고조선에 이어 등장한 소국인 락랑국의 유산임을 증명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이는 것이 확인된다. 1980년대 이후로 북한 학계의 낙랑연구는 한인덕과 리순진이 주도하였는데, 리순진은 나무곽무덤의 연구에 집중하였고 한인덕은 벽돌무덤 조사와 연구에 집중하였다.

하지만 나무곽무덤의 연구와 벽돌무덤이 연구는 기존의 고조선 이후의 집단이라는 견해에서 큰 변동은 확인되지 않고 락랑국의 무덤으로 규정짓는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 벽돌무덤의 경우 고구려의 영향력 아래에서 변화해가는 무덤연구를 진행하고 있어 해석의 틀이 자유롭지 못한 것이 관찰된다.

무덤의 연구뿐 아니라 토성에 대한 연구성과도 증가하였는데 2000년대 들어 새롭게 발견된 토성의 조사보고가 확인된다. 일제강점기에 낙랑이나 대방군 관련 토성으로 이해되어 왔던 자료들이 모두 고조선의 토성으로 정리되었으며, 이러한 토성정리 작업은 고대국가 형성과정에 성곽이 반드시 출현하며 그것이 정치, 경제의 중심이고 나아가 지역거점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라고 언급하며 고조선 성곽자료를 통해 고조선의 출발이 평양이라는 것을 뒷받침하려는 것이다(정인성 2016).

연번	제목	필자	참고문헌
1	평양부근 고대유적에서 드러난 유리구슬의 화학조성과 그 재질에 대한 고찰	강승남	조선고고연구 1993년 3호
2	통일거리건설장에서 발굴된 나무곽무덤의 성격에 대하여	리순진	조선고고연구 1993년 4호
3	새로 알려진 금봉리벽돌무덤	장철만	조선고고연구 1994년 4호
4	평양지방의 고대토성	남일룡	조선고고연구 1995년 2호
5	평양일대 락랑유적의 발굴정형에 대하여	안병찬	조선고고연구 1995년 4호
6	락랑유적에서 드러난 글자있는 유물에 대하여	박진옥	조선고고연구 1995년 4호
7	서북조선의 벽돌무덤의 성격에 대하여	한인덕	조선고고연구 1995년 4호
8	물성분석을 통하여 본 점제비와 봉니의 진면모	김교경, 정강철	조선고고연구 1995년 4호
9	평양일대 나무곽무덤의 성격에 대하여	리순진	조선고고연구 1996년 1호
10	키티무덤을 남긴 정치세력에 대하여	리창언	조선고고연구 1996년 1호
11	평양일대 고대토성의 축조년대에 대하여	남일룡	조선고고연구 1996년 1호

12	평양 락랑유적에서 드러난 고대비단에 대하여	조희승	조선고고연구 1996년 1호
13	마장리나무곽무덤 발굴보고	장철만	조선고고연구 1996년 1호
14	락랑유적의 금속유물에 대하여	강승남	조선고고연구 1996년 2호
15	평양일대 고대성곽의 특징에 대하여	남일룡	조선고고연구 1996년 3호
16	락동강 및 금강 류역에서 드러난 나무곽무덤의 유형	성철	조선고고연구 1997년 4호
17	락동강 및 금강 류역 나무곽무덤의 그릇갖춤새의 변천	성철	조선고고연구 1998년 3호
18	락랑일대 벽돌무덤의 건축적 특징에 대하여	한용걸	조선고고연구 1999년 4호
19	락랑유적의 도기제작기술상에 대한 고찰	리윤철	조선고고연구 2000년 3호
20	락랑일대에서 발굴된 귀틀무덤에 대하여	김덕철	조선고고연구 2001년 4호
21	최근에 발굴된 돌천정벽돌무덤	김재용, 고영남	조선고고연구 2002년 3호
22	돌천정벽돌무덤에 대하여	김재용, 고영남	조선고고연구 2002년 4호
23	평양일대의 벽돌무덤에 반영된 고구려문화의 영향	박광훈	조선고고연구 2002년 4호
24	새로 발굴된 덕산토성		조선고고연구 2002년 4호
25	새날리에서 발굴된 벽돌무덤		조선고고연구 2003년 3호
26	로암리돌천정벽돌무덤에 대하여	한인덕	조선고고연구 2003년 3호
27	황해남도 신천군 새날리벽돌무덤 발굴보고	윤송학	조선고고연구 2004년 4호
28	중국 내몽고자치구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후부여이주민들의 관인	손은철	조선고고연구 2005년 1호
29	화분형단지에 대한 몇가지 고찰	성철	조선고고연구 2005년 2호
30	락랑유적에서 알려진 활과 쇠뇌에 대한 고찰	김재용, 랑중호	조선고고연구 2005년 2호
31	새로 발굴된 락랑유물유적과 유물	정봉찬	조선고고연구 2005년 2호
32	정백동 382호무덤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2005년 2호
33	락랑유물의 축조형식과 그 복원에 대하여	전제현, 정봉찬	조선고고연구 2006년 1호
34	승리동 86호 벽돌무덤 발굴보고	안춘성	조선고고연구 2006년 4호
35	승리동 95호벽돌무덤 발굴보고	안춘성	조선고고연구 2007년 4호
36	정오동 104호귀틀무덤 발굴보고	리영	조선고고연구 2009년 2호
37	승리동 83호무덤 발굴보고	김재용	조선고고연구 2009년 3호
38	정오동 99호 귀틀무덤 발굴보고	리철민	조선고고연구 2010년 1호
39	평양일대 나무곽무덤의 형식분류와 선후관계	김재용	조선고고연구 2011년 3호
40	평양일대의 나무천정벽돌무덤에 대하여(1)	안춘성	조선고고연구 2011년 3호
41	일본 북규슈지방에서 알려진 동탁에 대하여	윤송학	조선고고연구 2011년 3호
42	대평동벽돌무덤 발굴보고	김대영	조선고고연구 2012년 1호
43	평양일대의 나무천정벽돌무덤에 대하여(2)	안춘성	조선고고연구 2012년 2호
44	락랑구역일대 무덤들에서 나온 화분형단지의 연원	안성규	조선고고연구 2012년 3호
45	통산리토성 발굴보고	성철, 김광명	조선고고연구 2012년 3호
46	통일거리 46호, 47호 나무곽무덤 발굴보고	백현남	조선고고연구 2012년 3호
47	서북조선일대 고대성곽유적에서 나타나는 몇가지 특징	최승택	조선고고연구 2013년 1호
48	통일거리동57호벽돌무덤 발굴보고	고영남, 안춘성	조선고고연구 2013년 4호
49	평양일대 벽돌무덤의 성격	김재용	조선고고연구 2014년 2호
50	통일거리동73호무덤 발굴보고	고영남, 백현남	조선고고연구 2015년 1호

51	락랑우물유적발굴이 가지는 의의	정봉찬	조선고고연구 2015년 2호
52	관문동 5호귀틀무덤 발굴보고	안춘성, 김정철	조선고고연구 2015년 2호
53	통일거리2동 19호 귀틀무덤 발굴보고	안춘성, 강영철	조선고고연구 2016년 2호

표 12. 1993년 이후의 낙랑관련 연구성과

2. 낙랑관련 주요논점

1) 낙랑군과 낙랑국

북한에서 평양일대에서 출토되는 무덤과 토성에 대한 성격규명이 많은 논쟁거리가 되어 왔다. 5세기 중엽~6세기 초 북위시대 <수경주(水經注)>에서 한나라의 낙랑군을 평양성에 있다고 보아온 이래로 낙랑군의 위치는 평양이라고 생각되어 왔다. 이후 일제강점기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 평양에서 한식계유물이 출토되는 무덤군과 낙랑토성이 조사됨에 따라 낙랑군 재평양설이 확고해지게 되었다. 그렇기에 북한은 초기부터 평양일대에 낙랑군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그 결과가 3,000여기에 달하는 락랑무덤의 조사이다.

락랑무덤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일제강점기 100여기의 조사 성과보다 더 많은 조사를 통하여 일본인학자들이 주장한 내용이 틀렸다는 것을 주장하였고, 고조선의 왕검성위치가 평양이 아니라 요동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낙랑군이 평양에 설치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일본인 학자들이 평양일대의 락랑무덤을 락랑군시대의 무덤으로 왜곡·날조하였다고 주장하였다(허종호 외 1999; 리순진 2001).

이러한 주장은 단군릉 발굴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지는데, ‘대동강문화’의 주장으로 평양에 고조선의 중심지인 왕검성이 있었다고 하게 됨에 따라 기존의 논리에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평양일대에 낙랑군이 없어야 하는데 왕검성이 평양에 있게 되면 낙랑군도 평양에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오영찬 2006). 그렇기에 북한학계에서는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수도(副首都)’라는 개념을 등장시켰다. 漢 武帝가 점령한 왕검성은 요령성 개주(蓋州)에 있는 부수도인 왕검성을 함락시킨 것이며, 부수도에 한나라의 낙랑군을 설치하였다는 것이다. 평양에는 고조선 사람들이 용감히 투쟁하여 漢 武帝가 점령을 할 수 없었으며, 그 자리에 독립적인 소왕국이 형성하게 되었는데 평양일대에는 락랑국³⁾이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학계의 주장은 평양일대에 있었다고 하는 한 무제가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설치한 한사군의 낙랑군은 요령성 개주에 있었으며, 평양일대에는 최리의 락랑국이 있었으며 1세기 이후에는 고구려의 영향아래에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락랑국의 무덤은 나무곽무덤-귀틀무덤-벽돌무덤으로 이어지는 변천을 보이며 서로 계승 발전되는 관계를 보인다고 하였다.

이렇듯 북한학계는 평양일대가 고조선 이후 고구려로 발전된다는 논리를 60년대 이후로 꾸준히 보고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3)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대무신왕 15년 4월에 호동왕자를 시켜 락랑국을 무력으로 격파하여 락랑국왕 최리의 항복을 받아냈다는 기사를 통하여 한사군의 낙랑군이 아니라 최씨정권의 락랑국으로 보고 있다.

2) 나무곽무덤과 고조선

평양일대 고분에 대한 발굴조사가 처음 이루어진 일제강점기 이래로 평양일대의 고분을 한사군의 낙랑군 무덤으로 이해되어왔다. 그러나 북한학계에서는 평양일대의 고분을 낙랑군의 무덤이 아니라 고조선 이후의 소국이었던 락랑국의 무덤으로 이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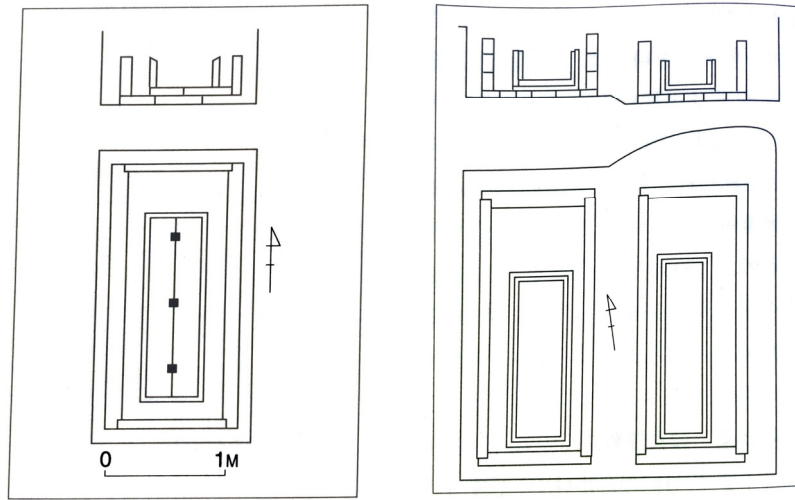
평양일대의 락랑무덤은 나무곽무덤, 귀틀무덤, 벽돌무덤 등 세가지 유형이 있으며, 그 중 가장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무덤은 나무곽무덤으로 본다.

일제강점기의 연구에서 귀틀무덤과 벽돌무덤은 무덤구조와 출토유물을 통하여 한식계통으로 분류하였다. 그렇지만 북한학계에서는 한대무덤의 변천과 평양일대의 락랑무덤의 변천은 구별된다고 정리한다. 그 중 나무곽무덤의 경우 고조선사람들이 남긴 무덤 중 하나로 일찍부터 주장하였다(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1976).

나무곽무덤을 만든 사람들의 성격에 대하여 1983년 고고민속논문집에서 리순진은 나무곽무덤은 고조선의 후국과 고조선유민들이 남긴 유적으로 정리하였다. 2001년 평양일대 락랑무덤에 대한 연구에서는 나무곽무덤은 고조선 후예가 남긴 무덤이라고 정리하며 그 후예들은 락랑국 또는 조선이라는 정치세력을 이루고 있었다고 보았다.

분 류	무덤이름	무덤주인공의 무장상태	같이 나온 무기	
			창	기타
움 무덤	석산리움무덤	좁은 낫단검		낫파
	하세동리움무덤	"	좁은낫창	"
	리화동움무덤	"	"	"
제1부류의 꺼묻거리갖춤새에 속하는 나무곽무덤	부덕리무덤	좁은낫단검+쇠장검	좁은낫창	
	정백동96호무덤	" + "	"	
	정백동80호무덤	쇠장검+고리자루짧은쇠칼	쇠 창	
	정백동81호무덤	" + "	"	
제3부류의 꺼묻거리갖춤새에 속하는 나무곽무덤	태성리 6호무덤	" + "	"	
	정백동67호무덤	쇠장검+고리자루짧은쇠칼		
	석암리 9호무덤	" + "	쇠 창	쇠극, 쇠뇌
	정백리 127호 무덤	" + "		쇠뇌

표 13. 여러 부류의 무덤에 나온 무기류(리순진 1983: 106)



도면 3. 평양일대의 나무곽무덤(리순진 2001: 19,22)

북한학계가 일찍부터 나무곽무덤을 고조선 후예나 고조선 유민, 락랑국과 관련시키는 이유는 출토되는 유구와 유물과 관련이 있다.

무덤의 경우 나무곽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중국 한 대의 나무곽무덤과 유사점이 확인되지만 고조선 무덤인 움무덤과 기본적인 무덤형태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평양일대의 나무곽무덤이 기원전 1세기대에 사용되는 무덤인데 한나라의 수도인 서안의 관중지역에서는 이미 기원전 1세기 중엽경에 벽돌무덤이 출현하며 기원전 1세기 후엽에는 벽돌무덤이 주류가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보인다는 점이다.

유물에 있어서도 고조선의 좁은놋단검문화 유물이 나무곽무덤에서 출토하기 때문이다. 긴 쇠칼, 쇠창, 쇠도끼 등의 철기류가 공반되기는 하지만 좁은놋단검, 좁은놋창끝 등을 비롯한 청동무기류가 부장되고 있어 고조선 후기문화의 특징을 보여준다고 일찍부터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일본인 학자들이 주장한 낙랑군 보다는 좁은놋단검문화와 관련된 고조선 관련 유적으로 판단하였으며, 시기적으로 고조선이 멸망한 시점이긴하지만 고조선 유민집단이나 락랑국과 관련된 무덤으로 판단하여 한사군과의 관련성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3) 벽돌무덤과 고구려의 영향

북한학계에서 락랑무덤은 나무곽무덤에서 귀틀무덤으로 변화하는데 귀틀무덤의 경우 나무로 곱을 만든다는 점에서 나무곽무덤과 기본적으로 같은 종류의 무덤으로 판단하여 기원전 1세기 후엽~기원 1세기 초엽에 나무곽무덤에서 귀틀무덤이 출현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귀틀무덤에서 벽돌무덤으로의 이행은 1세기 말에서 2세기 초에 귀틀벽돌무덤과 벽돌귀틀무덤과 같은 과도기적인 형태가 나오는 단계를 지나 벽돌무덤으로의 변화과정을 설명한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이 한 대의 무덤과는 다른 변화과정을 보인다고 한다. 3세기가 되면 고구려의 진출로 인하여 돌흙칸무덤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한다(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1976; 리순진 2001).

그러나 2000년대 들어 벽돌무덤의 연구는 한나라와의 관계를 부정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일찍부터 고구려의 영향을 언급하기 시작한다(김재용·고영남 2002; 박광훈 2002). 2002년 조선고고연구에 돌천정벽돌무덤을 검토한 논문에서 벽돌천정무덤에서 돌천정벽돌무덤으로 변화하는데 이 변화의 영향은 돌흙칸무덤에서 온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으며, 같은 2002년 조선고고연구에서 평양 일대의 벽돌무덤에 반영된 고구려문화의 영향이라는 논문에서 무덤의 구조와 유물에서 고구려의 요소가 확인되며 이러한 고구려적 요소는 1~3세기 고구려의 남진과 문화의 파급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한다. 이러한 주장은 벽돌무덤이 한사군의 낙랑군에서 영향을 받아 출현한 것이 아니라 낙랑국 사람들이 고구려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주장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한나라와의 관계를 배제시키기 위한 작업으로 보여진다.

IV. 맺음말

북한학계의 고조선 및 낙랑 고고학연구는 단군릉 발굴이후 대동강문화론을 주장하면서 남한 학계와 많은 차이점이 확인된다. 이러한 차이점은 북한학계의 고조선 및 낙랑연구 동향을 검토하면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까지 남한학계의 연구는 일제강점기의 연구성과와 북한학계의 연구성과를 기초로하여 진행되어왔으며, 직접적인 조사를 통한 연구는 미진한 편이다. 최근 중국과 북한간의 공동발굴이 이루어지고있으며, 기존의 발굴성과도 남한학계에 소개되지 않은 것도 많다고 할 수 있다.

북한학계의 연구성과를 검토하고 그들의 연구방향에 대하여 숙지하고 있다면 추후 기존의 성과를 정리하거나 다른 조사성과가 나왔을 때 우리학계에서 쉽게 다가갈수 있다고 생각된다.

앞으로 북한과의 관계가 좋아진다면 기존의 연구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아직 알려지지않은 조사성과에 대한 검토 또한 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

■ 참고문헌 ■

- 강인옥, 2015, 『리지린의 고조선연구와 조중고고발굴대 - 고힐강의 자료를 중심으로-』, 『先史와 古代』 45호, 한국고대학회.
- 權五榮, 1991, 「古朝鮮史研究의 動向과 그 內容」, 『北韓의 古代史研究』 歷史學會編, 일조각.
- 김재용·고영남, 2002, 「돌천정벽돌무덤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2002년 4호.
- 도유호, 1960, 「고조선에 관한 약간의 고찰」, 『문화유산』 1960년 4호.
- 리순진, 2001, 『평양일대 락랑무덤에 대한 연구』, 사회과학원.
- 박광훈, 2002, 「평양일대의 벽돌무덤에 반영된 고구려문화의 영향」, 『조선고고연구』 2002년 4호.
- 박진욱, 1987, 「비파형단검문화의 발원지와 창조자에 대하여」, 『비파형단검문화에 대한 연구』.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1976, 『고조선문제연구논문집』.
-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1977, 『조선통사(상)』.
- 오대양, 2018, 「북한학계의 최근 고조선 연구」, 『2000년 이후 국가별 쟁점과 전망 고조선사 연구 동향』, 동북아역사재단.
- 오영찬, 2006, 『낙랑군 연구』, (주)사계절출판사.
- 정인성, 2016, 「북한학계 고조선 및 낙랑 고고학의 최근 연구동향」, 『통일고고학을 위한 연구 현황과 과제 진단』 2016년도 한국고고학회 학술회의, 한국고고학회.
- 정찬영, 1960, 「고조선의 위치와 그 성격에 관한 몇 가지 문제」, 『문화유산』 1960년 3호.
- 조법중, 2015, 「북한의 ‘大同江文化論’과 고조선인식 검토」, 『先史와 古代』 第43號, 한국고대학회.
- 조중공동고고학발굴대, 1966, 『중국 동북 지방의 유적발굴조사보고(1963~1965)』, 사회과학원출판사.
- 한창균, 2013, 「북한 고고학사의 시기 구분 체계에 대하여」, 『韓國上古史學報』 第79號, 韓國 上古史學會.
- 허중호 외, 1999, 『고조선 력사개관』, 사회과학출판사.

분단 70년 북한 고고학의 현주소

북한의 고구려, 발해 고고학 연구 성과와 과제

강 현 숙

(동국대학교)

I. 머리말

II. 북한 고고학의 전개와 고구려, 발해 고고학조사와 연구

III. 고구려, 발해 고고학 연구 성과와 주요 쟁점

IV. 맺음말- 고구려, 발해 고고학의 과제

북한의 고구려, 발해 고고학 연구 성과와 과제

강 현 속 (동국대학교)

I. 머리말

고구려와 발해의 영토는 북한과 중국 동북지방, 러시아 연해주에 걸쳐있고, 고구려나 발해를 보는 시각은 영토를 공유하는 나라마다 자국의 이익에 따라 상이하다. 러시아는 차치하더라도 대중화주의를 표방하는 중국에서는 고구려와 발해를 중국 동북지방에 있었던 발해 영토의 일부를 차지한 소수민족의 정권으로 자국의 역사에 편입시키고, 북한은 평양을 중심으로 고조선-고구려-발해-고려로 이어지는 주체적 역사관으로 유적, 유물을 평가한다. 중국이건, 북한이건 간에 이러한 역사 인식은 유적과 유물의 조사와 해석에 연동되어서 보고된 유적, 유물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게 한다. 남한에서의 고구려, 발해고고학 연구가 갖는 태생적 한계이다.

그러나 북한에서의 고고학 조사, 연구가 처음부터 주체사관에 따른 주체적 해석만을 한 것은 아니다. 북한에서는 1948년 정권 수립 이전부터 한홍수나 도유호 같은 유럽에서 유학한 연구자를 참여시켜 고고학 조사와 연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1946년<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보존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여 문화유산을 국가소유로 정함으로써 도굴을 원초적으로 봉쇄하는 한편, 1947년 ‘북조선고적위원회’를 만들어 고적의 조사, 연구를 담당하게 하였다. ‘북조선고적위원회’는 1948년도에 ‘물질문화유물조사보존위원회’로 확대되어 평양 중앙역사박물관과 함께 조사, 연구를 주도하였다. ‘물질문화유물조사보존위원회’는 한국 전쟁 종료 직후 과학원 산하의 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로 개칭되었고, 1967년 고고학과 민속학 연구소가 분리되면서 고고학 연구소가 유적 조사와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북한이 해방 후부터 1967년까지 유적, 유물 조사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은 고고학 자료-유적, 유물-를 역사 자료로 인식하였기 때문일 것이며, 일제강점기 하에서 부정되었던 구석기나 청동기의 존재가 확인된 것도 그러한 인식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을 지나면서 유적, 유물의 조사와 평가에 주체사관에 따른 방법론이 강조되고, 이가 유일사상과 유일체제의 확립과 연결됨으로써 ‘대동강문화’ 주장에서 잘 드러나듯이 고고학 조사와 연구는 정치적 상황에 종속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그들의 조사와 연구성과를 도외시 할 수 없는 것이 고구려나 발해의 고고학이다. 이에 남. 북한의 고고학적 인식의 차이를 좁히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서 북한의 고구려, 발해 유적, 유물의 조사와 연구 현황과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북한 고고학의 전개와 고구려, 발해 고고학조사와 연구

1949년 안악3호분이 발굴된 이후 북한의 고고학을 총정리한 것이 2009년에 발간된 <<조선고고학전서>>(이하 고고학전서)이다. 이 책의 총론에서는 북한고고학계를 선도한 주요 사업과 연구 성과를 기준으로 7단계로 나누어 기술하였지만, 그 변화는 한국전쟁의 정전협정, 조선노동당대회, 김일성 사망과 김정일 정치체제의 출범 등의 정치사회적 상황과 밀접하게 연동되어있다(한창균 2013). 이는 고고학 조사와 연구가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변화하였음을 의미하므로, 여기에서도 총론의 7단계에 따라 고구려, 발해의 고고학조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정리하고자 한다.

1. 고구려 고고학

1기는 해방이후 정전협정이 종료된 1945년 8월에서 1953년 7월까지의 기간이다. 맑스-레닌주의 중심의 역사관을 갖고 있던 북한 고고학계에서는 일제강점기의 잔재를 탈피하고 새로운 민족문화의 건설과 계승에 필요한 고고학연구의 기초를 다지는 일을 고고학계의 과제로 삼았다.

고구려 유적은 1949년 안악3호분을 비롯하여 안악1호분과 2호분 그리고 복사리무덤이 조사되었고¹⁾, 한국전쟁이 막바지에 달했던 1953년에는 요동성총의 조사가 있었다. 특히 안악3호분은 일제강점기에 알려지지 않았던 무덤 규모와 구조, 다양하고 풍부한 벽화로 인하여 북한 뿐 아니라 중국학계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2기는 한국전쟁 정전이후 조선노동당 4차대회가 열리기 전인 1953년 8월에서 1961년 8월까지의 기간이다. 유적, 유물의 과학적인 조사, 체계적인 문화유산의 정리와 보존 그리고 우리 역사의 주체적 입장에서의 평가를 고고학 과제로 삼았다. 전후 복구와 재건으로 이 기간 중의 고고학 조사는 구제발굴 성격을 띠었고, 조사는 제대군인과 중등교육을 받은 성원으로 조직된 전야공작대가 주로 담당하였다.

고구려 유적 조사는 고분에 치중되었다. 1954년 평남 남옥리고분, 대청리1호분과 평양역전이실분, 대안리1호분과 청옥리고분(보고되지 않음), 1955년도에는 자강도 중강군과 시중군의 적석총과 봉토분, 1956년 화성리고분과 증산 가암리고분(자료실자료) 그리고 1957년도에는 태성리 저수지 공사에 따른 태성리 일대 고분군과 덕성리고분, 1958년 평안남도 대동 팔청리벽화분, 강서 약수리벽화분, 대성 산고분군과 1960년 진파리의 (전)동명왕릉이 조사되었다. 이 기간에도 고구려 고분은 벽화분에 치중되었지만, 압록강 유역에서 적석총과 봉토분 등 중, 소형분 자료가 추가되면서 적석총에서 봉토분에, 대형분에서 소형분에 이르기까지의 시공적으로 다양한 고분 자료가 축적되었다. 아울러 이 시기에 안악3호분의 동수묘설, 왕릉설, 미천왕릉설 등이 제기되는 등 안악3호분의 주인공에 대한 몇 차례에 걸친 격렬한 토론회가 있었다.

3기는 조선노동당 제4차대회가 열린 1961년 9월부터 제5차대회가 열리기 전인 1970년 10월까지의 기간으로, 교조주의와 사대주의를 극복하고, 주체적 방법론으로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해 시대

1) 연차 발굴로 인해 조사시점과 보고시점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보고서에 조사 일시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일부 유적의 경우 조사 시기에서의 오차가 있을 것이다.

구분론에 대한 격렬한 토론이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 하에서 고고학에서도 토론회를 거쳐 다양한 해석들을 주체적 발전에 따른 해석으로 정리하였다. 아울러 종래 사용하던 고고학 용어들이 우리말로 통일되기 시작하여서, 남한과 북한의 고고학 용어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이다.

고분조사는 1962년 평양 장산동1, 2호분과 황해도 수안군 산북리1, 2호분, 그리고 전 시기에 이어 압록강 유역의 위원군과 증강군에서도 고분을 조하였다. 한편, 배천산성, 대현산성, 백마산성 등의 함경남도, 평안남도, 황해도 일대의 고구려 성곽의 현황조사, 대성산성과 안학궁의 정비복원을 위한 대성산일대 유적 조사도 있었다. 특히 평양성에 대한 몇 차례의 토론(채회국 「(토론) 평양성(장안성)의 축성 과정에 대하여」 『고고민속』 1965-3; 정찬영 「평양성에 대하여」 『고고민속』 1966-2)을 거쳐 다음 시기에 평양성에 대해 정리한 저술(최희림 『고구려 평양성』 1978)이 발간되었고, 안학궁과 대성산성, 평양성 조사와 함께 고구려 도성연구가 본격화되는 계기가 되었다(양시은 2016).

4기는 조선노동당 5차대회가 있었던 1970년 11월부터 1980년 9월 6차대회 전까지의 기간이다. 유일사상체제를 공고히 하고, 주체사상화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고구려 역사와 문화를 복원하였고, 평양을 중심으로 한 고구려사의 재구성도 이 시기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살수대첩이 일어났던 살수를 중국 동북지방의 소자하로 비정하고, 수 양제가 함락시키려 했던 평양성은 현재의 평양이 아닌 환도성으로 지금의 중국 요동지방의 봉황산성으로 보았다(손영중 「612년 살수전투와 관련한 역사지리문제에 대하여(1), (2)」 『력사과학』 1979-2,3; 진준현 「612년 고구려-수전쟁의기본전선과 봉황성계선에서의 승리」 『력사과학』 1980-2; 채회국 「고구려 수도의 변천과 봉황성-환도에 대하여」 『력사과학』 1980-2). 아울러 평양을 천년강국 고구려의 중심으로 부각시키기 위한 정치적 의도 하에 1973년 (진)동명왕릉을 재조사하여 벽화분임을 밝히고, 정릉사와 함께 고구려 시조왕릉으로서 고구려 시대상이 반영되도록 개건할 계획을 세우고, 도상복원을 하였다(김일성종합대학출판부 1976).

고구려 문화의 독자적 우수성을 강조하다보니, 고분 조사는 여전히 벽화분에 치중되었고, 벽화를 통한 고구려 생활의 여러 측면, 사회등급, 천문학과 과학기술, 관념과 사상 등을 복원하려는 연구가 본격화된 것도 이 시기이다. 이러한 연구 경향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1971년 수산리벽화분, 1972년 강서삼묘조사(보고되지 않음), 1973년 안악 봉성리벽화분, 1976년에서 1977년에 걸쳐 평안남도, 황해남도에서 2600기의 고구려 무덤 조사하여 33기를 발굴하고, 덕흥리벽화분, 덕화리 1, 2호분과 보산리, 금옥리, 우산리 벽화분이 보고되었다.

이외에도 1976년에 성현리 토성과 1979년 대흥산성의 조사가 있었고, 대흥산성의 조사는 고구려 방어체계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5기는 1980년 10월 조선노동당 6차 대회이후 1989년 12월까지의 기간으로, 그 동안의 조사된 유적, 유물에 대한 연구 성과를 소개하고 확산하는 한편, 유적, 유물의 복원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었다. 1985년과 1986년에 걸쳐 일본 11개 도시에서 고구려 문화전을 개최하였고, 덕흥리벽화분에 대한 조사와 연구성과를 일본어로 번역되어 단행본으로 발간되기도 하였다(朱榮憲 1986).

고분은 1980년의 한왕묘로 전해왔던 경신리1호분과 1983년 운룡리벽화분, 1987년 대성산일대와 황해북도 서흥군과 황해남도 안악군일대 200여기 고구려 무덤조사에서 안악 평정리벽화분과 오국리 고분 그리고 평양의 안학동과 로산동고분, 1988년 순천 동암리벽화분 등이 조사되었다. 아울러

독로강유역과 초산 연무리에서 적석총과 봉토분이 조사되었다. 특히 지경동고분 조사는 고구려 마구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였다(박창수 「평성 지경동 고구려무덤발굴보고」 『조선고고연구』 1986-4). 한편, 일본 다카마쓰 고분이나(김종혁 「수산리벽화무덤과 다카마쓰무덤」 『조선고고연구』 1985-2), 쏘련 싸마르칸드 아프라샤브 궁전지 벽화를 사절을 고구려 사절로 소개함으로써(박진욱 「쏘련 싸마르칸드 아프라샤브 궁전지 벽화의 고구려 사절도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88-3) 고구려의 대외적 영향을 부각시키기도 하였다.

평양도성과 관련하여 1981년 평양 청호동과 휴암동 연결하는 고구려 다리 발굴(413년경으로 비정), 1986년의 고산동우물 조사는 안악궁시기의 도성제 연구에서의 중요한 자료가 되었으며(안병찬 「새로 발굴한 고구려의 다리」 『력사과학』 1982-3), 황해남도 신원군 장수산 이래 도시유적과 장수산성의 건물터(행궁터)의 조사(리승혁 「장수산성의 축조형식과 년대」 『력사과학』 1985-4; 최창빈 「신원에서 고구려시기 큰 도시유적 발견」 『력사과학』 1985-4)는 신원군 일대를 고구려 부수도 남평양으로 비정하는 근거가 되었고 이는 안악3호분을 고국원왕릉으로 확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무엇보다도 이 시기의 커다란 사업의 하나는 1981년에서 1984년에 걸쳐 진행된 평양 낙랑구역의 조사이다. 한군현의 평양 존재를 부정하는 북한에서는 낙랑구역의 유적, 유물을 낙랑국의 문화유산으로 해석하고, 고구려의 평양 진출을 미천왕대 이전으로 상향조정하기도 하였다(박창수 「427년 평양천도이전시기 고구려 성들의 분포」 『력사과학』 1988-4). 그러나 역으로 낙랑구역의 조사 성과는 남한 연구자들에게는 고구려와 낙랑의 관련을 해석하는데 자료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6기는 1990년부터 1994년까지의 기간으로 김일성 사망(1994년 7월8일) 그리고 단군릉 개건 준공(1994년 10월11일) 직후로, 조선민족의 공지와 조선혁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역사연구의 심화를 요구하였다. 단군릉 발굴과 연대비정 그리고 개건에 이르는 일련의 주장은 ‘대동강문화론’과 맞닿아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고구려의 건국연대를 기원전277년으로 소급하여 천년 강국의 고구려 역사를 평양 중심으로 재구성하였다.

이 시기의 고구려 유적 조사의 초점은 장수산일대 유적에 맞추어졌다. 장수산성과 아양리 도시 유적은 남평양을 도시성으로 해석하게 하였고(최승택 「장수산성1호건물터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91-3,4), 안악3호분이 고국원왕릉임을 재차 확증케 하였다. 정릉사 조사와 복원은 (전제현 「정릉사 행궁건물의 평면복원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95-1) 다시 동명왕릉과 결부되어 동명왕릉 복원의 타당함을 보여주는 근거가 되었다.

한편, 이 시기의 조사는 성에 치중되었다. 1991년 흘골산성, 1992년에는 가웅산성, 수양산성, 풍천읍성, 연안읍성, 오누이성을 조사하고, 1993년부터 1996년에 걸쳐 평양성을 연차 조사하였으며, 1994년도에는 학성산성, 봉세산성, 온정리고성 등이 조사되었다. 거의 북한 전역의 산성이 조사됨에 따라서 고구려의 방어체계 구성의 근거가 되었다(손영중 「5-7세기 고구려의 서방과 북방 영역에 대하여(1),(2)」 『력사과학』 1993-2,3,4).

이외에도 강원도 회양군 철령에서 안악3호분의 행렬도를 연상케하는 철과 청동으로 만든 고구려 기마모형은(리순진 「강원도 철령유적에서 발굴된 고구려기마모형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94-4) 강원도의 고구려 유적이라는 점에서 특기할만하지만, 안악3호분과 비슷한 시기로 비정하는 것은 신증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7기는 1995년 이후로, 경제난 극복과 인민 단결도모 등의 어려운 사회 분위기 속에서 반만년 민족의 유구한 역사를 더욱 빛내게 해야 한다는 김일성의 유훈에 따라서 고고학 연구는 민족의 유구성과 역사를 종합 체계화하기 위한 사업의 심화를 과제로 하였다. 노동 계급성의 원칙과 역사주의적 원칙이 강조된 주체의 고고학을 표방하여 고조선에서 고구려, 발해로 계승성을 증명하는 한편, 고구려, 발해 역사와 문화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기존 유적에 대한 재평가가 진행되었다.

<<고고학전서>>에서는 1995년 이후의 고고학을 세분하지는 않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본이나 남한, 중국 연변대와의 고구려와 발해 유적의 공동조사가 있었다. 특히 고구려연구재단(현 동북아역사재단)과 공동으로 안학궁 조사를 하였고, 중국 연변대와의 고구려, 발해 성과 고분의 공동조사에는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지원이 있었다.

2000년 이후 알려진 고구려유적은 일본과 함께 일제강점기에서 조사하였던 고산동1호분의 재조사와 일본의 지원으로 송죽리 벽화분을 조사하기도 하였지만, 다수는 북한 고고학연구소와 중국 연변대학이 함께 조직한 고구려발굴조사단에서 진행하였다. 2010년과 2015년 사이에 행한 고분 조사는 평양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동산동, 민속공원1호, 호남리18호, 옥도리 벽화분이 소개되었다, 성의 조사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하나는 평양 도성의 방어체제와 고구려의 남방진출과 관련된 황해도, 강원도 일원의 조사이고, 다른 하나는 평양이 고조선에서 고구려로 이어지는 역사의 중심이라는 시각에서의 조사이다. 평양성 조사와 함께 청암리토성 조사에서 청암리토성 이전에 고조선 토성의 존재를 성도 고조선에서 고구려로의 계승된 증거로 해석하기도 하였고, 고방산성이 조사되었다(정영진 2016).

2. 발해고고학 조사와 연구

북한에서 발해 유적, 유물에 대한 조사는 상대적으로 늦게 시작하였고, 관심이 크지도 않았다. 이는 발해의 영역이 북한에 포함되어있기는 하나 발해의 중심이 북한 영역 내에 있지 않으며, 발해의 영역이 북한의 중심지와 떨어져 있는 점도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발해는 고구려의 계승국이라는 입장은 1960년대에도 확고했던 것으로 보인다. 『력사과학』 1962-1에 실린 박시형의 「발해사연구를 위하여」, 『고고민속』 1967-2의 주영현의 「발해는 고구려의 계승자」 등의 논문에서 발해는 고구려의 계승자이며, 발해 고고학은 유적, 유물로 이를 증명해야 한다고 하였고, 이후 이는 발해 고고학 조사, 연구의 목적이자 발해고고학 연구의 원칙이 되었다.

북한 영역 내에서 발해 유적의 조사는 5기에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3기에 청해토성과 교성리토성의 답사보고가 있을 뿐(리정기 「청해토성 및 교성리토성 답사보고」 『고고민속』 1967-4), 1기와 2기, 4기에서의 발해의 유적, 유물에 대한 조사는 확인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1963년부터 북한과 중국이 합동으로 고고학 조사팀을 구성하여 중국 동북지방의 신석기시대에서 발해에 이르는 유적, 유물에 대한 고고학조사를 하였고(조중공동고고학발굴대 1966), 중국 동북지방의 발해 유적, 유물 조사 결과를 발해는 고구려 계승이라는 입장에서 소개하거나 평가하였다. 정해공주묘비의 소개(최운학 「발해<정해공주묘비>」 『력사과학』 1965-3), 발해 상경돌등의 짜임새 소개(정상렬 「발해 상경돌등의 짜임새」 『고고민속』 1967-3), 그리고 발해 중경 현덕부를 돈화일대로

비정하거나(주영현 「발해 중경 현덕부에 대하여」 『고고민속』 1966-2), 기와 토기, 벽돌 등 발해 공예가 고구려를 계승하였다고 보았다(주영현 「발해의 공예」 『고고민속』 1967-1). 이러한 연구 경향은 1970년대까지 이어져서 1980년 발해의 서변에 대한 논문이 발표되었지만(손영종 「발해의 서변에 대하여(1)(2)」 『력사과학』 1980-1,2), 4기까지 북한에서 자체 조사한 발해 유적의 조사 보고는 확인되고 있지 않다.

발해 유적 조사는 5기에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5기는 1980년 10월 조선노동당 6차 대회이후 1989년 12월까지의 기간으로, 발해의 유적, 유물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가 시작되었다. 함경남,북도 일대의 발해 유적, 유물에 대한 조사보고(리준걸 「함경남북도일대의 발해유적유물에 대한 조사보고」 『조선고고연구』 1986-1)에서 평지성, 산성, 강안보루, 차단성, 건축지, 24개돌 무덤, 시설물과 여러 유물들을 소개하였다. 특히 평지성인 북청토성 그리고 지방리 산성, 장연산성, 남중산성과 회산구역 덕산동의 평산성, 운두산성이 알려졌고, 차단성, 강미봉 보루, 장승목 보루, 노루목 보루 등 강안보루가 소개되었으며, 북청토성 내 주거지와 개심사, 동흥리24개 돌유적, 고분군과 함께 수습된 유물이 소개되었다. 이후의 발굴조사와 연구는 1986년 조사에서 드러난 유적, 유물들이 중심이 되었다. 당시 조사로, 청해토성을 남경 남해부로 비정하여 고구려에서 발해로 이어지는 계승의 고고학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과학교육영화촬영소에서 청해토성과 무덤의 발굴정형 현지 촬영하여 활용하였다.

6기는 1990년부터 1994년까지의 기간으로 김일성 사망(1994년 7월8일) 그리고 단군릉 개건 준공(1994년 10월11일) 직후이다. ‘대동강문화’의 기치 아래 고구려 건국을 기원전277년으로 소급시켜 강성한 천년왕국 고구려를 강조하는 입장은 고고학의 조사, 해석과 평가로 이어지는 일련의 연구 체계가 되었고, 고구려 고고학의 조사와 연구 절차는 발해 고고학 조사와 연구에 그대로 적용되어서 이 시기에 조사된 발해의 성과 고분, 사찰 등은 발해의 고구려 계승을 위한 고고학적 근거가 되었다.

발해 유적 조사는 전시기에 이어 지속되어서 신포시의 오매리 절터, 금산건축지, 청해토성과 가운산성, 성산리토성, 학성산성 등 산성 그리고 사찰과 건물지 등의 생활유적과 김책시 동흥리 24개 돌유적, 그리고 창덕고분군, 궁심고분군, 룡산동 및 송정동고분군, 금성리 고분군과 벽화분 등 다수의 고분이 이 시기에 보고되었다. 러시아 연구진과 동해안과 연해주일대 유적을 공동으로 발굴조사하고, 학술좌담회에서 발해의 고구려계승을 강조하였다(한창균 2013).

7기는 1995년 이후로 고구려 고고학과 마찬가지로, 발해고고학 조사는 6기에 이어 지속되었다. 회령 부거리 일대의 다래골고분군, 연차골 고분군 등이 조사되었고, 오매리 절터와 함께 조사된 건물지에서 출토된 기와와 고분에서 출토된 마구 등의 유물이 소개되었다. 동해안일대의 발해유적 조사는 청진 청해토성을 남경 남해부로, 회령 부거리 석성을 동경 용원부로 비정하게 하였으며(류병홍 「동해안일대의 발해유적발굴에서 이룩한 성과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97-1), 동해안 유적이 고구려를 계승했음을 보여준다거나(김종혁 「동해안일대 발해유적의 고구려적 성격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97-4), 돌각담무덤, 돌칸흙무덤 등 또한 고구려를 계승하였다는 입장이다(장철만 「발해무덤의 고구려적 성격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98-4).

북한에서 함경남,북도 그리고 강원도 일대에서 조사된 발해 유적, 유물은 고구려를 계승하였고, 발해 역사 문화의 독자적 우수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문자자료에 따른 발해는 황제국이라는 해석과 연결된다. 그러나 남한에서는 조사된 일부 자료만으로는 발해 유적, 유물을 종합적

으로 파악하고 어렵고, 북한의 주장을 검증할 수 없다보니, 남한의 발해 고고학은 북한 자료보다는 많은 양이 보고된 중국 측의 조사 성과에 의지하는 경향을 띠게 되었다. 그러던 차에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고고학 연구소와 중국 연변대학 발해사연구소의 공동조사에 따른 보고서는 북한의 발해 고고학 성과에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북한과 중국 연변대의 공동 조사에서 두드러진 것은 부거리 일대에서의 조사이다. 부거리 일대 유적은 이미 소개되어서 부거리 석성을 중심으로 한 일대가 동경 용원부일 것이라는 가설이 제기되었던 것으로, 2008년에서 2009년에 걸친 재조사에서 부거리석성 주변의 연차골과 대리골에서 13기의 무덤이 조사되었다. 그리고 북한에서 부거리 석성과 주변의 토성 및 산성 등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부거리 석성을 동경 용원부로 보는 견해를 지적하고 동경 용원부산하 목주로 비정하는 견해가 제시되기도 하였다(정영진 2016; 동북아역사재단 2011). 2010년에서 2013년에는 회령일대의 인계리토성, 운두산성, 동건산성을 조사하고, 궁심고분군에서 62기 무덤을 발굴하였다(동북아역사재단 2015; 정영진·이동휘·정경일 2016). 2014년과 2015년에는 북청일대의 청해토성, 용전리산성, 안곡산성, 거산성, 오매리 절터를 조사하고, 평리고분군의 조사에서 31기의 발해고분과 5기의 고려무덤을 발굴하였다.

발해 유적이 집중 분포하는 회령, 북청일대에서 북한과 중국 연변대가 공동으로 유적을 조사하고, 보고서를 발간한 것은 북한의 발해 고고학 연구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중국 자료 중심이 아닌 북한자료를 아우른 종합적인 발해 고고학 연구를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III. 고구려, 발해 고고학 연구 성과와 주요 쟁점

분단 이후 주체사관에 기초하여 주체성과 민족성의 고수, 당성과 노동계급성의 원칙과 역사주의 원칙을 강조하는 북한에서는 당과 노동계급, 혁명과 인민의 이익 견지에서 고고학은 유적, 유물을 과장하거나 왜소화함이 없이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분석, 평가하여 사대주의 교조주의 민족허무주의, 복고주의 편향을 극복해야 한다고 하였다.

과학으로서 고고학의 연구는 가설, 검증으로 이어지는 추론과정을 거쳐서 종합적인 해석을 도출하게 된다. 일견 북한 고고학연구는 가령, ‘고구려는 천년 강국이다’ 라던가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황제국이다’라는 가설을 세우고, 유적, 유물로 이를 반복적으로 검증하여 ‘고구려는 천년 강국이다’ 라던가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황제국이다’ 라는 결론을 도출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고구려나 발해 고고학에서 궁극적으로 도출한 해석은 소위 주체적 방법론에 의거하여 고조선-고구려-발해의 계승성과 역사, 문화의 독자적 우수성을 강조하기 위해 고고학 자료가 취사선택되거나 과장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들게한다.

1. 고구려

북한에서는 천년 강성대국 고구려의 역사와 문화를 밝히는데 있어서 고구려 고고학의 주요한 성과로 첫째, 동명왕릉을 발굴하고 시조릉임을 밝힌 것, 둘째, 안악3호분과 덕흥리벽화분 등 많은 벽화무덤의 발굴 셋째는 대성산성과 안학궁을 비롯한 성곽과 궁전, 도시유적의 발굴과 넷째 정릉사 등의 사찰유적의 발굴을 특기할만한 성과로 평가하고, 아울러 압록강일대에서의 고구려 초기 고분들의 조사와 연구로 천년강국 고구려의 역사를 밝힌 것을 중요한 성과로 들었다(석광준 2000). 따라서 고구려 고고학의 주요 쟁점은 고구려의 건국연대, 고분연구와 성곽연구 등을 중심으로 연구 성과와 쟁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1) 고구려 건국 연대와 고고학적 증거

북한의 고구려를 보는 시각의 첫째 관심은 시대구분과 성격이었다. 북한에서는 조선민족의 우수한 역사적 전통을 분명히 하고, 민족의 해방투쟁을 강조하며, 세계사의 보편적 법칙 하에 우리역사의 보편적 법칙을 구체화하는 것을 시대구분의 과제로 삼았다. 1953년 가을 조선고대사회의 성격문제에 관한 토론, 1956년10월에서 11월에 걸친 삼국시기사회경제구성에 관한 토론, 1957년4월 고조선 논쟁 및 조선봉건제 사회의 토지소유구조에 관한 토론 등 일련의 토론회를 거쳐서 삼국시대를 중세를 설정하였다.

삼국시대 사회성격과 구성에 관한 토론회 결과 고구려는 기원전 1세기 초에 철기의 보급과 인민의 창조적 노동력에 따른 생산력의 증가, 노예의 투쟁 및 일부 선진지역에서의 봉건적 생산 관계를 가진 봉건국가로 정리하였다. 이러한 역사인식은 1977년, 1979년에 발간된 <<조선통사>>와 <<조선전사>>에 반영되었으며, 고구려 역사와 문화를 기원전37년에 건국된 봉건국가라는 입장에서 서술하였다.

그런데 1991년 발간된 <<조선전사3(중세편, 고구려사)>>에서는 고구려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관찰된다. 1960년대까지의 여러 토론의 결과를 부정하고, 고구려 건국연대를 기원전227년으로 소급 시킴으로써 강성한 천년왕국 고구려가 고조선의 계승국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고구려 건국을 기원전 227년으로 보는 입장은 <<삼국사기>>의 고구려 건국연대는 김부식이 의식적으로 고구려 건국연대를 깎아 내린 결과라고 하고, 고구려가 중국 진한 이래 중국동북쪽에 있었으며, 한나라 때부터 나라를 세운지 900년이 된다는 기록들은 진이 중국을 통일하기 전부터 고구려가 존재하였음을 보여준다고 보았다(손영종 「고구려건국연대에 대한 재검토」 『력사과학』 1990-1; 「고구려왕세계와 왕호에 대한 왜곡을 비판함(1)(2)」 『력사과학』 1996-1,2). 이러한 주장의 고고학적 증거는 1960년대 조사한 압록강, 독로강 유역의 조사(정찬영 1973)와 초산 운평리, 연무리 고분 조사결과이다.

로남리 유적은 초기철기시대층과 고구려문화층이 선후관계를 갖고 있다. 초기철기시대 로남리 주거지가 하층, 고구려 적석층이 상층에 해당되며, 로남리 주거지와 적석층에서 공통되는 것은 로남리형 토기이다. 로남리형 토기는 갈색간그릇, 검정간그릇, 회색그릇 등 제작기술을 달리하는 토기를 총칭하는 것으로, 심귀리78호 적석층과 로남리 집자리에서 출토된 갈색간그릇과 검정간

그릇이 제작기법이나 태도가 같다는 점을 들어서 하층의 로남리 주거지와 상층의 적석총이 계승 관계를 갖는다고 본 입장이다. 그리고 로남리 주거지에서 명도전이 출토되어서 유적의 연대를 기원전 4-3세기로 비정하고, 적석총의 상한을 기원전 4-3세기까지 소급시키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중국 길림성 집안 오도령구문 적석묘를 구려국의 유적으로 판단하였고, 구려국은 고조선이 멸망한 후 고조선의 유민이 세운 나라로 보았다. 오도령구문 적석묘에서는 선형동부와 조문경과 퇴화된 세형동검이 도끼날 철촉과 함께 공반되어서 연구자들에 따라서 기원전 3세기로 비정하기도 하고, 기원전2-1세기로 비정하기도 하는 무덤이다. 공반된 유물의 종합적인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오도령구문 적석묘의 선형동부가 로남리 위층과 북창군 대평리의 초기 고구려 유적의 철부와 형태가 같다는 점을 들어 오도령구문 유적을 기원전 5-4세기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오도령구문 적석묘와 유사한 무덤형식인 압록강 유역의 적석총의 상한 연대도 기원전 3세기 이전으로 소급시켰고, 늦어도 기원전 3세기 초부터는 적석총이 축조되었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고구려 건국연대를 기원전 277년으로 확정하는 명백한 증거라고 하였다.

그러나 연대 추정에 있어서 몇 가지 간과한 것이 있다. 하나는 로남리형 토기의 문제로, 로남리형 토기에는 선행의 무문토기 기술로 제작한 것(갈색간그릇, 검정간그릇)과 새로운 제도기술로 제작한 회색그릇이 함께 출토되고, 새로운 제도기술은 전국 연 또는 한의 영향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명도전이 기원전 4-3세기라는 점을 들어서 서로 다른 기술 전통의 토기를 모두 기원전 4-3세기로 소급시킬 수는 없으며, 유구와 유물의 공반 관계 등 종합적으로 살펴야 할 문제이다.

다른 하나는 집안 오도령구문 적석묘를 구려국의 유적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집안 오도령구문 적석묘에서는 청동기와 함께 철제 도끼날 화살촉이 출토되어서 오도령구문 유적에 대해선 크고 작은 견해 차이가 있다. 적석묘 자체를 부정하기도 하고, 적석묘를 인정하는 입장에서 연대관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인 견해는 기원전 2세기 또는 기원전 1세기로 보고있다. 북한의 입장과는 시간 공백이 크다(강현숙 1999).

때문에 기원전 3세기초 압록강 중류역의 주철, 제작 기술은 생산력 증대를 초래하여 구려국이 해체되고 봉건국가인 고구려가 등장한 이래 668년 멸망하기까지 고구려가 천년 강국이었던 입장은 유적, 유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라기보다는 ‘천년강국 고구려 만들기’의 다른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한사군 재요동설, 평양 낙랑군과 낙랑국설, 고조선 재평양설과 단군릉 개건으로 연결되는 고구려 유적의 평양 중심적 해석은 1990년대 이후 고구려 유적, 유물에 대한 조사와 연구의 전제가 되었고, 봉토석실분이나 벽화분 기원과 편년에 관한 기존의 해석을 수정케 하였다.

2) 고분연구

고구려 고분의 조사, 연구사는 세 시기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시기는 해방 이후 1960년대 중반까지로, 벽화분이 중심이 되기는 하지만 적석총과 봉토분 등 많은 고분 자료가 축적된 시기로, 당시의 고분에 대한 관심은 적석총과 벽화분을 중심으로 고분의 형식을 나누고, 고분의 기원과 변천과정의 설명에 있었다. 아울러 안악3호분과 같은 벽화분의 주인공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둘째 시기는 1970년대 이후 1990년대까지로 주로 벽화분을 중심으로 벽화에 표현된 제재를 통하여 생활 전반에 걸친 복원을 하거나 건축, 천문학 및 관념과 사상 등을 복원함으로써 고구려

역사문화의 우수성과 독자성을 강조하는 한편 일부 대형분의 주인공에 대한 관심에서 무덤의 등급을 나누어 사회구조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 시기에 가장 뜨거운 논쟁이 되었던 것은 덕흥리벽화분의 주인공과 관련된 논란이다. 아울러 진파리 10호분을 동명왕릉으로 보고 정릉사와 함께 무덤의 복원을 시도한 점도 이 시기에 해당된다.

셋째 시기는 1990년대 이후는 전 단계에 했던 연구 성과를 다시 강조하거나, 새로운 자료에 대한 연구는 발굴보고, 피장자, 연대, 특징 등 마치 메뉴얼이 있는듯 진행되고 해석은 고구려 문화의 우수성 또는 고조선 계승 등을 강조한다. 한편, 고구려 건국연대 소급에 따른 천년 강국 고구려를 강조하다보니, 고분의 연대를 상향조정하였고, 기존의 안악3호분, 덕흥리벽화분의 주인공 비정을 재차 강조하였다. 아울러 중국의 집안 왕릉보고서 발간(中國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2004)에 따른 북한의 입장들이 있었다.

(1) 기원과 변천

1961년 유일사상 체계 수립을 위한 조치로서 주체적 방법론을 철저히 구현해야 하는 강령 지침 마련된 이후 고구려 고분의 기원과 변천에서도 입장의 변화가 있었다. 고분 용어에서 우리말 표현으로 바뀌는 것도 이 시기의 두드러진 변화이다. 조선고대 무덤에 대한 1957년 정백운의 연구에 의하면(정백운 「조선고대무덤에 관한연구(I,II)」 『문화유산』 1957-2,3) 고구려 무덤은 석묘와 토묘가 있으며, 석묘에서 토묘로의 과도기 형태 무덤을 석기단을 가진 토묘로 보았다. 토묘의 묘실 벽 축조방식이 지석묘와 유사하여서 석묘는 청동기시대의 지석묘 또는 적석묘에서 발전하였다고 보았다. 한편, 고구려 무덤의 구조와 천장이 다양한 것은 종족구성과 자료의 제약, 축조기술의 발달 등에 의한 것으로 보고, 벽화분은 대동강유역에서 먼저 조성되었고, 고구려 족속에 의해 조영된 것과 다른 족속의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견해는 북한에서는 민족허무주의 또는 왜소화하였다는 비판의 소지가 있지만, 현시점에서 합리적인 해석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고구려 고분의 기원과 변천에 대해서는 1960년대 이전까지만 하여도 다양한 해석이 있었다.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진 봉토분의 경우, 석실봉토분을 고구려의 독창적인 묘제로 본 채희국의 주장에(채희국 「고구려 석실봉토분의 기원에 관하여」 『문화유산』 1959-3), 도유호는 역사적 계기성과 상호관련성이 도외시되었다고 지적하고, 석실 천장에서 보이는 서역요소에 주안을 두고 서역의 영향을 언급하고, 서역요소가 고구려화되고, 고구려의 특징이 되었다고 보았다(도유호 「고구려 석실봉토분의 유래와 서역문화의 영향」 『문화유산』 1959-4). 이후 주영현은 고구려 봉토무덤의 기원과 변천에서 돌각담무덤과 봉토분이 선후관계를 갖지만 일정기간 병존하였음을 설명하고, 봉토분이 중국 한나라 묘제의 영향 또는 서역의 영향이라는 주장은 문화교류의 현상이라고 지적하고, 봉토분은 목방리식 변형고인돌에서 기원하였다고 보아서 유구하고 고유한 전통을 계승, 발전함으로써 변화 발전하였다고 하였다(주영현 「고구려 봉토무덤의 기원과 그 변천」 『고고민속』 1963-3). 이후 봉토분은 목방리형 변형고인돌 및 돌각담무덤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킨 것을 해석되었고, 돌각담무덤에서 돌칸흙무덤으로 변화는 북한 학계의 정설로 자리하게 된다.

석실의 기원을 변형고인돌에 두고, 벽화는 고구려 고유의 것이라는 입장은 이미 주영현의 벽화분 연구에서 개진되었다. 벽화분의 등장과 관련하여 일제강점기에서는 중국 한의 영향으로 보았고,

도유호는 서역의 영향이 포함되었다고 보았다(도유호 「고구려 석실봉토분의 유래와 서역문화의 영향」 『문화유산』 1959-4). 벽화분에 표현된 악기 중에는 서역의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연구(전주농 고구려고분벽화에 나타난 악기연구(1) 『문화유산』 1957-1) 등으로 볼 때 1950년대까지는 자유롭게 견해 표명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벽화분의 무덤 구조와 묘실벽화를 기준으로 유형을 나누고 변천과정을 설명한 일련의 연구에서(주영현 「고구려 벽화분의 편년 기준에 관하여」 『문화유산』 1959-6; 「고구려 벽화무덤의 구조형식과 벽화내용의 변화발전(I)(II)」 『문화유산』 1960-2,3), 석실의 기원은 변형고인돌, 벽화는 고구려 자체 발전이라고 하였고, 이 주장은 북한 학계에 그대로 수용되어서 1980년대의 생활사, 과학사 복원연구의 전제가 되었고, 구조와 묘실 벽화를 기준으로 분류한 안은 손수호의 고구려고분연구로 이어졌다(손수호 2001).

고구려 봉토분이나 벽화분 연구에서 구조와 묘실벽화를 기준으로 유형을 분류하고 시간적 선후 관계를 파악한 것은 당시로서는 탁월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구조 형식은 지역의 선행묘제에 따라서 등장시점에서의 선후관계를 가지지만, 이에 대한 고려없이 구조가 편년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가령, 고산동20호분이나 최근 조사된 안학동이나 로산동의 사신도벽화분의 연대 비정에 있어서 장방형현실, 우편재연도 평면이라는 점을 들어 3세기 중엽으로 비정하고 있는데, 이는 장방형 현실, 우편재연도 무덤이 오랜 기간 존속되었음을 고려하지 않은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적석총의 형식과 변천, 편년, 기원에 대한 연구는 주로 정찬영에 의해 이루어졌다. 정찬영은 1961년 연구에서 적석총이란 표현을(정찬영 문화유산1961-5), 이후 돌각담무덤이란 표현을 사용하였다(정찬영 1967). 그는 압록강 중하류역과 독로강 유역의 발굴조사에 기초하여 적석총의 축조 방식과 구조 특징, 두향과 매장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적석총을 무기단과 기단돌각담무덤으로 나누었고, 기단돌각담무덤은 남방식고인돌과 유사하므로 고인돌과 상호관계를 가진다고 하였다. 이어 1967년에 발표한 글에서 강돌로 만든 기단없는 돌각담무덤이 가장 이른 시기의 돌각담 무덤이라 하면서 그 기원을 요동반도의 돌각담무덤에서 찾음으로써 고구려와 고조선문화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하였다(정찬영 「고구려 초기 묘제의 유래」 『고고민속』 1967-4). 이러한 입장은 적석총에 대한 북한의 정리된 입장이 되었다.

주영현의 적석총에 대한 연구도 주목되는데, 주영현은 분구와 매장부를 함께 고려하여 무기단적석무덤, 기단적석무덤, 광실적석무덤, 묘실적석무덤으로 나누고, 각 형식간의 선후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보았다(주영현 「고구려 적석무덤에 관한 연구」 『문화유산』 1962-2). 이는 당시 분구만으로 적석총을 설명하거나 매장부만으로 적석총을 설명하는 중국학자들 보다 진전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적석총이 청동기시대의 적석묘 또는 고인돌과 관련을 가질 것이라는 해석은 1990년대 이후 고구려 고조선 계승의 중요한 고고학적 근거가 되었다.

이러한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중국 장백의 간구자적석묘를 기원전4세기에서 기원전1세기경의 고구려 초기무덤으로, 요동반도의 강상, 루상 적석묘에서 기원한 고구려 적석총과 연결시키기도 하였다(김성철 「압록강유역의 간구자 돌각담무덤」 『조선고고연구』 2007-2). 이러한 연구는 적석총의 등장을 기원전 3세기로 올리고, 분포 지역을 확대시키려는 경향과 맞닿아있다.

아울러 고구려 건국을 기원전277년으로 소급시킴에 따라서 이후 적석총이 기원전 3세기 초에 등장하였다는 점이 다시 부각되고, 봉토석실분(돌칸흙무덤)은 압록강유역의 석실적석총(돌칸돌무덤)과

연결시켜 1세기경에 등장한 것으로 보고, 벽화분도 원시미술에서 자생한 것을 보는 등 순차적으로 고구려 고분의 연대를 상향 조정하였다. 가령, 금옥리의 선각벽화분을 1세기전반에서 2세기로 비정하는 것이나 장방형현실, 우편재연도 석실을 모두 3세기로 연대 비정함으로써 고구려의 평양 진출 시기를 상향시키고 있다. 이는 평양과 황해도 일대에서 조사된 벽돌무덤, 돌천장을 한 벽돌무덤을 고구려 영향으로 보아서 낙랑국에 미친 고구려 영향으로 보는 견해와 함께 3세기대 평양 진출의 증거로 해석한다. 결국 고분의 연대를 상향 조정하는 것은 427년 이전에 평양 진출이 있었다는 고고학적 증거인 동시에 4세기대 이미 평양이 부수도로서 기능했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순환논리의 모순을 드러낸다.

(2) 주인공 비정과 관련된 논의들

① 안악3호분과 태성리3호분

1949년에 조사되었을 당시 안악3호분은 그 이전에 알려진 벽화분과는 달리 큰 규모와 풍부한 내용의 벽화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전실의 서측실 입구에 있는 목서를 묘지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판단하고, 안악3호분은 무덤의 구조와 복식, 인물 도상이 중국 기록과 부합되어서 동수무덤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곧 이러한 해석은 민족적 허무주의와 복고주의에 대한 비판을 받았다. 주제적 역사해석이라는 측면에서 큰 규모, 벽화의 대규모 행렬도와 행렬도에 표현된 성상변 깃발, 묘주 초상화의 자태와 복식의 색조 등을 근거로 안악3호분을 왕릉으로 보는 견해가 제시되었고, 몇 차례의 토론회를 거쳐 왕릉이라는 전제에서 무덤의 주인공을 미천왕으로 비정하였다. 즉, 안악3호분은 모용황에 의해 약탈당한 미천왕을 재매장한 무덤으로 목서의 동수는 미천왕의 시신 귀환에 모종을 역할을 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1970년대 북한에서 출간된 보고문이나 논문에서는 안악3호분을 미천왕릉으로 칭하였다(박윤원 「안악3호분은 고구려 미천왕릉이다」 『고고민속』 1963-2; 박황식 「미천왕무덤(안악3호분)의 건축구성에 대하여」 『고고민속』 1965-1)).

그러나 1980년대 황해도 신원 장수산성과 아양도시유적에서 고구려 토기와 기와, 고분들이 확인되었고, 이를 남평양으로 비정하면서 안악3호분이 고국원왕릉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었고, 고국원왕릉설은 현재 북한학계의 정설이 되었다. 그리고 고국원왕릉 비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편년의 근거가 되었던 목서명은 낙서 수준의 사료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았다.

안악3호분을 고국원왕릉으로 보는 입장은 새로 발굴된 태성리3호분의 묘주 비정에 그대로 적용되었다. 2003년도에 안악 3호분과 동구조의 태성리 3호분이 발굴되었고, 북한에서는 태성리 3호분을 미천왕릉으로 비정하였다. 미천왕의 시신이 국내성에 침입하였던 모용황에 의해 약탈되었다가 되찾아온 기록은 있지만 그 후속 조치에 대한 기록이 없어서 재매장된 미천왕릉의 비정은 연구의 관심이 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되찾아온 미천왕의 시신을 개장하거나 이장하여 새로 조성된 왕릉이 태성리 3호분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여전히 국내성 시기 아무 연고도 없는 낙랑의 중심지인 강서에 미천왕릉을 조성하였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며, 오히려 안악 3호분이 고국원왕릉이 아닐 가능성을 반증하는 증거가 될 수도 있는 조심스런 해석이다. 더욱이 왕릉비정에서 선결되어야 하는 것인 연대비정이다. 최근 북한에서는 안악3호분 연대의 근거가 된 영화13년(357)은 동수의 것으로 안악3호분 주인공과 관련이

없다고 보고, 나아가 목서명은 연대판단의 근거로서 가치가 없으며 오히려 안악3호분을 4세기 후엽으로 비정하고, 미천왕의 시신 반환 시 동수가 모종의 역할을 하였을 것이므로 이를 목서명과 연결시켜 태성리3호분을 4세기 중엽으로 비정하였다(김성철 「고국원왕릉(안악3호무덤)의 동수무덤설에 대한 비판」 『조선평고연구』 2006-3).

한편, 왕릉비정에서 새로이 수릉문제를 제기하였다. 안악3호분과 태성리3호분의 주인공과 관련하여, 안악3호분은 고국원왕릉의 수릉이며, 미천왕릉은 평양역전이실분에 매장하였다가 태성리3호분에 재매장한 것으로 본 것이 그것이다(최승택 「일부 고구려무덤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 『조선평고연구』 2011-2). 안악3호분의 고국원왕릉을 확증하기 위해 목서명의 사료적 가치를 부정하거나 수릉의 문제를 제기하는 등의 연구가 더해졌지만, 논쟁이 종식된 것은 아니다.

북한에서는 안악3호분은 고국원왕릉이라는 해석을 입증하기 위해 계속 논리 개발을 하고 있지만, 안악3호분으로 비정하게 된 북한의 결정적 근거는 장수산성과 아양도시유적이다. 그러나 정작 이 유적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고서가 간행되지 않았다. 때문에 안악3호분이 고국원왕릉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으며, 장지와 왕호의 관련을 염두에 둔다면 4세기 왕도였던 국내 지역의 왕릉급 적석총에 대한 검토가 선결될 필요도 있다.

② 덕흥리벽화분

덕흥리벽화분은 목서로 인해 주인공과 축조연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무덤이며, 광개토왕 영락연호가 실제 사용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목서는 전설에서 현실로 들어가는 통로의 위벽에 있으며, 무덤의 주인공인 진의 출신지와 성명, 역임한 관직과 휘하의 관료조직, 몰년과 안장일, 그리고 후손의 변영을 기원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덕흥리 벽화분의 목서는 묘지로 보는 데에는 남, 북한 사이에 이견은 없다.

안악3호분과는 달리 덕흥리벽화분의 주인공에 대한 논의는 진의 국적, 즉 출신지인 信都縣과 진이 역임한 東夷校尉幽州刺史에 초점이 모아졌다. 신도현의 위치와 유주의 위치를 설명할 수 있다면, 자연스레 진의 국적 문제도 해결되기 때문이다. 1976년 덕흥리벽화분이 조사된 이후 북한학계에서는 진을 고구려 사람으로 보고 있다(손영중 「덕흥리벽화무덤의 주인공의 국적문제에 대하여」 『력사과학』 1987-1). 진의 출신지인 ‘신도현, 도향 중감리’는 평북 운천군 가사리, 감광리 일대이며, 나열된 벼슬은 진의 관직을 순서대로 적은 것이므로 진은 중국 망명객이 될 수 없으며, 또한 좌장군, 룡양장군 등의 벼슬은 백제와 신라에도 있었으므로 허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손영중 「덕흥리벽화무덤의 피장자 망명인설에 대한 비판(1)(2)」 『력사과학』 1991-1,2; 박진욱 「덕흥리벽화무덤의 주인공과 유주의 소속문제에 대하여」 『조선평고연구』 1992-2; 손은철 「덕흥리벽화무덤과 관련된 그릇된 견해에 대한 비판」 『조선평고연구』 2006-4).

반면, 남한 학계에서는 진은 중국으로부터 온 망명객이라는 입장이 우세하며, 망명객이라면 유주 일대를 고구려 영역으로 볼 근거가 없게 된다. 이러한 해석은 북한 입장에서는 할 민족 허무주의나 왜소화한 해석인 것이며, 주체적 해석은 북한 입장에서는 진은 고구려 출신으로, 4, 5세기대의 고구려 영토는 유주일대를 포함한 현재 북경일대로 확대된다. 그러나 진의 국적은 고구려 지방 지배체제, 영역과 결부된 문제이기 때문에 역사적 정황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③ 동명왕릉과 룡원

진파리 일대에 대한 조사는 일제강점기에서 이루어졌고, 조사 결과 진파리 고분군은 사신도 벽화 분인 진파리1호분과 4호분 외에도 여러 기의 고분으로 구성되었다. 그 중 동명왕릉은 진파리10호분으로 편호되었던 무덤이다. 동명왕릉에 대한 관심은 1958년 김일성의 교시에 따른 것이다. 김일성은 고구려 수도를 옮길 때 고주몽의 무덤도 평양으로 옮겨왔을 것이므로, 동명왕릉을 확증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방향을 제시하라고 1974년 1월 김일성종합대학에 과업을 지시하였다.

교시에 따라서 진파리10호분을 동명왕릉으로 확정하고 두 차례에 걸쳐 정리, 조사를 하였다. 조사 결과 기단봉토의 석실벽화분임이 밝혀졌고, 동명왕릉은 평양 천도 시 시조릉으로 개건된 것으로 해석하였다. 아울러 동명왕릉의 남쪽편에 자리하는 정릉사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였고, 1974년 발굴 조사 시 ‘陵寺’, ‘定陵’ 등의 명문기와가 출토되어서 정릉사로 명명되었다. 그리고 동명왕릉 개건과 정릉사 복원을 두고 정릉사의 건축 평면구성(한인호 「정릉사건축의 평면구성에 대하여」 『력사과학』 1981-2), 평면복원과 관련된 문제(허철준 「정릉사의 평면복원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몇가지 고찰」 『력사과학』 1986-4) 등의 연구가 진행되어서 1993년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복원되었다. 정릉사는 동명왕릉과 관련된 능사로서, 시조묘와 불교가 결합한 고구려의 독특한 능원 형식으로 보았고(전제현 1994), 그리고 이러한 능원은 중국이나 일본에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하였다.



그림1. (전)동명왕릉 변천과정(1917년도, 1993년 개건 이전, 개건 이후, 정릉사와 동명왕릉 도상복원

동명왕릉은 고구려 시조릉답게 크게 개건하라는 김일성의 교시에 따라서 1993년 5월14일 개건되었고, 정릉사의 보광전과 7층탑이 복원되었다. 이는 고구려가 고조선을 계승한 자주적인 존엄 높은 국가임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지만, 2003년 고구려 고분의 세계유산 등재 시 진정성에 대한 지적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릉사의 중심건축군에는 회랑이 없고, 회랑은 이전 시기의 건축물임을 고려해 볼 때(「정릉사중심건축군 총평면고찰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 『조선고고연구』 2002-3), 정릉사의 초축 시기와 시간에 따른 건축군의 변화를 추적해볼 필요가 있다.

(3) 중국 <<집안 고구려 왕릉>>(2004) 따른 적석총연구

중국의 고구려 도성과 왕릉 및 귀족묘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집안 고구려 왕릉>>이 발간됨에 따라서 북한에서도 집안의 적석총의 구조, 주인공, 기와의 연대와 용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적석총 구조와 관련하여서는 배수시설과 배수시설의 유형(리영식 「고구려돌각담무덤배수시설의 유형과 변천」 『조선고고연구』 2011-4: 2011-4), 대형 적석총의 유형과 변천연구(김성철 「고구려의 대형돌각담무덤의 유형과 변천」 『조선고고연구』 조선고고연구2010-2), 룡원에 대한 연구(김성철

「고구려왕릉급무덤의 통원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2012-3) 등을 발표하였지만 중국의 조사 보고서에서 새로운 주장을 담지는 않았다.

기와 연구는 연대와 용도에 대해서 이루어졌는데, 특히 기와를 통한 연대 추정(심수범 「1-2세기 고구려왕릉급무덤들에서 나온 기와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2010-4; 김성철 「집안일대 고구려왕릉급돌각담무덤에서 나온 고사리무늬수기와막새의 제작시기」 『조선고고연구』 2015-4))은 왕릉비정과 연결되기도 하였고, 기와의 용도를 무덤을 보호, 관리하는 묘상에 건축물이 있다고 보았다(정지향 「집안고구려왕릉급무덤들에서 발견된 기와의 용도」 『조선고고연구』 2016-4).

왕릉비정 연구 결과, 마선구2378호분은 대무신왕릉(김성철 「집안 마선구무덤구역2100호무덤과 2378호무덤의 주인공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2015-3), 임강총은 3세기 동천왕릉, 서대총은 미천왕의 수릉이자 1차무덤이며, 마선구2100호분은 4세기 후반으로 소수림왕릉(김성철 「집안일대고구려왕릉급돌각담무덤에서 나온 고사리무늬수기와막새의 제작시기」 『조선고고연구』 2015-3), 천추총은 고국양왕이 건설한 수릉으로 광개토왕이 완공한 것으로 보았다(김영희 「천추무덤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2014-2). 또한 우산하540호분은 왕릉이 아니라 귀족의 무덤으로 비정하는(김성철 「지안 위산무덤구역540호무덤」 『조선고고연구』 2011-4) 등 묘주에 관한 연구가 2010년 이후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미천왕릉과 고국원왕릉을 제외한 4세기대 왕릉을 집안의 대형 적석총에서 구했다는 점에서 평양 중심의 고구려사 재구성과는 결이 다르다.

이외에도 특기할 만한 연구로, 중국과 남한의 일부가 주장하는 고구려 적석총과 중국 요서지방 신석기 문화인 ‘홍산문화’를 연결시키는 주장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김인철 「고구려초기돌각담무덤의 <홍산문화적석총기원설>의 부당성」 『조선고고연구』 2010-4). 글에서는 고구려와 홍산문화 적석총의 구조와 매장풍습에서 시간적, 공간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중국의 역사왜곡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중국의 역사왜곡에 대한 남, 북한이 공조할 여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4) 기타

① 경신리 1호분

경신리1호 무덤에 대해서 동천왕릉, 장수왕릉 견해가 있지만, 동천왕릉은 강동에 매장되었으므로 왕릉으로 보기 어렵고, 경신리1호분은 기와의 무늬로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초 경으로 비정하였다(김성철 「경신리1호무덤의 축조시기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2009-4). 그러나 2015년 글에서 동천왕릉을 임강총으로 비정하여서 스스로 모순된다(김성철 「집안일대고구려왕릉급돌각담무덤에서 나온 고사리무늬수기와막새의 제작시기」 『조선고고연구』 2015-3).

② 신 고분자료

2000년대 이후 조사, 보고된 고분들은 주로 평양시와 그 주변에 분포한다. 새로운 고분은 하나는 고조선의 계승을 부각시키기 위한 표대와 호남리일대 등지에서의 조사이고, 다른 하나는 낙랑구역에서의 조사이지만, 황해도 연탄 송죽리나 용강 옥도리고분의 조사에서 잘 드러나듯이 보고는 벽화분이 중심이 된다.

평양의 동산동벽화분 호남리18호 벽화분과 호남리19,20호분, 민속공원1호 벽화분과 남포시 옥도리 벽화분 그리고 황해북도 연탄군 송죽리벽화분 등이 새로 조사되었고, 새로운 고분 자료 중 주목을 끄는 것은 식물원지구의 봉토석실분으로(최응선 「새로 발굴된 식물원지구 돌칸흙무덤」 『조선고고연구』 2012-4), 고산동과 식물원구역의 봉토석실분은 대부분 평행삼각고임천장인데 반해 이 무덤은 궁륭식천장을 하고 있다. 식물원지구는 대성산성 남문지 앞에 있는 고산동고분군과 연결되는 안학궁 시기 최대 고분군으로 이 일대 고분군의 양상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3) 도성과 성곽연구

1957년 농오리 산성의 조사를 시작으로 성곽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북한에서는 성곽연구에서 크기, 석재, 가공정도, 축조방법 등 성돌이 성의 축조연구에서 중요하다고 보기도 하고(리광희, 박준호 「고구려 성에 대한 새로운 연구방법」 『조선고고연구』 2013-1), 산성 내 물보장체계 등 성내 시설에 관심을 갖는 (박준호 「고구려산성에서의 물보장체계」 『조선고고연구』 2015-2) 등 새로운 시도도 있다. 그러나 연구의 중심은 평양을 중심으로 한 도성제 연구와 산성과 산성 분포를 통한 장성 등 방어체계 연구, 그리고 남평양과 남방진출에 관한 연구이다.

① 도성과 방어체계

평양성을 중심으로 한 도성연구는 1960년대부터 대성산성과 안학궁에 대한 조사와 장안성(평양성)을 중심으로 리방제를 갖춘 도성체계를 설명하고(최희립 1978), 도성의 방어체계를 고구려 성의 특징으로 설명하거나(『조선고고연구』 2005-4), 평양 방어의 수도성으로서 고방산성과 함께 적두산성, 무두리의 두대성을 비정하는 등(차달만 「적두산성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2012-1; 「무갈리(두대동)성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2012-4; 최승택 「고구려 남방진출과정과 평양천도의 역사적배경」 『조선고고연구』 2012-4) 도성과 수도 방어에 관심이 모아졌다(최충성 「황해동일대 고구려성의 분포정형과 지방성방위체계」 『조선고고연구』 2012-4).

특히 2000년에 들어서면서 고조선과 고구려의 계승관계를 성곽을 통해 설명하려는 입장에서 평양 외성과 청암리토성, 덕산토성에서 고구려층 아래에 고조선층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청암리토성은 평양의 남쪽 관문을 방어하는 성으로 청암리토성의 북쪽 성벽은 고조선에서 초축한 이후(남일룡 「청암동토성에 대하여(2)」 『조선고고연구』 2000-1; 「새로 발굴된 청남토성의 북쪽성벽」 『조선고고연구』 2011-4), 고구려에서 3차례의 개축이 있었다고 보았다(리호 「고구려청호동토성에 대한 지도학적 고찰」 『조선고고연구』 2011-3.4). 마찬가지로 평양 방어 위성으로서 덕산토성에서도 고조선층이 확인되어서 덕산토성은 고조선, 고구려, 고려로 이어지면서 지속적을 사용되었다고 보았다(리정남 「덕산토성발굴보고」 『조선고고연구』 2007-3).

그러나 고분에 이어 성에서도 고조선에서 고구려로 이어진다는 이러한 견해는 고고학적으로 검토가 가능한 구체적인 자료가(도면, 사진, 유물) 제시되지 않아서 이에 대한 논의 자체가 어렵다. 이에 대해 고조선 시기의 토성의 규모가 현재의 고구려 토성과 일치한다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고, 또 해당 토층에 특정 유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유물이 제작된 시기에 축조된 성벽이라고 보는 것은 곤란하며 오히려 그 이후에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은(양시은2016) 타당하다.

② 남평양연구

황해도에서 장수산성과 아양리의 도시유적이 조사됨으로써 이 일대를 남평양으로 비정하였다, 이는 다시 미천왕릉으로 비정하였던 안악3호분을 고국원왕릉으로 비정하는 근거가 되었고, 고구려의 4세기대 평양진출의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

장수산성과 도시유적으로 이루어진 남평양의 궁성은 아양리 토성으로, 아양리 토성은 도로가 구획되었을 궁성이라고 해석하였다(최승택 「장수산일대의 남평양도시유적에서 새로 고구려시기의 유적 유물발굴」 『조선고고연구』 2009-4). 이 일대가 남평양이라는 입장에서 황해도 일대 고구려성의 분포로 남평양의 위성방어체계, 지방성방위체계를 설명하고, 나아가 황해도 신원의 장수산성과 도시유적 그리고 안악의 벽화분 등 4세기대의 유적, 유물은 이미 4세기대 황해도 일원까지 군현의 지방제도가 실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으로 이어졌다(최승택 「황해도지역의 고구려유적분포에서 주목되는 몇가지 문제」 『조선고고연구』 2015-4).

황해도 신원일대가 4세기대의 남평양이지만, 고구려의 남방진출과 관련하여 한탄강과 임진강 유역 그리고 한강유역 등지의 남한의 성곽 조사와 그 성과를 근거로 6세기 중엽의 남평양은 아차산으로 비정하고 있다(리철영 「고구려 남평양의 위치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2008-3).

여하튼 장수산성과 아양 토성 그리고 부속 유적들을 남평양으로 비정하는 이면에는 4세기 초까지 이 일대에 있었던 낙랑, 대방의 존재를 부정하는 입장이 있다. 때문에 남평양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이 일대에서 행해진 발굴조사의 종합보고서가 필요하며, 보고서가 발간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의 관련 논문만으로는 4세기대 남평양에 대한 논쟁은 의미가 없다.

③ 방어체계

평양으로의 진출은 승호구역에서의 2세기대까지 연대가 올라가는 고분이 조사됨에 따라서 2-3 세기대에 있었다는 것이 평양 진출에 대한 북한의 기본 입장이다. 이러한 이해에서 246년 관구검 침공 시 임시로 평양으로 수도를 옮겼을 당시 임시수도는 청암리토성으로 비정하고 이 시기부터 평양이 부수도로서 위상을 가졌다고 평가하고 있다(최승택 「고구려의 남방진출과정과 평양천도의 역사적배경」 『조선고고연구』 2012-4). 여기서 나아가서 4세기대 이미 부수도로서 평양은 수도와 다름없이 국남7성과 국동6성의 방어체계를 갖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최승택 「고구려평양성의 외곽성방어체계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2008-3). 국남7성은 수양산성, 오누이산성, 웅진고성, 장령읍성, 연안읍성, 봉세산성, 치악산성이며, 국동6성은 거성, 만경산성, 삭년산성, 호로고루성, 당포성, 은대리토성으로 비정하였다.

고구려의 방어체계는 북한 영역 뿐 아니라 중국의 산성들을 포함하여 고구려 장성으로 설명하고 있다. 고구려의 굳건한 방어체계를 보여주는 서북방 국경 방어의 천리장성(최승택 「고구려의 서북국경방어에서 천리장성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2009-2), 연변지역 장성(최승택 「연변지역 고구려장성」 『조선고고연구』 2010-4) 그리고 대령강장성 등 고구려 장성의 분포 특징(오철민 「고구려 장성의 분포상태와 그 특징」 『조선고고연구』 2011-3)과 축조방식(오철민 「고구려장성의 축조형식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2012-2)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성을 통한 방어체계는 분포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각지에 분포하는 산성의

초축시기와 사용의 상한과 하한시기를 판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남한은 물론, 중국, 북한이 함께 조사, 연구해야 할 것이다.

4) 그 외 유적과 유물연구

정릉사지, 금강사, 원오리절터 등의 절터 외에도 최근에 조사된 새로운 유적으로 침성대유적을 들 수 있다. 침성대유적은 평양민속공원에서 발견된 건축지로 안학궁의 서문에서 서쪽으로 250m 떨어져 있으며, 고구려로 연대비정하는 근거로 침성대 축조에 고구려자가 사용되었다는 점과 방사성탄소연대 측정결과(1590±70년)로 안학궁과 비슷한 시기에 조성되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정영성 「새로 건설되는 평양민속공원에서 발굴된 고구려 건축지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2011-4). 안학궁의 축조시점을 427년으로 비정하고 있어서, 안학궁의 축조시기에 대한 검토와 함께 신라 침성대와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함경남도 함주군 신하리의 고구려 집자리는 함경도에서 최초로 조사된 고구려 주거지로서(『조선고고연구』 2007-1,2), 북한에서는 지방행정관청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표대유적에서 조사된 39호 고구려 집자리(박철 「표대유적제1지점에서 발굴된 고구려시기39호집자리와 유물」 『조선고고연구』 2016-3)는 고구려의 고조선 계승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동해안 칠령과 안변 과평리에서 기마모형이 출토되었다(장철만 「안변군 과평리에서 새로 알려진 기마모형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2012-2). 특히 안변 과평리유적은 산 꼭대기에서 20여장의 벽돌과 25점의 기마모형이 출토되어서 보고자는 작전지휘에 사용된 기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유구가 입지한 지형조건 등을 감안해 볼 때 제의와 관련된 특수한 성격의 유구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기와 구조, 성격 등에 대해 추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유적이다.

유물 연구는 기와연구가 중심이 된다. 기와연구는 주로 무늬를 통한 연대비정과 모퉁, 원통제작 등 제작기법에 대한 연구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특기할 만한 연구는 기와를 통해서 락사터를 락랑토성 동쪽에 있는 락랑동사로 보고 광개토왕이 세운 평양9사의 하나로 해석하였다. 불상은 6세기대에 안치된 것으로 보아서 긴 기간 동안 존속되었다고 보았다(김영일 「기와를 통하여 본 락사토의 연대와 성격」 『조선고고연구』 2014-3). 이러한 해석 또한 4세기대 이미 평양 진출은 전체로 한 것이지만, 이를 차치하더라도 기와 무늬나 제작방법은 시간의 변화에 민감하지 않아서 편년의 안정적인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고구려자에 대한 연구결과, 고구려자는 아래팔을 기준으로 35cm를 기본단위로 하며(리인동 「고구려자의 크기 기준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2001-3), 이를 기준으로 한 침성대 유적을 고구려로 비정하거나 고려 대화궁 건축에 고구려자가 사용되었다고 봄으로써 고려의 고구려계승으로 해석하였다(박준호, 박철진 「대화궁건축에 쓰인 단위자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2009-1). 따라서 고구려자는 건물의 복원에서 이용되기도 하지만, 고려의 고구려계승으로 설명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금귀걸이, 관과 관모, 토기와 자기 등 유물에 대한 연구는 대개 고구려의 고조선 계승이나 고구려의 삼국에 영향 등으로 해석된다. 그중 관모와 관모장식연구(리광희 「고구려의 금속제 관모와 관모장식에 대한 간단한 고찰」 『조선고고연구』 2003-2)는 벽화와 유물을 통합하여 유형을 분류

하고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청암동 토성 출토로 전해지는 불상의 보관인 금동투조 관을 왕륜급으로 비정하는 것은 수정을 요하는 결론이다.

한편, 운평리2-10호분에서 출토된 인골은 중세 조선민족의 특징을 갖고 있어서, 조선민족의 단혈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리성철,리정남 「운평리 제2지구 10호무덤에서 알려진 사람뼈의 인류학적 특징」 『조선고고연구』 2009-3). 고조선부터 고구려로 이어지는 조선민족의 단혈성을 증명하기 위한 형질학적 연구이지만, 인골자료에 대한 자연과학적 분석 결과는 인골 자료에 대한 정보의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2. 발해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독립 황제국이라는 것은 북한의 발해를 보는 기본 원칙이며, 발해 유적, 유물이 중국에 편중되어 있다 보니 발해 고고학 연구는 문헌의 역사연구에 따라가는 형상이라고 할 수 있다.

문헌의 역사기록 재검토에서 시작한 발해 연구는 발해를 고구려 유민들이 수십년 간에 걸친 투쟁에 의해 창건되었다고 보았다. 대조영의 아버지인 대중상이 세운 진국은 고구려 멸망 후 유민들이 세운 소국의 하나였다가 대조영이 동모산에서 국가를 창건하였다고 보았다. 따라서 발해 건국의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은 고구려 유민이며, 발해를 고구려 계승국가라는 입장의 방점은 고구려 유민에 두었다. 발해는 영역을 계속 확대해가면서 남쪽으로는 대동강을 경계로 신라와 접하고, 서쪽으로 요하 서쪽에서 눈강 상류를 경계로 당, 거란, 실위와 접하며, 동쪽은 바다, 북쪽은 흑룡강 하류에 이르는 매우 넓은 국가로 성장하였고, 주민의 기본 구성은 고구려 유민이며, 말갈족은 서북과 동북 변방에 거주하며 수도 많지 않았다고 보았다. 즉 말갈인이 발해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발해 건국의 주체는 고구려 세력이며, 발해를 말갈의 국가로 보는 중국이나, 기층 주민의 다수가 말갈로 구성되었다고 보는 남한 학계와는 인식의 차이가 있다.

1980년대까지의 발해 고고학연구는 조증고고발굴공작대의 성과나 중국에서의 조사 성과를 소개하거나, 발해는 고구려 계승이라는 입장에서 유적, 유물을 재평가하는 작업이 중심이 되었다. 발해의 중영 현덕부는 구국으로 돈화일대라거나(주영현 「발해 중영 현덕부에 대하여」 『고고민속』 1966-2), 발해 상경성의 돌등 구조를 검토하면서 발해의 기본자는 고구려자로 고구려를 계승하였다거나(장상렬 「발해 상경돌등의 짜임새」 『고고민속』 1967-3), 발해의 기와, 토기와 자기 등의 공예품은 고구려와 비슷한 고구려계승의 증거라는(주영현 「발해의 공예」 『고고민속』 1967-1)의 발표가 그러하다.

1986년 함경남북도 일대의 발해 유적의 조사를 시작으로(리준걸 「함경남북도일대의 발해유적 유물에 대한 조사보고」 『조선고고연구』 1986-1), 이후 조사는 청진 부거리 일대, 회령 일대와 북청 등 세 지역에 집중되었다. 조사 성과를 근거로 발해 동경 용원부와 남해 남경부의 비정, 그리고 사찰이나 무덤, 묘비, 묘탑이나 유물을 통한 고구려 계승에 관한 연구로 대별된다.

1) 위치비정

① 부거리 일대 유적과 동경 용원부

동경 용원부를 훈춘의 팔련성으로 비정하는 것은 중국 학계의 공식입장이며, 남한에서도 대체로 여기에 동의하는 분위기이다. 함경남북도 일원에서 발해 유적에 대한 조사가 있기 전에는 정혜 공주묘와 정효공주묘를 설명하면서 발해가 독자번호를 쓴 주권국가임과 함께 정효공주묘가 있는 화룡의 서고성 구조와 규모가 동경 용원부였던 훈춘 반랍성과 흡사하므로 발해의 중경이나 동경의 위상이 비슷했다고 본 글에 의하면(채회국 「발해의 정혜공주묘와 정효공주묘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88-2), 당시 동경 용원부를 화룡으로 비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북한에서는 역사기록의 재검토로 훈춘 팔련성이 동경 용원부라는 견해를 비판하고 부거리 일대를 동경 용원부라는 가설을 제기하였다(채태형 「발해 동경용원부-훈춘팔련성 설에 대한 재검토」 『력사과학』 1990-3). 가설의 근거는 팔련성은 토성이며 그 둘레도 2,800m로 작으며, 중국 기록에 동경 용원부가 동남쪽으로 바다를 면했다고 하지만, 팔련성은 바다로부터 떨어져 있어서 기록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 그리고 고고학적으로 부거리의 발해 석성은 규모가 큰 도시성으로, 가까이에 대규모 고분군이 있으며, 동남쪽으로 바다가 있다는 점을 들어서 부거리 일대가 동경 용원부를 증명한다고 보았다.

부거리 일대에 발해 유적이 다수 분포하고 있다는 것은 1986년에 보고되었다. 부거리석성, 부거리토성, 독동산성, 연대봉봉수대, 독동봉수대, 다래골 고분군, 연차골고분군, 함전고분군, 옥생동고분군, 토성고분군, 독동고분군 등이 알려졌고, 2008년,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연변대학과 공동조사와 다래골과 연차골에서 고분 13기를 발굴하였다(정영진 2016). 1990년 부거리 일대에 동경 용원부로 비정한 이래, 부거리 일대의 발해 성과 무덤의 분포상이 고구려 도성 주변의 분포상과 유사한 점을 들어서 부거리 일대가 행정의 중요단위였을 것으로 설명하고(김남일 「부거리일대 발해무덤의 분포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2011-4), 내성과 외성으로 된 둘레 1.5km 규모의 평지에 있는 부거리 석성이 있는 부거리 일대가 동경 용원부라는 점을 확정하고 이는 북한 학계의 정설로 자리하였다.

그러나 조사를 담당했던 정영진은 부거리일대를 동경 용원부 소재지로 비정하기에는 문제가 있으며, 동경 용원부 산하의 목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하였다(정영진 2016).

② 청해토성과 남경 남해부

함경남도 북청시 청해토성은 1967년 답사가 있었다. 청해토성과 주변의 발해유적 등에 대한 조사에서 청해토성은 둘레 2.32km이고 성 내는 동서, 남북의 도로로 구획되었고, 관청터로 추정되는 건물지와 기와 등 건축부재를 포함한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다(김종혁 「청해토성과 그 주변의 발해유적」 『조선고고연구』 1990-4). 또한 토성 주변의 평지에 600여기의 고분이 분포하고, 주변에 청해토성과 관련 있는 거산성, 안곡산성, 용전리 산성 등이 분포하고 있어서, 청해토성은 도시성으로서 남경 남해부로 비정하는 고고학적 근거가 되었다(채태형 「발해 남경남해부의 위치에 대하여」 『력사과학』 1991-3). 청해토성을 남경 남해부로 보는 데에는 연구자 간에 별 이견은 없다.

설사 청해토성과 그 일대가 남경 남해부라고 하여도 청해토성과 주변 유적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남경 남해부의 모습을 그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문헌기록을 검토하여 발해로 비정하고, 고고학 자료가 이를 증명한다는 식의 연구 방법은 발해 고고학연구 절차의 특징으로, 이러한 연구 절차는 자칫 논리의 순환이 반복될 소지가 있다.

2) 고분연구

발해 고분은 부거리를 포함한 회령시 일대와 그리고 북청시와 그 일원에서 조사되었다. 고분연구는 고분과 유물을 고구려와 비교하여 구조와 형식적 유사하다고 평가하고,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증거라는 평가를 하는 등 도식적인 해석을 한다. 특히 벼루가 출토된 길주 남대천 좌안에 자리한 금성리벽화분은(최웅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발굴된 발해벽화무덤」 『조선고고연구』 2005-1: 「우리나라 령역에서 처음으로 발굴된 발해시기의 벼루」 『조선고고연구』 2008-4) 고구려 계승 뿐 아니라 발해 역사문화의 고유한 우수성을 부각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고구려 고분과 유사한 연차골1호분 등을 왕릉급 무덤으로 비정하였지만(한인덕 「새로 발굴된 연차골제1호무덤은 발해의 왕릉급무덤」 『조선고고연구』 1998-4; 김남일 「연차골1지구무덤때를 통하여 본 고구려와 발해의 계승관계」 『조선고고연구』 2005-1), 고분에서 출토된 행엽은(12) 경주 적석목곽분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형태라는 점에서 그 배경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그림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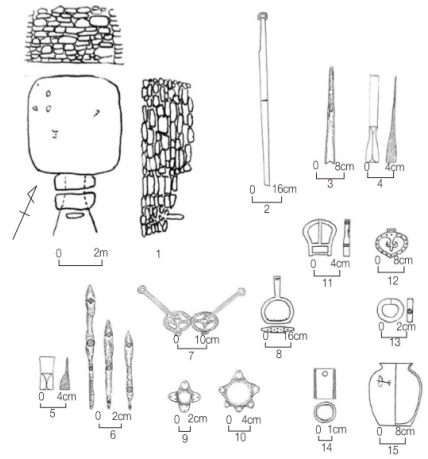


그림2. 연차골1호분과 유물

한편, 조중고고발굴공작대의 조사 결과 알려진 묘비와 석사자가 출토된 둔화 육정산 고분군의 정혜공주묘와 화룡의 정효공주묘는 고구려의 계승을 보여주는 증거인 동시에 발해가 독자적 연호를 사용한 황제국임을 증명하는 증거라고 보았다. 정혜공주무덤은 석실분으로 그 구조에서 고구려 계승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지만, 정효공주 무덤은 묘탑을 가진 벽화가 있는 벽돌무덤으로서 벽화 내용이나 축제에서 고구려와 차이가 있고, 석사자 등을 고려해 볼 때 무덤 축조에 중국 요소도 반영되었을 것으로 해석한다. 그럼에도 두 무덤에서 출토된 묘비가 발해가 황제국을 표방한 주권국가의 증거라는 점에는 남, 북한 모두 견해를 같이하며, 중국의 역사왜곡에 함께 대응할 여지가 있다. 근래 조사된 중국 화룡 용해 3호무덤도 묘비가 출토되어서 순목왕후무덤으로 비정하지만(장철만 「새로 알려진 발해의 황제황후무덤」 『조선고고연구』 2011-2), 정식 보고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에 대한 평가는 유보해야 한다.

아울러 발해 황실귀족의 무덤인 정혜공주묘는 고구려 석실과 같은 구조이며, 정효공주묘, 용해 3호, 7호, 8호, 10호, 14호무덤과 마적달무덤, 삼령둔1호, 하남둔 무덤은 묘탑을 갖거나 분구 위에 기와 건물에 있는 무덤이며, 묘탑이나 묘비, 벽화 등의 세부적인 차이는 피장자의 신분이 무덤에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보았다(리창진 「발해 황실귀족무덤의 특징」 『조선고고연구』 2014-3). 이의 연장

선상에서 발해고분의 4등급으로 나누어 등급을 나누어 사회경제적 처지와 계급 신분에 따라 묘제가 세분되었다고 보기도 한다(장철만 「발해무덤의 등급별 묘제에 대하여」 『민족문화유산』 2015-4).

3) 그 외 유적, 유물 연구

함경남도 신포시 오매리절터는 1990년대 북한 발해 고고학을 대표하는 성과이다(김중혁 「신포시 오매리 금산발해건축지 발굴중간보고」 『조선고고연구』 1989-2; 「신포시 오매리 절골1호발해건축지 발굴보고」 『조선고고연구』 1990-2; 김중혁, 김지철 「금산2건축지 발굴보고」 『조선고고연구』 1991-3). 유적은 고구려와 발해 두 개의 층위로 이루어졌고, 절터는 고구려식의 1탑3금당 건물배치이며, 1호 발해 건축지에서 구들과 여러 종류의 유물이 출토되었다(리동림 「발해건축지에서 드러난 구들시설」 『조선고고연구』 1990-2). 특히 탑지에서 113자가 새겨진 금동판이 출토되어서 고구려의 5층탑이었음과 함께 고구려의 금동판이 발해까지 계속 사용되었음을 보여주어서 오매리절터는 발해가 고구려를 직접 계승하였다는 증거로 평가되고있다(한인호 「금호지구 오매리절터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97-1).

한편, 발해 건축지에서 확인된 온돌시설을 4개 유형, 7개 형식으로 분류하고, 온돌은 고조선의 세죽리유적1호에서 고구려의 로남리2호 주거지, 정릉사를 거쳐 발해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온돌은 고조선의 외고래가 꺾음고래로 발전하고 고구려에서 두고래로 그리고 고래의 너비가 넓은 방향으로 발전하여 발해의 전면온돌로 발전하였다고 보았다(김인철 「발해건축지들의 온돌시설에서 주목되는 몇가지 문제」 『조선고고연구』 2009-2). 온돌로 고조선, 고구려, 발해로의 계승을 해석하였다.

회문리에서 조사된 24개 돌유적을 발해 왕실의 안녕을 빌던 신전유적으로 보고 상부 구조 복원이 중요한 과제라고 한 연구도 주목된다(김인철 「발해24개돌유적의 성격에 대한 간단한 고찰」 『조선고고연구』 2011-4). 24개 돌유적의 성격에 대해서는 궁전이나 관청, 절로 이용되었다거나, 잠시 시신 안치하여던 시설, 교통로상의 역참시설, 창고설 등 여러 견해가 상존한다. 아직까지 신전으로 볼 만한 고고학적 증거가 확보된 것은 아니지만, 이 글은 새로운 견해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발해 상경성 방어체계는 고구려 도성체계에 근거하여 고구려를 계승하였다고 보았고(김창호 「발해 상경성방어체계에 대한 몇가지 고찰」 『조선고고연구』 2008-2), 같은 인식선상에서 궁전건축은 고구려가 차지하였던 영토를 되찾고 자기의 지배 영역을 더욱 확대해 나가면서 나라의 위상에 맞게 궁전을 크고 웅장하게 건설하였다는 입장이다. 특히 발해 마지막 성인 상경성의 궁전은 서고성이나 팔련성의 궁전에 비해 2.6~3.2배 정도 크게 건설하였으며, 궁전 배치와 궁전 상호 간의 거리를 크기에 비례토록 전개되었다고 해석함으로써(최춘혁 「발해궁전의 변천과정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2010-3) 발해의 역사적 우수성을 강조한다. 북한에서는 훈춘의 팔련성을 동경 용원부로 비정하지 않지만, 궁전의 건축의 변천과정에서는 팔련성을 비교 대상으로 삼은 점은 동경 용원부를 부거리 일대로 보는 견해가 북한의 확고부동한 견해는 아닌 듯하다.

유물연구를 대표하는 것은 기와이다. 성과 궁전건축지에서 출토된 기와를 중심으로 무늬와 제작 기법 등을 살피고 있다. 그 중 팔련성의 수박새 기와 류형과 제작에 대한 연구에서 팔련성과 서고성 기와와 제작시기는 비슷하나 팔련성과 상경성 기와는 차이가 있어서 도성의 이동과 시간적으로

부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리창진 「팔련성에서 알려진 수키와막새의 무늬류형과 그 제작시기」 『조선고고연구』 2013-4). 이는 아마도 동경 용원부를 부거리 일대로 비정했기 때문은 아닌가 싶다.

중국 화릉 룡해 14호분에서 출토된 발해 금관을 소개하면서(리창진 「룡해14호무덤에서 나온 발해의 금관」 『조선고고연구』 2014-3), 고구려 조우관을 양식적으로 계승한 것으로 발해 문화의 고구려 계승과 문화의 우수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하기도 하고, 발해의 삼채는 8세기초 처음 실용기로 사용되다가 8세기 중엽 건축장식으로 사용되면서 8세기말 상형기를 제작하였다고 보고, 발해의 삼채는 고구려 제작기술의 계승발전이라고 보았다(최춘혁 「발해삼채의 제작시기」 『조선고고연구』 2015-1). 그러나 어떤 점이 어떤 맥락에서 계승발전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고구려의 시유도기를 고려해 볼 때 발해의 도자 기술이 고구려의 시유도기와 연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는 고구려와 발해의 도자기에 대한 형태적 연구 뿐 아니라 자연 과학적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향후 과제이다.

이외에도 궁심13호분에서 출토된 금동태환이식은 창덕 5호분에서 출토된 것과²⁾ 유사하고, 모두 고구려의 태환이식과 유사하므로 발해의 고구려 계승을 보여준다고 해석하였다(그림3). 마찬가지로 고분에서 출토된 마구 중에는 신라에서 출토된 행엽도 있지만, 연차골이나 동청무덤떼에서 출토된 행엽이나 등자 중에는 고구려 4, 5세기대의 특징을 갖고 있기도 하다.



(그림3. 붉은 고리 귀걸이와 마구)

때문에 발해시기 이전의 함경도 일대에 대한 고고학적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오매리 절터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일대가 고구려 영역이었음이 확실한 만큼 고분도 고구려 고분이 포함되었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체계적인 보고가 있거나 공동 연구가 필요한 이유이다.

2) 새로 알려진 고구려와 발해의 금귀걸이(리준걸 『조선고고연구』 1987-4)에서는 창덕3호분에서 금귀걸이가 출토된 것으로 전하고, 고고학전서43-발해유물(진인진, 2009)에서는 창덕5호분에서 출토된 것으로 되어있어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IV. 맺음말- 고구려, 발해 고고학의 과제

북한에서의 고구려, 발해 고고학은 유적, 유물에 대한 조사가 증가되면서 거시적, 또는 미시적 관점에서의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안악3호분이나 덕흥리 벽화분의 명문자료는 고구려의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고, 평양 시내 안학궁과 대성산성 주변의 고분은 평양 천도와 관련하여, 낙랑구역의 고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중국의 군현 세력과 고구려 중앙 세력과의 관계, 중앙과 지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발해도 마찬가지로 회령 부거리나 북청 일대의 유적들은 중국에 경도된 고고학 자료의 편중을 해소시켜 주었다.

외견상으로는 조사의 양적 팽창과 다양한 연구 주제로 질적 발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자유롭게 개진된 다양한 해석들은 한국고고학에 시사하는 바 적지 않기도 했다. 그러나 1960년대를 지나면서 고고학 연구 분위는 역사의 주체적 발전이라는 이름하에 도식적이고 획일적인 소위 주체 고고학이 되었다. 김일성 교시에 의한 고구려 천년강국은 고구려의 건국을 기원전277년으로 소급 시켰고, 그에 따라 고조선 무덤과 고구려 고분을 연결시켰고, 연대관도 상향 조정되었다. 고분 뿐 아니라 평양의 성 조사에서 고조선층 위에 고구려 층이 확인되었다고 한다. 조선민족의 유구성과 우수성을 평양 중심으로 해석하다보니, 단군릉과 동명왕릉 개진에서 볼 수 있듯이 역사의 왜곡 또는 과장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발해의 고구려 계승을 강조하다보니, 발해 문화에 작용된 여러 요소들이 도외시 되거나 평가 절하되었고, 발해의 남경 남해부 뿐 아니라 동경 용원부를 회령의 부거리 유적으로 비정하여서 함경도 일대도 발해의 중심이 되었다. 이러한 고조선-고구려-발해로 이어지는 경직된 분위기는 정치적 상황에 고고학이 종속된 결과이다.

고구려, 발해 고고학 조사와 연구에서 남한과 북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이유이다. 가령, 안악 3호분이나 덕흥리벽화분의 주인공 뿐 아니라 중국 국내성의 왕릉으로 비정된 초대형 적석총을 포함한 왕릉비정연구, 왕릉비정에서 고려해야 할 능원, 수릉, 귀장 등 장묘제에 대한 종합연구 등은 함께 연구하고 토론한다면 설득력있고 신뢰할 수 있는 역사 복원이 가능할 것이며, 중국의 역사 왜곡에 정당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한편, 고구려의 남방진출 연구에서 남한의 고고학 성과는 북한에서도 필요할 것이다. 2000년대 들어와서 남한의 고구려 고고학적 성과를 이용한 논문 발표가 늘어나고 있어서 남, 북한의 공동 연구의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할 수 있다. 가령, 남평양은 4세기대 황해도 신원일대에서 6세기 중엽 서울의 아차산 일대로 비정하고 있는데, 남한의 고구려 고고학 성과와 현지 답사나 조사가 더해진다면 고구려 강역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발해 고고학도 마찬가지이다. 북한의 동북지역에서의 고고학조사는 서북한 일대에 비해 부진하였고, 함경남, 북도의 고구려 상황에 대해서는 신포의 오매리 절터를 제외하고는 그다지 알려진 바가 없다. 그러나 장성 뿐 아니라 고구려 산성의 상당수는 고구려에 이어 발해에서도 점유되었다. 가령, 궁심13호분이나 창덕5호 무덤의 금동제 태환이식은 고구려의 마선구1호분을 포함하여 고구려의 특징적인 추형수석이 달린 것이며, 청진 연차골1호 무덤의 행엽은 신라 적석목곽분에서 출토된 것과 형태적 특징을 같이 한다. 발해의 고구려 계승의 증거로 제시된 발해 석실이라고 하지만, 고구려 뿐 아니라 신라의 요소도 보인다. 황혈식 석실이 누대에 걸쳐 재사용할 수 있는 묘제이고

이 일대가 시차를 두고 고구려, 신라, 발해가 공유했을 가능성이 있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때문에 고구려의 석실이 발해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다는 해석은 오히려 발해와 고구려의 직접 계승을 보다 잘 증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발굴조사가 얼마나 정밀하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점이다. 고구려나 발해 고고학 조사 경험 뿐 아니라 백제와 신라 고고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남북한의 공동조사와 연구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외에도 일일이 거론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남북한의 공동 조사와 연구 주제가 있다. 그 중에 하나로 중국의 역사 왜곡의 대응, 대안마련을 들 수 있다. 중국의 역사왜곡이 영토분쟁의 소지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홍산문화’와 고구려 초기 적석총의 관련에 대한 북한의 비판은 중국의 역사 왜곡에 남한이나 북한이 함께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남, 북한이 함께 조사하고 연구한 개성의 만월대 유적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듯이 남북한이 함께 조사하고 종합적인 분석으로 과학적인 해석을 하게 된다면,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늦기 전에 미래 세대들이 과학으로서의 고고학을 연구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강현숙, 1999, 「高句麗 積石塚의 登場에 대하여」, 『京畿史學』 第5號
 -----, 2013, 『고구려고분연구』, 진인진
 고일홍, 2018, 「北韓 考古學界 最近 現況 檢討-『조선고고연구』에 대한 內容分析을 中心으로-」, 『호서고고학』 41, 호서고고학회
 김일성종합대학출판부, 1976, 『동명왕릉과 그 부근의 고구려유적』
 김현숙, 2012 「동북공정」 이후 북한의 고구려사 연구동향, 『국학연구』 21, 한국학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2011, 『부거리일대의 발해유적』
 동북아역사재단, 2011, 『옥도리 고구려 벽화무덤』
 동북아역사재단, 2013, 『평양지역 고구려도성유적』
 동북아역사재단, 2015, 『황해도지역 고구려산성』
 동북아역사재단, 2015, 『회령일대의 발해유적-2012~2013년 발굴조사보고서』
 리주현·한은숙, 2009, 『총론』, 조선고고학총서 1,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박양진, 1998, 「북한고고학의 몇 가지 특징」, 『인문학연구』 25-2,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박찬규, 1997, 「최근 북한 역사학계 연구동향 고조선과 고구려사를 중심으로-」, 『중앙사론』 9집, 한국중앙사학회
 백종오, 2008, 「북한의 고구려 유적 연구 현황 및 성과」, 『정신문화연구』 31-1, 한국학중앙연구원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편, 『조선고고연구』, 2000~2016
 석광준, 2000, 「고구려고고학의 새로운 성과」, 『古代史シンポジウム』, 財團法人 朝鮮獎學會
 송호정, 1989, 「북한에서의 고증세사 시기구분」, 『역사와 현실』 1, 한국역사연구회

- 양시은, 2016, 「북한학계 고구려 고고학의 최근 연구동향」, 『통일고고학을 위한 연구 현황과 과제 진단』, 2016년도 한국고고학회 학술회의 자료집
- 이상준, 2016, 「통일고고학을 위하여」, 『한국고고학보』 100, 한국고고학회
- 이선복, 1992, 「북한 고고학사 시론」, 『동방학지』 74,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 임상선, 2007, 「고구려발해 역사의 공동연구를 통한 남북한 동질성 회복 방안」, 『국학연구』 10, 한국국학진흥원
- 조중공동고고학 발굴대 1966, 『중국 동북지방의 유적 발굴 보고(1963~1965)』 사회과학원출판사
- 정경일, 2016, 「최근 북한학계에서 이룩한 고구려 고고학 성과」, 『선사와 고대』 47, 한국고대학회
- 정영진, 2016, 「연변대학과 북한 사회과학원의 고대유적공동조사 발굴 성과와 과제」, 『통일고고학을 위한 연구 현황과 과제 진단』, 2016년도 한국고고학회 학술회의 자료집
- 정창현, 2019, 「김정은시대 북한의 문화유산정책 변화와 남북교류」, 『통일인문학』 77, 건국대학교인문학연구원
- 朱榮憲, 1986, 『德興里高句麗壁畫古墳』, 講談社
- 채태형, 2000, 「발해 역사 및 고고학의 새로운 성과」, 『古代史シンポジウム』, 財團法人 朝鮮獎學會
- 최종택, 2015, 「통일시대의 한국고고학」, 『고고학과 현대사회』, 제39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자료집
- 최희림, 1978, 『고구려 평양성』 백과사전출판사
- 한규철, 2008, 「북한의 발해 유적과 성격」, 『역사와 경계』 68, 부산경남사학회
- 한창균a, 2013, 「북한고고학사의 시기 구분 체계에 대하여」, 『한국상고사학보』 79, 한국상고사학회
- 한창균b, 2013, 「도유호와 한흥수: 그들의 행적과 학술 논쟁(1948~1950)」, 『한국고고학보』 87, 한국고고학회
- 中國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集安縣博物館, 2005, 『集安高句麗王陵』, 文物出版社

분단 70년 북한 고고학의 현주소

북한 학계의 백제 역사인식

이 성 준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
- I. 머리말
 - II. 건국시기와 건국세력
 - III. 도성과 천도
 - IV. 국가체제와 사회경제제도
 - V. 대외관계
 - VI. 고고학 연구의 경향과 문제점
 - VII. 맺음말

북한 학계의 백제 역사인식

이 성 준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I. 머리말

1970년대 이후 북한 학계에서 백제사와 백제고고학 연구의 한결같은 지향점은 고구려사의 정립에 일조하는 것이다. 백제가 초기 고구려의 지배집단에서 갈려져 나왔다는 역사인식을 기조로 하여 국가체제, 물질문화, 대외관계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고구려의 영향 내지는 그 개연성이 강조되어 왔다. 이것은 표면적으로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는 김일성의 교시 때문이었으나, 사회주의 건설의 역사적 당위성을 공고히 하기 위해 인민의 투쟁사를 발굴하고 사상화를 하기 위한 조치였다. 당시 제기된 조선 사람의 기원과 원시사회 문제, 고조선과 노예사회 문제, 고구려사와 초기 조일관계 문제, 자본주의 발생발전과 부르주아 개혁문제 등은 조선전사 집필편찬사업의 핵심주제가 되었는데(안용철 외 2008: 19-20), 이 중 고구려사와 초기 조일관계 문제는 백제사 연구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현재까지 북한 학계에서 백제사와 백제고고학 연구의 큰 문제점은 한국의 최신 고고학 정보를 거의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000년 이후 발표된 연구논문들을 살펴보면, 1960~90년대 초 한국의 발굴자료 또는 1980~90년대 일본에서 출판된 백제 관련 개설서 정도가 인용 자료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물론 자료 접근의 한계가 가장 큰 원인이 되었겠지만, 소위 주체적 입장으로 정리한 고구려사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된 상황에서 선진적인 고구려의 영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아니면 큰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다.

주지하다시피 이번 학술회의는 북한의 고고학과 패러다임의 변화를 검토하고, 한국의 고고학과 비교하여 향후 공동연구의 방향 및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문제점들이 북한과 한국의 백제고고학을 비교해서 앞으로를 전망하는 것에 큰 장애가 된다. 따라서 이번 발표에서는 한국 학계에서 주요 아젠다로 다루고 있는 건국시기와 건국세력, 도성과 천도, 국가체제와 사회경제제도, 대외관계에 대한 북한의 이론체계를 살펴보고, 토기와 묘제에 대한 고고학 연구의 경향과 문제점에 대해서도 논의해보고자 한다.

II. 건국시기와 건국세력

1959년 출판된 『조선통사』에는 기원 전후에 고구려의 국가체제가 형성되었고 백제와 신라가 순차적으로 성립되었다고 기술되어 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력사연구소 1959: 31).

1970~80년대에는 노예소유자사회의 뒤를 잇는 봉건사회로 삼국시대를 규정하면서,¹⁾ 국가체제의 성립을 인민들의 계급투쟁 및 생산수단의 소유형태가 변화되는 과정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사회과학원고고학연구소 1977: 172). 봉건적 생산관계가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자극했고, 잉여생산물의 증대는 봉건귀족과 지주들을 성장시켰는데, 이런 현상들이 기원전 2세기 이후 고조선에서 먼저 시작되었으며, 진국(삼한)과 부여에서는 기원전 1세기부터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이 시기에 고조선이 멸망하고 한사군이 설치되지만, 고구려인들과 고조선 유이민들의 투쟁으로 25년 만에 眞番과 臨屯이 폐지된다. 이것을 기원전 1세기 초에 이미 봉건국가로 성립되어 있던 고구려 주도의 반침략투쟁으로 보고 있다. 백제는 이보다 늦은 기원전 1세기 중엽 高朱蒙의 아들 溫祚가 서울의 북한산 부근 慰禮城에서 마한의 작은 지방소국으로 출발하였고, 마한 내부의 모순과 대립이 격화되는 상황을 이용하면서, 기원후 1세기 중엽에 독자적인 봉건국가 되었다고 정리하였다(손영중 외 1987: 71-78).

이처럼 고구려의 건국시점이 기원전 1세기 초로 규정됨에 따라, 그 뒤를 따르게 되는 백제는 기원전 1세기 중엽 봉건소국으로, 기원후 1세기 중엽 봉건국가로 기술된다. 다시 말해, 고구려가 ‘漢나라 침략자들의 침공을 물리치고, 고조선의 옛 땅을 되찾기 위해 완강히 투쟁’하며 『三國史記』의 기록보다도 반세기 정도 빠른 시점에 봉건국가가 되었기 때문에(사회과학원고고학연구소 1977: 172), 백제사 역시 『삼국사기』의 기원전 18년보다는 한 분기 정도 빠르게 전개된 것이다. 그러나 그 초현은 봉건소국이라는 저평가된 개념으로 포장되었고, 기원전 1세기 초의 고구려에 걸맞은 백제는 기원후 1세기 중엽에 시작된 것이 되면서, 그 시차는 100년 이상 벌어지게 된다.²⁾

그런데 2000년대 이후 고구려의 건국연대가 기원전 277년으로 고증되면서, 백제의 시작에 대한 재고찰이 진행된다(안용철 외 2008: 19-21). 이것은 ‘고구려의 성립시기를 잘 따져 볼 필요가 있고, 삼국의 성립시기를 옳게 밝히는 것이 역사의 유구성과 합법칙성을 뚜렷이 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김정일 교시의 후속조치이다(조희승 2002: 5).

『삼국사기』에는 19대 廣開土王(재위 391~412)이 東明王의 12세손으로 기록되어 있지만,³⁾ 廣開土大王陵碑에는 17세손으로 되어 있는 등 실제로는 초기 여러 왕들에 대한 기록이 누락되어 있어서 기원전 277년에 고구려가 건국된 사실이 실증되었다고 한다(손영중 외 2009: 124).⁴⁾ 이에

1) 1987년 출판된 『조선통사』에는 봉건사회를 ‘정권이 봉건지주 계급의 손에 있고, 주요 생산수단인 토지에 대한 봉건적 소유형태가 지배적인 지위를 가지는 사회’로 정의하였는데, 이것은 정권 구성원의 계급과 생산수단의 소유형태가 사회의 성격을 규정한다는 김일성의 교시를 따른 것이다(손영중 외 1987: 71).

2) 기원후 1세기 중엽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삼국사기』의 기원전 18년 기록을 ‘후세의 역사가들이 적당히 꾸며낸 년대’라고 부정하였다(손영중 외 1987: 78).

3) 大武神王(3대)-閔中王(4대), 慕本王(5대)-太祖大王(6대)-次大王(7대)-新大王(8대), 故國川王(9대)-山上王(10대), 烽上王(14대)-美川王(15대), 小獸林王(17대)-故國壤王(18대)은 同行이 된다.

4) 평양에 있는 동명왕릉의 문제와 관련하여 ‘천도와 함께 신격화된 건국시조의 묘를 평양으로 옮겼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김일성의 교시가 있었고, 이후 왕릉을 위해 지은 정릉사와 유물이 새롭게 발견되어 다른 곳에서 옮겨 온 동명왕릉이 틀림없다는 것을 고증할 수 있었다고 한다(안용철 외 2008: 21).

따라 백제는 기원전 3세기 중엽 예성강하류 및 한강유역에서 봉건소국으로 성립하여 기원전 1세기 말 독립적인 봉건국가로 발전하게 되었다. 온조와 沸流의 남하를 동명왕의 사망시점인 기원전 259년으로 상정하고, 고구려의 봉건제도를 토대로 봉건적인 국가질서를 세워나갔다고 하였다. 이 과정에서 봉건소국의 시조는 온조, 봉건국가의 건국지는 仇台가 되었다(손영종 외 2009: 127-128; 조희승 2002: 5-9).⁵⁾

III. 도성과 천도

1. 河南慰禮城과 王都漢城

1950~80년대 북한 학계에서는 백제 초기 도성의 위치와 관련하여 경기도 廣州를 주목해왔는데, 토지가 비옥하고 농업발전에 유리하다는 측면이 중요하게 여겨졌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력사연구소 1959: 41). 온조가 기원전 1세기 중엽 처음 건국했다는 봉건소국의 위례성은 서울 북한산 부근이며, 14년 만에 하남위례성인 광주의 남한산 부근으로 중심지를 옮겼다(손영종 외 1987: 77-78). 風納土城을 초기 궁성으로 비정하면서(사회과학원고고학연구소 1977: 209), 南漢山城을 유사 시 왕이 피난처로 이용하기 위한 왕궁의 방위성이라고도 했는데(사회과학원력사연구소 1979: 11-12), 그 이면에는 백제의 도성 방어체계가 고구려의 수도방위 체제를 모방했다는 시각이 크게 작용했다.

2000년대 이후 백제사가 기원전 3세기 중엽까지 소급되면서, 하남위례성 문제 역시 시간편차의 명분을 만드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먼저 『周書』, 『隋書』, 『北史』에 백제가 ‘帶方의 故地’에서 시작하였다고 기록된 것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의 견문을 적은 것에 불과하므로 … 한강유역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전제하면서,⁶⁾ 『삼국사기』에 비류가 온조와 함께 溟水와 帶水를 건너 彌鄒忽에 와서 살았다는 기록이 대방지역(대수)을 거쳐 한강유역(미추홀)에 정착한 사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정리하였다(조희승 2002: 9-10).⁷⁾

북한 학계는 河北慰禮城에 온조가 처음 도읍을 건설했다고 보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 학계의 일반적인 시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盧重國 1995: 174-176). 그러나 하남위례성으로의 천도와 도성체제에 대해서는 차이가 확인된다. 먼저 온조가 하북위례성에 건국한 후 13년 만에 漢水 남쪽에 새로운 도성을 건설하고, 주민들을 이주시켜 천도한 것이 봉건사회 초기의 경제력으로는 불가능했다고 전제한다. 그러면서 처음 천도한 온조왕 14년(기원전 5)부터 다시 천도하게 된 近肖古王 26년(371) ‘移都漢山’까지의 기간에 비해 하북위례성에서의 시간이 너무 짧다는 점을 강조하였다.⁸⁾ 여기에

5) 일본의 『新撰姓氏錄(814)』을 감안했을 때, 『삼국사기』의 온조왕과 多婁王 사이에 6~7대의 왕이 누락되었고, 온조가 남하한 기원전 259년부터 다루왕이 즉위한 기원후 28년까지 약 240년 중 기원전 18년에 다루왕의 父王인 구태가 중흥 시조왕(BC 18~AD 28)으로서 봉건국가를 설립했다는 논리이다.

6) 『周書』 異域列傳 百濟：有仇台者 始國於帶方
『隋書』 東夷列傳 百濟：東明之後，有仇台者 篤於仁信 始立其國于帶方故地
『北史』 列傳 百濟：東明之後有仇台 篤於仁信 始立國于帶方故地

7) 『三國史記』 百濟本紀 溫祚王 1년(기원전 18)：沸流謂第溫祚曰 … 遂與弟率黨類 渡溟帶二水 至彌鄒忽以居之

8) 온조왕 17년(기원전 2) 樂浪이 불태웠다는 위례성은 천도 후 더 이상 도성이 아닌 하북위례성이었다고 부

고구려에서 동명왕의 즉위년(기원전 37)부터 琉璃王 22년(3) 國內로 천도하기까지의 40년이 새롭게 고증된 기원전 277년을 기준으로 하면 280년으로 된다는 점도 부각시켰다. 이처럼 백제의 초도인 하북위례성의 운용기간이 짧아진 것에 대해서는 『삼국사기』의 편찬자가 봉건소국의 역사를 의도적으로 축소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조희승 2002: 14-17). 그렇게 하면, 하북위례성에서 하남위례성으로 천도하기까지는 대략 254년이 된다.

한편, 한성기의 도성체제는 고구려와의 역학관계 속에서 제도화된 것으로 여러 차례 강조되었다. 蓋鹵王 21년(475)의 北城(大成)과 南城(王城)을 풍납토성과 夢村土城으로 비정하는 것이 한국 학계에서 비교적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에 반해(이성준 2017: 85-86),⁹⁾ 북한 학계는 북성을 하북위례성, 남성을 하남위례성으로 규정하였다. 이 두 도성의 관계에 대해 정리해보면, 기원전 3세기 중엽 온조가 하북위례성에 봉건소국을 건설했고, 기원전 1세기 말 봉건국가로 성장하면서 구태가 하남위례성으로 천도했으며, 국력이 더욱 강화되고 북쪽으로 영토가 확장되면서 북한산성 근처의 하북위례성으로 다시 천도했다는 것이다(조희승 2002: 127).

백제의 하북위례성은 『삼국사기』의 기록도 소략하고, 조선이 한양도성을 건설하면서 상당부분 파괴되었지만, 현재 남아있는 阿且山城(阿旦城) 등이 도성의 일부라고 하였다. 하남위례성으로는 二聖山城이 유력한데, 春宮里 일대가 왕궁지라면, 고구려의 安鶴宮-大城山城과 같은 체제이다. 또한 서쪽의 풍납토성과 몽촌토성, 남쪽의 남한산성, 동쪽의 黔丹山城, 북쪽의 龜山土城은 고구려의 수도 방어체제와 유사한 위성적 군사요새가 된다. 풍납토성의 연대가 기원후 1~5세기이며, 풍납동식 조질토기(경질무문토기)가 출토된 몽촌토성의 축조시기도 기원전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다(조희승 2002: 128-135).

그런데 이보다 약간 앞서 북쪽성은 풍납토성이며 기원 전후 축조되었고, 남쪽성인 몽촌토성은 4세기 중엽이라는 북한의 고고학 연구가 있어서 주목된다. 기원전 5년 천도한 하남위례성이 풍납토성이었으며, 내부에 궁실과 관청을 건설하였고, 주변의 三成洞土城과 岩寺洞土城이 수도방위를 담당하면서 4세기 초까지 유지되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4세기 후반 삼국통일의 대업을 이루기 위한 고구려의 진출이 강화됨에 따라 몽촌 일대에 풍납토성보다 강한 성벽을 쌓으면서 이성산성과 남한산성을 축조하였고, 371년 몽촌토성으로 왕이 거처를 옮겼다는 것이다. 이때 풍납토성에는 관청들과 군대가 상주하면서 한강을 방어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하남위례성 천도 후 한강 이북으로 다시 천도하지 않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는데, 4세기 후반 이후 고구려와의 전투가 치열했고, 애초에 적들의 침입으로부터 도성을 영구히 보존할 목적으로 한강을 건너 천도했기 때문이다(김경삼 1999: 28-29).

뒤를 이은 최근의 연구에서도 하북위례성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지만, 하남위례성은 기원 전후 축조된 풍납토성이며, 4세기 중엽까지 백제의 도성은 왕궁과 관청이 있는 평지성과 주변의 평지 방위성들이 배합된 형식임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移都漢山’ 때 축조된 도성은 몽촌토성이며, 이를 계기로 왕궁이 있는 평지성과 주변의 산지 방위성이 결합된 체제로 변화되었는데, 풍납토성에는 관청과 주민 거주구가 자리를 잡으면서 수도를 방위하는 기능으로 전환되었다고 한다(김경삼

연하고 있다.

9) 『三國史記』 百濟本紀 蓋鹵王 21년(475) : 來攻北城 七日而拔之 移攻南城 城中危恐 王出逃

2015: 9-10; 2018: 10-11). 이 연구들은 ‘기원전 1세기 말 구태의 봉건국가 성립 및 하남위례성 천도’라는 프레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지만, 371년의 移都를 한강 이남에서 벌어진 왕의 거처 이동과 그에 따른 도성체제 변화로 해석했다는 점에서 2000년대 초 제시된 백제사와 분명 차이가 있다.

2. 泗泚천도와 羅城의 축조

475년 고구려의 한성 침공이 웅진 천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538년 사비 천도의 배경에도 고구려의 군사적 압박이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것이 북한 학계의 일관된 논지이다(사회과학원력사연구소 1979: 70; 손영중 외 1987: 99; 2009: 16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력사연구소 1959: 45; 조희승 2002: 198). 한국 학계에서 왕권 강화를 통한 국내외 현안해결 및 개혁의 원동력 확보 등이 사비 천도의 배경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金周成 1995: 80-84).

한편, 泗泚都城의 구조적 원류 역시 고구려의 도성제도에 직결시키고 있다. 전통적으로 고구려는 자연을 이용하여 도성을 건설하였는데, 이런 방식이 중국 南京의 建康城 건설에 채용되었고, 이후 한반도에서는 백제와 고려, 그리고 조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조희승 2002: 207-209). 그런데 나성을 감안했을 때, 문제는 백제 聖王 16년(538)의 사비 천도가 고구려 平原王 28년(586)의 長安城 천도보다 시기적으로 앞선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사비 천도 당시에는 나성이 없다가, 고구려 장안성의 영향을 받아 7세기 초 나성을 착공하였고, 7세기 전반 완공하면서 도성 전체가 완성된 것으로 논지를 전개하였다. 고구려는 평지성과 배후산성을 결합하여 도성을 구성하였다. 桓仁(기원전 277~기원후 3)의 下古城子古城(평지성)+五女山城(배후산성)에서 시작하여 集安(3~427)의 國內城(평지성)+山城子山城(수도방위성)+霸王朝山城·關馬山城 등(위성방위체계), 平壤(427~586)의 안학궁(궁성)+靑岩土城(관청)+대성산성(수도방위성)+高坊山城·淸湖洞土城 등(수도외곽방위성)을 거치면서, 陽原王 8년(552)~평원왕 28년(586)에 도성의 중심부 전체를 성벽으로 둘러싼 장안성(평산성)을 새롭게 건설하였다(김경삼 2015: 9-10).

이처럼 고구려에는 장안성 천도 이전에 나성이 없었기 때문에, 백제 역시 사비로 천도했을 당시에는 평지성(궁성)+수도방위성(부소산성)+위성방위체계(聖興山城·石城山城·靑馬山城)가 결합된 평양 전기의 도성체제를 구성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泗泚城(나성)이 축조되면서 도성 내부의 관청, 사찰, 주민 거주지 등이 질서 있게 정비되었는데, 武王 35년(634) 宮南池의 건설을 나성 완공시점의 근거로 제시하였다(김경삼 2002: 14-15; 2015: 18; 2018: 12). 그렇다면 사비도성은 장안성보다 약 50년 뒤에 완성된 것이 된다.

3. 益山 천도설

북한 학계는 『觀世音應驗期』에 ‘백제 武廣王이 只慕蜜地로 천도하였고, 貞觀 13년(639) 帝釋精舍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기록을 근거로 639년을 전후하여 익산으로 천도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밝혔다.¹⁰⁾ 그러면서 왕이 사는 곳에 동서 두 城이 있었으며,¹¹⁾ 신라 文武王이 670년 고구려 淵淨土의 아들 安勝을 金馬渚에 머물게 하고 고구려의 왕으로 책봉했기 때문에,¹²⁾ 익산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도시였다고 강조한다. 이에 따라 익산은 백제 말기의 別都이며, 益山土城(五金山城), 彌勒山城, 王宮坪城(王宮里 유적)은 별도를 방어하는 성곽이 되었다. 또한 불교의 힘으로 쇠퇴하는 국력과 지배층 내부의 갈등 및 모순, 고구려와 신라의 꺾박에 대처하기 위한 무왕의 허황된 요구를 천도의 배경으로 제시하였다(조희승 2002: 213-217).

한국 학계에서는 무왕이 익산에 彌勒寺, 帝釋寺, 왕궁리 유적 등을 건설한 배경에 대해 왕권강화, 세력확장, 국면전환 등이 거론되지만, 익산을 기반으로 한 세력이 집권 초기부터 왕권의 안정에 상당부분 기여했다는 시각은 공통된다. 익산지역에 대한 무왕의 관심이 對新羅戰 수행을 위한 군사 거점의 확보에서 비롯되었고, 경제적 이유 역시 컸을 것이라는 점도 주목되지만, 집권 초기 무왕의 익산경영 파트너가 재지세력과 불교세력이었는지, 아니면 彌勒寺址 西塔 金製舍利奉安記에 등장하는 沙氏家門이었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이성준 외 2018: 301).

IV. 국가체제와 사회경제제도

1959년 출판된 『조선통사』에는 백제가 공동체를 토대로 성립된 소박한 진제국가였고, 3세기 중엽 정치기구들이 정비되었다고 기술되어 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력사연구소 1959: 41-42). 1970년대 이후 삼국의 봉건적 통치제도가 반인민적 통치수단이었다고 강조되는데, ‘국가주권을 권 착취계급만이 모든 권리를 행사하며, 인민대중은 오직 착취와 억압의 대상이 된다’는 김일성의 교시와 관련된다. 왕은 귀족민주주의적 평의기구로 귀족관료들을 장악하였고, 중앙행정 통치기구를 통해 지배권을 확보하여 인민들에 대한 억압과 착취를 강화했다는 것이 기본 프레임이다. 백제의 중앙통치기구는 고구려의 제도를 상당부분 도입하여 3세기 후반 정비되었다고 하였다(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1979: 35-37).

이와 같은 기조는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삼국의 정치경제적 변화를 봉건제도, 소유형태, 계급 관계로 세분하여 접근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국가체제의 성립은 봉건적 관계의 발전과 확대과정으로 설명된다. 노예사회에서 인민들의 창조적 노동은 생산력의 증대를 가져왔고, 예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투쟁이 노예를 인신적으로 완전히 소유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에 따라 노예주들과 부유한 계층들이 노예들과 예속 농민들에게 토지를 떼어 주면서 수확이 이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건지주들은 여전히 수확의 대부분을 착취하게 되지만, 노예주가 노예를 마음대로 죽일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은 큰 변화이다. 극히 적은 양이지만 생산물의 일부를 농민들이 소유할 수 있게 되면서, 잉여생산물이 증대됨과 동시에 봉건귀족과 지주들도 큰 세력으로 성장했다. 이렇게 기반을 구축한 봉건소국의 통치자들은 주변 소국들을 정복, 통합하여 세력을 확장했으며,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후 1세기

10) 『觀世音應驗記』: 百濟武廣王遷都 只慕蜜地 新營精舍 以貞觀十三年歲次己亥冬十一月 天大雷雨 遂災帝釋 精舍 佛堂七級浮圖 乃至廊房一皆燒盡

11) 『新唐書』 東夷列傳 百濟: 王居東西二城

12) 『三國史記』 新羅本紀 文武王 10년(670): 王處之國西金馬渚 / 遣沙浪須彌山 封安勝爲高勾麗王

사이에 봉건적 관계들이 정립되면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등이 순차적으로 성립되었다고 한다(손영종 외 2009: 120-122).

백제는 마한을 통합하고 영역을 확장해가면서, 지배계급에 유리하도록 봉건적인 사회경제제도와 계급신분제도를 편성해갔다. 중앙집권체제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소국의 통치자들은 귀족으로 흡수되었으며, 조세와 공물 수탈권 등 기득권이 상당부분 인정되었는데, 인민에 대한 지배권을 일반 귀족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던 諸侯王도 5~6세기까지 적지 않게 남아 있었다. 귀족관료들은 영역 확장과정에서 왕으로부터 많은 토지를 받았고, 인민들의 토지와 재산을 약탈하면서 사적소유를 확대해갔다. 그리고 지주적 소유의 확대를 보호하거나 조장함으로써 내부의 계급적 기초를 강화했다는 것이 국가체제 운영의 기본 프로세스이다(손영종 외 1987: 88-89).

봉건국가에서 계급과 신분관계는 토지의 소유형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대토지의 사적 소유자로서 정점에 있던 왕, 제후, 귀족들은 인민대중으로부터 地代를 빼앗아 가는 착취계급이 된다. 이들은 계급의 이익과 특권을 옹호하기 위해 토지 소유의 정도와 지위에 따라 계층을 나누고 법적으로 고착화시켰으며, 정권의 요직을 독점하였다고 한다. 피지배계급인 인민대중은 평민, 부곡민, 노비로 구분된다. 소토지의 소유자로서 소규모의 농업이나 수공업에 종사한 평민은 지주들에게 예속되지는 않았지만, 조세, 공납, 부역, 군역 등의 의무가 있는 피착취계급이었다. 부곡민 역시 지주에게 예속되지 않았으나, 평민보다 천시되고 더 많은 압박과 착취를 받았던 계층이다. 사회통합과정에서 강하게 저항하여 집단적으로 천민화된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노비들은 지주들에게 예속되어 있었지만, 마음대로 죽일 수는 없었으며, 매매, 양도될 수 있었던 봉건사회의 최하층이었다(손영종 외 2009: 145-147).

V. 대외관계

1. 對魏戰爭과 遼西領有說

2000년대에 들어서 북한 학계는 웅진 천도 이후 백제의 부흥과 관련하여 東城王代 발생했다는 北魏와의 전쟁을 비중 있게 다루기 시작했다. 『삼국사기』에는 동성왕 10년(488) 魏가 침공했으나 물리쳤다는 내용이 있다.¹³⁾ 永明 8년(490) 魏가 騎兵 수십만을 동원하여 백제를 공격했으나, 牟大(동성왕)가 沙法名, 贊首流, 解禮昆, 木干那를 파견하여 격파했다는 기록도 『南齊書』에서 확인된다.¹⁴⁾ 이에 대해 일본 역사학계는 거론조차 하지 않으며, 한국 학계는 반신반의하고 있다면서, 미마나미 야케실[任那官家說]을 합리화하기 위해 백제를 왜소화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북위가 두 번에 걸쳐 백제를 침공한 배경으로는 고구려와의 관계 악화를 우려한 위가 개로왕 18년(472) 백제의 고구려 협공

13) 『三國史記』 百濟本紀 東城王 10년(488) : 十年 魏遣兵來伐 爲我所敗

14) 『南齊書』 東南夷列傳 百濟 : 是歲 魏虜又發騎數十萬攻百濟 入其界 牟大遣將沙法名贊首流解禮昆木干那率衆襲擊虜軍 大破之

요청을 거절하면서 국교가 단절되었던 상황을 주목한다.¹⁵⁾ 그러면서 한반도 내 백제 영토가 아닌 중국 山東半島 일대의 백제 비래지[越境地·飛地]에서 발발한 사건으로 규정했다. 근거로는 북방 유목민족인 북위가 바다를 건너 수십만 기병을 상륙시키기 어렵다는 점, 북위와 백제 사이에 고구려가 있어서 육로를 통해 직접 공격하기 어렵다는 점, 참전 유공자에게 중국 지역의 태수작위를 요청한 것을 南齊가 승인한 점 등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백제군이 5세기 말 山東, 江蘇, 河南, 河北 등지에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遼西의 晉平郡 晉平縣을 차지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조희승 2002: 186-192).¹⁶⁾

이 전쟁은 중국 南朝의 사서에만 기록되어 있는 백제 요서영유의 방증자료로 자주 거론된다. 한국 학계에서는 2년의 차이가 나는 이 두 기록에 대해 490년에 발발한 동일 건으로 보고 있으며, 중국 기록을 『삼국사기』에 편입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가 원인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요서영유에 대한 긍정적 입장의 연장선에서는 5세기 말 대륙에 설치되어 있던 백제 영역에 대한 공격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4세기 중엽 백제가 이곳에 진출해야 할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갖는 입장에서는 동성왕 집권기에 발생한 고구려와의 무력충돌이 남조계 사서에서 위의 침략과 백제의 승전으로 기록되었다고 해석한다(俞元載 1995: 122-140). 이처럼 요서영유와 관련해서는 이견이 분분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신중론이 우세하다고 할 수 있다.

2. 백제의 일본 진출

475년 한성 함락 당시 개로왕은 아들 文周에게 전쟁을 피해 왕통을 잇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문주는 木協滿致와 祖彌桀取를 데리고 남쪽으로 떠났다는 기록이 『삼국사기』에 있다.¹⁷⁾ 이 때의 목협만치와 『日本書紀』 應神天皇 25년(294)에 등장하는 木滿致가 동일 인물이며, 목만치의 일본 소환 기록에 목협만치가 웅진 천도 후 일본으로 건너갔다는 사실이 반영되어 있다고 한다.¹⁸⁾ 목협만치는 단순히 피난처를 찾아 떠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임무를 받고 일본에 진출하여 산발적이던 조선계통의 소집단을 규합하였으며, 6세기 후반 大和政權의 중심에서 강대한 호족으로 활약한 蘇我氏의 조상이 된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고국 백제와의 긴밀한 협조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조희승 2002: 173-174).

한국 학계에서도 목협만치와 목만치가 동일인이며, 소가씨의 조상인 蘇賀滿智宿禰가 되었다는 견해가 있다.¹⁹⁾ 이름이 비슷하고, 5세기 후반 목만치가 일본에 와서 활약한 사실들이 蘇我滿智로

15) 『三國史記』 百濟本紀 蓋鹵王 18년(472) : 王以麗人屢犯邊鄙 上表乞師於魏 不從 王怨之 遂絕朝貢

16) 요서영유의 사실 자체를 기록한 것은 다음과 같다(俞元載 1995: 135).

『宋書』 夷蠻列傳 百濟 : 其後高驪略有遼東 百濟略有遼西 百濟所治 謂之晉平郡 晉平縣

梁職貢圖 : 晉末駒麗略有遼東 樂浪亦有遼西晉平縣

『梁書』 東夷列傳 百濟 : 晉世句驪既有遼東 百濟亦據有遼西晉平二郡地矣 自置百濟郡

『南史』 東夷列傳 百濟 : 晉世句麗既有遼東 百濟亦據有遼西晉平二郡地矣 自置百濟郡

17) 『三國史記』 百濟本紀 蓋鹵王 21년(475) : 近蓋婁聞之 謂子文周曰 …蓋避難以續國系焉 文周乃與木易滿致 祖彌桀取 南行焉

18) 『日本書紀』 應神天皇 25년(294) : 卽子久爾辛立爲王 王年幼 木滿致執國政 與王母相姪 多行無禮 天皇聞而召之

19) 『日本書紀』 履中天皇 2년(401) : 都於磐余 當是時 平群木菟宿禰 蘇賀滿智宿禰 物部伊呂弗大連 圓大使主

전승되었다고 보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는 설명이다. 목만치의 후손들은 河内の 石川地域에 거주하면서 蘇我氏와 혼인관계를 맺었는데, 蘇我滿智 이후 초기 가계에서 蘇我韓子, 蘇我高麗로 이어지는 한반도 국명의 이름들이 백제계 渡倭氏族으로도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한다(박재용 2017: 198-205). 장자 상속에 의한 족장권의 계승, 불교의 수용과 사찰 건립 등 중국이나 한반도의 제도를 선도적으로 수용하면서, 7세기 중엽 大王家の 외척으로 성장한 蘇我氏를畿内の 토착호족으로 보는 것이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이근우 2017: 149-151). 이에 반해 목만치와 목협만치가 모두 목협(목)씨 가문 출신이지만, 기록에 따라 목만치는 木羅斤資의 아들로 久爾辛王代 활동하였고, 목협만치는 개로왕과 문주왕때의 인물이기 때문에, 『일본서기』의 蘇我滿智와 동일 인물로 보는 것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노중국 2011: 172-175).

북한 학계가 6세기부터 7세기 중엽까지의 야마토 정권에서 백제계통 이주민들의 활동에 주목하는 이유는 기원전 3세기경부터 한반도의 선진문화가 낙후된 일본열도로 전래되었고, 이주민들이 고국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소국을 형성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성장한 호족들이 7세기 중반까지 일본의 왕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초기 조일관계 전개의 핵심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三韓 三國 分國說로도 알려져 있는 북한의 초기 조일관계 연구는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훼손된 역사적 진실과 체계의 정립을 목적으로 하는데, 그 중심에 미마나[任那] 문제가 있다.

일본 학계의 미마나설은 4세기 중엽부터 2~3세기 간 일본 야마토 정권이 한반도의 남부를 지배 또는 경영했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된 분국설의 부분을 발췌하여 정리해보면, 야마토 정권이 설치했다는 미야케[官家]는 한반도 이주민이 일본 서부에 수립한 소국들에 있었는데, 소국(분국)들은 고국의 지명과 동일한 국명을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일본서기』의 미마나미야케는 야마토 정권이 한반도가 아닌 吉備와 九州의 호족세력을 통합했던 사실과 관련된다는 것이다(김석형 1966: 346-361).

초기 조일관계의 시작은 기원전 3세기 중엽 백제가 한강유역에 봉건소국을 성립하고 마한사회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노예소유자로서 청동기문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던 마한 소국의 지배세력들이 일본의 北九州에 정착한 것을 계기로 한다. 이것은 기원전 3세기 말~기원전 2세기 북규슈에 한반도계 웅관묘가 산발적으로 출현하게 된 것과 관련되며, 기원 전후 이 지역에 대형웅관 집단묘가 형성되고 세형동검 및 세문경 등이 출토되는 것은 기원전 1세기 말 백제가 봉건국가를 건설하고 마한사회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발생한 현상으로 설명된다. 이 대형웅관 집단묘의 문화적 특징은 마한의 유적 및 유물과 계보를 같이하며, 세문경 등은 고대 노예소유사회의 의기이다. 북규슈로 이주한 주민들은 세력을 확대하여 집단을 이루기도 하였으며, 마한 소국 전체가 통제로 옮겨가는 경우도 있었다. 일본에서 확인되는 대규모 이주 현상이 『삼국사기』 온조왕 13년(기원전 6) 국토의 영역이 남쪽으로 熊川까지였다는 기록을 고고학적으로 고증하는 것이라고 하였다.²⁰⁾ 한반도에서 마한의 구세력은 낡은 생산관계에 기반한 노예소유자였으나, 당시 원시적 상태였던 일본에서는 매우 선진적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한다. 일본 학계에서는 북규슈의 웅관묘 출현에 대해 기원전 194년 衛滿朝鮮 성립, 기원전 108년 漢郡縣 설치 등 중국과의 영향관계를 원인으로 제시하지만, ‘고구려의

共執國事

20) 『三國史記』 百濟本紀 溫祚王 13년(기원전 6) : 遂畫定疆場 北至淇河 南限熊川 西窮大海 東極走壤

한 갈래인 백제'가 한반도 중남부로 남하하면서 '조선이 주체'가 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강조한다(조희승 2002: 64-85).

기원후 3세기 말 백제가 마한을 완전히 병합한 후 일본 진출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는데, 4세기 이후 古墳時代에 백제계통의 유적과 유물이 급증하는 것이 관련된다. 이 시기 마한과 백제, 변진한과 가야계 소국들이 북규슈에 많았으며, 현지에서 문화선구자적 역할을 하였다고 한다. 특히 백제계 소국의 통치자들은 본국에서 받은 官等を 유지하면서 백제의 통치제도에 준하여 원주민들을 통치했고, 소국들은 연합체를 이루며 왕국을 형성하게 된다. 5세기가 되면 왕국들 중에서 백제 본국에 정치적으로 종속된 侯國이 등장하는데, 熊本縣 江田船山古墳 출토 은상감대도는 개로왕이 북규슈에 있는 고마후국의 侯王에게 하사한 것이라고 한다.²¹⁾ 石上神宮에 소장되어 있는 七支刀 역시 왕국급 소국 연합체(후국)의 수장이었던 倭王에게 하사한 것으로 본다.²²⁾ 또한 6세기에 북규슈 호족들은 야마토 정권에 종속되어 있으면서도 관등을 받아 본국 백제에서 복무했으며, 『일본서기』 敏達天皇 12년(583)의 達率 日羅 관련기록을 사례로 제시하였다.²³⁾ 야마토 정권 내부에서 백제계통 이주민의 활동은 7세기 전반까지 이어지는데, 앞서 설명한 소가씨 가문 등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친백제 정권이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며 기여했기 때문에, 백제 멸망 당시 본국을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의 출병이 가능했으며, 백강전투의 패배 후 몰락하게 된다(사회과학원력사연구소 1979: 72-83).

이처럼 북한 학계의 분국론은 皇國史觀의 이론적 토대가 된 임나일본부설을 근본적으로 뒤집은 획기적인 학설이며, 고대 한일관계사의 큰 줄거리를 바로 잡고, 식민사학의 청산에 본격적인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서기』의 내용 대다수가 일본 내 한반도계 이주민의 활동상이고, 이것이 한민족에 의한 왜국통치의 역사라는 시각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한일관계사와는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권오영 1989: 20-21).

Ⅵ. 고고학 연구의 경향과 문제점

1. 토 기

백제토기에서 심발형토기(화분형단지), 단경호(키낮은 배부른단지), 장경호(목이 길고 아구리가 넓은 단지) 기종은 기본적으로 고구려토기와 형태상 큰 차이가 없으며, 완(바리·보시기), 접시, 술

21) 江田船山古墳 출토 은상감철제대도 명문(김석형 1966: 196-200): 治天下獲□□□□大王者世 奉爲典曹人名无利工 八月中 用大鑄釜 并四尺连刀 八十練六十振三寸上好□刀 服此刀者長壽 子孫洋洋 得三恩也 不失其所統 作刀者名伊太於書者張安也

22) 七支刀 명문(김석형 1966: 194-196): <앞면> 泰和四年五月十六日丙午正陽 造百練鐵七支刀 生辟百兵 宜供侯王 □□□□作 <뒷면> 先世以來 未有此刀 百濟王世奇生聖晉 故爲倭王旨造 傳示□世

23) 『日本書紀』 敏達天皇 12년(583): 是歲 復遣吉備海部直羽嶋 召日羅於百濟 … 百濟國主 怖畏天朝 不敢違勅 奉遣以日羅 恩率德爾餘怒奇奴知參官柁師 德率次干德水手等 若干人 … 奉爲國家 使於海表 火葦北國 造刑部鞞部阿利斯登之子 臣達率日羅 聞天皇召 恐畏來朝 …

(가마), 자배기(동이), 병 등에서도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 흑색마연기법과 격자타날(사각형무늬), 승문타날(줄무늬), 파상문(물결무늬), 그물무늬, 점무늬, 둥근무늬, 덧띠무늬 역시 고구려 토기와 같기 때문에, 백제인의 생활풍습과 감정, 정서, 취미가 고구려인과 같았다는 근거가 된다. 그러면서 백제토기의 변화가 고구려토기의 경향성을 따랐던 것이 고구려의 강한 문화적 영향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기형의 변화를 비교해보면, 백제 호에서 4세기에 유행하던 직구는 5세기 경 광구로 바뀌는데, 고구려에서 광구는 3세기 이전에 등장한다. 3세기 백제 단경호에서 관찰되는 구순부의 홈 역시 고구려에서는 1세기에 확인된다. 5세기 이후 백제 호의 건부가 넓어지는 반면, 고구려에서는 4~5세기에 동체의 가장 넓은 부위가 위쪽으로 치우친다. 단경호의 저부는 원저가 4세기까지 유행하다가 5세기에 평저로 변하는데, 고구려토기에는 초기부터 실용성이 높고 완성된 형태의 평저가 기본적으로 적용되었다. 이처럼 5세기 이후 백제토기의 형태적 변화에는 고구려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고 한다.

백제토기의 기술적 유형이 ‘적갈색연질토기(적갈색그릇)·흑색마연토기(검정간그릇)→회색연질토기→회청색경질토기(회청(흑)색경질그릇)’의 순서로 변했다고 소개하면서, 환원소성으로 제작된 회색연질은 앞선 시기에 볼 수 없는 유형이라고 하였다. 백제에서는 加平 馬場里, 中島의 積石墳丘墓(돌각담무덤) 등 기원 전후 또는 기원후 1세기 유적에서 출토되지만, 고구려에서는 기원전 3세기 이전에 확인된다는 점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회청색경질이 4세기 중엽 이후 등장하여 5세기에 보편화된 것은 3세기 이전에 완성된 고구려토기들이 높은 단계의 형태로 발전하여 백제에 전파된 결과라고 하였다(리영 2006: 37-41).

한편, 백제의 건국과 관련하여 葺石墳丘墓인 서울 可樂洞 2호분 출토 흑색마연 直口廣肩壺의 편년에 대한 연구가 있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북한 학계가 주목하는 것은 백제에서 흑색마연토기(검정간그릇)의 출현인데, 가족묘인 방대형 봉토묘(흙무덤)의 축조시기를 규정짓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 흑색마연토기는 고구려에서도 사용되었으며, 기원전 5~4세기 茂算 虎谷洞(범의 구석)遺蹟에서 출현하여 늦어도 기원 전후한 시점에 사라진다고 한다.²⁴⁾ 그러므로 즙석분구묘는 기원 전후의 묘제이며, 가락동 2호분은 고구려식의 방대형 봉토에 다곽식의 목관(곽)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축조연대가 오래되었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고구려집단과 재지세력의 결합을 가락동 2호분 출현의 사회역사적 배경으로 제시하였다(조희승 2002: 39-42).

고구려의 문화적 영향과 높은 수준의 토기 제작기술이 백제토기의 변화를 이끌었다는 연구는 형태적으로 유사한 특정 속성과 출토 유적들을 ‘先-고구려·後-백제’의 구도로 나열했기 때문에, 백제토기의 편년과 지역특성에 대한 북한 학계의 이해도를 제대로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다. 가락동 2호분 출토 흑색마연토기에 대한 관심에는 한국 학계의 이슈가 간접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듯한데, 앞서 살펴 본 것처럼 백제의 봉건국가 성립시점을 기원전 1세기 말로 비정하는 것과는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한때 한국 학계의 일각에서는 가락동 2호분 출토 흑색마연토기의 연대를 기원후 4세기 중엽으로 편년하기도 했지만, 방법론적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면서, 漢城期의 이른 시기인 3세기

24) 함경북도 무산군 무암읍 호곡동에 있는 선사유적으로 1959년부터 1961년까지 5차례에 걸쳐 발굴되었다. 조사결과 50여기의 주거지와 6시기의 문화층이 확인되었는데, 4~6기층(청동기~철기시대)의 주거지에서 黑陶와 마제석기가 출토되었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1281-1282).

중후반부터 출현했다고 보는 것이 비교적 합리적이라는 견해가 여전히 지지를 받고 있다(이성준 2017: 52-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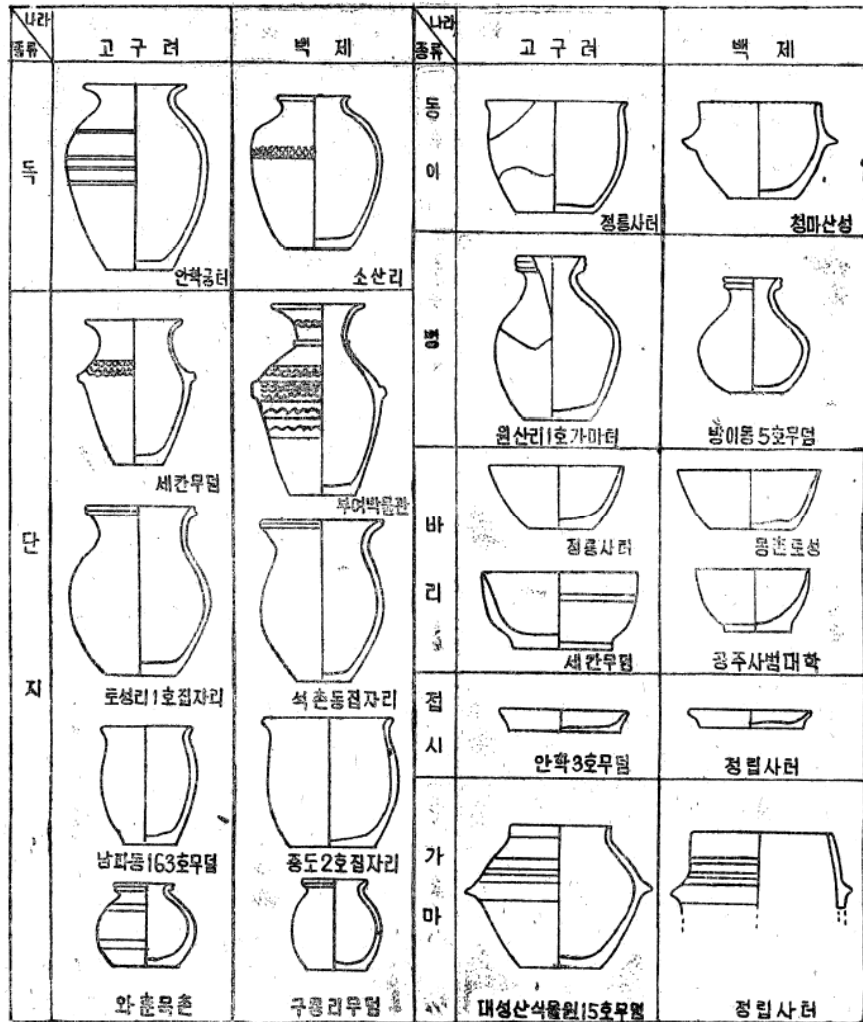


그림 1 백제토기와 고구려토기의 비교(리영 2006: 40)

2. 묘 제

북한 학계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백제묘제는 단연 積石塚일 것이다. 이것은 고구려 집단의 한 갈래가 남하하여 백제를 건설했다는 문헌기록을 뒷받침하기 가장 좋은 고고자료이기 때문이다. 백제의 무기단식적석총(무기단돌각담무덤)은 초기 도성이 위치했던 한강과 임진강유역에 분포하는데, 기원전 등장한 무기단식적석총이 이전 시기의 수혈계 묘제와 결합하면서 기원 전후 특이한 형태의 적석총도 발생했다고 한다. 3세기 이후 고구려의 영향으로 기단식적석총(기단돌각담무덤)이 축조되어

5세기 전반까지 지속된다. 특히 북한강과 임진강유역의 초기 무기단식적석총의 분포는 『삼국사기』에서 馬韓王이 온조에게 제공했다는 동북 100리의 지역에 해당한다고 한다(리철영 2010: 27-37). 한편, 2000년대 초 제시된 백제사의 시각에서는 이 무기단식적석총을 기원전 3세기 중엽 백제 봉건소국의 성립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어, 최근의 고고학 연구와 시기적인 관점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조희승 2002: 42-46).

백제가 초기부터 국가단계의 정치체로 출발했다는 한국 학계의 시각에서는 임진강유역의 소위 무기단식적석총을 2세기 후반 내지는 3세기 초 고구려에서 남하한 이주민의 묘제로 규정하고 있으며, 북한강과 남한강유역에 분포하는 사례들은 2세기 후반에서 4세기 초까지 존속했던 영서 靺鞨 세력의 것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그러나 고구려 초기 무기단식적석총과는 구조적인 차이가 확인되는 적석 분구묘이며, 중서(남)부 해안지역의 盛土墳丘墓, 서울지역의 증석분구묘와 함께 2세기 중후반부터 3세기 중반까지 다장의 전통을 공유했던 임진강, 북한강, 남한강유역 중부 내륙 마한사회의 묘제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이성준 2018: 70).

백제의 횡혈식석실묘에 대한 흥미로운 견해가 북한 학계에서 확인되는데, 천정구조(단면형태)와 연도의 위치가 무덤의 변천에 관계되며, 공주와 부여지역의 석실묘 차이에는 시기가 아닌 지역적 특색이 반영된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면서 천정형태의 변화로 ‘평천정(사각단면)→궁륭상천정→터널형천정(차굴천정)→육각형천정(꺾음천정)’의 순서를 상정하였다. 연도의 위치는 ‘偏在羨道(한쪽에 치우친 무덤안길)→중앙연도(중심에 놓인 무덤안길)’로 변화했다고 한다. 이 두 속성의 조합으로 8개의 형식을 설정하였고, ‘편재연도+평천정’의 형식에서 ‘편재연도+궁륭상천정·터널형천정·육각형천정’을 거쳐 ‘중앙연도+평천정·터널형천정·육각형천정’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제시하였다. 편재연도+평천정 형식은 3세기로 추정되는 魯南里 간평 10호분과 동일하기 때문에,²⁵⁾ 백제에서는 4세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그리고 평천정을 제외한 나머지 천정형태와 편재연도의 결합형식은 5세기에 병존하며, 6~7세기를 거치면서 중앙연도로 정형화되었다고 하였다(궁성희 1986: 23-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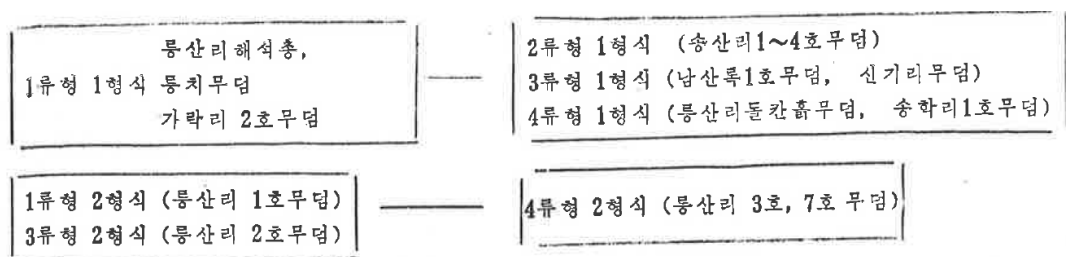


그림 2 백제횡혈식 석실묘의 형식(궁성희 1986: 27)

25) 慈江道 時中郡 로남리의 禿魯江邊에 위치한 고구려의 單葬 석실묘로 방형평면의 중앙에 연도를 설치했고, 꺾음 천장식으로 올리다가 위에는 평행고임을 했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351). 연도의 위치에 대한 서술 차이에 대해서는 추후 확인하여 보완하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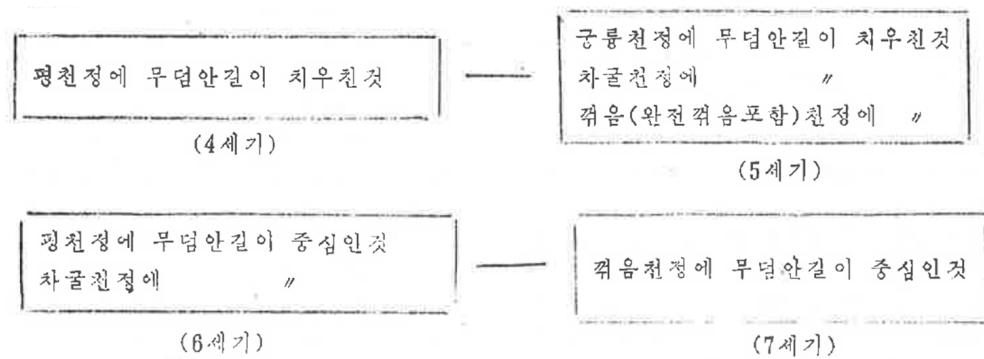


그림 3 백제횡혈식 석실묘의 변화와 편년(공성희 1986: 28)

이 연구는 도성 중심의 지역별 유형분류에서 탈피하여 구조적 속성에 중점을 둔 형식분류와 편년을 시도한다고 밝히고 있어 주목해 볼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고구려 초기 봉토석실묘의 구조를 엄두에 두고, 평천정과 편재연도를 백제 석실묘의 초현 속성으로 규정함으로써 중대한 오류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부여 능산리고분군과 서울 가락동고분군의 일부 석실묘를 4세기의 초기 유형으로 분류하게 만들었다(그림 2). 소위 ‘천도에 따른 편년설의 부당성’은 백제 석실묘의 변화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였지만(그림 3), 고분들의 지역특성을 오히려 무색하게 만들었으며, 고분군 축조의 역사적 개연성 역시 확보되기 어려워졌다. 실제 분석에 활용한 석실묘의 자료 수준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백제 초기 횡혈식석실묘의 구조적 특성을 고구려의 석실묘로부터 파악하려는 시도에서 벗어난 결과라고 판단된다.

VII. 맺음말

백제에 대한 북한 학계의 역사인식은 고구려 중심의 삼국사와 초기 한일관계 정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백제의 문헌기록과 물질자료의 초기 연대문제는 고구려와 비교해서 후행하는 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으며, 그 기저에는 고구려의 선진성과 주체성이 깊게 깔려있는 것이다. 고대 한반도와 일본열도에서 전개된 주민이주와 물질문화의 확산이 사회변화의 동인이 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입장의 개연성을 모두 간과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과장된 역사인식과 편중된 시각에서 비롯된 자료 이용의 한계, 그리고 그것에 기인한 방법론의 오류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새롭게 준비해야 할 남북 공동의 백제 연구가 의미있는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자료에 기초한 백제 중심의 패러다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고대 동아시아 역학 구조의 한 축으로서 백제의 진정성을 확보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며, 백제사와 백제고고학의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의 관심사를 이끌어내고 확대하기 위한 세부과제들을 발굴해야 한다. 어느 정도의 노력이 필요할지 현재로선 가늠하기 어렵지만, 이번의 학술대회와 같은 학계의 고민과 실천이 앞으로의 전망을 밝게 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 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韓國考古學事典』, 초판, 국립문화재연구소
- 궁성희, 1986, 「백제의 돌칸흙무덤에 관한 편년」, 『조선고고연구』 1986년 제4호, 사회과학출판사
- 권오영, 1989, 「식민사학의 극복과 고대한일관계: 김석형 《고대한일관계사》」, 『한국역사연구회회보』 2, 한국역사연구회
- 김경삼, 1999, 「위례도읍시기 백제수도의 변천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99년 제2호, 사회과학출판사
- 김경삼, 2002, 「사비도읍시기 백제의 수도형식」, 『조선고고연구』 2002년 제3호, 사회과학출판사
- 김경삼, 2015, 「백제의 도성발전에 미친 고구려도성형식의 선도적영향」, 『조선고고연구』 2015년 제3호, 사회과학출판사
- 김경삼, 2018, 「백제수도성의 변천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2018년 제4호, 사회과학출판사
- 김석형, 1966, 『초기조일관계연구』, 초판, 사회과학원출판사
- 金周成, 1995, 「Ⅲ. 백제의 변천: 3. 사비천도와 지배체제의 재편」, 『한국사 6: 삼국의 정치와 사회 II-백제』, 초판,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 노중국, 2011, 『백제사회사상사』, 초판, 과주: ㈜지식산업사
- 盧重國, 1995,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1. 중앙통치조직」, 『한국사 6: 삼국의 정치와 사회 II-백제』, 초판,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 리 영, 2006, 「백제길그릇에 반영된 고구려문화의 영향」, 『조선고고연구』 2006년 제2호, 사회과학출판사
- 리철영, 2010, 「백제의 돌각담무덤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2010년 제2호, 사회과학출판사
- 박재용, 2017, 「고대 일본의 蘇我氏와 百濟系 씨족」, 『한국고대사연구』 86, 한국고대사학회
- 사회과학원고고학연구소, 1977, 『조선고고학개요』, 초판,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사회과학원역사연구소, 1979, 『조선전사 4: 중세편 백제 및 전기신라사』, 초판,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손영중·박영해, 1987, 『조선통사(상)』, 초판, 사회과학출판사
- 손영중·박영해·서국태·김용간·김성호, 2009, 『조선통사(상)』, 초판, 사회과학출판사
- 안용철·리금산·장창섭·리재홍·방세창·정영수·리군석·서재혁·정혁철·김영일·고성일·선희창·지승철·김은택·리순진·임도준·최인철·김정설·김근일·김은심, 2008, 『조선력사상식』, 3판,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俞元載, 1995, 「Ⅲ. 백제의 대외관계: 2. 백제의 요서영유(설)」, 『한국사 6: 삼국의 정치와 사회 II-백제』, 초판,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 이근우, 2017, 「일본 고대 蘇我氏의 성격에 대하여」, 『역사와 경계』 104, 부산경남사학회
- 이성준, 2017, 「한성기 백제 도성의 개발방식 연구」, 『韓國考古學報』 第102輯, 韓國考古學會
- 이성준, 2018, 『한성백제의 탄생』, 초판, 과천: 진인진
- 이성준·조지현·이우영·김이석·김동호·이상준, 2018, 「익산 쌍릉과 출토 인골의 성격에 대한 연구」, 『韓國考古學報』 第109輯, 韓國考古學會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력사연구소, 1959, 『조선통사(상)』, 초판, 과학원출판소
- 조희승, 2002, 『백제사연구』, 초판, 과학백과사전출판사

분단 70년 북한 고고학의 현주소

북한의 신라 · 가야, 통일신라 고고학 연구 현황

윤 상 덕

(국립중앙박물관)

I. 머리말

II. 주제별 연구현황

III. 북한의 연구 특징

IV. 맺음말

북한의 신라·가야, 통일신라 고고학 연구현황

윤 상 덕 (국립중앙박물관)

I. 머리말

50~60년대에는 북한에서 남한보다 고고학 연구가 활발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신라, 통일신라에 대한 연구도 그러했는데, 당시는 북한에 대한 자료에 접근하기가 어려웠기에 어떤 연구가 이뤄지고 있었는지 우리 학계에서는 잘 알 수 없었다. 80년대 이후에는 남한에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이 시대의 발굴자료도 급증하여 굳이 북한의 연구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분단 이후 70여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북한의 신라·가야, 통일신라 고고학 연구현황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북한도 주된 관심이 고구려, 발해에 있었을 뿐, 신라·통일신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었기에 관련 유적에 대한 보고가 소략하고 충실하지 않았다. 그러나 신라와 통일신라의 영역이 북한까지 미치고 있어 이 시기의 연구에서 북한의 자료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으며, 앞으로 신라·통일신라에 대한 연구도 남한 자료만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보다 북한의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서는 향후 북한 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그간 북한에서 이루어진 연구를 정리하고자 한다. 북한에서 많이 다루어진 연구주제를 9개로 나누어 주제별로 시기에 따른 북한의 연구 성과를 살펴보겠다. 첫 번째 주제는 <통사>류에 보이는 신라·통일신라, 가야에 대한 북한 학계의 인식에 대한 것이다. 여기서는 신라의 삼국통일을 바라보는 시각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그 다음은 우리가 주로 다루는 고고학적인 주제인 무덤, 성곽, 왕경, 토기, 와전, 장신구, 무구, 마구에 대해 시기별로 살펴보겠다.

이상의 주제별 정리를 토대로 북한의 연구 특징에 대해 검토하겠다. 두 가지로 정리했는데 첫 번째는 북한 학계에서 강조되는 삼국 문화의 ‘공통성’과 그 함의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편년의 방법 및 연대관의 변천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다.

한편, 북한의 연구성과 중에 가야를 독립적으로 다룬 내용이 많지 않고 북한에서는 대부분 신라, 가야를 묶어서 설명하고 있으므로 여기서도 신라와 가야를 나누지 않고 함께 살펴보겠다. 용어는 현재 우리가 쓰는 용어를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괄호나 따옴표로 북한의 연구에서 사용한 용어를 구분하였다.

II. 주제별 연구현황

1. <통사>류에 보이는 시대 인식

1953년 발간된 『조선력사』에는 ‘고대 국가의 발생과 발전’을 고조선부터 삼국까지로 보았고 통일 신라 이후를 ‘봉건국가의 성립’으로 보았다. 또한 별도의 장-제6장. 신라의 통일-에서 통일과정을 설명하면서 ‘신라는 대체로 조선 땅을 자기의 영토로 만드는데 성공하였다’고 하고, 신라가 통일을 계기로 봉건국가로 들어갔다고 하였다. 또한 별도의 장으로 ‘제8장 통일 신라와 후삼국’을 설정하여 설명하였다. 이런 서술로 보아 신라의 통일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발해에 대해서는 ‘제6장 신라의 통일’ 하위 소절로 ‘(3) 진국의 성립’이라고 설명하였고, 발해에 대한 별도의 설명은 없고 비중이 적었다(김석형·박시형 1953)

1956년 발간된 『조선통사』에서는 서문에서 언급했듯이 ‘고조선과 삼국의 사회 구성 및 시대구분에 대한 문제는 명확히 규정 못하고 중성적으로 표현하였다’고 하여 봉건사회를 언제부터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발해에 대해서도 ‘응당한 서술 분량을 할당해야’ 함에도 그러지 못했음을 토로하고 있는데 소절(3장 4절)로 소략히 다루었다. 제3장을 ‘신라에 의한 삼국통일’로 설정하고 신라의 삼국통일을 ‘조선 력사 발전에 있어 획기적인 사변’으로 높게 평가하였다. 아울러 그간 많은 공통점을 가졌으나 삼국으로 나뉘어 있던 인민들이 신라의 삼국통일을 계기로 하나의 민족이 되어 급속한 발전을 가져오게 하였다고 하였다(립건상 등 1956). 역시 신라의 삼국통일을 높게 평가함을 알 수 있다.

다음해에 발간된 『조선사 개요-김일성 종합대학 조선사 강좌』에서는 고조선부터 ‘봉건 관계의 발생’시기로 보아 이전의 서술보다 봉건사회의 성립을 올려 보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삼국통일에 대해서는 1956년판 『조선통사』와 같이 ‘제6장 신라에 의한 삼국의 통일’을 두어 신라에 의해 삼국의 통일이 ‘완수’되었으며 ‘조선 준민족이 형성’되었다고 서술하였다. 삼국은 세 개의 ‘준민족(準民族)’이었는데 이들은 형제적 인민으로 서로 많은 공통성이 있었고 7세기 후반기 당 제국의 침략을 반대하는 공동 투쟁에서 삼국 민족간 완전한 단결이 이루어졌으며, 이것이 신라의 의한 삼국통일의 기본 요인이 되었고 조선 준민족이 형성되는 토대가 구축되었다는 것이다. 발해에 대해서도 소절에서 소략하게 다루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소절을 두어 ‘六가야(대가야)’에 대해 설명하였다(채회국·김석형 등 1957)

1962년 발간된 『조선통사』에서는 신라의 삼국통일이 ‘제6장 신라에 의한 국토 남부의 통합과 ... 발해국의 성립’으로 변경된다. 이는 종전에 신라에 의한 삼국통일을 준민족의 형성이라고 할 정도로 높게 평가하던 시각에서 한반도 남부만을 ‘통합’-통일이 아닌-한 것으로 평가절하 한 것이다. 또한 7~9세기를 설명하는 제7장은 ‘신라와 발해의 발전’으로 설정하여 발해를 신라와 동등하게 기술하기 시작하였다(박시형 등 1962). 1963년 조환석의 논문과 최원희(1965)의 장신구 논문, 그리고 박진옥(1967)의 활촉에 대한 논문에서 ‘통합신라’라는 용어가 확인되어 대략 1960년대 이후 ‘통합신라’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64년에 발표된 김영진의 전돌에 대한 논문에서 ‘신라 후기’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김영진 1964) 시기 구분을 위한 용어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1977년 발간된 『조선고고학개요』에는 8~9세기를 북부에는 발해가, 남부에는 신라가 존속한 시기라고 하였고 설명순서도 발해가 신라보다 앞서게 되었으며 분량도 훨씬 많게 되어 발해 중심의 시각을 드러내었다. ‘통일신라’라는 용어는 찾아볼 수 없고 8~9세기의 ‘신라’로 서술하였다. 또한 10세기의 고려를 ‘첫 통일적 중앙집권적 봉건국가’라고 하여 신라의 삼국통일을 부정하였다. 또한 이때까지도 ‘가야’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1977)

1979년 발간된 『조선전사』의 4권 제목은 ‘백제 및 전기신라사’, 5권 제목은 ‘발해 및 후기신라사’로 ‘신라-통합신라’ 용어를 폐기하고 ‘전기신라-후기신라’를 사용하였다. 신라의 한반도 통일은 더욱 평가절하 되었고 당과의 전쟁도 고구려와 백제, 신라 인민들의 투쟁의 결과물임을 강조하였다. 이후 통일신라에 대한 시각은 이를 따르게 된다(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1979)

1991년 발간된 『조선전사』의 4권 제목은 ‘백제·전기신라 및 가야사’로 가야에 대한 서술이 독립적으로 들어가게 된다. 전체적인 설명은 이전의 기초를 유지하였다(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1991)

2. 무덤

1950년대의 신라, 가야, 통일신라 고고학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시기 주된 연구는 무덤에 대한 것이다. 선사시대 무덤을 설명한 (I)편에 이어 1957년에 삼국시대의 무덤을 설명한 논문이 정백운에 의해 발표되었다(정백운 1957) 고구려, 백제, 신라에 대해 설명하였는데 이후의 시각과는 조금 다른 견해가 섞여 있어 흥미롭다. 우선 ‘가야’에 대한 언급은 없고 낙동강 유역의 무덤에 대해 일괄해서 설명한다. ‘고신라시대’의 무덤은 적석목곽분(나무곽돌무덤), 석곽묘(돌곽흙무덤)가 있으며 석실분(돌간흙무덤)을 사용했던 동시기 고구려 백제 무덤과 다르다고 하였다. ‘신라 통일기’는 횡혈식 석실묘로 이는 고구려, 백제의 초기 석실분과 비슷하다 하였다. 특히 낙동강 유역을 비롯해서 각 지역의 무덤이 다양하며 이는 조선의 원시 장제-토광묘, 지석묘, 적석묘 등-에 고대 중국인을 비롯한 인근 제 종족들의 형식을 수용하여 이런 다양한 전형들을 창조하였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는 한민족의 단일성을 강조하며 선진 고구려의 양식이 일관되게 영향을 미쳐 삼국의 무덤 양식이 매우 비슷함을 강조한 70년대 이후의 서술과는 큰 차이가 있다.

한편, 북한 지역에서 실제 신라, 통일신라의 고고학 조사가 이루어진 사례도 여러 건 보이며 50~60년대에 집중적으로 보고되었다. 대부분 강원도와 함경남도 일대의 신라 산성과 무덤으로 신라가 진흥왕대에 동북지역에 진출한 것과 관련된 것이다.

먼저 강원도 안변군 통성리 고분 5기에 대해 57년 5월에 발굴조사가 있었고 58년에 보고되었다(량익룡 1958). 이 무덤은 지하식의 횡구식 석실분으로 추정된다. 이 중 4기는 길이 약 4m, 폭 약 1.5m로 상당히 크며 10여 개체분의 인골도 수습되었다. 신라토기와 금제반지, 철제도자가 출토되었고 토기는 단각고배와 직구단경호 등이다. 보고자는 낙동강 유역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서 만든 것으로 보았다. 또한 북쪽 사면을 매장지로 사용한 것은 고구려나 신라 무덤과는 다르며 이 지역의 고대 종족들이 신라 문화의 영향 아래에서 자기의 고유한 풍습을 ‘다분히 견지하면서’ 살아오던 지방 통치계급의 무덤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점은 각 지역별 다양성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는 서술이다.

한편, 발굴 보고 뒤 7년이 지나 1965년에 인골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여기서는 인골의 특징을

기술하고 이들은 한반도의 다른 지방에서 나온 인골 및 현대 조선인의 경우와 큰 차이가 없는데 반해 중국과 일본인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어 신석기부터 현대까지 조선인의 인류학적 형태에 많은 공통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라 하였다(백기하 1965). 이렇게 한반도인이 중국 및 일본인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시각은 계속 강화되었다. 1999년 김해 예안리 인골에 대한 분석에서도 예안리 주민은 조선옛류형사람, 현대조선사람과 큰 편차가 없으며 일본과 북중국과는 다른 먼 관계에 있어 민족의 단일성을 보여준다 하였다. 또한 예안리 인골은 가야지역에 임나일본부가 있었다는 주장이 인류학적으로 근거가 없음을 보여준다고 하였다(김영일 1999) 또한 고구려인 머리뼈 8개체, 신라(룡성리) 머리뼈 2개체의 분석을 통해 고구려와 신라 머리뼈는 서로 유사하며 선행하는 고대조선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한 핏줄을 나눈 집단이었다고 설명하였다(김정철 2003).

룡성리 무덤에 이어 1958년 강원도 통천군의 구읍리 어은골 무덤도 발굴되었다(량익룡 1962) 신라 무덤으로 25기 중 7기를 조사하였고 신라토기가 출토되었다. 모두 연도가 있는 석실분으로 천장 구조와 관대 시설로 3개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선후관계를 추정하였다. 결론적으로 토기로 보아 5세기 이전은 아니고 6~7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진흥왕의 영토확장의 증거라 하였다. 주목 되는 것은 일제학자들이 석실 무덤을 일률적으로 통일신라시대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지적하고 나아가 통일 후에는 석실무덤의 조성은 점차 없어져 간다고 설명한 점이다.

1964년에는 신라 무덤의 종합적인 편년을 시도한 논문이 박진옥에 의해 발표되었다(박진옥 1964). 그는 신라 무덤을 ①적석목곽분, ②수혈식 석곽묘, ③석실분으로 크게 나누고 각 유형의 연원을 설명하였다. 적석목곽분은 적석묘와 목곽묘가 결합된 것으로 적석묘는 다시 변형 지석묘의 지하 구조에서 왔으며 목곽묘는 종래 경주지역의 무덤에서 왔다고 보았다. 적석목곽분은 경주에 집중 분포하며 왕실과 관계가 깊고 수혈식 석곽묘는 지방 호족 및 관리들의 무덤으로 보았다. 적석목곽분은 한 개의 곱이 있는 외곽무덤, 두 개 이상의 곱이 있는 다곽 무덤으로 구분하고 다곽 무덤은 가족 또는 부부무덤이라 하였다. 다곽묘에서 외곽 무덤으로 변화하며, 부곽이 있는 것에서 없는 외곽 무덤으로 변한다고 설명하였다. 주곽과 부곽이 나란히 있는 무덤도 다곽묘로 분류한 것은 우리의 분류와는 차이가 있다. 무덤의 절대연대에 처음으로 호우총과 서봉총이 등장하며 호우총은 415년 직후, 서봉총은 연수원년(延壽元年) 신묘년을 391년으로 보아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로, 그리고 보문리 부부총¹⁾은 5세기 전반 내지 중엽으로 보았다. 시기를 상당히 올려 본 것을 알 수 있다. 석실분은 연도 없는 묘와 연도 있는 묘로 나뉘며 연도 없는 무덤은 고구려와 백제의 석실분 영향을 받아 수혈식 석곽묘가 석실봉토분으로 전환하는 과도적 형식으로 보았다. 연도가 있는 무덤은 양상 부부총과 충효리 무덤이 대표적으로, 양상 부부총은 5세기 후반기, 충효리는 출토 골호로 보아 ‘통합’ 직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이어 1966년에 적석목곽분을 종합한 논문이 발표된다(고고학연구실 1966). 앞의 박진옥의 글에서 제시한 외곽식과 여러곽식 무덤으로 분류하는 것, 선행 무덤의 형식을 계승 발전시킨 것이라는 시각은 차이가 없으며 당시까지 발굴된 주요 무덤-황남대총, 금관총, 금령총, 서봉총, 호우총-의 성격을 살펴보았다. 이 중 서봉총은 신라가 자기 고유의 연호(延壽元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1) 필자는 보문리 ‘합장분’이 명칭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나 여기서는 북한에서 기술하는 ‘부부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 國立慶州博物館, 2011, 『慶州 普門洞合葬墳-舊 慶州 普門里夫婦塚』.

알려주며, 5세기 초인 호우총이 발굴되어 서봉총 ‘연수원년’을 391년까지 올릴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초 4세기 무렵으로 보았던 무덤 중에 많은 수가 2~3세기로 올라간다고 하였다. 또한 일본의 고분 시대 무덤에 신라 무덤 출토품과 같은 유물이 발견되어 일본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이후 호우총 등 적석목곽분 주요 무덤에 대한 짧은 자료 소개 성격의 글이 게재된다. 1966년에는 서봉총을 설명하면서 ‘통합이전’ 신라의 적석목곽분으로 설명하였다. 식리총의 설명 글에서는 ‘신라 전기’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된 것이 주목된다. 금관총, 금령총, 호우총과 유사하여 같은 시기로 보아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로 추정하였다(사회과학원 고고학및민속학연구소 1966-3). 한편, 호우총에 대해서는 ‘415년에서 그리 멀지 떨어지지 않은 시기’로 보며 신라의 5세기 문화를 파악할 수 있는 고분 편년에 중요한 위치를 가진다고 평가하였다(사회과학원 고고학및민속학연구소 1966-4) 호우총 연대 추정을 기화로 신라무덤의 연대를 상당히 올려보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1967년에는 다시 무덤 발굴조사 결과를 보고하였다(백련행 1967). 강원도 고성군 봉화리 무덤으로 6기를 발굴하였는데 1~3호에서 유물이 출토되었다. 1호 무덤에서 신라의 금제 귀걸이 1쌍, 청동팔찌 1쌍, 그리고 관 손잡이가 출토되었다. 구조에서도 신라의 수혈식 무덤과 유사하다고 보았다.

이어 같은 해에 박진욱에 의해 동해안 일대의 신라 무덤에 대해 종합한 글이 발표되었다(박진욱 1967). 강원도와 함경남도 일대 신라무덤을 석곽묘와 석실분으로 나누고 다시 석실분은 안길 유무와 천장 구조로 나누었다. 동해안 일대의 무덤도 경주의 신라 무덤 변천과정을 거쳤을 것이라 하고 이 지역의 편년은 가장 먼저 ① 석곽묘(안변군 용성리, 고산군 고산읍), 그 다음은 ② 안길 없는 석실분(고산읍, 함경남도 무덤 때), ③ 평천장+안길 있는 석실분(용성리, 함경남도 및 통천군 구읍리), ④ 고임천장 또는 궁륭천장의 석실분(통천군 구읍리)의 순으로 설정하였다. 편년에 참고한 경주지역 편년은 적석목곽분은 5세기 후반기에 사라지며 안길 있는 석실분이 6세기에 나타난다는 것이며, 함경남도에 석곽묘가 없는 것은 568년 세워진 순수비가 상한이기 때문이라 하였다. 결국 안변, 고산의 무덤(①)은 5세기 후반부터 6세기, 함경남도 일대는 6세기 후반(②, ③), 통천군 구읍리 무덤(④)은 7세기 후반기로 보았다. 이렇게 70리마다 하나씩 있는 무덤군과 7개의 신라성은 6세기 중엽 신라의 영토확장의 결과로 보았다.

1977년 발간된 『조선고고학개요』에는 이를 종합하여 정리하였다. 몇 가지 수정, 보완된 부분이 있는데, 무기류가 많은 무덤을 남성으로 보아 호우총과 은령총을 부부의 무덤으로 보았다. 황남리 109호는 다곽묘로 가족묘인데 3곽은 무기류와 마구류로 보아 남자, 2곽은 절그릇과 1개의 손칼만 있어 부인, 1곽은 긴 칼과 관모가 있어 남자인데 콧이 좁고 관모가 작아 아들로 보았다. 적석목곽분에서 석실분으로의 전환을 설명하면서 서봉총의 연대를 60년 늦춰 5세기 중엽으로 설정하였고 서봉총이 가장 늦은 무덤으로 5세기 중엽에 석실분으로 넘어갔다고 하였다. 그 원인은 고구려와 백제의 석실묘가 전해졌기 때문인데, 신라 석실분이 경기도 광주의 백제 것과 구조가 비슷하다고 지적하고²⁾ 고구려, 백제 사이에도 석실분에서 공통성이 많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적석목곽분은 독특한 신라 고유의 묘제로 이시기의 삼국은 독자적인 길을 걸었으나 이후 점차 상호 교류가 잦아져 공통성이 커졌다고 하였다. 공통성은 단일민족을 증명하는 것이고 공통적인 문화요소는 결국 고구려

2) 최근 한성기의 백제 석실분이 보고되고 있으나 여기서 예를 든 경기도 광주의 무덤은 가락동이나 매룡리의 신라 석실분으로 보인다.

문화요소가 기본적이고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다시 일본에 전해져 문화발전에 영향을 주었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교시’라는 형태의 지침 때문에 이후 삼국 문화의 공통성과 고구려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기본적인 틀이 된다. 한편, 『조선고고학개요』에서는 ‘세나라시기’에 이어 ‘8~9세기의 문화’를 설정하였는데, 이 시기의 신라무덤은 석실분과 뼈단지무덤을 들었다. 석실분은 호석과 무덤구역시설, 비석이 있는 무덤으로 패릉, 무열왕릉이 대표적으로, 호석은 고구려 동명왕릉에서 시작하였고 무덤구역시설은 장군총에서 보인다고 하였다. 뼈단지무덤은 화장무덤으로 문무왕이 제일 먼저 시행했다고 하였다.

1986년 이후부터 『조선고고연구』로 바뀌어 고고학 논문이 발표되기 시작하였다. 1986년 일본 고분의 구조와 부장품을 한반도와 비교하여 일본 고분문화의 발전에 삼국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글이 권기홍에 의해 발표되었다(권기홍 1986). 또한 1987년에는 일본 고분 중 수혈식석곽의 내부 구조는 가야의 석곽과 공통점이 많으며 다인합장은 가야와 신라의 것과 같고, 횡혈식 석실분은 백제와 같은 구조라고 하면서 일본 고분문화의 원류가 조선에서 기원하였다는 설명으로 나아갔다. 가야의 무덤이 언급된 것이 주목된다(권기홍 1987). 권기홍은 1994년에는 규슈의 초기 횡혈식 석실의 연원은 가락리 2호묘, 매룡리 8호묘, 중곡리 갑분 같은 백제 초기 석실에 있다고 다시 강조하고 이는 백제에서 건너간 사람의 무덤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권기홍 1994).

또한, 새롭게 관심을 두기 시작한 부분은 가야이다. 권기홍의 1987년 논문에서도 일본고분과의 비교에서 일부 언급되었는데, 이후 가야의 무덤과 부장품을 주제로한 논문이 발표되었다(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1987). 현재 우리학계와는 달리 가야의 무덤이 낙동강 이동 지역인 대구, 양산, 창녕 지방에도 있다고 설명하였다. 4~5세기 무덤에는 석곽묘, 전방후원분(고성 송학동 1호분), 석실분, 석곽적석분(칠곡 구암동 56호)을 들고, 횡구식 석실은 고구려 백제의 영향으로 횡혈식석실분이 출현하기 전의 과도기적 양상이라 하였다. 껍묻거리 중 무기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것과 같고 마구도 많이 제작되었으며 토기는 신라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였다.

이어서 궁성희도 가야 석실분만을 대상으로 한 글을 발표하였다(궁성희 1987-2). 가야 석실분을 연도유무와 천정형태로 나누어 연도가 없는 평천정 무덤이 가장 이른 것이고(4세기경) 5세기에는 연도가 달린 평천정 무덤으로 발전하며, 6세기에는 다양한 형식의 천장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한 일찍 나라가 망해서 전형화된 석실분으로 발전하지 못했다고 설명하였다. 석실분의 분석에서 남한에서 보고된 여러 유적의 발굴자료를 들고 있는데, 이 중에 많은 지역(대구, 안동, 의성, 성주, 양산 등)은 지금은 신라의 영향 하에 조성된 것으로 보는 자료를 사용한 한계가 있다. 북한 학계에서는 경주를 제외한 낙동강 이동지역도 가야의 영역으로 보는 인식을 계속 가지고 있다.

1987, 88년에 궁성희는 가야 석실분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삼국의 석실분에 대해 일련의 글을 발표하고(궁성희 1986, 1987-3, 1987-4) 삼국의 석실분에 대해 종합한 논문을 발표한다(궁성희 1988). 신라의 석실분은 ① 평천정+연도 없는 무덤(황남리 151호/5세기 말) → ② 평천정+연도 치우친 무덤(보문리 부부총/5세기말, 6세기초) → ③ 공룡천정+연도 치우친 무덤(충효리 6, 9호/6세기 후반) → ④ 공룡천정+연도 중앙 무덤(충효리 10호/7세기) 순으로 변화하며, 각 시기는 호우총, 서봉총을 5세기 중엽으로, 어숙술간무덤과 순흥벽화무덤은 6세기, 그리고 충효리 토기 등을 참고하였다. 호우총, 서봉총, 보문리 부부총의 절대연대가 이전 글에 비해 다소 늦춰진 것을 알 수 있다. 궁성

회는 이어서 삼국의 석실분의 공통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는 1977년 『조선고고학개요』에서 강화된 서술방향이다. 세 나라의 공통성은 무덤의 위치와 방향이 일치하는 점, 내부 구조, 천정, 벽체 축조 방법과 벽면 후처리, 벽화, 배수로와 관대 등을 들었다. 이는 3세기 고구려에서 발생하여 백제로, 그리고 다시 신라와 가야로 전해진 것으로 고구려의 선도적인 역할이 있었다고 하였다. 한인호는 고구려에서 영향을 준 요소로 고구려 사신도를 들고 신라의 어숙술간무덤의 연꽃무늬가 고구려의 것과 유사하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한인호 1988-1).

이 시기 통일신라 무덤과 관련해서 보이는 글은 고려시기 무덤의 연원에 대한 것이다. 고려시기의 석실분이 발해와 후기신라의 석실분과 많은 공통점을 가진다는 것이다. 흙으로 봉분을 만들고 둘레에 병풍돌 돌린 뒤 다시 돌담을 두르며 각종 석조 시설물을 배치하는 것이 그것으로 이는 고구려의 석실분이 발해와 ‘후기 신라’에 계승되고, 고려까지 계승 발전되었다는 것이다(리창언 1991-2). 김인철은 고려 왕릉에 초점을 맞추어 후기신라의 왕릉과 비교하여 일부 유사한 점과 함께 차이점을 설명하였다(김인철 2006). 또한 왕건이 한족 출신의 후손이라는 견해에 대해 왕건릉이 고구려에서 발해 및 후기신라의 석실분을 계승한 점 등을 들어 왕건은 조선인이라는 결론을 내었다.

한편, 개성시 룡흥동 1호 석실분을 통해 흥미로운 주장도 발표되었다. 이 무덤은 10세기에 축조된 고려의 왕이나 왕비의 무덤인데 특이한 것은 병풍돌이 후기신라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 후기신라 지역과 연관된 인물-경주 출신 왕비가 아닌가 하는 추정을 하였다(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2015-2).

2012년 로영철은 신라 적석목곽분의 발생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였다(로영철 2012-1). 한반도에 유행하던 목곽묘와 고구려의 적석총이 결합한 무덤이라는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호우총이나 황남대총에서 출토된 고구려계 유물과 광개토대왕 남정 전후의 역사적 상황을 들어 고구려의 영향이 강하게 미쳤다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남한 학계에서 제기되었던 북방아시아에 연원이 있다는 학설을 두 지역 무덤의 구조적인 차이와 그 사이의 큰 시간차를 들어 비판하였다.

3. 성곽

북한 지역에 소재하는 신라 유적은 대부분 산성과 그 주변의 무덤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일찍부터 진행되었다. 앞 장에서 소개한 것처럼 1957년 룡성리 고분(량익룡 1958-4), 1958년 구읍리 어은골 무덤(량익룡 1962-4)이 발굴되었다. 1960년에는 그간 조사된 함경남도의 산성과 무덤에 대한 한석정의 보고가 있었다(한석정 1960-2). 함경남도의 유래를 알 수 없는 산성에 대한 조사로 주변의 고분을 함께 조사한 것이 특징이다. 여러 근거를 제시하며 산성이 누구에 의해 축성되었는지를 추정하였다. 먼저 이들은 위치로 보아 옥저나 고구려의 산성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산성 내 건물지 주변에서 수습된 토기와 기와가 신라토기와 유사한 점, 산성 위치가 북쪽에서 오는 적을 방어하기 위해 축성 한 점, 함북지역에는 없고 함남에만 있는 점, 주변 석실분의 구조가 영남지역 것과 유사한 점을 근거로 신라 산성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이 산성과 200~1200m 떨어진 곳에 반드시 무덤군을 조영하였고 이 무덤에서는 (신라)토기가 출토되었다고 하였다. 이 산성의 배치는 진흥왕 순수비 위치로 알 수 있는 신라의 강역과 일치하다고 설명하였다.

이어 1964년에는 동해안 지역의 ‘산봉우리성’(산정식 산성)에 대한 글이 발표된다(량익룡 1964-2).

이 성들은 신라 무덤과 인접해 있는 것이 특징으로 마운령이 북쪽 한계선으로 신라의 성으로 추정하였다. 그는 출토토기를 ‘신식 1형 도기’와 ‘신식 2형 도기’로 구분하고 함경남도의 성곽 무덤에는 신식 1형만이 보이고 강원도에는 1형과 2형이 모두 보여 문헌에 보이는 이 지역에 대한 신라 통치 기간과 합치한다고 하였다.³⁾ 그리고 이러한 ‘산봉우리성’은 장기간 농성이 불가하여 전투를 주목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현 소재지에 자리하여 점령지역을 공고히 하는 기능을 가졌다고 하였다.

이후 이 지역의 개별 산성에 대한 연이은 조사보고가 발표되었다. 1967년에 서곡산성 답사보고에서는 신라의 토기와 기와가 수습되었고 인근에 100여기에 달하는 석실분과 석곽묘가 있으며 신라 토기가 출토된다고 하였다(안병찬, 1967). 같은 해 교성리토성에 대한 답사보고에서는 신라토기와 기와조각이 보여 신라산성임을 알 수 있고, 이 지역을 통일신라시대의 정천군터로 추정하였다(리정기 1967) 1994년에는 학성산성에 대해 보고하였는데 당초 신라가 처음 쌓은 성으로 알려졌으나 내부 출토된 기와로 보아 고구려 시기에 처음 축조되어 신라, 조선시대에 걸쳐 사용된 것으로 추정하였다(남일룡 1994).

1977년 『조선고고학개요』에서는 세나라의 산성은 모두 교통요충지에 위치하고 자연지세를 이용하며 돌로 축조하는데 고구려의 기술이 뛰어났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산성을 기본 방어수단으로 하고 치, 겹성 등 새로운 시설물을 창조한 것도 공통점이라고 하였다.

2013년에는 삼국시기의 산성형식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최웅선 2013) 고구려의 산성은 ‘고로봉식(포곡식) 산성’으로 백제나 신라에 비해 규모가 컸다. 백제, 신라는 ‘산봉우리(산정식)산성’이 많은데 포곡식에 비해 방어력이 약하고 장기전을 하기에 불리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차이의 원인은 지리적 조건 때문으로 고구려는 다른 나라와 인접하여 적들과 전쟁을 위해 규모가 큰 포곡식 산성을 쌓았고, 백제와 신라는 고구려의 남진에 직면하여 포곡식을 축조하기 시작하였다고 하였다.

4. 왕경

1977년 『조선고고학개요』에서는 통일신라 시기의 도성에 대해 설명하면서 거리를 바둑판처럼 정연하게 구획한 리방이 있었고, 수도를 성벽으로 두르는 도성제도는 출현하지 않고 주변 산성으로 방어하는 방식이었다고 하였다. 도성제도는 고구려에서 발해, 그리고 고려로 이어졌다고 하였다.

1987년 한인호는 고구려, 발해, 후기신라의 리방제도에 대해 설명하였다(한인호 1987). 신라의 리방제도는 한구획을 4등분하는 ‘田’자 형태로 1개 방은 400자(140m) 너비인데 여기에 35cm의 고구려자가 적용되었으며, 왕경은 전체 64개리로 계획되었는데 산지를 빼면 35~55리로 되어 있고 1리는 16개 방으로 구성되었다고 하였다. 고구려자의 적용, 1개 방의 크기는 일제시대 연구를 참고한 것으로 보이며 리와 방의 숫자는 추정 근거가 불분명하다.

김경삼은 1998년부터 2014년까지 신라의 수도형식(리방제도)이 고구려의 것을 모방했다는 주장을 발표하였다. 5세기의 신라 수도 형식이 고구려를 모방했다는 근거는 첫째 고구려가 평양 천도시(427년) 수도 형성이 끝났는데 신라는 469년 리방체계를 갖추었으며 명활산성을 처음에는 산정식으로 쌓다가 473년 고구려의 축성법을 받아들여 포곡식으로 쌓은 점, 그리고 신라본기에 고구려본기

3) 토기에 대해서는 5절(토기)에서 자세히 소개하겠다.

에는 없는 ‘평양에 큰 다리를 놓았다’라는 기록이 있어 고구려 수도건설에 관심을 가진 자료가 있는 점을 들었다. 결론적으로 신라 수도의 형식인 평지성(월성)과 산성들(명활산성 등)의 결합 체계는 고구려의 영향이라고 주장하였다(김경삼 1998) 2013년에도 신라의 평지성(월성)과 산성의 결합은 고구려 수도 형식의 영향을 받아 발전했다고 재차 설명하고, 5세기 명활산성 축조에 이어 6세기에는 고구려의 ‘고로봉식’(포곡식) 축성법을 도입하여 남산신성, 명활산성, 서형산성을 개축하였다고 주장하였다(김경삼 2013). 이어서 신라의 리방제를 설명하면서 리방제의 도입을 삼국사기의 667년 우리 방부의 설치, 695년 시장설치, 677년 좌우사록관 설치를 근거로 하여 7세기 중엽에서 말에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다(김경삼 2014). 그러나 469년 방리이름을 정한 기록이나 509년 시장설치 기록을 고려하지 않은 점, 법률을 담당하는 리방부와 관리들의 녹읍을 관리하는 사록관의 설치가 리방제의 도입과 연관이 있다는 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고, 고고학 자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도 아쉬운 점이다.

5. 토기

1963년 조환석은 현대 도자기의 치장 방법의 유래를 연구한 글을 발표하였다(조환석 1963). 여기에서 ‘새겨 치장하는 방법’ 중 굵은 수법과 새기는 수법은 신라 토기에서 다양하게 보이며 세련된 솜씨를 확인할 수 있다 했다. ‘찍어 치장하는 방법’은 삼국시대의 ‘인화문’으로 발전하여 ‘통합신라’ 때 작은 꽃잎무늬로 광범위하게 보급되었다 하였다.

1964년에는 전장석이 신석기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 도자공예의 발전에 대해 발표하였다(전장석 1964). 그는 신라는 삼국 중 도자 공예 생산이 가장 발전한 나라로 가마에서 고온으로 제작되었고 인화법 등 장식 방법이 다양하게 발달하였으며 녹유와 황갈유가 널리 보급되었다 설명하였다. 또한 토기의 이용영역이 확대된 것도 신라의 특징으로 용기에서 건축용재, 명기, 제기, 악기, 토용 등 다종 다양하게 발전했다고 하였다. 또한 상형토기와 토우 등 물건을 형상화한 것이 많은데 기발한 조각품으로 예술적으로 형상화하여 놀랍다고 평가하였다.

같은 해 량익룡은 앞서 소개했던 동해안 지역의 산성을 설명하면서 신라토기에 대한 세부 분류를 하였다(량익룡 1964) 그는 출토토기를 두 유형으로 구분하였는데 첫 번째는 ‘신식 1형 도기’로 이전의 ‘고식 도기’의 발전형으로 ‘고식에 비해 기형이 둔중하고 굵이 낮으며 투공도 작거나 없어졌으며 문양에도 삼각, 원 등의 압인 무늬가 많다’고 하였다. 여기에는 유개고배, 완, 병 등이 속하고 시기는 6세기 초, 중엽부터 유행했다고 하였다. 두 번째는 ‘신식 2형 도기’로 합盒 형의 그릇이 대표적이며 원점무늬를 찍었는데 1형의 발전형으로 연도가 있는 방형 석실분과 뼈단지에서 보이므로 신라 통일 전후부터 유행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였다. 당시는 신라토기 자료가 부족하고 남한에서도 편년이 세분화되기 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분류와 편년이 상당히 합리적이었다고 생각한다.

1977년 『조선고고학개요』에는 신라, 가야의 그릇은 초기에는 ‘갈색간그릇’과 ‘검정간그릇’을 쓰다가 후에 회색의 ‘오지그릇’을 썼으며 질이 우수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이형토기라고 하는 명기가 있어 그릇에 말, 오리, 수레바퀴, 말탄 사람, 짐 등을 형상화한 게 많고 그릇으로서 구상이 독특하여 공예적 가치가 높다고 하였다. 또한 각종 동물과 사람을 포함한 토우도 예술적 기교와 기발한 착상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통일신라의 토기에 대해서는 인화문 녹유단지는 신라도자기 공예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고 유약바른 도기를 만들고 ‘자기’를 만들었는데 이러한 전진은 삼국의 공예에 기초했기에 가능한 것이라 하였다. 내용이 소략하고 적석목곽묘 출토토기는 통일이전으로, 인화문과 골호를 통일신라토기로 분류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1991년 리광희는 고구려토기의 장식무늬에 대해 설명하면서 고구려 중엽부터는 안학궁터에서 많이 보이는 누르기 기법에 의한 무늬가 성행하는데 이것이 신라에 전파되어 ‘후기신라’의 질그릇에 많이 보이는 인화무늬의 직접적인 조상이 되었다고 하였다(리광희 1991) 그러나 본문에서 도면이나 사진을 확인하지 못하여 ‘안학궁터에서 많이 보이는 누르기 기법’이 무엇인지, 혹시 신라토기일 가능성은 없는지 의문이다.

한편, 우리나라 자기의 발생과 발전을 강조하는 시각에서 자기, 삼채도기, 녹유도기 등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1992년 김영진은 고려의 원산리 자기터의 발굴결과를 통해 초기 도자 생산에 대해 언급하면서 1호 가마를 고구려 가마로 설명하고 신라 유적에서 출토되는 자기들을 중국 당나라 산으로 보는 남한 학계를 비판하였다. 즉, 남한에서는 미륵사, 부소산성, 무령왕릉, 황룡사 심초석 아래 자기를 외래산으로 보았으나 원산리 1호에서 이미 자기가 보이므로 원산지는 ‘조선’이라고 주장하였다. 2호 가마는 9~10세기에 해당하는데 청자가 다양하고 이미 발전된 모습이다. 이와 같이 한반도 도자문화가 10세기에 이미 발전기에 들어간 토대는 삼국시기이며 시원은 기원전후까지 소급된다 하였다(김영진 1992). 또한 발해삼채의 연원은 고구려의 색유도기에 있다고 설명하고 당삼채로 인식하고 있는 신라 유적에서 발견되는 삼채도기편과 일본의 삼채도기도 발해 삼채가 있을 수 있으며 구체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였다(김영진 1997).

마지막으로 일본 고분시대 문화가 한반도의 강한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은 북한 학계에서 자주 다루지는 주제이다. 2001년 하경진은 일본 고분시대 하지끼와 스에끼를 비교하여 둘은 전혀 달라 스에끼가 하지끼를 계승한 것이 아님을 설명하고 스에끼의 연원을 한반도 도기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하경진 2001).

6. 와전

1964년 전장석은 도자공예에 대해 설명하면서 신라의 전돌에 대해 언급하였다(전장석 1964). 사천왕사터에서 출토된 사천왕상은 조각기법이 사실적이며 녹유를 발라 아름답다고 평가하였고, 신라의 벽돌과 와전 무늬는 공예술의 극치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1964년 김영진은 전돌의 무늬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였다(김영진 1964) 식물무늬 중 연꽃 갈래 무늬는 신라에서 가장 정교한 기교를 부렸고, 신라 초기의 끝이 뽕족한 꽃잎 모양은 삼국의 공통점이라 하였다. 연꽃 무늬는 ‘신라 후기’에 더욱 발전하였고, 동물무늬는 실제 동물과 환상적인 동물 무늬로 나뉘며 신라 막새에 많으며, 환상적인 내용은 동물, 사람무늬 등 다양하며 사천왕상도 7세기 말엽에 신라에서 벽돌장식으로 만들어졌다고 설명하였다. 결론적으로 3국은 각기 세부적인 무늬에서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의 무늬들에서는 공통점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는 선조들이 동일한 계열의 사람들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였다. 또한 신라 후기의 성과를 높게 평가하여 삼국 무늬 유산은 신라 후기에 와서 종합되었다고 하였다.

1977년 『조선고고학개요』에는 신라의 기와는 대부분 수키와와 암키와이고 귀면와와 치미가 더러

있으며, 수키와 막새무늬는 연꽃무늬가 기본을 이루고 있다고 하였다. 연꽃무늬는 초기에는 백제의 것과 비슷하나 점차 복잡한 형태를 갖추어갔다고 보았다. 세나라의 기와와 벽돌은 각기 특징이 있는데 고구려는 운건하고 백제는 부드럽고 우아하며, 신라는 섬세하고 화려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생김새나 무늬에서 세나라는 공통점이 많으며, 모두 높은 생산기술과 공예술을 가졌다고 설명하였다.

2010년에는 윤광수는 삼국시기 기와의 공통성에 대해서 설명하였다(윤광수 2010). 삼국이 건국 초기부터 기와를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신라의 경우 삼국사기 기록을 통해 2~3세기에 기와를 사용하였다고 하였다. 삼국 기와의 공통점으로는 첫째 종류가 비슷하며, 둘째 모두 연꽃무늬를 주로 사용한 점, 세 번째는 암막새 문양이 비슷함을 들었다. 신라의 막새는 6세기 초부터 시작되었는데 연꽃무늬에서 고구려와 백제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았다. 결국 이러한 공통성은 고구려의 선도적이며 적극적인 역할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평가하였다. 그는 기와의 출현을 설명하는데 고고학 자료가 아닌 문헌자료를 그대로 사용하여 실제와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윤광수는 다음해 기와제작법에 대한 글을 발표하였다(윤광수 2011-1). 앞 논문과 달리 유물을 관찰한 결과를 정리하였다. 점토관 준비, 와통형태, 마포사용, 박자모양, 건조와 분할, 막새접합 방법, 가마 소성 등을 차례로 설명하였다. 고구려와 백제는 모골와통을 사용하고 신라는 초기에는 모골와통을, 이후는 통쪽와통을 사용하였다고 하였다. 분할 흔과 막새접합 흔적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다. 이어서 삼국의 서까래기와의에 대해 발표했는데 서까래기와는 고구려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져 ‘동족의 나라’(백제, 신라)는 물론 고려시기까지도 쓰였다고 하였다(윤광수 2011-4).

7. 장신구

1965년 최원희는 남자의 관모에 대해 설명하였다. 절풍을 설명하면서 신라의 양산 부부총과 금령총에서 출토된 자작나무 관모와 금령총 기마인물토기의 인물이 쓴 고깔모양의 모자가 절풍인데, ‘통합 신라’말부터 옷 전반이 변화되면서 자취를 감추었다고 했다. 금관은 삼국에 모두 있었으며 금관총의 것이 전형적인 것이라 하였다. 내관과 외관으로 구성되었다고 하였는데 이는 일제시대에 모관과 조익형관식을 내관으로 본 견해를 따른 것이다. 또한 금관의 세움 장식을 모두 꽃나무 모양의 장식으로 보아 ‘앞의 3개의 장식은 대생상(對生狀)으로 뻗었고, 뒤에 2개의 장식은 거생상(巨生狀)으로 뻗었다’고 하였다. 금관 역시 삼국시기를 지나면 점차 자취를 감춘다고 하였다(최원희 1965).

1977년 『조선고고학개요』에서는 금속가공기술의 발달이라는 주제로 신라의 금속제품을 설명하였다. 먼저 삼국에 주조기술이 발달했는데 청동그릇, 거울, 호우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 누금세공기술, 판금기술, 루각(투조)기술, 도금기술 등이 있으며, 이들은 금관에서 잘 나타난다고 하였다. 최원희와 같이 금관은 내외관으로 구성되었고 세움장식은 5개의 꽃나무 모양의 장식으로 보았다. 세 나라의 금관을 비교했을 때 세부적으로 나라마다 특색이 있으나 그 기본형식은 같으며 세부에서도 공통점이 많다고 하였다. 신라 금은세공기술의 최고수준을 과시하는 걸작품은 보문리 부부총 금귀걸이이며, 노서리 215호의 금팔찌와 목걸이, 금관총의 허리띠, 식리총의 금동신발도 훌륭한 솜씨를 보인다 하였다.

1992년 궁성희는 금관에 초점을 맞춘 글을 발표하였다(궁성희 1992). 금관은 금속공예의 발전 정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외관과 내관으로 되어 있으며, 신라의 금관은 5개의 식물무늬 장식을 세운 것이 대표적이라 하였다. 가야의 금관도 설명하면서 다양함을 지적하였는데, 그러한 이유는 백제, 신라 등 주변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 하였다. 그러나 지산동 32호 외에 신라의 영향으로 생각되는 의성, 창녕, 복천동 것 등 신라의 것을 포함하여 다양하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생각한다. 결론으로 모든 나라들의 관에 고구려적 요소가 강하게 반영되어 있어 고구려 문화가 이웃 동족 나라들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공통점이 많은 것은 한반도 각국의 사람들이 같은 겨례로서 같은 미감을 가지고 하나의 민족문화를 창조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2003년 리광희도 백제, 신라, 가야의 금속공예품에서 보이는 공통점을 고구려의 영향으로 설명했는데 4~5세기 고구려의 남진 영향으로 보았고(리광희 2003) 이는 북한의 연구 저변에 깔린 시각이다.

2007년 리철영은 삼국의 귀걸이의 공통성에 대해 발표하였다(리철영 2007). 신라의 귀걸이 중 황남대총 북분에서 출토된 원추형 드림장식을 갖춘 귀걸이는 고구려 제품으로 보이는 등 기본 구성이 고구려 및 백제의 것과 같으며, 가야는 기본 형태는 백제의 것과 거의 같은데 굽은고리 귀걸이는 거의 없고 대부분 가는고리 귀걸이라고 하였다. 형태상 드림장식에서 공통점이 있고, 제작기법에서도 도금기법, 누금세공기법, 감옥장식도 공통점이라 주장했다. 앞선 연구자들과 같이 공통성을 이루는 이유로 고구려의 선도적인 역할, 즉 백제, 신라, 가야의 귀걸이가 고구려의 영향에 의해 생겨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8. 무기

1963년 박진옥은 신라의 가시 돌친 무기(유자이기)에 대한 글을 발표하였다(박진옥 1963). 16기의 신라무덤에서 50여점이 출토되었는데 아직 용도가 해명되지 않아 이를 밝히려는 의도라 하였다. 자루를 쫓는 방식과 가시의 형태를 가지고 네 가지로 나누었는데 ① 갑옷 연결끈을 걸어서 밀어 넘어뜨리기 위한 것, ② 끌어 당겨 넘어뜨리는 것, ③ 무언가를 매다는 의장용, ④ 끌어당기는 무기라 하였다. 이 무기는 보병이 기병을 공격하는데 사용한 무기로, 가시 돌친 무기는 삼국 주변국이나 중국, 일본에도 같은 무기는 없어 신라 고유의 무기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무덤에서 나온 무기를 보면 가장 많이 나온 것이 창, 그 다음이 도끼, 세 번째가 가시 돌친 무기, 그리고 낫, 환두 대도 순서이며 이들이 신라의 기본무기라고 하였다. 또한 신라 무덤에서 신분의 고하에 상관없이 마구류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신라의 군대는 기병을 핵심으로 보병을 더한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1694년 박진옥은 삼국의 창에 대해 검토하였다(박진옥 1964-1). 고조선의 창과 삼국의 창을 비교하여 관계를 해명하기 위한 것으로 결론은 삼국의 창은 봉부가 좁은 것이 특징으로 이는 고조선의 ‘좁은 낫창끝’의 특징을 이어받은 것이며, 중국의 것은 모두 넓으므로 삼국의 창은 중국의 영향이 아니라 고조선의 창을 계승 발전시켰다는 것이다. 아울러 일본의 창도 삼국의 창과 유사성이 많아 삼국의 것을 전적으로 받아들였다고 하였다. 신라의 창에 대해서는 신라는 뽕족창과 넓적창(상대적인 것)으로 나뉘는데 넓적창은 적석목곽분에서만 나오고 석곽묘와 석실분에서는 나오지 않아 넓적창이 초기에만 사용된 것으로 설명하였다. 재미있는 설명은 창 자루의 길이를 식리총의 부장품배치도를

기준으로 창끝에서 준까지의 거리를 환산하여 287cm로 추정한 점이다.

박진욱은 이어서 삼국시기의 활과 화살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였다(박진욱 1964-3). 신라의 화살촉은 넓적촉과 뿔촉촉으로 나뉘며 전기인 적석목곽분과 석곽묘에는 여러 모양의 넓적촉과 함께 뿔촉촉은 송곳형만 출토되며 후기인 석실분에서는 뿔촉촉의 수량이 모두 증가하며, 이러한 양상은 각각 고구려의 중기와 후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변화양상이 같다고 하였다. 명적(소리활촉)은 양산 부부총에서 출토되었는데 백제는 없고 고구려에서는 실물과 벽화에서 확인되며, 고구려의 명적은 흉노나 중국 것과 달라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이라 설명하였다. 또한 삼국의 활촉은 중국 및 내몽고 지대와 전혀 달라 삼국의 독자성을 보여준다고 하고 일본에 전해졌다고 하였다. 1967년 논문에서는 삼국의 활촉에 대한 설명은 이전 글과 동일한데 삼국의 활촉이 ‘통합신라’와 발해에 계승되었고, 고려의 활촉은 ‘통합신라’와 발해의 요소를 가지고 있어 이를 계승하였다고 보았다(박진욱 1967). 명적에 대해서는 2001년에 고구려 몇 개 유적과 양산 부부총, 발해유적에서 출토되었는데 고구려와 발해의 것은 무기로 보이나 신라의 것은 의기로 추정하였다(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2001).

1965년 박진욱은 갑옷과 투구에 대해 정리하였다(박진욱 1965). 삼국시기 갑옷은 신라에서 금관총, 황남리 109호, 황오리 14, 15무덤 출토품과 고구려 소찰과 벽화자료가 있으며, 이들은 모두 소찰을 꿰어 만든 찰갑으로 전투시 행동의 제약이 적고 효율적이었다고 추정하였다. 벽화를 보면 저고리와 바지를 입은 것, 저고리만 입은 것이 보이며 재질은 철 이외에 금 또는 금동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 백제 갑옷은 실례는 없으나 문헌기록으로 보아 고구려, 신라와 거의 같았을 것이라 하였다. 말갑옷이 나온 사례는 없으나 고구려 벽화를 보면 말갑옷과 마면갑이 있었을 것이며 이는 기병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음을 의미한다. 삼국의 갑주가 거의 공통적인데 이는 삼국의 찰갑이 고조선의 것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것에서 온 것이라 하였다.

1977년 『조선고고학개요』에는 박진욱의 일련의 견해가 요약되어 있다. 살상무기와 방어무장으로 나누고 살상무기로는 활, 창, 가시돋친 무기(유자이기), 칼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 중 긴 칼은 대부분 외날칼(刀)이며 대도에는 뒤끝이 둥근 고리로 되어 있다. 고리는 민고리, 세고리, 용고리, 세잎고리로 나뉘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생김새는 신분적 차이와 시기에 의한 변천을 반영한다고 하면서 민고리가 낮은 신분이고 용고리는 왕이나 왕족의 것으로 추정하였다. 방어부장은 갑주에 대한 것으로 찰갑이 많고 이는 움직임이 자유로와 기병에 알맞은 방식이라 하였다. 결론적으로 세나라의 무기는 형태도 비슷하고 공통성이 많은데 이는 세나라가 다 같은 문화전통을 이어받았고 그들 사이에도 교류가 많았던 것을 보여준다 하였다.

2004년 리광희는 고구려의 화살통을 설명하면서 복천동 11, 22호 출토품을 들어 고구려의 화살통이 백제와 신라, 가야에 전파되었다고 하였다(리광희 2004).

9. 마구

1966년 박진욱은 삼국의 마구에 대한 글을 발표하였다. 마구는 용도에 따라 세가지로 나뉘는데 첫째는 사람이 올라타기 위한 것, 둘째는 부리기 위한 것, 셋째는 치레거리이다. 첫째 타기 위한 것으로는 안장, 등자, 가죽띠 등이 있는데 안장 길마는 신라에서 25개가 나왔다. 그 외에 등자는

나무, 철, 금동이며 금동은 성골신분임을 나타낸다 하였다. 부리기 위한 기구는 재갈이 대표적으로 재갈 중에 재갈멈추개는 한 줄로 만든 것, S자형 멈추개 → 판멈추개 → 고리모양 멈추개로 변화한다고 하였다. 금령총 기마인물형토기나 벽화를 보아도 삼국의 마구는 잘 갖춰진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삼국이 일찍이 강력한 기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았다(박진욱 1966).

1977년 『조선고고학개요』는 위의 박진욱 글 내용과 유사하다. 안장과 등자를 사용한 계급을 삼국사기 잡지 기록을 근거로 추정하였다. 6두품이하는 안장과 등자에 금은 장식을 못하게 하였으므로 금동판으로 장식한 금관총, 금령총은 진골이상이라는 것이다.

2000년에 송태호는 가야의 마구에 대한 글을 발표하였다(송태호 2000). 그러나 가야의 무덤으로 본 유적 중에 대구 비산동, 부산 복천동, 양상 부부총 등 신라의 영향 아래에서 축조된 것이 포함되어 한계가 있다. 결론적으로 집안 칠성산 96호, 만보정 78호에서 나온 마구가 이 유적들 출토품과 같아 고구려의 발전된 마구가 4~5세기의 신라, 가야, 백제의 마구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하였다.

2001년 송태호는 등자의 발생과 전파에 대해 발표하였다(송태호 2001). 고구려 등자인 칠성산96호, 만보정 78호 출토품은 금동판을 씌운 것이고 그 보다 늦은 우산하 41호분은 철판을 씌운 것으로 금동판에서 철판으로 변하고 다시 쇠등자로 변한다고 설명하였다. 신라도 같은 변화를 보여 금동판을 씌운 등자가 철판을 씌운 것보다 이르며 쇠등자로 변한다고 하였다. 고구려 등자는 3세기에 출현하여 4세기말에 쇠등자로 발전하였고 고구려의 남진에 따라 신라, 가야, 백제는 발전된 고구려의 마구를 적극 받아들여 크게 발전하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경주의 황남리 109호 무덤을 5세기 초로 보는 등 남한 편년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 보인다.

2009년 윤송학은 일본 고분시대 마구에 대해 고구려, 신라, 백제, 가야 마구에 영향 받았음을 설명하였다(윤송학 2009). 일본 고분시대 마구는 5세기 전반에 발생하여 7세기에 와서야 완전해지는데 고분시대 마구 발생시기와 동시기인 황남리 109호에서 이미 발전된 형상이 보이고 백제, 신라, 가야에서 마구가 출토된 유적 중에 제일 늦은 것 기준으로 5세기말에서 6세기 초임을 근거로 하였다.

2016년 윤송학은 삼국시기 국가별 마구의 공통성을 설명하였다(윤송학 2016). 첫 번째는 마구 구성의 공통성으로 말을 부리기 위한 것, 앞기 위한 것, 치레거리, 개마장비로 구성되어 있는 점을 들었다. 또한 중국은 개마장비를 중시하지 않고 조잡하여 차이가 있어 삼국시기 마구가 이웃 지역보다 더욱 발전한 것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두 번째는 각 구성 요소의 형태와 구조형식에서 볼 수 있다. 이것은 외래적 요인의 영향으로 고구려에서 만들어졌다는 견해가 부당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Ⅲ. 북한의 연구 특징

1. ‘공통성’ 과 고구려 계승

북한의 신라·가야, 통일신라 고고학의 연구 특징을 요약하면 첫째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문화가

서로 공통점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는 점이다. 아울러 중국과 주변 민족의 문화와 삼국의 문화는 큰 차이가 있는 것도 강하게 주장한다. 둘째, 삼국이 가진 공통적인 문화요소는 결국 고구려의 선진 문화가 기본적이고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셋째는 고구려 문화를 기본으로 한 문화는 발해와 후기신라로 전해지고 이것이 고려로 이어져서 고려에서 비로소 민족문화의 진정한 통일이 일어난다고 설명하는 점이다. 마지막은 이러한 삼국의 선진 문화가 일본에 전해져서 일본 고대 문화의 주축을 이룬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는 단일민족으로 주변 민족에 비해 우수한 문화를 가졌다는 주장을 바탕에 깔고 있다. 아래에서 시간에 따라 이러한 설명이 어떻게 강화되는지 살펴보겠다.

1950년대에는 삼국문화의 공통점을 강하게 주장하는 글을 찾을 수 없었다. 오히려 한반도에 있는 여러 나라가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되었다. 정백운(1957)은 낙동강 유역을 비롯해 한반도 각 지역의 무덤이 다양하며 이는 조선의 원시 장제-토광묘, 지석묘, 적석묘 등-에 고대 중국인을 비롯한 인근 제 종족들의 형식을 수용하여 이런 다양한 전형들을 창조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당시에는 삼국 문화의 공통성을 강조하거나 중국과의 차이점을 주장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 랑익룡(1958)도 통성리 고분에 대한 설명에서 이 지역의 고대 종족들이 신라 문화의 영향아래에서 자기의 고유한 풍습을 ‘다분히 견지하면서’ 살아왔다고 주장하여 이 지역 특유의 종족(옥저를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이 있었음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연구경향은 1960년대에 와서 크게 바뀐다. 1965년 통성리 고분 출토 인골에 대한 보고에는 이들이 한반도의 다른 지방 인골 및 현대 조선인의 경우와 큰 차이가 없으며 중국과 일본인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하고 이는 신석기부터 현대까지 조선인이 인류학적 형태에 많은 공통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라 하였다(백기하 1965). 1977년 발간된 『조선고고학개요』에서 세나라 물질문화의 공통성을 종합하였는데 이는 본문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소위 ‘수령의 교시4)’라는 형태의 지침 때문으로 생각된다. 각 주제별로 설명 예를 살펴보면 궁성회(1987, 1988)는 석실분에 대해서 삼국의 공통성을 강조하는 논문을 별도로 발표하였고 세 나라의 공통성은 무덤의 위치와 방향이 일치하는 점, 내부 구조, 천정, 벽체 축조방법과 벽면 후처리, 벽화존재, 배수로와 관대 등을 들었다. 이는 3세기 고구려에서 발생하여 백제로, 그리고 다시 신라와 가야로 전해진 것으로 고구려의 선도적인 역할이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산성에 있어서도 『조선고고학개요(1977)』는 삼국의 산성은 공통성이 크다 하고 그 근거로 모두 교통요충지에 위치하고 자연지세를 이용하며 돌로 축조한 점, 그리고 치, 겹성 등 새로운 시설물을 창조한 점을 들었다. 그리고 이러한 우수한 석성이 만들어진 것은 뛰어난 고구려의 기술이 전파되었기 때문이라 하였다.

신라토기 장식법 중 인화문은 고구려의 누르기 기법이 조상이라고 하고(리광희 1991), 신라와 일본에서 발견되는 삼채가 고구려에 연원이 있는 발해 삼채일 것으로 추정하기도 하였다(김영진 1997). 전돌의 무늬와 신라 초기의 끝이 뽕족한 꽃잎 모양은 삼국의 공통점이며 삼국은 세부적인 무늬에서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의 무늬들에서는 공통점이 많고 이는 선조들이 동일한 계열의 사람들이었음을 보여준다 하였다(김영진 1964). 『조선고고학개요(1977)』에서도 전돌의 생김새나 무늬에서

4) ‘원래 우리 민족은 수천년의 오랜 역사를 통하여 하나의 문화와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살아온 단일민족입니다.’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1977, 『조선고고학개요』, p.256.)

세나라는 공통점이 많을 뿐만 아니라 모두 높은 생산기술과 공예술을 가졌다고 하였다. 윤광수(2010)도 삼국시기 기와의 공통점으로 첫째 종류가 비슷하며, 둘째 모두 연꽃무늬를 주로 사용한 점, 세 번째는 암막새 문양이 비슷함을 들었다.

장신구에 있어서 『조선고고학개요(1977)』는 세 나라의 금관을 비교했을 때 비록 세부적으로 나라마다 특색이 있으나 그 기본형식은 같으며 세부에서도 공통점이 많다고 하였다. 궁성희(1992)도 금관에 초점을 맞추어 삼국의 관에 고구려적 요소가 강하게 반영되어 있어 고구려 문화가 이웃 동쪽 나라들에 영향을 주었으며 공통점이 많은 것은 한반도 각국의 사람들이 같은 거래로서 같은 미감을 가지고 하나의 민족문화를 창조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리광희(2003)도 백제, 신라, 가야의 금속공예품에서 보이는 공통점을 고구려의 영향으로 설명하고 이는 4~5세기 고구려의 남진 영향 때문이라 하였다. 고구려의 선도적인 역할과 그에 따른 공통성은 리철영(2007)의 귀걸이 연구에서도 나타난다.

무구와 마구는 가장 많이 삼국의 공통성이 언급된 부분이다. 박진욱(1964-1)은 삼국의 창에 대해 검토하여 삼국의 창은 봉부가 좁은 것이 특징으로 이는 고조선의 ‘좁은놋창끝’의 특징을 이어받은 것이며, 중국의 것은 모두 넓으므로 중국과는 다르다고 하였다. 갑주도 삼국이 공통적이고 이는 고조선의 것을 계승 발전시킨 것이라 하였다(1965). 화살촉 또한 삼국의 활촉은 중국 및 내몽고 지대와 전혀 달라 삼국의 독자성을 보여준다고 하고 일본에도 전해졌다고 하였고(1964-3), 통합신라와 발해에 계승되었고, 고려에 이어졌다고 보았다(1967). 송태호(2000)는 고구려의 발전된 마구가 4~5세기의 신라, 가야, 백제의 마구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하였다. 이 중 등자도 고구려에서 3세기에 출현하여 고구려의 남진에 따라 신라, 가야, 백제로 전파되었다고 하였다(송태호 2001). 윤송학(2009)은 일본 고분시대 마구에 대해 고구려, 신라, 백제, 가야 마구의 영향임을 설명하였다. 이어서 삼국시기 마구의 공통성을 첫 번째는 마구 구성요소의 공통성-말을 부리기 위한 것, 앞기 위한 것, 치레거리, 개마장비-을 들면서 중국은 개마장비를 중시하지 않고 조잡하여 차이가 있어 삼국시기 마구가 이웃 지역보다 더욱 발전한 것을 보여준다고 하였다(윤송학 2016). 두 번째는 각 구성 요소의 형태와 구조형식에서 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2. 편년

북한에서 신라, 가야, 통일신라 유적의 연대추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고고학 자료는 호우총과 서봉총이다. 1948년 호우총에 대한 보고서가 남한에서 발간된 뒤(金載元 1948) 남한에서도 호우총은 신라 적석목곽분의 절대연대에 대한 주요 근거로 사용되었다. 호우총 발굴보고의 영향은 북한의 신라 무덤 편년을 대폭 상향하는 계기가 되었다. 김재원(1947: 64-66)은 호우총 보고서에서 호우가 전래되어 신라 무덤에 묻히기까지 상당한 기일이 경과되었을 것이나 호우총은 ‘호우의 제작연도 415년에서 멀지않다’고 하면서 이 무덤이 5세기 중엽이후의 문화상을 밝히는데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북한의 호우총에 대한 간략한 소개글에서도 ‘415년에서 그리 멀지 떨어지지 않은 시기’라는 거의 비슷한 설명(사회과학원 고고학및민속학연구소 1966-4)을 하면서 남한의 견해를 받아들이게 된다. 이에 따라 박진욱(1964)은 서봉총의 ‘연수원년(延壽元年)’에 대해서도 당초 511년으로 보았는데 391년까지 올려보아 서봉총은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로, 보문리 부부총은 5세기 전반에서

중엽으로 보게 되었다. 이에 따라 당초 4세기 무렵으로 보았던 무덤 중에 많은 수가 2~3세기로 올라간다고 설명하였다(고고학연구실 1966).

이러한 편년관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해준다. 우선 북한은 신라의 국가형성을 문헌자료에 입각해 2세기(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1977), 또는 1세기 초·중엽(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1991)으로 보는데, 이런 입장에서는 신라의 국가형성을 보여주는 고고학 자료와의 공백기가 생기게 된다. 즉 신라의 ‘봉건성’을 보여주는 지배층의 묘제인 적석목곽분의 연대가 상향된다면 국가형성과 이의 직접적인 증거인 적석목곽분 출현 사이의 간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또 하나는 북한 학계는 고구려 석실분의 영향으로 신라의 석실분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하는데(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1977) 고구려 석실분의 발생시기를 3세기로 보고 4세기 후반기에 완성형이 출현한다고 설명하므로 신라에서의 석실분의 도입-보문리부부총-을 5세기 전반, 중엽으로 이르게 설정해도 아무 무리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80년대 후반에 다시 발표된 견해는 시기를 조금씩 늦춰 궁성희(1988)는 호우총, 서봉총을 5세기 중엽으로 보고, 보문리 부부총은 5세기말~6세기초로 편년하게 된다. 이는 남한학계의 성과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신라토기편년은 50~70년대 남한에서는 ‘적석목곽묘 출토 토기=고신라’, ‘석실분 출토 토기=통일신라’라는 구분을 사용하였다. 이는 有光敎一(1937)이 충효리 석실분 발굴보고서에서 설명한 것으로 그는 석실분 출토 토기는 적석목곽분 출토 토기에 비해 대부분 소형이고 기벽이 두꺼우며, 고배의 경우 대각이 극히 낮아지고 투공이 퇴화하며 문양도 짝어서 장식하는 것을 들었다. 이 영향은 북한 논문에서도 보이고 큰 영향을 끼쳤다. 그런데 새로운 시도도 보이는데 량익룡(1964)은 동해안 지역 산성 출토 신라토기를 가지고 새롭게 분류하는 시도를 하였다. 그는 신라토기를 ‘고식 도기’와 ‘신식 도기’로 나누고 ‘신식 도기’는 다시 1형과 2형으로 나누었다. ‘고식 도기’는 적석목곽분 출토 토기로 보이고, ‘신식 1형 도기’는 ‘고식 도기’의 발전형으로 고식에 비해 기형이 둔중하고 굽이 낮으며 투공도 작거나 없어졌으며 문양에도 삼각, 원 등의 압인 무늬가 많다고 하였다. 그리고 여기에는 유개고배, 완, 병 등이 속하고 시기는 6세기 초, 중엽부터 유행했다고 하였다. 지금의 신라전기 다음 시기인 단각고배 유행시기⁵⁾와 비슷하다. ‘신식 2형 도기’는 합늉 형의 그릇이 대표적이며 원점무늬를 찍었는데 1형의 발전형으로 연도가 있는 방형 석실분과 뼈단지에서 보이므로 신라 통일 전후부터 유행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였다. 그는 有光敎一이 설정한 통일신라토기를 둘로 나누어 ‘신식 도기’ 1형, 2형으로 설정하고 이 중에 1형을 통일 이전으로 설정한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데 『조선고고학개요』 등에도 수록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계속 발전시키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량익룡(1962)은 강원도 통천군의 구읍리 어은골 무덤 발굴보고에서 일제학자들이 석실 무덤을 일률적으로 통일신라시대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지적하고 나아가 통일 후에는 석실무덤의 조성은 점차 없어져 간다고 설명한 점도 뛰어난 견해라고 생각된다.

5) 신라후기양식 토기(최병현 2011)의 1기, 또는 필자의 신라중기양식 토기(윤상덕 2011)

IV. 맺음말

향후 북한 자료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본 자료로서 북한에서 행해진 신라·가야, 통일신라에 대한 연구현황을 살펴보았다.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며 마치겠다.

먼저 신라의 삼국통일에 대한 북한 학계의 평가다. 통사류를 살펴본 결과 초기에는 신라에 의한 삼국통일을 높게 평가하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평가를 거둬들이게 된다. 높은 평가는 1950년대까지의 기본적인 시각으로 1956년판 『조선통사』에서는 신라의 삼국통일로 드디어 삼국으로 나뉘었던 민족이 하나로 합쳐져 ‘조선 준민족’이 형성되었다는 평가까지 하였다. 그러나 1962년 판 『조선통사』부터 논조가 바뀌어 ‘국토 남부의 통합’으로 바뀌게 된다. 신라는 더 이상 한반도의 통일을 실현한 국가가 아니고 단지 남쪽을 통합하였다는 의미이다. 60년대에는 더 이상 ‘통일신라’라는 용어는 사용되지 않고 ‘통합신라’라는 단어가 여러 논문에서 쓰이게 되었다. 1970년대가 되면 ‘전신신라’와 ‘후기신라’로 구분하게 되면서 신라의 한반도 통일은 더욱 평가절하 되었다. 반대로 발해에 대한 서술은 점차 강화되어 1970년대부터는 통일신라보다 발해의 비중이 훨씬 커지게 된다.

두 번째는 모든 연구들이 주어진 방향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그 방향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문화가 서로 공통점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중국과 주변 민족의 문화와 삼국의 문화는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유구한 역사를 가진 단일민족 국가라는 결론을 도출해낸다. 또한, 고구려의 선진 문화가 삼국의 공통성에 기본적이고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고구려 문화를 기본으로 한 문화는 발해로 전해지고 이것이 고려로 이어져 고려에서 비로소 민족 문화의 진정한 통일이 일어난다고 설명한다. 이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북한이 민족문화의 진정한 계승자라는 입장을 표명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고구려가 삼국, 특히 신라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음은 마립간시기 신라무덤 출토품에서도 알 수 있지만, 연구결론을 정해놓고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올바른 연구 방법이 아닐 것이다.

세 번째는 북한학계가 남한학계에 비해 신라의 무덤이나 유물의 연대를 상당히 올려 본다는 점이다. 이러한 편년관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해준다. 우선 북한은 신라의 국가형성을 1세기 초·중엽으로 보는데, 이런 입장에서는 국가형성기와 이를 보여주는 고고학 자료와의 공백기가 생긴다. 지배층의 묘제인 적석목곽분의 연대가 상향된다면 국가형성과 ‘봉건적 지배’의 중요한 증거인 적석목곽분 출현 사이의 간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또한 북한 학계는 고구려 석실분의 영향으로 신라의 석실분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하는데, 고구려 석실분의 완성형이 유행하기 시작하는 시기를 4세기 후반으로 설정하므로 신라에서 석실분의 도입을 5세기 전·중엽으로 이르게 설정하는게 고구려의 영향을 설명하는데 유리하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북한과의 신라·통일신라 고고학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에 대해 제언하면서 마치 고자 한다. 필자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에서 과거 조사한 고고학 자료를 다시 상세하게 보고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북한에서 조사된 신라의 고분군으로는 안변 용성리 무덤군을 비롯해서 통천군 구읍리, 고성군 봉화리, 고산군 고산읍, 세포군 현리, 정평군 다호리, 오로군 오로읍 규화봉, 홍원군 부상리·삼성리, 북청군 지만리, 리원군 곡창리 등 수 백기에 달한다. 성곽유적도 봉대산성, 오로촌산성, 성령산성, 요원산성, 다탄대산성, 거산산성, 울지산성, 서곡산성, 교성리토성, 학성산성

등 함경남도과 강원도 일대에 수십 곳 분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들은 일부 보고서가 발간되었으나 보고서에도 유구와 출토품의 도면·사진 등이 온전히 제시되지 않았다. 이들은 신라의 영토 확장 과정과 통일 뒤 이 지역을 점유한 뒤의 양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임은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앞으로 북한과 협력이 이루어질 때, 이러한 1차 자료의 보고부터 차근차근 해나간다면 큰 성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참고문헌 ■

1. 통사류

- 김석형, 박시형, 1953, 『조선력사』.
림건상 등 1956, 『조선통사』.
채희국, 김석형 등, 1957, 『조선사 개요-김일성 종합대학 조선사 강좌』.
박시형 등, 1962, 『조선통사』.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1977, 『조선고고학개요』.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1979, 『조선전사』.4, 5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1991, 『조선전사』.4, 5

2-1. 무덤

- 정백운, 1957-3, 『조선 고대 무덤에 관한 연구(Ⅱ)』, 『문화유산』.
량익룡, 1958-4, 『안변 룡성리 고분 발굴보고』, 『문화유산』.
량익룡, 1962-4, 『통천군 구읍리 어은골 신라 무덤에 대하여』, 『문화유산』.
박진옥, 1964-4, 『신라 무덤의 편년에 대하여』, 『고고민속』.
고고학연구실, 1966-2, 『신라의 돌로 쌓은 나무곽 무덤』, 『고고민속』.
사회과학원 고고학및민속학연구소, 1966-3, 『용어-서봉무덤, 식리무덤』, 『고고민속』.
사회과학원 고고학및민속학연구소, 1966-4, 『용어-호우무덤』, 『고고민속』.
백련행, 1967-1, 『봉화리 무덤 폐의 조사보고』, 『고고민속』.
박진옥, 1967-3, 『동해안 일대의 신라 무덤에 대하여』, 『고고민속』.
궁성희, 1986-4, 『백제의 돌칸흙무덤에 관한 편년』, 『조선고고연구』.
권기홍, 1986-4, 『4~5세기 일본고분 껍묻거리의 성격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권기홍, 1987-1, 『4~5세기 일본고분의 조선적 성격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1987-1, 『4~5세기 가야의 무덤과 껍묻거리』, 『조선고고연구』.
궁성희, 1987-2, 『가야 돌칸흙무덤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궁성희, 1987-3, 『신라의 돌칸흙무덤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궁성희, 1987-4, 『삼국시기 돌칸흙무덤의 공통성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궁성희, 1988, 『삼국시기 돌칸흙무덤과 그 공통성에 관한 연구』, 『고고민속논문집』. 11
한인호, 1988-1, 『삼국시기 돌칸흙무덤의 공통성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리창언, 1991-2, 『고구려벽화무덤의 사신도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권기홍, 1994-3, 『일본 규슈지방의 초기횡혈식돌칸무덤에 대한 몇가지 문제(1)』, 『조선고고연구』.
김인철, 2006-1, 『고려왕릉의 몇가지 특성』, 『조선고고연구』.
로영철, 2012-1, 『신라나무곽돌무덤의 발생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2015-2, 『개성시 룡흥동 1호 돌칸흙무덤의 등급과 피장자』, 『조선고고연구』.

2-2. 인골

백기하, 1965-4, 『안변 룡성리에서 나온 인골에 대하여』, 『고고민속』.

김영일, 1999-3, 『레안리유적 주민들의 인류학적 특징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김정철, 2003-4, 『머리뼈 형태 비교를 통하여 본 세나라 시기 주민들의 혈연적 공통성』, 『조선고고연구』.

3. 성곽

량익룡, 1958-4, 『안변 룡성리 고분 발굴보고』, 『문화유산』.

량익룡, 1962-4, 『통천군 구읍리 어은골 신라 무덤에 대하여』, 『문화유산』.

한석정, 1960-2, 『함경남도 유래 미상의 산성들과 고분들에 대하여』, 『문화유산』.

량익룡, 1964-2, 『통해안 일대의 신라 산봉우리 성에 관한 연구』, 『고고민속』.

안병찬, 1967-2, 『서곡산성 답사보고』, 『고고민속』.

리정기, 1967-4, 『청해토성 및 교성리토성 답사보고』, 『고고민속』.

남일룡, 1994-4, 『학성산성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최웅선, 2013-3, 『삼국시기의 산성형식』, 『조선고고연구』.

4. 왕경

한인호, 1987-2, 『우리 나라 중세 도시리방제도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김경삼, 1998-3, 『5세기 신라의 수도형식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김경삼, 2013-2, 『신라의 수도형식에 미친 고구려 수도형식의 영향』, 『조선고고연구』.

김경삼, 2014-2, 『신라의 수도 경주에서 리방제도의 형성년대』, 『조선고고연구』.

5. 토기

조환석, 1963-4, 『18~20세기 우리나라 도자기 치장의 몇 가지 방법과 그 유래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전장석, 1964-1, 『우리나라 도자 공예의 발전』, 『고고민속』.

량익룡, 1964-2, 『통해안 일대의 신라 산봉우리 성에 관한 연구』, 『고고민속』.

리광희, 1991-3, 『고구려시기 질그릇들에 그려진 장식무늬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김영진, 1992-2, 『우리 나라 초기 자기상에 관한 연구(1)』, 『조선고고연구』.

김영진, 1997-1, 『발해삼채의 연원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하경진, 2001-4, 『일본 고분시대 스에끼의 연원(1)』, 『조선고고연구』.

6. 와전

김영진, 1964-4, 『3국시기의 기와 벽돌무늬연구』, 『고고민속』.

윤광수, 2010-3, 『삼국시기 기와의 공통점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윤광수, 2011-1, 『삼국시기 기와제작방법』, 『조선고고연구』.

윤광수, 2011-4, 『삼국시기 서까래기와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7. 장신구

최원희, 1965-1, 『과거 조선 남자 관모의 몇 가지에 대하여』, 『고고민속』.

궁성희, 1992-3, 『삼국시기 금관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리광희, 2003-2, 『고구려의 금속제 관모와 관모장식에 대한 간단한 고찰』, 『조선고고연구』.

리철영, 2007-4, 『삼국시기 귀걸이의 공통성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8. 무구

박진옥, 1963-4, 『신라의 가시 돋친 무기에 대한 약간의 고찰』, 『고고민속』.

박진옥, 1964-1, 『3국시기의 창에 대한 약간의 고찰』, 『고고민속』.

박진옥, 1964-3, 『삼국시기의 활과 화살』, 『고고민속』.

박진옥, 1967-1, 『우리나라 활촉의 형태와 그 변천』, 『고고민속』.

박진옥, 1965-2, 『3국시기의 갑옷과 투구』, 『고고민속』.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2001-2, 『자료-소리화살(명적)』, 『조선고고연구』.

리광희, 2004-3, 『고구려의 화살통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9. 마구

박진옥, 1966-3, 『3국시기의 마구』, 『고고민속』.

송태호, 2000-4, 『가야의 마구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송태호, 2001-3, 『우리나라에서 등자의 발생과 보급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윤송학, 2009-1, 『일본 고분시대 마구의 조선적 성격』, 『조선고고연구』.

윤송학, 2016-4, 『삼국시기 마구의 공통성』, 『조선고고연구』.

10. 기타

有光敎一, 1937, 『慶州忠孝里石室古墳調査報告』, 『昭和7年度古跡調査報告』. 第2冊.

金載元, 1948, 『壺杆塚과 銀鈴塚』, 國立博物館.

尹相惠, 2010, 『6~7세기 경주지역 신라토기 편년』, 『한반도 고대문화 속의 울릉도-토기문화』. 동북아 역사재단 연구총서 57.

崔秉鉉, 2011, 『신라후기양식토기의편년』, 『嶺南考古學報』. 59.

국립문화재연구소, 2017, 『조선고고연구 해제집』.

국립문화재연구소, 2019, 『북한 고고학 정기간행물 해제Ⅱ-역사제문제·문화유물·문화유산·고고민속』.

분단 70년 북한 고고학의 현주소

북한의 중세 고고학 발굴 현황과 연구 성과

홍 영 의

(국민대학교)

-
- 들어가며
 - 북한의 고려시대사 연구 흐름
 - 북한의 고려시대 유적의 발굴 현황
 - 북한의 고려시대 유적의 발굴 관련 연구 성과
 - 나가며

북한의 중세 고고학 발굴 현황과 연구 성과

- 고려 및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

홍 영 의 (국민대학교)

1. 들어가며

우리의 중세 고고학의 중심영역인 개성 일대는 500여 년 동안 고려의 수도와 조선왕조의 구도로서 인식되었다. 또한 서경(평양)은 동경(경주), 남경(한양)과 3경의 하나였다. 개성은 고려의 수도로 ‘개경(開京)’이라 불렸으며, ‘송도(松都)’·‘송경(松京)’이라고도 하였다. 개경은 919년 고려의 수도로 정해진 뒤로, 강화로 천도했던 40년을 제외한 400여 년 동안 수도로 유지하였을 뿐 아니라, 1392년 조선이 건국된 후에도 1394년 한양으로 천도하기까지, 또 1399년(정종 1)부터 1405년(태종 5)까지 7년 동안 수도였다. 때문에 조선왕조에서도 ‘기명지(基命地)’로서 어향(御鄉)과 같은 곳이었다.

때문에 고려와 조선시대의 유물과 유적이 다수 분포해 있다. 특히, 개성 일대에는 궁성을 에워싸고 있던 나성·발어참성·내성 등 성곽, 만월대 등 궁궐터와 관청, 민가 등과 만수산 주변의 수많은 왕릉, 송악산과 천마산·성거산 주변의 절터 등의 유적지가 잔존해 있었다.

2004년 ‘고구려 고분군’과 2013년 개성역사지구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까지 남과 북은 공동의 가치를 위해 많은 협력과 교류가 있어 왔다.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1차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6·15공동선언’이 발표되고, 이후 장관급회담의 정례화 및 남북 교류협력의 활성화되면서 북한 현지 조사가 가능해지고 남북의 문화유산 교류는 활발해졌다. 이때 첫 번째로 2003년부터 진행된 ‘금강산 신계사 대웅전지’ 발굴조사는 남북 문화재 공동보존 사업에 물꼬를 트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중세 고고 발굴과 개성 일대의 고고학적 성과는 이전과 크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 특히 왕릉과 가마터 중심의 발굴이 다양한 여러 유적에 대한 발굴로 전환되었다. 그동안 우리 학계는 북한에서 어떤 유적의 고고발굴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에 대한 고고학 성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과 정리가 부족했다. 북한의 발굴조사 보고서가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는 그동안 북한 고고학계가 이루어 놓은 중세고고학적 성과를 『조선고고학전서』와¹⁾

1) 사회과학출판사, 1992~2009 『조선고고학전서』 고고학 관련 학술서로 과학백과사전출판사에 속해 있는 사회과학출판사에서 발간한 것이다. 1992년에 고대편과 고조선편을 발간한 이래 전 61권으로 완성됐다. 이 중 『고려의 성곽』(전서 45), 『고려건축』(전서 46), 『고려의 무덤』(전서 47), 『고려의 유물』(전서 48), 『고구려와 고려 및 리조 도자기가마터와 유물』(전서 49) 등은 북한의 중세고고학적 발굴성과를 담고 있다. 또 김인철 『고려무덤 발굴보고』(2002: 사회과학출판사), 리창언 『고려의 성곽: 중세편』 22(2009:

『북한 정기간행물 고고학 문헌 목록』 2) · 『북한 고고학 정기간행물 해제 II』 3) · 『조선고고연구 해제집 1』 4) · 『조선고고연구 해제집 2』 5) 등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통해 정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북한의 고려시대 이후의 역사 인식과 문화정책을 통해 고고학적 발굴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그리고 해방 이후 북한 중세고고 유적의 발굴 현황을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이에 대한 발굴 성과를 분석하여 향후 우리의 중세고고학 연구 발전의 기초자료로 삼고자 한다.

2, 북한의 고려시대사 연구 흐름

우리 민족의 분단은 남·북한의 정치체제뿐 아니라, 역사인식 체계까지 철저하게 양분시켰다. 남·북한의 역사인식의 차이는 비단 역사해석의 차이단계를 넘어 민족동질성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는 남북의 역사인식이 각기 남북의 정치체제에 알맞게 자리 잡게 되었고, 그에 따라 역사적 사건에 대해 그 명칭과 해석이 달라졌다. 특히 합법칙성과 주체사학에 입각한 북한 역사학은 연역적(演繹的) 해석에 치중함에 비해서, 남한의 그것은 개체사실의 역사성에 기반을 둔 귀납적(歸納的) 해석을 중심으로 한다. 또한 과거사실을 현대적 관점에서 설명하는 북한의 역사인식은 과거사실을 과거사건으로 해석하는 남한의 경우와 큰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역사는 인민들에게 주체사상 교양과 혁명교양, 사회주의 애국주의 교양을 강화하고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 하는 데 이바지하는 내용을 의미한다. 이러한 북한의 기본철학은 국민통합의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리창언·리창진 『고려의 건축: 중세편』 23, 김영진 『고려의 유물: 중세편』 25는 『조선고고학전서』의 내용과 같다.

- 2) 국립문화재연구소, 2016 『북한 정기간행물 고고학 문헌 목록』은 북한에서 발간한 정기간행물(잡지류) 중 고고학 관련 논문집 8종의 논저 목록을 정리한 것이다. 수록된 잡지류는 『문화유물』(1949년 1호~2호), 『문화유산』(1957년 1호~1962년 6호), 『고고민속』(1963년 1호~1967년 4호), 『조선고고연구』(1986년 1호~2016년 2호), 『민족문화유산』(2001년 1호~2016년 2호), 『歷史諸問題』(1948년 2호~1950년 4호), 『력사 과학』(1955년 1호~1967년 6호, 1977년 2016년 2호), 『조선건축』(1990년 2호~1997년 3호, 2004년 1호~2016년 4호)이다.
- 3) 국립문화재연구소, 2019 『북한 고고학 정기간행물 해제II - 력사제문제·문화유산·문화유물·고고민속』은 북한에서 1940년에서 1960년대에 발간된 『력사제문제』, 『문화유물』, 『문화유산』, 『고고민속 해제집』의 논문에서 고고학·역사학·민속학과 관련 있는 논문 총 524편을 요약하고, 이와관련한 국내의 연구동향 등을 해제하여 수록하였다
- 4) 국립문화재연구소, 2017 『조선고고연구 해제집 1(1986~2000)』은 이 책은 북한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에서 발간한 북한 고고학계의 대표적 학술지인 『조선고고연구』가 창간된 1986년부터 2000년까지 수록되어 있는 논저에 대하여 내용을 요약하고 우리 학계와 비교되는 내용이나 특이사항을 해제한 것이다.
- 5) 국립문화재연구소, 2017 『조선고고연구 해제집 2(2001~2016)』은 이 책은 북한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에서 발간한 북한 고고학계의 대표적 학술지인 『조선고고연구』에 2001~2016년 수록된 논저의 내용을 요약하고 우리 학계와 비교되는 내용이나 특이사항을 해제한 것이다.

요체로서 그 국민을 떠받치는 정신적 지주가 되었다.

북한의 역사는 김일성이 창조한 혁명철학으로서의 주체사상을 역사적으로 설명한 것이며, 그 사상에 입각하여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목적으로 한 혁명투사의 양성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북한 역사인식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인민들의 투쟁에서 찾는다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투쟁이 역사발전의 기초라는 입장에서 남한에서는 반란을 일으킨 주모자가 북한에서는 투쟁을 주도한 역사창조의 주역으로 중시되는 반면, 지배계급의 활동은 언제나 반역사성을 가진다. 따라서 인민에 의한 투쟁의 지도자는 정의의 표상으로서 애국자로 서술되고, 그를 진압한 인물은 항상 반동이 된다. 만적·김사미·효심·이시애·임격정 등의 해석이 이를 뒷받침한다.

북한의 역사는 크게 근대이전은 ‘안(봉건지주계급), 밖(외적)의 원수들과의 투쟁’이었고, 근대 이후는 ‘민족의 독립과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한 투쟁’이 전부였다. 북한에서는 인간의 활동 전부가 투쟁이어서 우선 최초의 투쟁은 자연의 구속으로부터의 투쟁으로 시작됐다. 따라서 노동·생산·과학의 발달도 그것을 위한 수단인 것이다

과거의 역사적 사실은 하나이지만, 그 역사에 대한 해석의 다양성과 연구 환경의 차이, 교육목적은 정치·사회체제와 긴밀하게 연관된다. 남북 역사학계에서 과거 역사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생겨난 이유이다.

북한은 연구와 교육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연구자 개인이 자기만의 해석을 내세울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 대립적인 견해들이 함께 발표되는 경우는 1950년대까지로 그쳤고, 그 이후에는 내부 토론을 거친 대표적인 의견이 ‘공식 해석’으로 담겨서 출판물로 간행되고 교육된다. 1990년대 이후에도 전문 연구에 해당하는 개인 명의의 간행물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 수가 줄었다. 『조선전사』 개정판(1990년대 초) 이후 최근에 조선단대사가 5권씩 차례로 발간되고 있는데, 과거와 다른 해석이 그다지 많지 않지만 사실 서술은 더 풍부해지고 있다. 또 개인 명의의 연구물에서도 구체적 사실에 대한 실증적 분석과 판단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담겨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북한의 한국사 인식체계에 드러나는 특징을 외세에 대한 항쟁을 더 강조하여 부각시킨다는 점이다. 북한 역사학계는 물론 사회적 정서 전체에 강한 민족주의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대한 해석에서 남한과 가장 다른 것은 삼국통일에 대한 이해이다. 북한에서는 민족사 최초의 통일 국가를 고려로 보고, 신라의 삼국통일을 인정하지 않는다. 남한에서는 ‘신라의 삼국통일’·‘남북국시대’·‘통일신라’라는 용어를 쓰지만, 북한에서는 ‘신라에 의한 국토남부 통합’·‘후기신라’라는 용어가 정착되어 있다.

한편, 분단 현실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연구의 편중도 존재한다. 북한에서는 고구려·발해에 대한 연구가 일찍부터 활발했지만, 남한에서는 신라·백제에 대한 연구가 다수를 차지한다. 반대로 북한에서 이루어진 신라사 연구는 극히 드물고, 특히 백제 멸망 후의 부흥운동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편이다. 다만 중국의 동북공정이 문제되면서 남쪽의 고구려·발해 연구가 촉진되었고, 연구량으로만 보면 이제는 남한의 연구가 압도적이다. 그러나 남한 연구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이루어진 고고 자료를 이용하는데 그치고, 정작 북한에서 이루어진 고고학 성과를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북한에서 어떤 고고발굴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조차 상세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해방 이후 1960년대까지 북한에서의 역사 연구는 상당히 활발한 편이었고, 의미 있는 연구업적도 적지 않게 나왔다. 해방 직후 역사편찬위원회가 설치되어 ‘식민사관을 극복한다는 것’, “유물사관에 의한 역사법칙으로 서술한다” 등을 기본과제로 내세우고, 연구한 결과 『역사의 제문제』를 한국 전쟁 직전까지 18집을 발간하였다. 1952년에는 과학원이 설치되고 역사연구소를 개편하면서 활발하게 연구사업을 벌여 1955년부터 1967년까지 『역사과학』이란 학술지가 꾸준히 간행되었다. 그런 토대 위에 『조선통사』가 발간되었다. 1958년에도 이미 『조선통사』가 발간되었지만, 1차 개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1962년도판 『조선통사』가 그 이전까지 북한 역사학계의 연구성과를 제대로 살펴볼 수 있는 책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1970년 들어 주체사상이 강하게 자리를 잡으면서 그 이전 시기와는 달리 학문적으로 뚜렷한 연구 성과는 그다지 없었다. 그런 영향 아래 1977년에 발간된 『조선통사』에는 정치적인 요소, 곧 ‘김일성 교시’가 들어가서 학문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그 이전보다 퇴보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북한 역사학계의 연구성과는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가 주관하여 1979년부터 발간된 『조선전사』로 정리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고려시대 역사 연구 분야에서도 일반적인 북한 역사학계의 학문적인 흐름이 반영되었다. 1960년대까지는 연구가 활발하여 특히 사회 경제사 분야에서의 성과가 두드러졌다. 대표적인 성과로는 김석형의 『조선 봉건시대 농민의 계급구성』(1958), 박시형의 『조선토지제도사』 상(1960), 하(1961), 임건상의 『조선의 부곡제에 관한 연구』(1963) 등이 유명하다. 사회 경제사 연구는 농민이 생산력 발전에 중대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편으로는 봉건 통치배들이 수탈을 가혹하게 하였고 그에 따라 농민·천민의 항쟁이 일어났다는 입장을 보였다.

고려시대의 농민 항쟁과 대외 항쟁사 분야에 대해서도 중요한 성과를 냈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김석형의 『봉건지배계급을 반대한 농민들의 투쟁』 고려편(1960), 김재홍의 『원(元) 침략자를 반대한 고려인민의 투쟁』(1963) 등을 들 수 있다. 농민 항쟁 분야에서는 특히 무신 정권기 농민 항쟁에 주목하여 그것을 민중 항쟁으로 보고 그 성격을 ‘중세기 역사에 있었던 큰 규모의 계급 투쟁’, ‘대규모적이며 장기적인 농민전쟁’으로 평가하였다. 북한은 대외 관계사도 국난 극복사 차원에서 중요하게 취급하였는데, 특히 거란과 몽골과의 항쟁 분야에서 인민대중의 역할을 강조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외 분야에서는 정진석 등이 쓴 『조선철학사』 상(1961) 등을 말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북한의 고려시대 역사 연구에 대한 성과는 『조선전사』 6, 7권에 정리되었는데, 그 책에서는 문화 분야에도 적지 않은 서술을 하고 있다. 기술과 과학, 의식주, 민속놀이 등을 자세하게 다루어 적지 않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⁶⁾

6) 이상 북한 역사 연구 현황에 대해서는 아래의 책들을 주로 참고하였다.

박용운(1989), 『北韓의 高麗時代史 敍述』 『북한이 보는 우리 역사』, 을유문화사 : 안병우·도진순 편(1990), 『북한의 한국사인식』, 한길사 : 노명호(1991), 『北韓史學의 高麗時代 身分制와 土地所有關係에 관한 연구성과 분석』 『북한의 한국학 연구성과 분석-역사·예술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홍영의(1993) 『北韓 《조선전사》의 敍述傾向과 그 性格; 高麗 對外鬭爭史를 中心으로』 『군사』 27, 국방군사연구소 : 이인철(2003), 「북한의 고려시대 정치사 연구동향」 『북한의 한국사 연구동향』 1, 국사편찬위원회 : 윤용혁(2003), 「고려의 대몽항쟁, '단계적으로 발전해 간 항쟁역량'」 『내일을 여는 역사』 13.

한편, 고려시대 역사·고고학과 관련하여 개성의 유적이거나 유물에 대한 연구도 2000년대 후반에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조선유적유물도감 편찬위원회 편, 『조선유적유물도감(고려편)』(1992: 서울대학교출판부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총9권)』)을 시작으로 김인철 『고남리 일대에서 드러난 고려평민무덤에 대하여』(1996: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전룡철, 김진석 『개성의 옛 자취를 더듬어』(2002: 문학예술출판사), 김인철 『고려무덤 발굴보고』(2002: 사회과학출판사) 출판 이후 북한의 2007년 개성일대의 문화유적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여러 작업중 하나로 주성철 『개성의 역사와 문화』(2008: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리창언 『고려의 성곽: 중세편』 22(2009: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리창언·리창진 공저 『고려의 건축: 중세편』 23, 김인철 『고려의 무덤: 중세편』 24, 김영진 『고려의 유물: 중세편』 25는 『조선고고학전서』로, 리창언 『고려유적연구』 조선사회과학학술집 26 고고학편(53)(2002: 사회과학출판사) 등이 출판되었다. 북한의 2007년 개성일대의 문화유적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준비과정에서 고려와 개성에 대한 연구성과의 축적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70년이라는 오랫동안 지속된 분단체제는 남북한이 역사를 해석하는 방식에서 큰 차이를 가져왔다. 특히 고대사와 근현대사 분야에서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고려시대 역사 연구 분야에서는 남북한의 역사 인식에 대한 차이가 적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북한은 유난히도 민족문화를 강조한다. 북한에서 문화는 항상 민족과 연관되어 논의된다. 민족과 문화를 하나의 단위로 보는 것은 민족을 문화의 기본 단위로 보기 때문이다. 나라와 민족이 존재하고 나라, 민족마다 사람의 감정과 정서가 서로 다른 만큼 문화는 민족을 단위로 발전한다고 주장한다. 민족을 기본 단위로 문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민족문화는 곧 민족 발전을 상징하는 징표라는 것이다.

북한은 민족사의 중심을 고구려에 두고 있다. 고조선을 시작으로 고구려-발해-고려를 민족사의 정통으로 인정한다. 조선시대는 ‘착취와 피착취의 계급사회’로 규정한다. 이러한 역사적 관점은 문화재 정책에도 반영되고 있다. 북한의 문화재 보호정책이 시작된 것은 북한 정권 수립 직후부터였다.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훼손된 민족문화를 복원한다는 명분은 정권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유용한 정책이었다. 일제 식민통치에 대한 잔재를 청산하고 일제에 의해 훼손된 문화재를 복원하는 것으로부터 문화재 정책이 출발하였다.

북한에서 문화재 보호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이 처음 나온 것은 광복 이듬해인 1946년이었다. 문화재와 관련한 최초의 공식 명령은 1946년 4월 29일 임시인민위원회 위원장 김일성 명의로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보존령」과 시행규칙, 시행수속이 발표되었다. 이후의 문화재 관련 정책은 법이나 명령같은 제도적인 것보다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교시(연설, 담화 등)를 통해서 이루어져 왔다.

북한 문화재 정책의 기본은 “진보적이고 인민적인 것을 비판적으로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1949년 10월 15일의 김일성의 교시 「민족문화유산을 잘 보존하여야 한다」에서 처음 제시되었다. 이후 단 한번의 변화도 없이 유지된 원칙이다. 김일성은 “문화유산가운데서 진보적이고 인민적인 것은 비판적으로 계승·발전시켜야 하는 이유를 인민들에게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주고, 애국주의 정신으로 교양”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문화재 보호와 관련하여 공식적인 법이 제정된 것은 1994년이였다. 1994년 「문화유물보호법」이 제정되면서, 법적 체계를 갖추었다. 그 이전까지 문화재와 관련한 내용은 주로 김일성과 김정일의 말씀이나 담화 등의 형식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것이 가능했던 것은 공식적인 법보다 말씀이나 교시가 우선하는 북한 체제의 특성 때문이다. 즉, 북한에서 가장 강력한 실행력을 갖고 있는 것이 최고지도자의 문건인데, 문화재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1994년에 제정된 문화재 관련 법령이 「문화유물보호법」이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의 문화재 정책에서 우선적인 보호 대상이 된 것은 유형 문화재와 역사 유적이였다. 이후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2012년 「문화유산보호법」으로 대체되었고, 다시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2015년에 「민족유산보호법」이 발표되였다. 이 과정에서 유형문화재에서 제한되였던 보호대상에 무형문화재(「문화유산보호법」)와 천연기념물(「민족유산보호법」)을 포함되였다. 이 법에서 규정한 보호 대상은 문화재 관련 규정이 보완되면서 남한의 「문화재보호법」에서 규정한 문화재 보호 대상과 유사해졌다.⁷⁾

이에 따라 북한의 문화정책은 1) 계급적 문화재 정책, 2) 민족우월주의, 3) 배타적 민족문화, 4) 고구려 중심주의, 5) 평양 중심주의와 대동강문화론, 6) 반종교적 문화재 정책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⁸⁾ 이러한 정책은 결국 북한의 고고학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문화재를 발굴·복원하는 원칙은 당성, 계급성이다. 북한이 문화재 보호정책에서 계급성을 강조하는 것은 문화란 “문화를 생성한 계급의 관점과 이익을 벗어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모든 문화는 필연적으로 계급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넓은 의미로서 계급성은 “인류역사가 계급사회에 접어든 이후 모든 문학예술 작품에서 나타나는 특성이다. 문화는 필연적으로 한 계급의 입장을 대변, 지지, 옹호하는 성격을 지니게 된다”고 주장한다.

계급적 성격을 강조하는 이유는 민족문화가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입장이 계급성을 떨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설명한다. 민족문화라고 하더라도 어떤 계급에 의해 건설되느냐에 따라서 그 성격은 달라진다는 것이다. 계급에 따라서 민족문화의 성격이 달라지기에 북한의 민족문화는 당연히게도 북한에서의 민족문화 건설은 철저하게 사회주의적 내용을 따라야 하고, 이는 노동계급의 ‘당성’, ‘계급성’, ‘인민성’에 입각하면서도 조선의 현실을 반영한 ‘항일혁명 투쟁’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7) 2019년 1월 19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민족유산보호법’을 일부 개정한 것으로 보인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수정·보충해 발표한 민족유산보호법은 “6개 장에 70여개의 조문”으로 돼 있으며, “물질유산(유형유산)과 비물질유산(무형유산), 자연유산의 보호 관리에서 나서는 모든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그러면서 “민족유산보호법이 수정 보충됨으로써 민족유산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 잘 보호하고 옹계 계승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법적 담보가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고 한다. 북한은 2015년 7월 기존의 ‘문화유산보호법’을 폐기하고 현재의 민족유산보호법을 새로 채택했다. 채택 당시 6장 62개 조항으로 구성됐던 이 법은 이번 개정으로 법 조항이 10여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민족유산보호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소개하지 않았으나 문화유산 관리를 강화하려는 북한 지도부의 의지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북한의 민족유산보호법이 문화유산 보존에 대한 남북협력 방안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연합뉴스』 2019.01.19. 「北, 민족유산보호법 개정…내용은 공개안해」)

8) 통일교육원 교육개발과, 2016 「북한의 문화재 정책과 관리체계」 『북한의 문화재 정책과 남북 문화유산 협력』 주제가 있는 통일 강좌 48, 통일부 통일교육원

것을 강조한다.

한편, 대동강유역문화-고조선-고구려-고려로 연결시켜 역사적 정통성을 주장하는 북한 정권에 있어 개성 일원에 위치하는 고려시대의 문화유산은 ‘조선민족 제일주의’에 따른 정권차원의 관심 속에서 보존되고 있다.⁹⁾ 그 결과 1990년대에 들어와 정권차원에서 왕건릉(1994년)을 비롯해 일부 왕릉과 유명인물의 무덤을 개건하거나 복원했다.¹⁰⁾

이후를 전후해 북한정권은 평양의 문화유산인 ‘고구려 고분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¹¹⁾ 등재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졌다.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1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6·15공동선언’이 발표되고, 이후 장관급회담의 정례화 및 남북 교류협력의 활성화되면서 북한 현지 조사가 가능해지고 남북의 문화유산 교류는 활발해졌다. 이때 첫 번째로 진행된 2003년에 시작된 ‘금강산 신계사 대응전지’ 발굴조사는 남북 문화재 공동보존 사업에 물꼬를 트는 계기를 마련했다.¹²⁾

그리고 2000년 5월 20일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개성의 역사유적지구(Historical Relics in Kaesong)’로 등재하였으나, 북한 내부의 경제사정으로 2005년부터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 해 11월 18일부터 21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개성역사 유적 세계문화유산 등재 지원을 위한 남북공동학술대회’와¹³⁾ 답사가 개최된 것을 시작으로, 제17차

9) 북한에서 ‘조선민족제일주의’란 “조선민족의 위대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조선민족의 위대성을 더욱 빛내여 나가려는 높은 자각과 의지로 발현되는 숭고한 사상감정”(『김정일전집』 제9권, 444쪽)으로 풀이함으로써 수령제 정치체제 정당화에 이용한다.

10) 개성 역사유적에 대한 전문 교시도 있다. 김일성은 1992년 5월 5일 성균관, 공민왕릉 등 개성 역사유적을 돌아보면서 교시를 남겼고(김일성, 「성균관을 돌아보면서 일군들과 한 담화」(1992년 5월 5일), 『김일성전집』 92, 평양:조선로동당출판사, 252~256쪽; 김일성, 「공민왕릉을 돌아보면서 일군들과 한 담화」(1992년 5월 5일), 『김일성전집』 92, 평양:조선로동당출판사, 257~260쪽), 김정일은 1968년 8월 22일 개성지구 역사문화유적을 돌아보면서 「개성지구 역사문화유적유물들을 원상대로 잘 보존 관리할데 대하여」라는 교시를 남겼다(김정일, 「개성지구 역사문화유적유물들을 원상대로 잘 보존 관리할데 대하여」(개성지구 역사문화유적들을 돌아보면서 일군들과 한 담화, 1968년 8월 22일), 『김정일전집』 11, 252~257쪽).

11) 세계유산은 유네스코가 1972년 제정한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협약’에 따라 지정한 유산으로 인류문명과 자연사에 중요한 자산으로 계속 보존할 가치가 있는 유산이다. 인간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작품인 문화유산과 자연에 의한 자연유산, 이 두 가지가 합쳐진 복합유산으로 나뉜다.

12) ‘금강산 신계사 복원사업’은 처음엔 남한의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약칭 평불협)와 북한의 금강산국제그룹,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사이에 금강산 신계사 복원을 위한 협약서가 체결(1998. 9.)되면서 시작되었다. 신계사는 북한의 국보유적 제95호로 한국전쟁 때 파괴된 상태이다. 1999년부터 2003년까지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이 주도하여 신계사터 지표조사(2001년), 신계사 복원사업을 위한 합의서 체결(2003년) 등 준비과정을 거쳤다. 실제 복원사업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간 집중적으로 진행되었다. 복원사업은 발굴조사를 토대로 6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 사업은 북한 소재 문화유산을 남북이 공동으로 복원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13)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남측에서 4명, 북측에서 3명의 관련 연구자들이 참여해 ‘개성지구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의 필요성과 세계유산적 가치’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고, 또한 개성의 역사 문화적 가치와 의미에 대한 연구발표와 개성지역의 구체적인 문화재에 대한 연구결과도 발표될 예정이었다. 주제발표 내용을 보면 ICOMOS(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한국위원회 황기원 부위원장(서울대 환경대학원장)이 「역사 도시 개성: 세계문화유산적 고찰」, 숙명여대 박종진 교수는 총론형식으로 「개성의 역사 문화적 가치에

남북장관급회담에서는 개성의 역사유적을 세계문화유산에 등록하고 보존 관리하기 위해 남과 북이 협력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이듬해인 2006년 1월 개성 역사유적 발굴에 대한 포괄적 합의서가 남과 북 사이에 체결되었고, 이즈음 북한은 ‘개성역사유적지구’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HC)에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신청을 했다. 이 때문에 2007년 5월에 역사적인 남북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2008년 제32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범위’와 ‘완충지역(buffer zone)’ 크기의 부족을 이유로 등재 반려(deferral) 판정을 받았다. 이후 북한은 2011년 2월 반려사항을 보완, 수정 제출 하였으며, 2012년 9월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루어진 이코모스(ICOMOS :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기술평가팀의 현지답사의 결과물로 2013년 5월 13일에 공개된 실사 보고서에서 등재권고 판정을 받았다. 그리고 6월 23일 캄보디아의 프놈펜에서 개최된 제37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개성의 역사적 기념물 및 유적(Historic Monuments and Sites in Kaesong)’이란 명칭으로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북한의 두 번째 세계유산이다.

3. 북한의 고려시대 유적의 발굴 현황

해방 이후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진 첫 발굴이 1947년에 이루어진 개성 법당방(法堂坊) 고려고분군 이었다.¹⁴⁾ 이듬해엔 홍왕사지에 대한 조사와 부분 발굴이 이루어졌다.¹⁵⁾ 북한에서 고려시대 유적 가운데 첫 발굴도 1956년에 이루어진 개성의 공민왕릉(현릉)이다.¹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남과 북은 모두 고구려 중심, 신라사 중심의 발굴이 진행되어졌던 것도 사실이다. 서로 다른 역사 인식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고려나 조선시대 유적에 대한 홀대를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비록 1960년대 이후 절터나 가마터를 중심으로 적잖은 수의 고려·조선시대 유적이 조사되었지만, 건축사나 도자사의 자료 수집을 위해서, 혹은 사적지 복원을 위한 부수적 사업에서 다루어져 왔다. 그로 인해 아직도 근대는 물론이고, 조선과 고려시대의 유적과 유물에 대한 관심은 고대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며 연구도 그다지 활성화되지 못한 형편이었다.

대하여», 김영미 이화여대 교수가 「개성지역의 불탑과 불교문화», 서성호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사가 「개성지역의 궁궐과 성곽」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북측에서는 「개성지구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는 사업의 절박성과 정당성에 대하여», 「개성지구의 왕릉유적에 관한 문제», 그리고 「개성지구의 절간유적에 관한 문제」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원활하게 진행되지는 못하였다.

14) 개성 法堂坊 고려고분군은 경기도 長湍郡 津西面에 있는 고려 초기의 벽화고분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이 1947년 5월 3일부터 5월 12일까지 발굴한 것이다(李弘植, 1954 『高麗壁畫古墳發掘記』 韓國古文化論攷 을 유문화사). 이 발굴조사가 중세고고학의 원년이 된다는 점과 이로부터 꼭 70년 만에 한국 중세고고학회가 창립된다는 점에서 뜻 깊은 일이다.

15) 黃壽永, 1959 「고려 興王寺址의 調査」 『白性郁博士頌壽記念佛敎學論文集』 東國大學校 白性郁博士頌壽記念事業委員會

16) 전주농, 1960 「고려공민왕현릉발굴개보」 『문화유산』 1960-4

남한은 1970년대부터 고대 유적지에 대한 고고 발굴 조사를 통한 유적과 유물이 크게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역사 연구에 반영되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 발굴 자료의 양이 더욱 급증하면서 고고 학이 고대사연구에 확실히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렇게 역사고고학을 통한 발굴성과와 연구가 고대의 시대상을 복원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선사·고대 이외 시기의 중세의 역사고고학에 대한 관심과 연구 영역으로의 확장에는 무관심하였다.

1980년대 후반까지도 통일신라 이후의 고고학 발굴 자료는 역사학자와 고고학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고, 연구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왔다. 1990년대부터 개발에 앞서 유적조사 시행이 제도적으로 정착되면서 발굴기관(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의 수적 증가와 함께 대규모 개발지에서 고려 이후 시기의 유적들이 속속 드러났다. 이어서 2000년대에 들어 개성 공단, 강화 고려왕릉, 개성 만월대 유적, 서울 4대문 내의 개발 사업지구에서 고려와 조선시대의 생활과 문화상을 말해주는 유적과 유구가 발굴되면서 한국 중세사 연구에서 발굴성과의 활용이라는 측면이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1990년 후반부터 시작된 생활사에 대한 관심 역시 그러한 연구와 발굴성과에 힘입어 이루어진 것이다. 이는 부족한 사료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연구방법론의 탐색, 나아가 생활사 영역에 대한 유물·유적의 활용과 복원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서 찾아진 결과였다.

이제 중세고고학 자료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2003년 15개 기관으로 출발한 발굴조사 기관(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소속)은 현재 171개이다. 국립문화재연구소와 발굴 기관에서 발굴조사가 한 해 300여 건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중 90% 정도가 개발에 따른 구제발굴이다. 이러한 양상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발굴조사를 통해 확보되는 발굴 조사 보고서나 발굴 자료의 종류와 양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통계조차 정리되어 있지 않다. 국가기관과 발굴 법인에서도 발굴 조사 보고서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 실정이다. 그동안 필자가 파악한 남한의 중세시기(고려·조선) 발굴조사 보고서는 대략 5,500건에 달한다.¹⁷⁾

현재 북한에서 이루어진 해방 이후 2019년까지의 고려와 조선시대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는 총 85건(실제 유적 지역은 60개 지역)이다(<표 1> 해방이후 북한 지역의 고려, 조선시대 유적 발굴 연표 참조). 물론 여기에는 만월대와 신계사, 영통사와 같은 유적은 장기 발굴과 몇 차례 추가 발굴이 이루어진 결과까지 포함되어 있다.

번호	연도	지역 유적	유적 위치	성격	유적 명칭	시대
1	1947년5월3일~5월12일	개성시 法堂坊 고려고분군(경기도長湍郡津西面)(국립중앙박물관)	개성시 법당방	고분	法堂坊 고려고분군	고려
2	1948년미상	개성시 개풍군 덕적산 홍왕사터(국립중앙박물관)	개성시 개풍군	사찰	홍왕사터	고려
3	1956년미상	개성시 개풍군 혜선리 玄陵(공민왕)	개성시 개풍군	왕릉	공민왕릉	고려

17) 현재까지 선사와 고대, 중세를 비율로 따지면, 선사 8.6%, 청동기 16%, 철기 21%, 원삼국 23.8%, 삼국시대 6.3%, 통일신라 11.8%, 고려 16.2%, 조선 23%이다. 따라서 역사고고학의 대상 시기인 고대(삼국, 통일신라 포함)가 18.1%, 중세의 고려와 조선은 39.2%에 해당한다. 이 수치만 보아도 고려, 조선시대 유적 발굴 조사의 수적 증가와 함께 그 중요성도 높다는 점을 말해준다.

4	1959년?월	황해남도 웅진군 은동리 자기가마터	황해남도 웅진군	자기가마	은동리 자기가마터	고려
5	1959년4월	평안북도 신의주시 상단리 집자리	평안북도 신의주시	집자리	상단리 집자리	고려
6	1959년6월	황해남도 병천군 봉암리 1호 자기가마터	황해남도 병천군	자기가마	봉암리 1호 자기가마터	고려
7	1959년6월16일~26일	개성시 선적리 불일동 불일사터	개성시 선적리	사찰	불일사터	고려
8	1961년미상	강원도 철원군 내문리 돌곽흙무덤	강원도 철원군	고분	내문리 석곽묘	고려
9	1966년미상	평안북도 신의주시 상단리 고려 집자리	평안북도 신의주시	집자리	상단리 집자리	고려
10	1967년미상	평안북도 동창군읍 학성리 집자리	평안북도 동창군	집자리	학성리 집자리	고려
11	1973년~1974년	개성시 만월대 서북건축군	개성시 만월동	궁궐	만월대 서북건축군	고려
12	1978년미상	개성시 고남리 용수산 안릉(定宗)	개성시 고남리	왕릉	안릉	고려
13	1978년미상	개성시 고남리 유릉(예종)	개성시 고남리	왕릉	유릉	고려
14	1978년미상	개성시 개풍군 혜선리 고릉(충렬왕비안평공주:재국대장공주)	개성시 개풍군	왕릉	고릉	고려
15	1978년미상	개성시 고남리 양릉(신종)	개성시 고남리	왕릉	영릉	고려
16	1978년미상	개성시 고남리 능동마을 총릉(충정왕)	개성시 고남리	왕릉	총릉	고려
17	1978년~1979년미상	개성시 고남리 움무덤떼	개성시 고남리	고분	고남리 토광묘	고려
18	1980년후반미상	개성시 개풍군 혜선리7릉떼	개성시 개풍군	왕릉	7릉	고려
19	1984년6월	황해북도 평산군 봉천리 자기가마터	황해북도 평산군	자기가마	봉천리 자기가마터	고려
20	1986년미상	개성시 만월대 동지	개성시 만월동	궁궐	만월대 동지	고려
21	1986년미상	개성시 만월대 하수도시설물	개성시 만월동	궁궐	만월대 하수도	고려
22	1988년5월(1차)	평안북도 박천군 기송리 자기가마터	평안북도 박천군	자기가마	기송리 자기가마터	조선
23	1988년6월~1989년6월(3차)	평안남도 강서군 태성리 자기가마터	평안남도 강서군	자기가마	태성리 자기가마터	고려
24	1989년7월	황해남도 배천군 산리 호도 자기 가마터	황해남도 배천군	자기가마	원산리 1호 도자기가마터	고려
25	1989년7월~1990년7월	황해남도 배천군 원산리 도자기가마터	황해남도 배천군	자기가마	원산리 도자기가마터	고려
26	1990년미상	평안북도 선천군 연봉리 기와가마	평안북도 선천군	자와가마	연봉리 기와가마	? 미상
27	1991년봄과가을(2차)	황해남도 봉천군 봉암리 도자기가마터	황해남도 봉천군	자기가마	봉암리 도자기가마터	조선
28	1992년5월	황해남도 봉천군 마송정리 1호 자기가마터	황해남도 봉천군	자기가	마송정리 1호 자기가마터	고려
29	1992년5월~6월	평양시 상원군 귀일리 자기가마터	평양시 상원군	자기가마	귀일리 자기가마터	조선
30	1992년6~7월, 1993년5월(2차)	황해남도 과일군 사기리 자기가마터	황해남도 과일군	자기가마	사기리 자기가마터	고려
31	1992년미상	개성시 만월대 원덕전터	개성시 만월동	궁궐	만월대 원덕전터	고려

32	1993년6월 (2차)	평안북도 박천군 기송리 자기가마터	평안북도 박천군	자기가마	기송리 자기가마터	조선
33	1993년 3월	개성시 개풍군 혜선리 고려태조 왕건 왕릉(顯陵)	개성시 개풍군	왕릉	왕건릉	고려
34	1993년(1차) 미상	개성시 송악동 은혜릉	개성시 송악동	왕릉	은혜릉	고려
35	1994년6월3 일~15일	황해남도 장연군 박산리 1호 자기가마 터	황해남도 장연군	자기가마	박산리 1호 자기가 마터	고려
36	1994년미상	개성시 장풍군 고읍리 1호 돌칸흙무덤	개성시 장풍군	고분	석실봉토분	고려
37	1994년미상	개성시 장풍군 고읍리 2호 돌칸흙무덤	개성시 장풍군	고분	석실봉토분	고려
38	1994년미상	개성시 개풍군 혜선리 서구릉	개성시 장풍군	왕릉	서구릉	고려
39	1995년~199 7년미상	평안남도 덕천시 남양리 돌곽흙무덤떼	평안남도 덕천시	고분	석곽묘	고려
40	1996년,2000 년~2001년	평양시 승호구역 화천2동 자기가마터	평양시 승호구역	자기가마	화천2동 자기가마 터	조선
41	1997년미상	개성시 용흥동 동구릉	개성시 용흥동	왕릉	동구릉	고려
42	1997년미상	평안남도 용강군 옥도리 동우동 돌곽 흙무덤	평안남도 용강군	고분	돌덧널무덤	고려
43	1997년미상	강원도 고산군 설봉리 석왕사	강원도 고산군	사찰	석왕사	고려, 조선
44	1998년4월~ 5월(1차)	개성시 용흥동 영통사터	개성시 용흥동	사찰	영통사터	고려
45	1998년5월~ 6월	평안남도 개천시 묵방리 2호 자기가마 터	평안남도 개천시	자기가마	묵방리 2호 자기가 마터	조선
46	1998년9월~ 11월(2차)	개성시 용흥동 영통사터	개성시 용흥동	사찰	영통사터	고려, 조선
47	1999년4월~ 7월(3차)	개성시 용흥동 영통사터	개성시 용흥동	사찰	영통사터	고려, 조선
48	1999년7월~ 10월(4차)	개성시 용흥동 영통사터	개성시 용흥동	사찰	영통사터	고려, 조선
49	2000년봄과 가을(보충발 굴)	개성시 용흥동 영통사터	개성시 용흥동	사찰	영통사터	고려, 조선
50	2001년11월2 일~11일	강원도 고성군 온정리 금강산 신계사 터 지표조사	강원도 고성군	사찰	온정리 신계사터	고려, 조선
51	2002년5월	평양시 온정구역 과학1동 자기가마터	평양시 온정구역	자기가마	과학1동 자기가마 터	조선
52	2002년미상	평안남도 성천군 군자리 골곽흙무덤	평안남도 성천군	고분	석곽묘	고려
53	2003년11월9 일~25일(1 차)	강원도 고성군 온정리 금강산 신계사 터(시굴조사 : 조계종, 북한 조선불교연 맹 공동)	강원도 고성군	사찰	온정리 신계사터	고려, 조선
54	2004년4월20 일~7월31일 (1차)	개성시 봉동리 개성공단 발굴(토지박물 관, 북한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공 동)	개성시 봉동리	건물지	개성공단 건물지	고려
55	2004년7월	개성시 박연리 대흥사 주변 천마산 석 불입상	개성시 박연리	사찰	대흥사 석불입상	고려, 조선

56	2004년8월3일~25일(2차)	강원도 고성군 온정리 금강산 신계사터(조계종, 북한 조선불교연맹 공동)	강원도 고성군	사찰	온정리 신계사터	고려, 조선
57	2004년미상	개성시 박연리 성거산 운홍사3층석탑	개성시 박연리	사찰	운홍사 3층 석탑	고려, 조선
58	2005년5월3일~31일(3차)	강원도 고성군 온정리 금강산 신계사터(조계종, 북한 조선불교연맹 공동)	강원도 고성군	사찰	온정리 신계사터	고려, 조선
59	2005년8월31일~9월26일(4차)	강원도 고성군 온정리 금강산 신계사터(조계종, 북한 조선불교연맹 공동)	강원도 고성군	사찰	온정리 신계사터	고려, 조선
60	2006년8월11일~9월8(5차)	강원도 고성군 온정리 금강산 신계사터(조계종, 북한 조선불교연맹 공동)	강원도 고성군	사찰	온정리 신계사터	고려, 조선
61	2007년3월20일~4월10일(6차)	강원도 고성군 온정리 금강산 신계사터(조계종, 북한 조선불교연맹 공동)	강원도 고성군	사찰	온정리 신계사터	고려, 조선
62	2007년5월15일~7월13일(1차)	개성시 만월대(황궁) 서북건축군 남북 공동발굴	개성시 만월동	궁궐	만월대 서북건축군	고려
63	2007년9월7일~11월16일(2차)	개성시 만월대(황궁) 서북건축군 남북 공동발굴	개성시 만월동	궁궐	만월대 서북건축군	고려
64	2008년11월4일~12월23일(3차)	개성시 만월대(황궁) 서북건축군 남북 공동발굴	개성시 만월동	궁궐	만월대 서북건축군	고려
65	2008년1월	개성시 덕암동 취적교	개성시 덕암동	다리	취적교	고려
66	2008년3월4일~3월20일(2차)	개성시 봉동리 개성공단발굴(토지박물관, 북한사회과학원고고학연구소 공동)	개성시 봉동리	건물지	개성공단 건물지	고려
67	2008년미상	개성시 이정암(1541~1600)의 묘	개성시 ?	고분	분묘	조선
68	2008년10월	개성시 동현동 낙타교(만부교)	개성시 종현동	다리	락타교	고려
69	2008년미상	함경남도 영광군 백운산에 있는 용홍사터	함경남도 영광군	사찰	용홍사터	고려, 조선
70	2008년미상	평양시 용성구역 용추1동 대화궁	평양시 용성구역	궁궐	대화궁	고려
71	2009년10월~2010년 10월	개성시 개풍군 홍왕리	개성시 개풍군	사찰	홍왕사터	고려
72	2010년 2월	태묘와 사직	개성시 승전동, 덕암동	건물지	태묘사직	고려
73	2010년3월23일~5월18일(4차)	개성시 만월대(황궁) 서북건축군 남북 공동발굴	개성시 만월동	궁궐	만월대 서북건축군	고려
74	2010년~2012년	개성시 개성성 발굴(프랑스 국립극동연구소 공동)	개성시 일원	성곽	개성성(나성) 일대	고려
75	2010년미상	개성시 장풍군 고분때:인릉(선종)회릉(의종)	개성시 장풍군	왕릉	인릉 회릉	고려
76	2011년11월1	개성시 만월대(황궁) 서북건축군 남북	개성시 만월동	궁궐	만월대 서북건축군	고려

	4일~12월20일(5차)	공동발굴(안전진단, 긴급복구)				
77	2011년미상	개성시 박연리 대홍사	개성시 박연리	사찰	대홍사 석불입상	고려
78	2013년미상	개성시 개성리 룡흥동 1호 돌칸흙무덤	개성시 룡흥동	고분	석곽묘	고려
79	2014년7월22일~8월16일(6차)	개성시 만월대(황궁) 서북건축군 남북공동발굴	개성시 만월동	궁궐	만월대 서북건축군	고려
80	2015년6월1일~11월30일(7차)	개성시 만월대(황궁) 서북건축군남북공동발굴	개성시 만월동	궁궐	만월대 서북건축군	고려
81	2017년5월~6월	개성시 선적리 영릉(숙종)	개성시 선적리	왕릉	영릉	고려
82	2018년10월22일~12월10일(8차)	개성시 만월대(황궁) 서북건축군 남북공동발굴	개성시 만월동	궁궐	만월대 서북건축군	고려
83	2019년7월(2차)	개성시 송악동 온혜릉(왕건의조모,원창왕후)	개성시 송악동	왕릉	온혜릉	고려
84	연도미상	개성시 장풍군 향동리지릉(명종)	개성시 장풍군	왕릉	지릉	고려
85	연도미상	개성시 봉동리 건축지	개성시 봉동리	건물	봉동리 건축지	고려

〈표 1〉 해방이후 북한지역의 고려, 조선 유적 발굴 연표

〈표 1〉의 85건은 다른 시기의 발굴 성과와 비교해 보아야겠지만, 그다지 많은 수치는 아니다. 발굴 시기도 해방이후 우리 힘으로 시작된 첫 발굴인 40년대 법당방 고려고분군과 홍왕사터를 제외하면, 50년대 5건, 60년대 3건, 70년대 7건, 80년대 8건, 90년대 23건(영통사 중심), 2000년대 이후 35건, 연도 미상 2건 순이다. 2000년대 이후 이전 시기보다 발굴 건수가 늘어난 것은 개성 영통사, 만월대, 금강산 신계사 발굴이 지속된 때문이다.

발굴된 85건을 유적과 유구의 성격에 따라 나누어 보면, 왕릉 및 고분 25건(왕릉 15, 고분 10), 사찰 20건, 가마터 17건, 궁궐 13건, 다리 2건, 집자리 3건, 건물지 4건, 성곽 1건 등 순이다. 개성 지역이 고려의 수도라는 역사적 특성상 대부분 고대시대의 것이지만, 고려시대 유적이 61건, 고려와 조선시대가 중첩되는 유적이 15건, 조선시대 8건, 미상 1건이다. 이러한 점은 조선시대에 대한 북한의 역사인식을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지역	유적 위치	시기
강원도(3)	고산군 석왕사	고려, 조선
	고성군 온정리 신계사터	고려, 조선
	철원군 내문리 석곽묘	고려
개성시(36)	지역 미상 분묘	고려
	개풍군 홍왕사터	고려
	개풍군 공민왕릉	고려
	개풍군 고릉	고려

	개풍군 7릉	고려
	개풍군 왕건릉	고려
	개풍군 홍왕사터	고려
	장풍군 석실봉토분	고려
	장풍군 석실봉토분	고려
	장풍군 서구릉	고려
	장풍군 인릉, 회릉	고려
	장풍군 지릉	고려
	고남리 안릉	고려
	고남리 유릉	고려
	고남리 영릉(경종)	고려
	고남리 총릉	고려
	고남리 토광묘	고려
	선적리 영릉(숙종)	고려
	송악동 온혜릉	고려
	용흥동 동구릉	고려
	용흥동 석곽묘	고려
	장단 法堂坊 고려고분군	고려
	만월동 동지	고려
	만월동 하수도	고려
	만월동 원덕전터	고려
	만월동 서북건축군	고려
	박연리 대흥사 3존석불입상	고려
	박연리 운흥사3층석탑	고려, 조선
	봉동리 개성공단 건물지	고려, 조선
	봉동리 건축지	고려
	선적리 불일사터	고려
	용흥동 영통사터	고려
	승전동 태묘, 덕암동 사직	고려
	미상 개성성(나성) 일대	고려
	중현동 락타교	고려
	덕암동 취적교	고려
평안남도(4)	강서군 태성리 자기기미터	고려
	덕천시 석곽묘	고려
	성천군 석곽묘	고려
	용강군 돌덧널무덤	고려
평안북도(5)	동창군 학성리 집자리	고려
	박천군 기송리 자기가마터	조선
	선천군 연봉리 기와가마	미상?

	신의주시 상단리 집자리	고려
	개천시 묵방리 2호 자기가마터	조선
평양시(4)	상원군 귀일리 자기가마터	조선
	송호구역 화천2동 자기가마터	조선
	온정구역 과학1동 자기가마터	조선
	용성구역 대화궁터	고려
	영광군 용흥사터	고려
함경남도(1)	과일군 사기리 자기가마터	고려
	배천군 원산리 1호 도자기가마터	고려
	병천군 봉암리 1호 도자기가마터	조선
	봉천군 마송정리 1호 자기가마터	고려
	웅진군 은동리 자기가마터	고려
	장연군 박산리1호자기가마터	고려
황해남도(6)	평산군 봉천리 자기가마터	고려
황해북도(1)		

〈표 2〉 북한의 지역별 발굴 유적

〈표 2〉 북한의 지역별 고려, 조선시대 발굴 유적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유적이 개성에 집중되어 있다. 60건 중 36건(60%)에 이른다. 나머지는 황해남도 9건, 황해북도 1건, 평안북도 5건, 평안남도 4건, 평양시 4건, 강원도 3건, 함경남도 1건 순이다. 황해남도는 사실상 개성과 인접한 지역이므로 개성 지역쪽으로 합산하더라도 75%에 달한다.

한편, 발굴 시기도 50년대 6건, 60년대 3건, 70년대 7건, 80년대 8건, 90년대 23건(영통사 중심), 2000년대 이후 32건 순이다.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급증한 북한의 발굴 성과는 북한의 ‘개성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를 정리하면, 〈표 3, 4, 5〉이다.

연도	지역 유적	유적 위치	성격	유적 명칭	시대
1948년	개성시 개풍군 덕적산 홍왕사터(국립중앙박물관)	개성시 개풍군	사찰	홍왕사처	고려
1959년6월16일~26일	개성시 선적리 불일동 불일사터	개성시 선적리	사찰	불일사터	고려
1973년~1974년	개성시 만월대 서북건축군	개성시 만월동	궁궐	만월대 서북건축군	고려
1986년미상	개성시 만월대 동지	개성시 만월동	궁궐	만월대 동지	고려
1986년미상	개성시 만월대 하수도시설물	개성시 만월동	궁궐	만월대 하수도	고려
1992년미상	개성시 만월대 원덕전터	개성시 만월동	궁궐	만월대 원덕전터	고려
1998년4월~5월(1차)	개성시 용흥동 영통사터	개성시 용흥동	사찰	영통사터	고려
1998년9월~11월(2차)	개성시 용흥동 영통사터	개성시 용흥동	사찰	영통사터	고려, 조선
1999년4월~	개성시 용흥동 영통사터	개성시 용흥동	사찰	영통사터	고려,

7월(3차)					조선
1999년7월~10월(4차)	개성시 용흥동 영통사터	개성시 용흥동	사찰	영통사터	고려, 조선
2000년봄과가을(보충발굴)	개성시 용흥동 영통사터	개성시 용흥동	사찰	영통사터	고려, 조선
2004년7월	개성시 박연리 대홍사 주변 천마산 석불입상	개성시 박연리	사찰	대홍사 석불입상	고려, 조선
2004년미상	개성시 박연리 성거산 운흥사3층석탑	개성시 박연리	사찰	운흥사 3층 석탑	고려, 조선
2004년4월20일~7월31일(1차)	개성시 봉동리 개성공단 발굴(토지박물관이 북한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와 공동)	개성시 봉동리	건물지	개성공단 건물지	고려
2008년3월4일~3월20일(2차)	개성시 봉동리 개성공단발굴(토지박물관이 북한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와 공동)	개성시 봉동리	건물지	개성공단 건물지	고려
2007년5월15일~7월13일(1차)	개성시 만월대(황궁) 서북건축군 남북공동발굴	개성시 용흥동	궁궐	만월대 서북건축군	고려
2007년9월7일~11월16일(2차)	개성시 만월대(황궁) 서북건축군 남북공동발굴	개성시 만월동	궁궐	만월대 서북건축군	고려
2008년11월4일~12월23일(3차)	개성시 만월대(황궁) 서북건축군 남북공동발굴	개성시 만월동	궁궐	만월대 서북건축군	고려
2008년1월	개성시 덕암동 취적교	개성시 덕암동	다리	취적교	고려
2008년미상	개성시 동현동 낙타교(만부교)	개성시 동현동	다리	락타교	고려
2010년 2월	태묘와 사직	개성시 승전동, 덕암동	건물지	태묘 사직	고려
2010년~2012년	개성시 개성성 발굴(프랑스 국립극동연구소 공동)	개성시 일원	성곽	개성성(나성) 일	고려
2010년3월23일~5월18일(4차)	개성시 만월대(황궁) 서북건축군 남북공동발굴	개성시 만월동	궁궐	만월대 서북건축군	고려
2011년 미상	개성시 박연리 대홍사	개성시 박연리	사찰	대홍사 석불입상	고려
2011년11월14일~12월20일(5차)	개성시 만월대(황궁) 서북건축군 남북공동발굴(안전진단, 긴급복구)	개성시 만월동	궁궐	만월대 서북건축군	고려
2014년7월22일~8월16일(6차)	개성시 만월대(황궁) 서북건축군 남북공동발굴	개성시 만월동	궁궐	만월대 서북건축군	고려
2015년6월1일~11월30일(7차)	개성시 만월대(황궁) 서북건축군 남북공동발굴	개성시 만월동	궁궐	만월대 서북건축군	고려
2018년10월22일~12월10일(8차)	개성시 만월대(황궁) 서북건축군 남북공동발굴	개성시 만월동	궁궐	만월대 서북건축군	고려
연도미상	개성시 봉동리 건축지	개성시 봉동리	건물	봉동리 건축지	고려

〈표 3〉 개성지역의 발굴 현황

연도	지역 유적	유적 위치	성격	유적 명칭	시대
1959년4월	평안북도 신의주시 상단리 집자리	평안북도 신의주시	집자리	상단리 집자리	고려
1966년미상	평안북도 신의주시 상단리 고려 집자리	평안북도 신의주시	집자리	상단리 고려 집자리	고려
1967년미상	평안북도 동창군읍 학성리 집자리	평안북도 동창군	집자리	학성리 집자리	고려
1997년미상	강원도 고산군 설봉리 석왕사	강원도 고산군	사찰	석왕사	고려, 조선
2001년11월2일~11일	강원도 고성군 온정리 금강산 신계사터 지표조사	강원도 고성군	사찰	온정리 신계사터	고려, 조선
2003년11월9일~25일(1차)	강원도 고성군 온정리 금강산 신계사터(시굴 조사 : 조계종과 북한 조선불교연맹 공동)	강원도 고성군	사찰	온정리 신계사터	고려, 조선
2004년8월3일~25일(2차)	강원도 고성군 온정리 금강산 신계사터(조계종과 북한 조선불교연맹 공동)	강원도 고성군	사찰	온정리 신계사터	고려, 조선
2005년5월3일~31일(3차)	강원도 고성군 온정리 금강산 신계사터(조계종과 북한 조선불교연맹 공동)	강원도 고성군	사찰	온정리 신계사터	고려, 조선
2005년8월31일~9월26일(4차)	강원도 고성군 온정리 금강산 신계사터(조계종과 북한 조선불교연맹 공동)	강원도 고성군	사찰	온정리 신계사터	고려, 조선
2006년8월11일~9월8(5차)	강원도 고성군 온정리 금강산 신계사터(조계종과 북한 조선불교연맹 공동)	강원도 고성군	사찰	온정리 신계사터	고려, 조선
2007년3월20일~4월10일(6차)	강원도 고성군 온정리 금강산 신계사터(조계종과 북한 조선불교연맹 공동)	강원도 고성군	사찰	온정리 신계사터	고려, 조선
2008년미상	함경남도 영광군 백운산에 있는 용흥사터	함경남도 영광군	사찰	용흥사터	고려, 조선
2008년미상	평양시 용성구역 용추1동 대화궁	평양시 용성구역	궁궐	대화궁	고려

〈표 4〉 개성 이외 지역 발굴 현황

연도	지역 유적	유적 위치	성격	유적 명칭	시대
1947년5월3일~5월12일	개성시法堂坊고려고분군(경기도長湍郡津西面)(국립중앙박물관)	개성시 법당방	고분	法堂坊 고려고분군	고려
1956년미상	개성시 개풍군 혜선리 현릉(玄陵, 공민왕 노국공주)	개성시 개풍군	왕릉	공민왕릉	고려
1961년미상	강원도 철원군 내문리 돌곽흙무덤	강원도 철원군	고분	석곽묘	고려
1978년미상	개성시 고남리 용수산 안릉(定宗)	개성시 고남리	왕릉	안릉	고려
1978년미상	개성시 고남리 유릉(예종)	개성시 고남리	왕릉	유릉	고려
1978년미상	개성시 개풍군 혜선리 고릉(충렬왕비안평공주: 제국대장공주)	개성시 개풍군	왕릉	고릉	고려
1978년미상	개성시 고남리 양릉(신종)	개성시 고남리	왕릉	영릉	고려
1978년미상	개성시 고남리 능동마을 충릉(충정왕)	개성시 고남리	왕릉	충릉	고려
1978년~1979년미상	개성시 고남리 움무덤떼	개성시 고남리	고분	고남리 토광묘	고려
1980년후반미상	개성시 개풍군 혜선리7릉떼	개성시 개풍군	왕릉	7릉	고려

1993년미상	개성시 개풍군 혜선리고려태조왕건왕릉(顯陵)	개성시 개풍군	왕릉	왕건릉	고려
1993년(1차) 미상	개성시 송악동 은혜릉	개성시 송악동	왕릉	은혜릉	고려
1994년미상	개성시 장풍군 고읍리1호돌칸흙무덤	개성시 장풍군	고분	석실봉토분	고려
1994년미상	개성시 장풍군 고읍리2호돌칸흙무덤	개성시 장풍군	고분	석실봉토분	고려
1994년미상	개성시 개풍군 혜선리 서구릉	개성시 개풍군	왕릉	서구릉	고려
1995년~1997년미상	평안남도 덕천시 남양리 돌칸흙무덤떼	평안남도 덕천시	고분	석곽묘	고려
1997년미상	개성시 용흥동 동구릉	개성시 용흥동	왕릉	동구릉	고려
1997년미상	평안남도 용강군 옥도리 동우동 골칸흙무덤	평안남도 용강군	고분	돌덧널무덤	고려
2002년미상	평안남도 성천군 군자리 골칸흙무덤	평안남도 성천군	고분	석곽묘	고려
2008년미상	개성시 이정암(1541~1600)의 묘	개성시 ?	고분	분묘	조선
2010년미상	개성시 장풍군 고분떼:인릉(선종)희릉(의종)	개성시 장풍군	왕릉	인릉 희릉	고려
2013년미상	개성시 개성리 룡흥동 1호 돌칸흙무덤	개성시 용흥동	고분	석곽묘	고려
2017년5월~6월	개성시 선적리 영릉(숙종)	개성시 선적리	왕릉	영릉	고려
2019년7월(2차)	개성시 송악동 은혜릉(왕건의조모,원창왕후)	개성시 송악동	왕릉	은혜릉	고려
연도미상	개성시 장풍군 향동리지릉(명종)	개성시 장풍군	왕릉	지릉	고려

〈표 5〉 고려 및 조선시대 왕릉 및 고분 발굴

연도	지역 유적	유적 위치	성격	유적 명칭	시대
1959년?월	황해남도 웅진군 은동리 자기가마터	황해남도 웅진군	자기가마	은동리 자기가마터	고려
1959년6월	황해남도 병천군 봉암리 1호자기가마터	황해남도 병천군	자기가마	봉암리 1호	고려
1984년6월	황해북도 평산군 봉천리 자기가마터	황해북도 평산군	자기가마	봉천리 자기가마터	고려
1988년5월(1차)	평안북도 박천군 기송리 자기가마터	평안북도 박천군	자기가마	기송리 자기가마터	조선
1988년6월(2차)	평안북도 박천군 기송리 자기가마터	평안북도 박천군	자기가마	기송리 자기가마터	조선
1988년6월~1989년6월(3차)	평안남도 강서군 태성리 자기가마터	평안남도 강서군	자기가마	태성리 자기가마터	고려
1989년7월~1990년7월	황해남도 배천군 원산리 도자기가마터	황해남도 배천군	자기가마	원산리 도자기가마터	고려
1989년7월	황해남도 배천군 원산리 1호 도자기가마터	황해남도 배천군	자기가마	원산리 1호 도자기가마터	고려
1990년	평안북도 선천군 연봉리 기와가마	평안북도 선천군	기와가마	연봉리 기와가마	? 미상
1991년봄과 가을(2차)	황해남도 봉천군 봉암리 도자기가마터	황해남도 봉천군	자기가마	봉암리 도자기가마터	조선
1992년5월	황해남도 봉천군 송정리 1호 자기가마터	황해남도 봉천군	자기가마	송정리 1호 자기가마터	고려
1992년5월~6월	평양시 상원군 귀일리 자기가마터	평양시 상원군	자기가마	귀일리 자기가마터	조선
1992년6~7월, 1993년5월(2차)	황해남도 과일군 사기리 자기가마터	황해남도 과일군	자기가마	사기리 자기가마터	고려

1994년6월3일~15일	황해남도 장연군 박산리 1호 자기가마터	황해남도 장연군	자기가마	박산리 1호 자기가마터	고려
1996년,2000년~2001년	평양시 송호구역 화천2동 자기가마터	평양시 송호구역	자기가마	화천2동 자기가마터	조선
1998년5월~6월	평안남도 개천시 묵방리 2호 자기가마터	평양시 개천시	자기가마	묵방리 2호 자기가마터	조선
2002년5월	평양시 온정구역 과학1동 자기가마터	평양시 온정구역	자기가마	과학1동 자기가마터	조선

〈표 6〉 고려 및 조선시기 가마터 발굴 현황

4. 북한 고려시대 유적의 발굴 관련 연구 성과

고려시대 유적의 발굴 관련 연구 성과는 대략 166건에 이른다. 이 역시 대부분 개성 유적에 대한 발굴보고, 조사보고 형태의 것이며, 일반 연구논문인 경우도 있다. 특히 개성 일대의 왕릉 및 분묘 관련 33건, 만월대 관련 25건, 고려 북방성 및 개성 성곽 관련 19건, 가마터 관련 18건, 영통사 관련 11건, 대흥사 관련 8건, 평양 대화궁 관련 7건, 다리 관련 5건, 불일사 관련 4건, 만월대 발굴과정에서 수습된 금속활자 4건, 기타 사찰 관계 17건, 기타 32건이다(<표 7> 북한의 고려시대 유적 연구 성과 참조). 이는 북한의 고려시대 중요 유적 발굴 보고와 일정한 관련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왕릉과 고분, 가마 등은 단일한 유구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만월대, 영통사 관련 연구 성과는 오랫동안 이루어진 발굴의 지속성과 함께 축적된 것이다.

저자	제목	주제	성격	연도
리철수	15세기성곽축조에대하여 『역사과학』 2011-2	15세기 성곽	연구보고	2011
안성규	고려7릉때의6릉에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99-2	6릉	조사보고	1999
리창언	고려7릉때1릉에대하여 『조선고고연구』 2003-1	7릉때 1릉	조사보고	2003
강승태	기송리2호자기가마터발굴보고 『조선고고연구』 2005-4	가송리 2호 자기가마	발굴보고	2005
문성렬	12세기초고려가9성을설치하던시기갈라전의지역적범위에대하여 『역사과학』 1980-4	갈라전 범위	연구보고	1980
한영찬	강동읍의변천과1219년거란침략군을격멸한강동성의위치에대하여 『역사과학』 1991-3	강동성	연구보고	1991
미상	고려시기개경일대의사원건설과특징(유적유물소개) 『민족문화유산』 2008-3	개경일대 사원	일반	2008
로영환	개성일대의고려시기불교사찰(유적소개) 『민족문화유산』 2008-2	개성 불교사찰	일반	2008
주성철	세계문화유산으로새로등록된개성시의성곽과다리,비석유적들 『민족문화유산』 2014-2	개성 성곽과 다리, 비석	일반	2014
주성철	세계문화유산으로새로등록된개성시의왕궁및교육문화관계유적들 『민족문화유산』 2014-2	개성 왕궁과 교육유적	조사연구	2014
왕성수	개성에서새로드러난고려시기청동화로 『역사과학』 1978-1	개성 청동화로	일반	1976
김인철	개성일대에서발굴된회곽무덤의류형과변천에대하여 『조선고고연구』 2012-2	개성 회곽무덤	조사보고	2012

전룡철 고려의수도개성성의웅성에대하여 『조선고고연구』 2008-3	개성성	조사보고	2008
전룡철 고려의수도개성성에대한연구(1) 『역사과학』 1980-2	개성성(1)	연구보고	1980
전룡철 고려의수도개성성에대한연구(2) 『역사과학』 1980-3	개성성(2)	연구보고	1980
주성철 세계문화유산으로새로등록된개성시의왕릉과무덤유적들 『민족문화유산』 2014-1	개성왕릉과 무덤	조사보고	2014
김철만 새로발굴된박연일대의대홍사유적(유적유물소개) 『민족문화유산』 2011-4	대홍사 유적	일반	2011
리영민 경성읍성의성벽축조형식과방법에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90-3	경성읍성	조사연구	1990
리영민 경성읍성의성곽시설에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91-1	경성읍성	조사연구	1991
김인철 고남리일대에서드러난고려평민무덤에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96-4	고남라 민묘	발굴	1995
김명철 고려토성의축조형식과방법 『조선고고연구』 1991-1	고려 토성	조사연구	1991
최현아 고려성곽의치(유적유물소개) 『민족문화유산』 2011-3	고려성곽 치	일반	2011
김인철 고려왕릉의몇가지특징 『조선고고연구』 2006-1	고려왕릉	조사보고	2006
왕성수 새로발굴한고려자기 『역사과학』 1977-1	고려자기	일반	1977
리창언 고려시기무덤의연원에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91-2	고분	조사연구	1991
리창언,김인철 고읍리고려무덤발굴보고 『조선고고연구』 2001-4	고읍리 고분	발굴보고	2001
리창진/송광일 고읍리자기가마터발굴보고 『조선고고연구』 2011-3	고읍리 자기가마	발굴보고	2011
전주능 고려공민왕현릉발굴개보 『문화유산』 1960-4	공민왕	발굴	1960
정성숙 공민왕릉(유적유물소개) 『민족문화유산』 2006-1	공민왕릉	일반	2006
송광일 공민왕릉의특징에대한몇가지고찰 『조선고고연구』 2008-1	공민왕릉	조사보고	2008
강승태 과학1동자기가마터발굴보고 『조선고고연구』 2003-4	과학1동 자기가마	발굴보고	2004
리정민 국보유적관음전(유적유물소개) 『민족문화유산』 2008-3	관음사 관음전	일반	2008
박진옥/안병찬 구월산의단군사터에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94-3	구월산 단군사터	조사보고	1994
강승태 상원군귀일리2호자기가마터발굴보고 『조선고고연구』 1998-1	귀일리 자기가마	발굴	1998
강승태 상원군귀일리리조자기1호가마터발굴보고 『조선고고연구』 1995-1	귀일리 조선 자기가마	발굴	1995
김창길 고려시기의몇가지금석문유산(유물소개) 『민족문화유산』 2002-4	금석문	일반	2002
강승태 기송리3호자기가마터발굴보고 『조선고고연구』 2006-3	기송리 자기가마	발굴보고	2006
강승태 박천군기송리리조자기1호가마터발굴보고 『조선고고연구』 1995-2	기송리 조선 자기가마	발굴	1995
량익룡 철원군내문리고려돌상자무덤에대하여 『문화유산』 1961-5	내분리 석곽묘	발굴	1961
박철진 고려시기의왕궁-대화궁유적에서발굴된쇠기와(유적유물소개) 『민족문화유산』 2008-4	대화궁	일반	2008
송혜성 평양천도를위해건설된고려대화궁(유적유물소개) 『민족문화유산』 2012-1	대화궁	일반	2012
박준호/박철진 대화궁유적에서나온기와막새무늬에대하여 『조선고고연구』 2009-3	대화궁 기와	조사보고	2009
박철진 대화궁유적에서발굴된지붕장식유물(유적유물소개) 『민족문화유산』 2009-1	대화궁 지붕장식	일반	2009
김철진 대화궁유적의회랑터에대한고찰 『조선고고연구』 2008-4	대화궁 회랑터	조사보고	2008
박준호/박철진 대화궁건축에쓰인단위자에대하여 『조선고고연구』 2009-1	대화궁 회랑터	조사보고	2009
리영식 고려의대화궁터유적과만월대유적의관계 『김일성종합대학학보(역사,법률)』 63(1)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17	대화궁, 만월대	조사보고	2017
김인철 대홍사제2문화층시기철유적발굴보고(1) 『조선고고연구』 2013-4	대홍사	발굴보고	2014
김인철 대홍사제2문화층시기철유적발굴보고(2) 『조선고고연구』 2014-3	대홍사	발굴보고	2014
김인철 대홍사제1문화층시기철유적발굴보고 『조선고고연구』 2012-4	대홍사	발굴보고	2012
장철만 개성시천마산일대에서알려진석불상의조각형식과제작시기	대홍사 3석불	조사보고	2016

『조선고고연구』 2016-1			
김인철 대흥사의가람변천 『조선고고연구』 2014-4	대흥사 가람	조사보고	2014
김인철 대흥사유적의건립및폐사년대에대하여 『조선고고연구』 2013-2	대흥사 건립	조사보고	2013
김철만 대흥사유적제3문화층시기절건물들의배치상태에대하여 『조선고고연구』 2012-2	대흥사 건물배치	조사보고	2012
김철만 대흥사제3문화층시기절유적의특징에대하여 『조선고고연구』 2012-3	대흥사 특징	조사보고	2012
김인철 동구릉에대하여 『조선고고연구』 2003-4	동구릉	조사보고	2003
리창진 새로발굴된 《락타교》 유적 『조선고고연구』 2010-1	락타교	조사연구	2010
김정문 락타교주춧돌락타교복원도 『조선고고연구』 2010-1	락타교	조사연구	2010
김인철 고려왕궁-만월대 『조선고고연구』 2016-2	만월대	조사보고	2016
김해일 개성만월대유적에서나온기와유물 『민족문화유산』 2010-4	만월대 기와	일반	2010
김해일 상식만월대에서또다시발견된고려청자기와 『민족문화유산』 2009-4	만월대 청자기와	일반	2009
리창언 만월대의동지에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99-1	만월대 동지	조사보고	1999
리창진/정세성 「만월대서부건축군1지구궁전터들의성격」 『조선고고연구』 2018-1	만월대 서부건축군 궁전터	조사보고	2018
리철준 만월대서부건축군에서나온수기와막새무늬의종류 『조선고고연구』 2017-3	만월대 서부건축군 수기와	조사보고	2017
리철준 만월대기와막새의일반적특징 『조선고고연구』 2017-2	만월대 서부건축군 기와	조사보고	2017
리철진 만월대서부건축군에서발굴된암기와막새의무늬 『조선고고연구』 2014-3	만월대 서부건축군 암기와	조사보고	2014
리철진 만월대기와막새를통하여본고려기와막새의일반적특징(유적유물소개) 『민족문화유산』 2014-3	만월대 기와	일반	2014
미상 개성만월대의못과지하하수도시설물에대한조사발굴보고 『조선고고연구』 1986-3	만월대 못, 하수도	발굴	1986
미상 복구된만월대의옛성터 『민족문화유산』 2003-1	만월대	일반	2003
손수호 고려왕궁만월대에대한북남공동발굴정형과그의의 『조선고고연구』 2016-4	만월대	조사보고	2016
장상렬 만월대장화전건축군의배치와거기에쓴자에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86-4	만월대 장화전	발굴	1986
장상렬 만월대회경전건축군에쓴자에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89-3	만월대	발굴	1989
정세성 「[발굴보고] 새로알려진만월대서부건축군옷문화층4건축지에대하여」 『조선고고연구』 2015-3	만월대 서부건축군	조사보고	2015
정세성 만월대서부건축군1지구옷문화층궁전유적들의평면배치및구조형식 『조선고고연구』 2014-1	만월대 서부건축군	조사보고	2014
정세성 새로발굴된만월대서부건축군1지구옷문화층궁전유물들의일반적특징 『민족문화유산』 2014-1	만월대 서부건축군 궁전유물	조사보고	2014
정세성 안학궁과만월대궁전건축의계승관계(유적유물소개) 『민족문화유산』 2014-4	만월대 궁전건축	일반	2014
정찬영 만월대유적에대하여(1) 『조선고고연구』 1989-1	만월대	발굴	1989
조정철 만월대에서새로발굴된고려의금속활자 『조선고고연구』 2018-2	만월대 금속활자	조사보고	2018
조희승 최근개성만월대서부건축군터에서새로드러난금속활자에대하여(3) 『력사과학』 2018-2	만월대 금속활자(3)	조사보고	2018
조희승 최근개성만월대서부건축군터에서새로드러난금속활자에대하여(1) 『력사과학』 2017-3	만월대 금속활자(1)	조사보고	2017
조희승 최근개성만월대서부건축군터에서새로드러난금속활자에대하여(2) 『력사과학』 2017-4	만월대 금속활자(2)	조사보고	2017
한용걸 만월대주요건물들의배치와그건축적면모에대하여 『조선건축』 1994-2	만월대 건물배치	조사보고	1994

한인호 만월대중심건축군의원터전터발굴보고 『조선고고연구』 1994-3	만월대 원터전	발굴	1994
김동일 고려무덤벽화의별그림에대하여 『조선고고연구』 2014-1	무덤벽화	조사보고	2014
리기웅 박연성거산마애3불상에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97-3	박연리 마애3불상	조사보고	1997
안경일 묘향산보현사8각13층탑의비례구성(유물소개) 『민족문화유산』 2002-2	보현사 8각13층탑	일반	2002
차광혁 묘향산보현사의조계문(유적소개) 『민족문화유산』 2008-1	보현사 조계문	일반	2008
최현아 고려의북방개척을위한축성사업에대하여 『역사과학』 2011-4	북방 축성	연구보고	2011
왕성수 불일사5층석탑안에서나온유물 『고고민속』 1965-4	불일사	발굴유물	1965
한용길 고려불일사의터자리복원에서제기되는몇가지문제 『조선고고연구』 1995-3	불일사	발굴	1995
한용길/문병철 고려불일사의건축연혁에대하여 『역사과학』 1995-3	불일사 건축	조사보고	1995
한용길/문병철 고려불일사총배지형식의역사적경위에대하여 『역사과학』 1997-3	불일사 건물배치	조사보고	1997
리철영 과일군사기리청자기1호가마터발굴보고 『조선고고연구』 2001-2	사기리 청자가마	발굴보고	2001
미상 패엽사,쌍계사터조사보고 『조선고고연구』 1993-2	사찰	조사보고	1991
옥명심 사찰비(유적소개) 『민족문화유산』 2006-3	사찰비	일반	2006
서국태 신의주시상단리의고려집자리 『고고민속』 1966-1	상단리 집자리	발굴	1966
김인철 서구릉에대하여 『조선고고연구』 2004-4	서구릉	조사보고	2004
리창언 고려돌칸흙무덤의몇가지문제 『조선고고연구』 1990-3	석곽묘	조사연구	1990
김인철 고려돌칸흙무덤의류형과변천 『조선고고연구』 2000-4	석곽묘	조사연구	2000
안성규 왕건왕릉에반영된고려돌칸흙무덤의전통 『조선고고연구』 2001-2	석곽묘	조사연구	2001
미상 새로발굴된석왕사일부건물터의현황에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97-2	석왕사	조사보고	1997
김명철 고려성의돌성벽축조형식 『조선고고연구』 1989-2	성곽	조사연구	1989
김영진 봉천군송정리1호자기가마터발굴보고 『조선고고연구』 2002-1	송정리 1호 자기가마	발굴보고	2002
김기웅 안주성과백상루를쌓은시기에대하여 『역사과학』 1982-3	안주성 백상루	조사보고	1982
최진순 압록강하류일대의고려성지의비정에대하여 『역사과학』 1955-5	압록강 고려성지	연구보고	1955
김영진 선천군연봉리기와가마에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90-3	연봉리 기와가마	발굴	1990
미상 새로조사발굴된 《령통사》에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99-4	영통사	조사보고	1999
리창언 령통사의건립과폐사시기 『조선고고연구』 2001-3	영통사	조사연구	2001
허태선 새로복원된개성령통사 『민족문화유산』 2006-2	영통사	일반	2006
백순남 령통사가람의특징 『조선고고연구』 2005-4	영통사 가람	조사보고	2005
리창진 령통사유적에서나온간지명자기의년대에대하여 『조선고고연구』 2002-1	영통사 간지명자기	조사보고	2002
김인철 령통사유적에서드러난반구형무늬기와막새의변천과사용년대에대하여 『조선고고연구』 2008-1	영통사 기와	조사보고	2008
강성수 상식령통사대각국사비 『민족문화유산』 2010-1	영통사 대각국사비	일반	2010
백순남 령통사유적의3문화층에서드러난글자새긴기와막새에대한고찰 『조선고고연구』 2004-4	영통사 명문기와	조사보고	2004
조선중앙통신 개성령통사복원락성식,개성령통사복원기념학술토론회진행 『민족문화유산』 2006-1	영통사 복원 낙성식 토론회	연구보고	2006
백순남 령통사수기와막새의무늬형태에대한고찰 『조선고고연구』 2003-3	영통사 수막새	조사보고	2003
안성규 은혜릉에대하여 『조선고고연구』 2003-1	은혜릉	조사보고	2003
천석근 고려태조왕건의금동좌상(유물소개) 『민족문화유산』 2001-1	왕건 금동좌상	일반	2001
리재홍 위대한태양의손길아래개건된왕건왕릉 『민족문화유산』 2006-1	왕건릉	일반	2006

김인철 왕릉을통하여본고려태조왕건의출신문제 『조선고고연구』 2009-4	왕건릉	연구보고	2009
강삼천 고려태조왕건왕릉의건축형성에대하여 『조선건축』 1996-2	왕건릉 배치 복원	조사보고	1996
주재걸 고려태조왕릉의벽화와 《3우》에대하여 『민족문화유산』 2004-2	왕건릉 벽화	조사보고	2004
김중혁 개성일대의고려왕릉발굴보고(1) 『조선고고연구』 1986-1	왕릉	발굴	1986
김중혁 개성일대의고려왕릉발굴보고(2) 『조선고고연구』 1986-2	왕릉	발굴	1986
왕성수 개성일대고려왕릉에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90-2	왕릉	조사연구	1989
김인철 고려전기왕릉의피장자에대한간단한고찰 『조선고고연구』 2006-4	왕릉	조사보고	2006
김인철 개성리릉홍동1호돌칸흙무덤발굴보고 『조선고고연구』 2014-1	용홍동 1호 석곽묘	발굴보고	2014
미상 개성시릉홍동1호돌칸흙무덤의축조년대 『조선고고연구』 2015-1	용홍동 1호 석곽묘	조사보고	2015
미상 개성시릉홍동1호돌칸흙무덤의등급과피장자 『조선고고연구』 2015-2	용홍동 1호 석곽묘	조사보고	2015
러기웅 력사문화유적 - 룡흥사(유적유물소개) 『민족문화유산』 2008-4	룡흥사	일반	2008
김영진 황해남도봉천군원산리청자기가마터발굴간략보고 『조선고고연구』 1991-2	원산리 청자가마	발굴	1991
리윤철 원산리가마터의14C년대측정결과와그해석 『조선고고연구』 1998-3	원산리 청자가마	조사보고	1998
미상 왕건왕릉(고려태조현릉)이발굴되었다 『조선고고연구』 1993-2	일반	일반	1993
최동선/김영옥 장안사의총배치와복원 『조선건축』 1997-1	장안사 배치	조사보고	1997
허철준 장안사와석왕사의대웅전건축에쓰인자에대하여 『조선건축』 1992-3	장안사, 석왕사 대웅전	조사보고	1992
김인철/박동명 개성시삼거리적조골5층돌탑조사보고 『조선고고연구』 2016-1	적조골 5층석탑	조사보고	2016
리인동 정릉사중심건축군중평면고찰에서제기되는몇가지문제 『조선고고연구』 2002-3	정릉사	조사보고	2002
미상 정릉사터에서새로알려진주목되는기와 『조선고고연구』 2003-4	정릉사 기와	조사보고	2003
김인철/박동명 제릉조사보고 『조선고고연구』 2015-2	제릉	조사보고	2915
리광휘 조선기와(1) 『민족문화유산』 2009-3	조선 기와(1)	일반	2009
리영남 조선봉건왕조시기무덤의특징 『조선고고연구』 2015-2	조선 분묘	조사보고	2015
리영남 조선봉건왕조시기왕릉의류형과변천 『조선고고연구』 2015-2	조선 왕릉	조사보고	2015
리광휘 조선기와(2) 『민족문화유산』 2009-4	조선기와(2)	일반	2009
최희림 천리장성의축성정위와그위치에대하여 『역사과학』 1983-4	천리장성	연구보고	1983
최희림 천리장성의축성상특징과그군사적거점인진성에대하여(1) 『역사과학』 1986-3	천리장성(1)	연구보고	1986
최희림 천리장성의축성상특징과그군사적거점인진성에대하여(2) 『역사과학』 1986-4	천리장성(1)	연구보고	1986
김정문 개성에서새로발굴된 《취적교》 유적 『조선고고연구』 2008-1	취적교	조사보고	2008
김명철 유적발굴소식으로발굴된고려시기의돌다리 《취적교》 『민족문화유산』 2008-2	취적교	일반	2008
김인철 《취적교》 유적발굴보고 『조선고고연구』 2008-4	취적교	발굴보고	2009
김영진 태성1호도자가마터 『조선고고연구』 2003-1	태성 1호 자기가마	조사보고	2003
조희승 평양기린굴을통해본고려사람들의고구려계승인식 『역사과학』 2013-3	평양 기린굴	연구보고	2013
안병찬 새로발굴된평양성에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98-3	평양성	조사보고	1998
손수호/김광혁 평양성외성발굴보고(1) 『조선고고연구』 2016-1	평양성 외성	발굴보고	2016
묘향산력사박물관 다라니석당발굴보고 『조선고고연구』 1987-4	해주 다라니당	발굴	1987
윤상빈 다라니석당(유적소개) 『민족문화유산』 2006-4	해주 다라니당	일반	2006
김창길 현화사비에대하여 『역사과학』 1996-4	현화사비	연구보고	1996
황선희 력사유적 - 현화사비(유적소개) 『민족문화유산』 2007-4	현화사비	일반	2007
미상 호경과관련된바위굴과제단유적 『민족문화유산』 2012-1	호경 바위굴 제단	조사보고	2012

오장환 홍화진의위치의재검토 『역사과학』 1956-2	홍화진 위치	연구보고	1956
강승태 화천2동1호자기가마터발굴보고 『조선고고연구』 2005-1	화천2동 1호 자기가마	발굴보고	2005
강승태 화천로동자구화천2동(송진동)자기가마터발굴보고 『조선고고연구』 2000-2	화천2동 자기가마	발굴보고	2000
강승태 화천2동2호자기가마터발굴보고 『조선고고연구』 2004-3	화천2동 자기가마	발굴보고	2004
강승태 새로발굴된화천2동3호자기가마터에대하여 『조선고고연구』 2007-3	화천2동 자기가마	조사보고	2007
강승태 화천2동(꾸박골)리조자기가마터에대하여 『조선고고연구』 2001-4	화천2동 조선 자기가마	조사보고	2002
리창진/송광일 홍왕사유적조사보고 『조선고고연구』 2012-3	홍왕사	조사보고	2012
박운원 홍화진, 무로대및덕령성의위치에관하여 『역사과학』 1958-1	홍화진, 무로대	연구보고	1958
최희림 홍화진성의위치와축조형식및시기에대한연구 『역사과학』 1982-4	홍화진성	연구보고	1982

〈표 7〉 북한의 고려시대 유적 연구 성과

앞의 <표 7>의 발굴 조사 성과들은 단행본으로도 출간되었다. 14종이 출간되었는데, 남쪽 출판사에 의해서 재발간된 것도 있다. 개인 이름의 출판물이 2002년부터 등장한다는 점도 특징이다.

저자	제목	연도
리병선	『황해남도고려자기가마터발굴보고』 고고학자료집:각지유적정리보고3	1963
	문화성물질문화유물보존사업소, 『우리나라주요유적』 군중문화출판사.	1963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조선유적유물도감(11)고려편(2)』 외국문종합출판사	1992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조선유적유물도감(20)색인』 외국문종합출판사	1996
김인철	『고려무덤발굴보고』 사회과학출판사(백산자료원, 2003)	2002
리창원	『고려유적연구』 사회과학출판사(백산자료원, 2003)	2002
리창원	『조선사회과학학술집26(고고학편)고려유적연구』 사회과학출판사(백산자료원, 2003)	2002
전룡철/김진석	『개성의옛자취를더듬어』 문학예술출판사	2002
	사회과학원고고학연구소 · 일본다이쇼대학, 『영통사유적발굴보고』	2002
	사회과학원고고학연구소 『조선고고학전서』 (진인진, 2009)	2009
	사회과학원고고학연구소, 『조선고고학전서47(중세편24)고려의무덤』 (진인진, 2009)	2009
김인철	『고려왕릉연구』 조선사회과학학술집50(고고학편) 사회과학출판사	2010
조대일	『조선의 유적유물』 외국문출판사	2013
천태종	『개성 영통사 복원기념 학술토론회자료집』	2005
	북한민족유산보호지도국,프랑스국립극동연구원 2010년~2012년 개성성 발굴 기념 2014년9월15일'개성성공동조사발굴전시회'	2014
	남북역사학자협의회 『개성만월대』 발굴 유물 서울 · 개성공동전시회와 학술회의	2015

〈표 8〉 북한의 고려 유적, 유물 관련 단행본

북한의 고려시대 발굴조사를 통해 얻어진 정보를 통해 이루어진 남한의 연구 성과는 24건이다. 대부분 개성 만월대 발굴 성과를 이용한 것이 대부분이다. 만월대 관련 연구는 대부분 발굴에 참여한 연구자의 글이다. 발굴조사 보고서나 도록 역시도 만월대 발굴을 주관한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출판을 주도한 것이다.

또한 일본인 타다시 사이토(齋藤忠)는 영통사 발굴에 관여하면서 당시 새로이 알려진 대각국사의친의 묘역에 대해 주목하기도 했다.¹⁸⁾

齋藤忠 「開城市靈通寺跡の大覺國師碑の現状について - 付 大覺國師の墓域の新發見 -」 『朝鮮學報』 176・177 朝鮮學會	2000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개성공업지구, 1단계 문화유적 남·북 공동조사보고서』	2005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문화유산발굴조사단 『금강산 신계사 2차(답지·만세루지)문화유적 발굴조사』	2005
梁正錫, 高麗 宮闕 正殿廊의 構造와 意味 - 安鶴宮 南宮 正殿廊과의 比較를 중심으로 - 釜大史學 第三十輯 - 石軒 鄭澄元教授 停年紀念論叢 釜山大學校史學會	2006
한국토지공사토지박물관·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개성공업지구, 2단계 남북공동 문화유적지표조사 보고서』	2008
국립문화재연구소 『개성 고려궁성 시굴조사보고서』	2008
국립문화재연구소 『개성 고려궁성』	2008
국립문화재연구소 『개성 고려궁성 남북공동 발굴조사보고서』 I	2009
김철웅 고려 경령전의 설치와 운영 『정신문화연구』 114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장동익 「고려시대의 景靈殿」 『歷史教育論集』 43 역사교육학회	2009
국립문화재연구소 『개성 고려궁성 남북공동 발굴조사보고서』 II	2012
불교문화재연구소 『금강산 신계사 :3-6차 발굴조사』 불교문화재연구소	2012
남창근 고려 本闕 景靈殿 一郭의 성격과 建築遺構를 통한 복원 청주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박사학위논문】	2012
홍영의 「고려 궁궐내 景靈殿의 구조와 운용」 『한국학논총』 37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2
홍영의, 「개성의 남겨진 문화유적과 현황」 『개성의 문화유적』, 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홍영의 『개성 고려궁성 출토 명문기와의 유형과 요장(窯場)』 개성 고려궁성 남북발굴조사보고서 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국립문화재연구소 『개성의 문화유적』	2013
강화고려역사재단 『두 개의 수도, 하나의 마음』	2014
대한불교조계종 『金剛山 神溪寺 : 신계사지 지표조사 보고서』	2015
문광선 『세계문화유산 개성』 > 역사인	2016
이준광 「개성 靈通寺址 출토 청자 연구」 『韓國中世考古學』 4 한국중세고고학회	2018
국가편찬위원회 고려건국 천백주년기념 『개성의 역사와 유적』	2019
南權熙 「고려 금속활자에 대한 중국과 북한학자들의 최근 연구, 동향」 『書誌學研究』 77 韓國書誌學會	2019
박지영 「고려궁성 출토 명문 기호 청자 고찰」 『文化財』 84 국립문화재연구소	2019

〈표 9〉 남한의 북한의 고려시대 발굴 성과 논문 및 개경 관련 도록

- 18) 영통사지 발굴은 북한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와 일본 다이쇼(大正)대학이 1997년 가을에 현지 조사를 하고, 1998년과 1999년 2년에 걸쳐 공동 발굴이 진행되었다. 1995년에 일본의 고고학자 사이토 타다시(齋藤忠) 박사가 북한의 초청으로 개성을 방문하여 고려시대 불교유적을 답사하고 북한의 고려시대 불교 사원지(寺院址)에 대한 공동발굴을 제안 받아 추진되었다. 이어서 1996년 5월에는 발굴조사 타진을 위해 일본 다이쇼대학 오타 슈산(大田秀三) 이사장 일행이 북한을 방문하였고 개성지역 10개 사찰 대상의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다이쇼대학 창립 70주년 기념 학술연구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여 복측과 발굴조사가 구체화되었다. 1997년 10월 다이쇼 대학측의 두 번째 방문에서 북측은 개성지역의 안화사, 영통사, 광통사, 관음사의 4개 사원 유적에 대한 조사를 제안하였으며 일본 다이쇼대학과 북한 사회과학원의 협의과정에서 최우선적인 조사대상으로 영통사를 선택하였다. 그 후 여러 차례의 협의과정을 거쳐, 1998년 5월 4일 일본 다이쇼대학은 북한 고고학연구소 한인호 소장과 영통사지의 발굴조사에 관한 합의를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이
- 大正大學綜合仏教研究所編・2005, 『靈通寺跡-開城市所在』 研究編・図版編, 大正大學出版會

5. 나가며

현재 필자가 조사 정리한 북한의 발굴 조사는 대략 85건이었다. 그러나 실제 유적은 60개의 지역이다. 그것도 60%가 대부분 개성 일대에서 이루어진 발굴 유적이다(36개). 85건 중 90년대 23건(영통사 중심), 2000년대 이후 35건(만월대, 신계사) 등 58건으로 70%에 이른다. 개성지역의 90년대 이후부터 진행된 세계유산 등재와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와 관련된 연구성과는 모두 166건에 이른다. 이 역시 대부분 개성 유적에 대한 발굴보고, 조사보고 형태의 것이며, 일반 연구 논문인 경우도 있다.

우리는 해방 이후 장기간의 냉전체제를 거치면서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북한문화재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정보조차 파악이 어려웠다. 북한문화재에 대한 연구는 일제 강점기 일인 학자들에 의해 조사된 자료나 제3국을 통해 간헐적으로 입수된 북한 자료를 통해 단편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전문 연구자조차도 북한문화재의 실견은 감히 엄두조차 낼 수 없었다.

특히 해방 이후 새롭게 조사된 유적과 유물의 정보는 북한에서 출판된 간행물 속의 서술이나 희미한 흑백 사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금단의 영역이었다. 실물 자료에 대한 접근 자체가 불가능했던 만큼 대중 뿐 아니라 전문 연구자들 모두 실물 자료에 대한 갈급증(渴急症)이 있어 왔다. 컬러사진으로 북한문화재를 제대로 접할 수 있었던 것은 1988 ~ 96년 발간된 『조선유적유물도감』 20권(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편, 외국문종합출판사)이었으며, 일본에서 출간된 도록에 간간히 등장하는 소수의 컬러 도판이 중요한 연구 자료로 이용되었다. 북한의 대표 박물관인 조선중앙력사 박물관을 소개한 도록이 2008년 남한에서 출간되어, 소장품의 대체적인 윤곽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¹⁹⁾

문화유산 분야의 남북 교류는 1990년대 초반 학술토론회를 시작으로, 후반에는 언론사의 기획취재, 유물전시회, 북한 문화재 안내서 발간 등으로 이어졌고, 2000년대 초반에는 약탈 문화재 반환, 사진 편찬, 세계유산 등재 협력 사업으로 발전하였다. 특히 2004년부터 실시된 북한의 역사유적에 대한 남북공동발굴조사는 이전의 여타 사업에 비해 한 단계 진전된 형태로 사업의 영역이 확대되었다고 평가된다.

한편, 금강산 신계사 남북공동발굴조사(2004)는 남북 간 최초의 고고 분야 교류 사업의 시작이

19) 사실, 이를 해소하는 계기가 된 것이 2002년 이후 이루어지기 시작한 북한문화재의 전시회였다고 할 수 있다.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을 계기로 실제적인 남북교류협력이 이루어지면서였다. 2005년에는 고려대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으로 고려대학교박물관에서 대여 전시한 「한국 고대의 Global Pride, 고구려」와 서울역사박물관의 「대륙의 꿈 고구려 특별전」이 개최된 것은 그 결과물이었다. 북한 문화재의 대여 전시가 물꼬를 트는 시기에는 ‘고구려’가 전시 주제로 선호되었다. 고구려는 남북 간 역사 인식의 차이가 비교적 적어서 상호 공유가 용이하였으며, 고구려 고분벽화나 고구려 유물은 역사지리적인 문제 때문에 남한에서는 그간 접하기 힘들었던 희소성이 있었고, 만주 대륙의 웅혼한 기상을 자랑하는 고구려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고구려 관련 전시회는 남북 간 문화재 교류의 단초를 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이러한 노력과 성과에 힘입어 2006년 6 ~ 10월 국립중앙박물관의 특별전 「평양에서 온 국보들-북녘의 문화유산」 전시도 가능하게 되었다.

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교류 협력의 성과는 그해 6월 개성공업지구 내 문화유적에 대한 남북공동발굴조사로 이어졌고, 이후 2005~2006년에는 평양일대의 고구려 유적과 안학궁에 대한 남북공동발굴조사가 추진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남북공동 문화재 조사(2004)는 공단 조성 전 조성부지 내 매장문화재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로 한국토지박물관의 주도로 북한의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실시하였다.

평양 안학궁 남북공동 발굴조사(2006)는 고구려연구재단과 김일성종합대학 등이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안학궁의 성벽 및 건물지에 대한 시굴조사와 관련 유물을 검토하였다. 2007년~2018년에는 개성 일대 문화유적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고려궁성에 대한 발굴 및 복구 사업을 총 8회에 걸쳐 추진하였다. 이 사업은 남북역사학자협의회와 민족화해협의회 주관으로 국립문화재연구소와 조선중앙역사박물관이 공동으로 추진하였다. 이 사업은 2013년 6월 ‘개성 역사유적지구’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성과를 이끌어내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만월대에 대한 남북 공동 긴급 발굴조사와 출토유물 보존관리 사업, 유적 안전 진단 및 수해 피해 유적 복구 보존사업 등이 매년 이루어졌다. ‘남북역사학자협의회’와 북한의 ‘민화협’이 주최한 행사로 남측의 국립문화재연구소 발굴조사단이 매년 몇 개월(최장 180일) 동안 북한 지역에 상주하면서 이루어진 사업이라는 측면이 무엇보다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5·24조치에도 불구하고 2014년 7월 22일~8월 16일까지 제6차 조사, 2015년 6월 1일~11월 30일까지 제7차 조사가 진행되었다.²⁰⁾ 또 광복 70년을 맞아 10월 13일부터 고려 왕궁터인 『개성 만월대』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발굴한 유물의 서울·개성 공동 전시회와 학술회의가 개최되었다.²¹⁾ 이 행사는 ‘남북 공동 발굴유물’에 대한 최초의 전시일 뿐만 아니라 ‘남북이 동시에 개최’하는 최초의 전시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은 남북 공동 발굴조사는 분단 이후 남북 학자와 전문가들이 ‘문화유적’이라는 동일 대상을 중심으로 장기간에 걸친 조사와 연구를 함께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남북 교류 및 관련 분야의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된다. 또한 1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각기 다른 성격의 조사 기관들이 다양한 유적에 대해 많은 경험을 축적할 수 있었고, 한편으로 모든 사업이 북한 땅에서 장기간 추진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북한연구자들과 다양한 학술적 논의를 진행할 수 있었다는

20) 남북역사학자협의회와 국립문화재연구소 공동 주최로 2007년 5월 15일부터 7월 13일까지 개성 만월대 터를 대상으로 발굴조사가 시작되었다. 이 때 회경전 서편지역 전역(30,000㎡)에 대한 시굴, 20여동에 이르는 건물지, 축대·배수로·석교 등의 존재가 확인되었다. 이 발굴 조사를 통해 회경전 서편지역 건물지 배치 상황과 고려궁성의 구조를 복원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수집하였고, 114점에 이르는 명문기 등 다양한 유물을 수습하였다. 조사 결과는 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개성 고려궁성 - 시굴조사보고서』로 출판되었다. 이후 2~7차(2015년)에 걸친 성과는 『개성 고려궁성』 2009 ; 『개성 고려궁성 남북공동 발굴조사보고서』 2012 : 『개성 고려궁성 남북공동 발굴조사보고서』 II 2015 등으로 정리되었다. 2018년 9월 27일부터 제 8차 공동발굴을 재개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북측에서 발굴인력 준비 부족 등 행정적인 이유로 연기되었다가 10월 22일부터 12월 27일까지 진행되었다.

21) 서울 전시는 10월 13일부터 11월 6일까지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개성 전시는 10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고려 성균관에서 진행되었다. 전시 첫날인 15일에는 개성 만월대 발굴조사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학술 회의가 열렸다.

점에서 의미있는 교류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한국 역사학계의 중세사 연구 역시 사료의 부족을 절감하고 새로운 자료의 탐색을 통한 다양한 연구방법론의 확장을 꾀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환경의 변화의 계기는 1990년대 말부터 이루어진 고고학 발굴 성과를 고려와 조선시대 연구에 활용되면서 비롯되었다. 특히 1990년대부터 개발에 앞서 유적조사가 제도적으로 정착되면서 발굴기관의 수적 증가와 함께 대규모 개발지에서 고려 이후 시기의 유적들이 속속 드러나면서였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 개성 공단, 강화 고려왕릉, 개성 만월대 유적, 서울 4대문내의 개발 사업지구에서 고려와 조선시대의 생활사와 문화상을 말해주는 유적과 유구가 발굴되면서 한국 중세사 연구에서 발굴성과의 활용이라는 측면이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1990년 후반부터 시작된 생활사에 대한 관심 역시 그러한 연구와 발굴성과에 힘입어 이루어진 것이다.

그 결과로 중세역사학과 고고학의 학제적 결합을 주창하는가 하면 중세고고학에 관심을 둔 발굴 연구자의 수도 증가하였다. 이는 부족한 사료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연구방법론의 탐색, 나아가 생활사 영역에 대한 유물·유적의 활용과 복원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서 찾아진 결과였다.

이제 우리 학계는 북한의 중세고고학 발굴 성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록 우리와 다른 보고서 체계와 간략보고 형식일지라도 북한의 고려시대 발굴 성과가 무엇인지는 인지할 필요가 있다. 2013년 6월에는 평양중앙발굴팀과 프랑스·캄보디아 학자들로 구성된 연합발굴팀이 20여일에 걸쳐 개성지역에 대한 발굴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인터뷰에 응한 개성시 문화재 당국의 관계자는 향후 세계 각국이 개성지역에 대한 발굴조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적이 있었다.

이러한 언급은 분명 남한과의 교류 협력의 단절이 가져온 폐해로 단순히 북한문화유산에 대한 주변국들의 관심 증가 때문이라고 치부해 버리기엔 석연치 않다. 지난 기간 동안의 남북관계 단절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을 외국 학자들의 손에 내맡기는 어리석음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조만간 남북 관계는 분명 개선될 것이다. 이에 따라 여러 분야의 교류 협력 사업이 추진될 것이며, 문화유산 분야가 그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때를 대비하여 차분히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점검해 각 사업주체 간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해 나가야 한다. 우리는 북한을 잘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의외로 북한을 잘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 문화유산 분야도 마찬가지이다. 2019년 1월에 개정된 북한의 ‘문화유산보호법’조차 우리는 전문을 보지 못한 채 그들의 정부 기관지인 『민주조선』을 통해 발표된 일부 조문의 해설만을 접하고 있다. 어쩌면 남북 간의 진정한 교류협력은 지금부터인지도 모른다. 때문에 북한의 고려시대 유적의 발굴조사 성과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개성 고려 궁성에서 발굴 수습된 유물 가운데, 몇몇은 아직 그 성격조차 정확히 파악되지 못한 것들이 있다. 유구의 건물명 뿐만 아니라 시기, 나아가 이형 원형(異形圓形) 청자(높이 65cm, 지름은 22cm)와 금속활자의 경우는 그 용도조차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은 관련 전공자의 지속적인 교류뿐만 아니라 자료의 해석을 위해 남과 북이 함께 모여 활발한 토론이 있어야겠다.

국립문화재연구소-한국고고학회 공동학술대회

분단 70년 북한 고고학의 현주소

주 최 | 국립문화재연구소 · 한국고고학회

원 고 | 이형우 전북대학교
소상영 충청문화재연구원
이기성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박장호 영남대학교
강현숙 동국대학교
이성준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윤상덕 국립중앙박물관
홍영의 국민대학교

북한 구석기 연구의 안과 밖
신석기시대 농경과 문명의 기원
북한 청동기시대 고고학 연구 경향의 변화와 쟁점
북한 학계의 고조선 및 낙랑 고고학 연구동향
북한의 고구려, 발해 고고학 연구 성과와 과제
북한 학계의 백제 역사인식
북한의 신라·가야, 통일신라 고고학 연구현황
북한의 중세 고고학 발굴 현황과 연구 성과

총 괄 | 이주현 국립문화재연구소
이청규 영남대학교

기 획 | 강동석 국립문화재연구소
최종택 고려대학교

편 집 | 홍밖음 국립문화재연구소
나선민 국립문화재연구소

발행일 | 2019년 9월 19일

발행처 | 국립문화재연구소 고고연구실
(34122)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132
Tel. 042-860-9182 Fax 042-861-4924

홈페이지 | www.nrich.go.kr

인 쇄 | 칸디자인뱅크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117번길 83 드림B 302호
Tel. 042-826-0291

©국립문화재연구소

이 책의 저작권은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실린 글과 내용 등을 포함한 제반사항에 대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ISBN 978-89-299-1610-7 93910

분단
70년
북한
고고학의
현주소

